숨겨진 진실

탐욕의 마왕 록펠러와
비과세 지주회사 록펠러재단의 실체를 밝히고,
그 기업이 추진하는
담배공포와 에이즈공포의 실체를 파헤치다.

만들어낸 공포는
무엇을 감추려 했을까?

숨겨진 사실이 드러날 때
그들은 음모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실”이라고 한다.

허현회 지음

차례

시작하면서

나는 2000년 중반부터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느끼면서 그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많은 책을 읽으며 요약하고, 국내외 신문과 잡지들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유전자조작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자료를 수집하면 할수록 유전자조작의 중심배후가 록펠러재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에게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합성화학물질의 중심에도 록펠러재단이 있음을 알게 됐다. 담배공포와 에이즈공포를 만들어낸 중심에도, 식량을 장악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아의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중심에도, 과학적인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아 수많은 약물 부작용의 희생자를 양산해내는 중심에도, 화학물질로 범벅을 하는 가공식품의 중심에도 역시 록펠러재단은 늘 아나콘다같이 숨어있었다.

이에, 현대사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악할 만한 현상들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하고 그 시작으로 록펠러재단을 다루기로 했다. 그리고 록펠러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재단을 만든 록펠러1세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너무도 다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 록펠러라는 인물이 단지 80년 전에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일 뿐이라며 진실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사고는 정말 위험하다. 그의 너무도 추악한 행동들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호 가문인 '록펠러가문'으로 그대로 이어지며 지하정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도 전 인류를 상대로 유전자조작식품, 화학물질, 불완전한 의약품, 핵 방사능 등으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

그 가문은 세계 최대의 비과세 지주회사인 '록펠러재단'을 비롯해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 등 수십 개의 산하 재단으로 존재한다. 현재 이 재단은 어떤 방향으로도 투기할 수 있고, 아무리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 해도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록펠러재단이라는 비과세 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주회사는 전 세계의 언론산업, 교육산업, 석유산업, 무기산업, 핵산업, 화학산업, 식량산업, 의료산업, 항공산업, 컴퓨터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사실 60년간 전 세계 주류 과학자와 주류 언론을 통해 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던 소위 '담배공포'는 록펠러재단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가리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했던 음모였다. '에이즈공포'도 규제완화라는 유령과 광우병, 아스파탐, 약물 부작용, 방사능 등을 가리기 위한 음모였다. WTO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체제나 아프리카의 끝없는 내전과 기아 상태,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에서의 전쟁, 계속되는 약물 중독, 2009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돼지독감의 조작 등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록펠러재단이 존재한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록펠러가문에 대해 호의적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성실, 창의, 기독교 신앙과 검소함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떠나기 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인물로 흔히 그를 뽑을 정도로.

이런 인물에 대해 우리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교회 헌금을 잘 하라.'는 것이었고, 록펠러 역시 자녀들에게 똑 같은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교회가 활용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소재를 남긴 것이다. 때문에 록펠러에 대해서는 교회 설교를 통해 가장 많이 소개됐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첨언하는 것은 '헌금'이었다. 헌금과 연결해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록펠러를 신화 속의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다. 록펠러가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은 "성공을 위해서는 선을 포기하라(Don't be afraid to give up the good to go for the great)."였다.

둘째, 전 세계의 언론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장악한 록펠러재단의 선전에 우리가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통일벼'는 록펠러재단이 석유를 마시게 하려는 미끼였지만 주류언론과 주류학자들에 의해 '녹색혁명'이라는 신화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에 대한 끝없는 선망이다. 이는 미국의 청교도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부의 축적'을 사회의 최고 미덕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리학적 현상의 하나다. 때문에 미국문화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갑부의 대열에 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록펠러 관련 사실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설이다. 역사와 인물에 대한 왜곡과정이 소설로 탈바꿈된 것이다. 레오폴드 폰 랑케는 이념, 신념, 철학이나 종교에 의해 왜곡되는 역사를 거부하고 정확한 사료를 토대로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진실로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라고 했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있다.

제Ⅰ부의 1장과 2장에서는 비과세 지주회사인 '록펠러재단'을 설립한 록펠러1세의 삶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미국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다룬다. 3장과 4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적한 그의 부를 세금으로부터 어떻게 숨길 수 있었고 또 재단 설립 후 그토록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현재 세계를 주무르는 지하정부인 록펠러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현재의 운영을 다룬다.

제Ⅱ부의 1장과 2장에서는 록펠러1세와 그의 아들인 록펠러2세, 그의 손자인 넬슨 록펠러 등의 임금착취와 인간학살 사건을 통해 그 가문의 풍조가 노동자, 흑인 등에 대해 얼마나 인간성을 하찮게 취급하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런 가문의 풍조로 인해 인간을 얼마나 쉽게 실험대상으로 삼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4장의 '맬서스의 망상' 편에서는 맬서스 스스로도 철회하고,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기각된 인구론을 록펠러재단이 왜 끌어내어 정통학문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지를 다룬다.

제Ⅲ부에서는 1950년대부터 록펠러재단이 주류과학자들을 동원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각종 암을 포함한 질병의 원인인 화학물질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담배로 돌리는 과정을 다룬다. 화학업계는 대부분 록펠러재단이 장악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라는 주류의사, 주류과학자들이 돈에 매수돼 의학적(과학적) 진실마저도 왜곡시키는 추한 모습들을 공개한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화학물질에 곁들여 광우병, 유전자조작, 방사선처리, 식품첨가제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감추기 위해 상상의 전염병인 에이즈공포를 조작해내는 과정을 다룬다. 에이즈공포는 전 세계의 죄 없는 수 백 만 명의 흑인과 동성애자들을 갈취하면서 죽였던 가장 최근의 집단학살극이었다.

제Ⅳ부에서는 종자와 농경법을 장악함으로 록펠러재단의 전략상품인 석유와 유전자조작작물 없이는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식량을 장악해 가는 과정과 그 부작용을 다룬다. '녹색혁명'이란 미명 아래 생태계는 곪아가고, 인류는 유전자조작작물로 생체실험을 당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녹색혁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실패한 녹색혁명으로 록펠러재단의 부와 권력은 한층 더 높아졌다. 이에 대해 양심적인 비주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자 이제는 유전자조작작물로 다시 제2의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핵심인 유전자가 조작된 생명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음식이다. 수선화 유전자가 들어있는 쌀이나 크릴새우의 유전자가 들어 있는 연어는 모양만 쌀과 연어를 닮았을 뿐이지 쌀과 연어가 아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이 같은 모든 과정과 결과는 록펠러가문의 청지기인 키신저의 말로 대변된다. "석유를 장악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식량을 장악하면 인류를 지배할 수 있다." 그는 지구를 석유로 덮은 공로로 볼로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듯이, 록펠러가문을 키워준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더욱 당혹스러운 수상 이유는 베트남전에서 평화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나는 10대 초반부터 극심한 비염알레르기, 어깨 결림(소위 오십견), 오줌소태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심한 콧물과 재채기, 눈의 가려움, 눈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책상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어깨 통증이 심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오줌소태 증상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런 만성병으로 30년 넘게 고생을 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코 수술도 하고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 등 의학적인 조치를 다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나와 같은 질병의 근본원인이 화학물질에 의한 면역력 저하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일체의 합성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서구식 의약품, 가공식품, 우유 등을 중단하고 채식위주의 식단을 꾸리고 식사량을 줄였다. 채소나 과일 등에도 비료, 살충제, 제초제,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물론 약이나 가공식품, 우유, 육류 보다는 적다) 소식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에는 어깨 결림이나 오줌소태는 완전히 사라졌고, 비염증상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심한 증상은 5월 한 달 정도만 나타난다. 아마도 1~2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또한 서구식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 등 퇴행성 질환도 채식위주의 자연식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면서 자료와 문장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나의 아내 하명일에게 감사를 표한다.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 I 부. 탐욕의 마왕, 록펠러왕국

1장. 피라미드.

진솔한 고백

> "우리는 상업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거둬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렸지만 대중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악하고 냉혹하며 포악하고 잔인한 모든 것의 대명사로 인용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난의 눈길과 경멸의 손가락질을 보냅니다. 우리를 추켜세우는 호의적인 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단지 우리의 돈을 보고 그러는 것뿐이며,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면 우리는 더욱 더 가혹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명예롭게 사업하기를 갈망했던 저로서는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
> 부인과도 상의해 보십시오. 그 분은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분입니다. 여론이 바뀌어 남편이 대중의 존경과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온 세상이 기뻐할 것입니다."

존 D. 록펠러의 측근이자 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G. 워든이 1887년 5월 24일에 록펠러에게 쓴 편지다.1 록펠러가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하여 온갖 폭력, 사기, 협박, 방화, 뇌물, 산업 스파이, 가격조작 등으로 미국의 사업계를 휘저으며, 20년 만에 미국 전체의 95% 이상의 석유를 장악한 상황에서 쓴 편지였다.

록펠러의 초기 시절

존 D. 록펠러는 1839년에 뉴욕 주 리치퍼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세운 초등학교와 오웨고 중학교를 거쳐 클리블랜드의 명문 학교인 센트럴 고등학교에 다녔다. 클리블랜드는 그가 열네 살부터 살기 시작하여 고향으로 삼은 곳이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나가게 되자,록펠러는 돈을 벌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1855년 졸업을 며칠 남겨두고 학교를 중퇴한 후에 록펠러는 졸업을 며칠 남기고 중퇴한 후 취업준비생을 위한 3개월 과정인 E. G. 폴섬 경영전문대학에 입학한다. 당시 미국에는 경영대학이 아직 개설되기 이전이었고, 폴섬 전문과정과 같은 3개월 코스는 오늘날 경영대학의 MBA과정이었다. 2

록펠러는 폴섬상업전문학교에서 주산, 경리, 회계업무, 은행업무, 회사법 등의 과정을 마치고 「휴이트 앤드 터틀 사」에 경리사원으로 취직한다. 남북전쟁(1861~1865년) 이전에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단일 서비스나 단일상품으로 사업영역을 제한했다. 그러나 휴이트사는 곡물과 여타 상품에 대해 위탁판매와 수송을 맡는 일종의 종합회사였다.

록펠러는 경리사원으로 취직되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곳에서 처음 받은 월급은 15달러였지만 그의 치밀함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다음 해부터는 월 25달러로 인상된다.3 록펠러가 그의 생애에 첫 사업으로 잡은 것도 이 회사와 비슷한 잡화위탁업이었고, 이후 석유업계에 뛰어들어서도 채굴이 아닌 정유업을 선택한 것도 이 회사에서 터득한 장사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록펠러를 미화시키려는 사람들은 록펠러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상태에서 오로지 성실함과 창의적인 기업 마인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의해 부를 거

머쥔 것으로 묘사한다. 4 당시 미국에서 몇몇 백만장자는 무일푼에서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1870년대 섬유, 철강, 기차, 선박, 석유 등 기업의 중역 303명의 출신계급에 대한 한 연구를 보면 90퍼센트가 중간계급 이상 집안 출신이었다. 호레이쇼 앨저의「거지에서 부자로」라는 신화는 사회 통제에 유용한 미국판 신화일 뿐이다.5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원형이다.

록펠러를 포함한 당시의 사업가들은 전기 작가들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선견지명과 성실함을 선전했다. 카네기는 미국의 사업가들을 이렇게 미화했다. “모두 가난한 소년들이었지만 빈곤을 통해 배웠다. 그들은 오로지 정직함과 성실함, 믿음으로 오늘의 부를 만들어냈다”고. 록펠러 역시 말년에 “나처럼 가진 것 없이 시작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나는 오로지 성실과 집념으로 부를 쌓았지요.”라며 늘 자신을 포장했다. 6

입사 후 3년이 되는 1858년, 그는 600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연봉을 8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700달러를 제의하자 회사를 그만둔다. 경기가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때였다. 그는 같은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모리스 클라크와 함께 1858년 4월 1일에 자본금 4,000달러로 「클라크 앤드 록펠러」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잡화사업을 시작했다. 자본금의 반을 내기로 한 그는 아버지 윌리엄이 건네준 1,000달러와 어머니가 상속받은 든든한 유산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임금의 많은 부분을 투자해 철도주식을 사들인 상태여서 자금에는 여유가 있었다.7 이후로도 그는 운용자금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 윌리엄에게 요청했고, 이중살림을 하지만 늘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아버지는 그때마다 자금을 지원해준다.

도금시대의 시작

록펠러가 사업을 시작하기 1년 전인 1857년은 미국이 불황의 늪에 허덕이던 시기였다. 1848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금광을 개발하고, 유럽에서의 크림전쟁(1853~1856년)의 여파로 미국은 농산물 수출국의 입지를 탄탄히 굳혀갔다. 이 시기는 미국인들이 호황기에 일확천금의 탐욕으로 모두들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 철도, 광산, 공업과 관련한 주식과 부동산에 쏟아 붓던 광기의 끝이었다. 크림전쟁이 끝나자 농산물 수출이 줄어들고, 투기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인들은 담보로 잡혔던 집과 농장을 빼앗긴 채 거리를 헤맸고, 원주민들에 대한 약탈은 극에 달했다. 당시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공황은 전적으로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화폐 및 은행 대출 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과도 같은 주식 투기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8

록펠러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후인 1861년에 터진 남북전쟁은 60만 명의 군인과 50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며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러나 모건, 밴더빌트, 카네기, 록펠러 같은 소수의 사업가들에게는 최고의 행운을 안겨주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열었다.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록펠러는 이 환상적인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15세이던 막내 동생 프랭크 록펠러를 북군에 입대시키고, 추가로 139달러를 지불하여 용병을 채용하는 대신 자신과 둘째 동생 윌리암 록펠러는 군복무를 면했다. 9

J. P. 모건 1세, 앤드루 카네기, 필립 아머, 제이 굴드, 제임스 멜론, T. 루즈벨트, 그로버 클리블랜드 등 당시의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은 대부분 이민자, 흑인 등을 돈으로 사서 자신들 대신 전쟁터로 보냈다. 군 입대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은 전쟁

이 한창이던 1863년 7월, 뉴욕에서 일어난 징집폭동의 원인이 된다. 10 도금시대가 시작되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됐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던 시기에는 용병이란 게 없었다.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이 전쟁으로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36만 6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불려갔다. 입대 후 오하이오 제7보병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프랭크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한다. 그 후 프랭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후군'을 겪으면서 평생 동안 형인 록펠러와 갈등관계로 지낸다. 록펠러가 미국 최고의 부자 대열에 올라서게 된 1880년대에 프랭크가 클리블랜드의 상이용사 조직에 대한 지원을 록펠러에게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는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영웅심에 사로잡힌 망상가라고 비난했다. 프랭크가 한 때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형이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으나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동안 유지된다. 11

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천성적으로 검소하고 근면했던 록펠러는 완벽한 고객관리와 물자관리 등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돈이 필요했다. 이에 링컨 대통령은 재무부가 보증하는 '국채 없는 화폐'인 '그린 백'[1)] 4억 5천만 달러를 발행했다. 이 그린 백은 법에 의해 북부 은행의 기축화폐가 됨에 따라 북부 은행의 신용대출이 대폭 확대되고 방위산업, 철도건설, 상업분야가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기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12

석유지대의 흥망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859년 8월 28일에 펜실베니아의 타이터스빌에서 에드윈 드레이크가 최초의 유정을 발견한다. 이를 계기로 타이터스빌에는 미국 전역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달려드는 석유업자들로 붐비는 신흥도시로 발전한다. 도시는 은행, 호텔, 도박장, 유흥업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드레이크가 유정을 발견한 지 15개월 뒤인 1860년 12월에는 75개의 유정이 석유를 생산해냈고 15곳의 정유회사에서 석유를 정제했다. 당시는 토지 소유주에게 땅 밑의 광물에 대해 전적으로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생산이 치열했다. 13 지하에 매장된 석유는 빨리, 많이 지상으로 끌어내야만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 2만 5천 달러에 팔렸던 땅이 석 달 후에는 150만 달러로 뛰었다고 한다.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투기로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선물거래는 일정량을 미래의 특정 시간에 특정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투기 계약이다. 특정 시간에 되어 가격이 오르면 그 차액만큼 돈방석에 앉게 되고, 반면에 가격이 내리면 거지가 되어 거리에 내몰리게 된다. 14 생산과 연결되지 않는 투기로 자본주의의 가장 부끄러운 거래관행의 하나인 선물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회와 사업

록펠러는 사업과 12만 평이 넘는 가족 농장 이외에는 「이리 스트리트 침례교회」로 활

1)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원할한 화폐 유통을 위해 지금까지 금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던 금본위제도의 관행을 깨고 미국 연방정부의 보증을 담보로 발행한 화폐로 화폐색이 녹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식민지 초기에도 식민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를 발행했으나 영국의 조지왕이 금지시켰고 독립 후에는 금본위제도를 유지했다. 이로써 전쟁 중에도 북부는 신용대출이 대폭 확대되고 무기산업, 철도건설, 농업생산과 상업무역 분야가 대규모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화폐의 원할한 공급으로 전쟁 기간인 1861년부터 1865까지 남부의 물가지수는 2,776까지 올라갔으나 북부는 216으로 오르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1879년 금본위제로 회귀하면서 사용이 중단된다.

동범위를 제한했다. 그는 교회 헌금은 반드시 지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교회에 기부했다. 그러나 아이다 타벨이 당시 세무서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그가 10분의 1을 초과해서 기부를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이 같은 교회 기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었고, 말년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기도 했다. 후에 록펠러가 98세가 되어 눈을 감기 바로 전날인 1937년 5월 22일, 그는 이 교회의 신축과정에서 지게 된 은행 빚을 모두 갚아준다. 15

훗날 미국의 대중은 록펠러가 자신의 추악한 탐욕행위를 신앙에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 당혹해 했다. 아마도 그는 칼뱅신앙[2]에서 강조하는 '부의 찬양'에 대해 젊었을 때 이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아버지에게서 전해 받은 본능적인 돈에 대한 탐욕을 강화시켜 주었으리라. 그는 늘 아들에게 "사업이란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상대에게 이겨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다."고 말하며 돈의 철학을 철저히 주입시켰다. 목사들은 대부분 '부는 신의 은총의 징표이며, 가난은 신의 저주의 징표'라고 가르쳤다. 이에 대해 막스 베버는 "청교도들은 부의 축적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를 정당화하는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말한다.16 사실 칼뱅이 주장한 것은 '구원은 신의 은총이고, 천벌은 신의 정의'라고 말했지만 광기와 잔혹함에 젖어든 청교도들은 이를 부와 가난으로 재해석한다.

그러나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살륙과 탐욕, 가식으로 얼룩진 「맘몬교」[3]를 기독교에 접목시킨 또 다른 형태의 종교였다. 이 시기에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며 탐욕을 독려했고, 부를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칼뱅은 "만일 창조주가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지시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적은 이익을 얻는 방법을 택했다면 너희는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거부한 것이며, 신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의 청교도들은 "노동자와 수공업자인 대중은 오직 가난한 상태에서만 신에게 복종한다."며 일반 대중의 가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논리 아래 "노동자들은 가난에 내몰려야만 노동을 하고 신에게 기도를 하며, 낮은 임금만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청교도의 경제원리로 변화시킨다. 17 칼뱅이 주장한 것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부였지만 청교도들은 목적으로서의 부를 예찬한다.

석유업에 들어서다

한참 오일러시가 일던 타이터스빌 인근의 클리블랜드에서 유통사업을 하던 록펠러는 클

---

2)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모든 선과 구원에 대한 능력을 상실했고, 신은 스스로의 뜻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 창조 이전부터 예정했다고 한다. 인간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존재로 예정됐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예정됐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고 이러한 운명을 어떠한 행위로 바꿀 수도 없다고 한다. 다만 검소와 신앙에 따른 행위로 부를 확보한다면 구원으로 예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그는 고리대금 행위를 정당시한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대전의 이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예정설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통치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현실에 대한 안주, 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는 종교개혁의 일환에서 카톨릭의 '사제에 의한 구원'을 거부하고 '창조주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리였다.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미국인들은 부는 신의 은총이고, 가난은 죄악의 결과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장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권을 장악한 후 공포스런 신정일치를 실시하며 신도들에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했다.

3)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mammon,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성서에 나오는 '부의 신' 이름이 맘몬이며 구약성서에는 바알로 등장한다.

리블랜드에 수없이 들어서는 정유회사를 보면서 장래의 사업을 꿈꾸고 있었다. 얼마 후에 「애틀랜틱 앤드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회사」가 클리블랜드를 경유하여 이리 호수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부설하자 클리블랜드에 정유회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8 이럴 때 록펠러는 '유통업연합회'에서 '투자 전망 조사'를 맡게 되면서 정유업에 대해 조사를 한다. 그리고 1860년에 동업자와 주변 정유업자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정유업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하고 정유사업에서 빨리 손을 떼라고 권한다. 19 그러면서 록펠러는 그들 몰래 1862년에 처음으로 정유회사를 사들인다.

마침내 1863년 록펠러는 새뮤얼 앤드류스를 또 다른 동업자로 끌어들여 「앤드류스 클라크 앤드 컴퍼니」를 설립하고 정유업계에 뛰어든다. 앤드류스는 돼지비계를 녹여 정제한 기름인 '라드 오일(Lard oil)'을 만드는 정유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당시의 등잔불의 원료였던 양초와 파라핀을 만드는 법을 익혔다. 그러다가 1860년대 초에 타이터스빌에서 채취한 원유에 황산을 적절히 첨가하여 등잔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한 후였다. 20

록펠러는 혈기 왕성한 20대 청년이었지만 결코 서두르거나 흥분하지 않고 석유관련 자료들과 주변의 흥망성쇠를 조용히 지켜보며 내실을 쌓고 있었다. 원유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내렸다. 원유가격은 배럴(159리터)당 1860년 10센트로 떨어졌다가 다음해에는 10달러로 반등했다. 그 다음 해인 1862년에는 10센트에서 2.25달러까지 오르내렸는데 평균가격은 1.5달러였다. 1863년 평균가격은 3.5달러, 1864년에는 8달러, 1866년 4달러, 1867년 2.8달러, 1869년 5.8달러, 1871년 4.2달러, 1873년 2달러였다. 석유통인 목제 배럴도 원유가격의 등락에 따라 값이 오르내렸는데 2.5달러에서 3.5달러를 오르내렸지만 이 가격은 내용물인 석유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가격이었다. 21 이렇게 원유가가 안정되지 못한 까닭은 규율 없이 행동하는 석유 생산자들의 지나친 탐욕에 있었다.

우리의 계획

록펠러는 그의 회사와 전체 산업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매일 회사 움직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직접 관여했다. 그는 성실한 사업운영으로 1860년대 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공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22

그러나 록펠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2년이 되던 1865년 초에 '앤드류스 클라크 앤드 컴퍼니'는 동업자들끼리의 의견 충돌로 분열의 위기를 겪는다. 그러다가 록펠러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 공금 수천 달러를 빼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클라크 형제는 록펠러와 마찰을 빚게 되고 결국 동업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게다가 아직 회사의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록펠러는 클라크와 합의하지 않은 채 10만 달러의 대출을 더 받는다. 결국 록펠러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부담을 느낀 동업자들은 경매로 회사를 처분하기로 합의했다. 23

마침내 남군이 애퍼매턱스에서 항복하기 2개월 전인 1865년 2월 2일, 록펠러는 앤드류스와 손을 잡고 회사를 7만 2,500달러에 경매에서 낙찰 받는다. 5개월 전인 1864년 9월 8일,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의 부유한 가문의 하원의원 하비 스펠먼의 딸 로라 셀레스티아 스펠먼(애칭은 세티)과 결혼한다. 록펠러의 나이 25세 때였다. 이로써 록펠러는 하루에 원유 500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최대 규모의 정유소를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24 이 회사는 자본주의의 속성대로 너무도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운영되어 30년 후에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13년 후, 스탠다드 오일이 급성장하던 시기인 1878년에 록펠러와 앤드류스는 경

영상의 차이로 마찰을 빚게 되고, 결국 앤드류스는 록펠러 곁을 떠난다. 1878년 11월 30일자 「더 뉴욕 선」지에 의하면 록펠러는 퇴사하는 앤드류스의 주식을 당시 미국 최대의 부자로 미국 철도를 장악하고 있던 윌리엄 H. 밴더빌트에게 130만 달러에 처분하고 그 중 30만 달러는 록펠러가 차지하고 남은 100만 달러를 앤드류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25 록펠러의 최측근인 플래글러가 후에 타벨에게 "록펠러는 기회만 있으면 친구의 돈을 빼앗을 연구만 하고 있다."고 한말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록펠러는 패기와 탐욕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석유지대를 뛰어 다녔다. 그의 경쟁자들이 그를 '젊은 아나콘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나콘다는 아마존 지역에 살며 사람들의 숭배를 받던 뱀으로,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 자신의 먹이인 경쟁사들을 서서히 목 졸라 죽인다.26 록펠러는 이러한 혈기와 탐욕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두 개의 갈라진 혓바닥과 이글거리는 눈으로 먹이를 찾는 아나콘다로 대한다.

탐욕의 시대

1860년대 후반은 격정의 시대였다. 그가 회사를 인수하던 때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미국의 이 시기는 부에 대한 환상에 젖은 몽상가, 투기꾼, 사기꾼 등이 난무했던 시기였다. 정부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재정을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을 유발시켰고 이는 부패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부패했다. 투기의 광풍만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기업들은 마침내 권좌에 올랐다. 뒤이어 고위직의 부패가 도래할 것이고, 돈의 힘이 인간에게 편견을 전파하여 부는 극소수의 손안에 집중될 것이며 공화제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영토를 더욱 증대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링컨이 사망하기 직전에 할 말이다. 27

미국의 역사학자 케네스 데이비스는 이 시대를 이렇게 묘사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천박하고 지저분한 그런 발전이었다. 그것은 철로 한 구간을 깔 때마다, 그리고 석탄이나 철광석 1톤을 캘 때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이민노동자, 퇴역군인이었던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며 노동에 종사했다.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된 부는 엄청난 부패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28

반면에 전역장교들은 공동 경영자나 새로운 사업의 발기인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넉넉한 전쟁위로금을 가지고 있어서 굴러 들어온 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펜실베니아의 유전, 콜로라도의 은광, 아이다호의 금광, 캔자스의 옥수수 밭 등 돈이 있을 듯한 곳은 어디라도 찾아다녔다.29 한 건 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더라도 부자의 대열에 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다. 주식시장은 주가조작으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하여 거리로 내몰리기도 했다. 청교도들이 받아들인 '맘몬교'의 사상인 '기업 활동의 절대적 자유'와 '사유재산의 절대적 존중'은 국가의 규제를 거부했고 실제로도 연방정부의 전체 직원이 2만 명에 불과한 상태여서 규제나 감독은 불가능했다. 30 오히려 정부도, 교회도 규제를 거부하고 부를 독려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남북전쟁 전에 부과되었던 소득세도 폐지됐다.

이제 「록펠러 앤드 앤드류스」로 이름을 바꾼 회사의 경영권을 쥔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의 번영을 가져오고 있던 석유 붐과 남북전쟁이란 대호황의 중심에 서게 됐다. 연간 수입은

100만 달러였고 다음 해는 200만 달러로 늘었다. 그는 동생 윌리엄 록펠러를 뉴욕으로 보내 수출 담당 회사인 「록펠러 앤드 컴퍼니」를 설립하게 했다. 뉴욕에 수출회사를 차린 첫 해에 판매 수입은 200만 달러를 넘었다. 31

그리고 록펠러는 1871년에 이미 뉴욕에서 찰스 프랫이 운영하던 회사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외부로는 스탠다드 오일 계열사라는 이미지를 숨기기 위해 그대로 회사 이름을 보유한 채 영업을 한다. 이 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탄탄한 판매망을 확보한 회사였다. 32 그 후 이 회사의 사장인 찰스 프랫과 부사장인 헨리 H. 로저스는 록펠러의 측근으로 활약한다. 록펠러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록펠러는 언제나 자금이 넉넉했다. 집에서 나가 이중생활을 하는 아버지 윌리엄 록펠러도 사기를 통한 사업수완이 뛰어난 사람으로 늘 부유한 상태였고, 그의 어머니도 부유한 집안의 딸로 록펠러가 사업을 시작할 즈음에 외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1865년에 풍부한 자산을 상속받은 상태였고,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록펠러의 아내도 부유한 명문가의 딸이었으며 동생 윌리암도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한 상태였다. 33 거기에 록펠러 특유의 치밀함과 대담함은 은행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새로운 동업자

클라크 형제를 축출하고 2년 후인 1867년에 록펠러는 목사의 아들이자, 남북전쟁 당시 막대한 부를 쌓은 핸리 M. 플래글러라는 동업자를 끌어들여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본금을 확충한다. 그들은 회사 이름을 「록펠러 앤드류스 앤드 플래글러 컴퍼니」로 바꾸고 석유 장악을 시작한다. 플래글러는 위스키 재벌인 스티븐 V. 하크니스의 딸과 결혼하면서 장인으로부터 15만 달러의 투자금을 끌어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사교성과 설득력이 뛰어나고 과단성이 있어 록펠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최적의 사람이었다.34

록펠러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으로 철저한 금욕을 내세우며 평생 동안 술과 춤, 연극, 독서 등을 금지했지만 사업을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자금도,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었다. 하크니스의 자금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단기간에 벌어들인 부도덕한 자금이어도 말이다. 게다가 그 자금은 술을 불법으로 거래해 벌어들인 자금이었다. 그는 사업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악마와도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플래글러는 록펠러의 최측근으로 45년간을 함께 스탠다드 오일을 이끌어간다.35

그러나 록펠러가 클리블랜드 대학살을 시작하면서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사용되는 자금 중 일부분은 유럽의 유태계 금융가문으로 유명한 로스차일드의 지원에서 나왔다. 이미 금융업에서 모건 은행과 쿤롭사를 통해 미국의 금융계로 진출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제 공업계로 진출하기를 바라던 시기였다. 이때 록펠러의 대담성과 치밀함, 추악한 탐욕 등은 로스차일드의 눈에 들 수밖에 없었다. 1875년,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금융전략가인 쿤롭사의 야콥 쉬프를 록펠러에게 보내 다음의 확장계획을 자문해주고 록펠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그 당시 로스차일드는 모건은행과 쿤롭사를 통해 미국 철도의 95퍼센트를 장악한 상태였다. 36

그러나 후에 록펠러가 미국 석유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유럽의 시장도 장악하려고 시도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과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이미 로스차일드 가문과 어깨를 겨룰만한 부를 확보한 상태였다.

피트홀의 광란

당시 석유는 타이터스빌 곳곳에서 새로 유정이 발견되면서 생산량이 넘쳐났다. 1861년 1월에 클리블랜드의 인근인 피트홀 크리크에서 또 거대한 유정이 발견된다. 그러나 당시의 석유 생산시설은 허름한 상태여서 늘 폭발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1861년 4월 12일 러즈빌을 개척한 헨리 R. 러즈도 자신의 석유시설이 폭발하면서 다른 동료 18명과 함께 화상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유정에서의 이러한 화재 위험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의 열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어서 들려온 남북전쟁의 불길은 유정의 불길을 덮어버렸다. 37

이로써 또 한 번의 광란의 석유 파티는 시작된다. 하루아침에 검은 금으로 덮인 도시로 변하면서 이곳은 눈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술집, 파티장, 도박장 등으로 몰려다니며 자신들의 부를 무용담과 함께 뿌려댔다. 그들은 '아메리칸 페트롤리엄 폴카', '석유에 홀려서'라는 곡에 맞춰 춤을 추었다. 밤이 하얗게 흘러 새벽녘이 될 때까지. 이제 석유는 하나의 거대한 대중문화가 되어 있었다. 38

그러나 그것도 잠깐. 처음 피트홀에서는 하루 2,000배럴의 기름을 쏟아 냈지만 1년 뒤부터 생산량이 뚝 떨어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다. 순식간에 들어섰던 50개 이상의 호텔이나 은행, 신문사, 전신국, 소방회사들도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했다. 500일간의 꿈이었다. 한창 때는 200만 달러에 거래되던 땅이 거품이 빠진 후에는 4.37달러에 팔릴 정도였다. 이때를 시작으로 미국에는 주기적으로 석유위기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39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조그마한 석유역사관이 남아있어 그때의 영욕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석유위기론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나왔다는 것이 현대의 석유 지질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나는 그 시기는 아직 지질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채굴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기꾼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곳저곳에 시추구멍을 내는 바람에 유정의 압력이 너무 쉽게 빠져버려 남은 석유를 더 이상 뽑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단시간 내에 퍼 올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40

석유층은 메탄으로 이뤄진 천연가스층과 석유층, 지하수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시추구멍을 내게 되면 가스와 함께 압력이 빠지면서 석유가 뿜어져 올라온다. 가스를 통해 채굴할 수 있는 석유는 총 매장량의 20퍼센트 정도이다. 현재는 석유매장량은 풍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예컨대 석유학자 모리스 아델만의 설명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컨 리버필드'는 1899년에 개발되어 처음 가채년수를 43년으로 추정했는데 43년간 채굴한 후 1942년에 남아 있는 매장량은 54만 배럴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이후 43년간 더 채굴한 양은 736만 배럴이었고, 1986년에 조사한 결론에 의하면 970만 배럴이 더 남아 있다고 한다. 석유 매장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매장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진 까닭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록펠러재단은 석유위기론을 들먹이며 석유가를 늘 높게 책정 해왔다. 41

파우스트

1867년 후반의 어느 날, 록펠러의 지시에 따라 플래글러는 '레이크 쇼어 철도회사'의 부사장이던 제임스 E. 데브루를 만났다. 플래글러는 그에게 자신의 회사에 충분한 리베이트를 보장해 준다면 레이크 쇼어 사에게 매일 유조차량 60대 분량의 운송을 보장하겠다고 제의

했다. 당시 공식적인 철도 운임은 '석유지대'에서 클리블랜드까지 배럴당 42센트, 클리블랜드에서 뉴욕항까지 2달러였다. 이 자리에서 비밀리에 체결된 계약 내용은 각 35센트와 1달러 30센트를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철도는 개척시대의 미국 정부에서 전략산업으로 취급하여 철도 부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철도 회사에게 사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국채를 수백만 달러어치씩 지급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막대한 뇌물을 받으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탓이었다.42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철도는 공공성을 띠는 업종이었지만 운송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운송료에 대한 리베이트 계약을 따내는 것은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석유업계뿐만 아니라 탄광, 농산물, 철강 등 모든 업계에서 흔히 비밀리에 이뤄지던 관행이었다.

록펠러는 운임에서 얻은 이득으로 새로운 투자를 한 결과 1870년 1월 10일자로 1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가진 새로운 회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창립한다. 초기 액면가 100달러의 주식 수 1만 주 가운데 록펠러는 2,667주를, 플래글러와 앤드루스, 윌리엄은 각각 1,333주를, 하크니스는 1,334주를 소유했다. 그리고 록펠러의 동생 윌리엄의 처남인 O. B. 제닝스는 1,000주를 소유했다. 그리고 록펠러가 사장 자리에 앉는다. 43

이 당시 장인인 윌리엄 스코필드와 함께 정유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셋째 동생 프랭크가 형의 야망을 눈치 채고 이에 협조하지 않자 동생의 회사마저 파산시킨다. 후에 스코필드가 록펠러가 요구한 '다시 정유업을 하지 않겠다.'는 구속계약을 어기고 새로 정유업에 뛰어들자 록펠러는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군대 문제와 겹쳐 프랭크는 평생 동안 형을 증오했고 결국 자기 두 아들의 묘지를 클리블랜드의 가족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 죽어서도 자기 가족이 형과 함께 묻히는 것이 끔찍했던 것이다. 1917년 프랭크는 뇌졸중으로 죽어가면서도 형인 록펠러가 찾아올까봐 노심초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도 형의 가족들과 떨어진 곳에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묻혔다. 44

그 외에도 록펠러가 처음으로 경리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이작 L. 휴잇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나는 당신이 모르는 나만의 독특한 돈벌이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억압함으로 15만 달러에 해당하는 회사를 6만 5천 달러에 인수한다. 45 후에 확인된 사실은 '록펠러만이 일고 있는 돈벌이 방법'이란 시장을 장악해서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후에 윌리엄 스코필드, 로버트 해나, 배슬링턴 등 몇 사람이 공동으로 록펠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법정에서 그는 "스탠다드 오일사의 경영진은 남부진흥회사(SIC) 주주가 한명도 없습니다. SIC 회장인 톰 스콧도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아닙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며 남부진흥회사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뺌한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스탠다드 오일의 경영진은 SIC 주식의 5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었고, 클리블랜드 학살을 시작하기 이전인 1872년 1월 자본을 확장할 때 스콧에게 비밀리에 500주를 넘겨줬다. 주당 액면가가 100달러이니 5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였다. 46 그토록 신앙을 강조하던 그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선서까지 한 그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이후에도 그는 생애 내내 이어지게 되는 법정 증언에서 그는 거의 대부분 거짓 증언을 한다.

작가인 앨라 G. 윌슨에 의하면 「그랜드 푸트 회사」를 경영하던 그의 아버지가 록펠러와 비슷한 침례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지만 록펠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

자 결국 탄탄했던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 파산했고 그의 아버지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당신의 사업에 밀어닥친 이 끔찍한 재난으로 거의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이후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교회에 발을 들여 놓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록펠러는 모든 불법행위들을 동원해서 경쟁회사를 파산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석유업계에 발을 들여 놓지 않겠다는 구속계약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대부분이 이 구속계약에 따라 석유업계를 영원히 떠났지만 일부 사람은 록펠러의 부당함에 분노를 느끼며 다시 석유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들을 계약위반으로 법정으로 끌고 갔다. 47

1860년대의 호황기를 지나 1870년대는 불황기였다. 정부의 특혜 속에 지나친 투자를 감행했던 철도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철도업자들은 경쟁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모를 짰다. 「남부진흥회사(SIC)」였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행정부의 육군부 차관이었고 현재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사장인 톰 스콧이 계획한 음모였지만 이를 장악하고 추진한 것은 록펠러였다. 스콧은 부패한 펜실베니아 주 의회와 주 정부를 매수하여 1871년 11월 30일, 새로운 형태의 지주회사인 ‘남부진흥회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록펠러에게 계획안을 보여준다. 48

1871년 12월, 그들은 뉴욕의 사무실에 모여 계약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로 굳게 약속하고, 남부진흥회사의 주식 2,000주 중 900주를 스탠다드 오일이, 100주를 스콧이 갖기로 한다. 1872년 1월 1일, 스탠다드 오일은 자본금을 1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높이고 클리블랜드의 모든 정유회사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엔 다시 350만 달러로 올린다. ‘클리블랜드의 대학살’의 시작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역사가들은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고 부르지만 록펠러와 그의 동료들은 ‘우리의 계획’이라고 불렀다.49 이때는 유럽에서 노벨 형제가 러시아의 카스피해 연안 도시 바쿠에서 석유왕국을 시작하기 1년 전이었다.

록펠러는 이미 3년 전에 「레이크 쇼어 철도회사」와 35퍼센트의 리베이트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하고 3년간 그 혜택을 받으면서 경쟁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한 음모는 거칠고, 치밀한 계획으로 록펠러는 스콧의 제안을 흡족하게 받아들인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을 하나로 묶어 석유 운송을 펜실베니아 철도회사로 몰아주고, 철도회사는 스탠다드 오일에 대해서는 운송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해주고, 기타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운송료를 200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게다가 다른 회사의 운송료에 대해서도 1달러당 25센트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어이없게도 경쟁회사들이 자신들의 경비로 스탠다드 오일의 경영을 지원해준 꼴이 된 것이다. 50

경쟁이 치열하던 철도업계는 록펠러의 운송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폭적인 양보도 마다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끌어들여 보충하곤 했다. 록펠러가 추진했던 계획은 석유구매자도 한 명, 석유판매자도 한 명으로 고정하여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그러나 이 추악한 계약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기로 했는데도 새나간 일은 우연한 일 때문

이었다. 남부진흥회사로부터 레이크 쇼어 철도의 화물 담당자에게 비밀요금표가 전달되면서 비밀을 지킬 것을 지시한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그는 아들이 죽어간다는 전보를 받고 아들에게 달려간다. 그런데 다음 후임자에게 운임표를 전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비밀을 지킬 것'을 깜빡 잊고 전해주지 못한다. 이를 모르고 있던 후임자는 그 충격적인 운임 인상 내용을 공표한다. 1872년 2월 26일, 오일지대 주민들과 석유업자들은 조간신문에 모든 이들에 대해 화물 운송료가 두 배로 껑충 뛰었다는 기사를 읽고 충격에 휩싸인다. 51

작전 개시 2개월 후에 비밀리에 진행되던 철도회사와의 리베이트, 은행 간부들의 매수, 경쟁회사에 대한 방화, 경영진에 대한 협박 등의 모든 행적들이 공개되었을 때는 이미 스탠다드 오일은 클리블랜드에 있던 26개 정유사 중에서 24개 정유사를 흡수했고 52 전국 정유사의 4분의 1을 흡수한 상태였다.

나중에 위법행위에 대한 펜실베니아 의회 청문회에서 존 티글이라는 경쟁 석유업자는, 자신의 정유회사 경리사원이 록펠러에게 매수되어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계약금과 정기적으로 매달 25달러의 뇌물을 받았던 그는 티글의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일 스탠다드 오일의 주소지인 '클리블랜드 우체국 사서함 164번'으로 보고했다. 53

또 다른 정유업자는 주문량을 실어 발송하려고 하면 갑자기 주문이 취소되곤 했다고 한다. 당시 조지 라이스는 스탠다드 오일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거부하자, 스탠다드 오일의 자회사인 「체스 칼리 앤드 컴퍼니」는 조지 라이스를 파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 라이스의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 일절 라이스와 거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라이스는 고객을 거의 잃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그 당시 「월커슨 앤드 컴퍼니」라는 루이지애나의 정유 소매업체가 라이스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록펠러는 「루이빌 앤드 내시빌 철도회사」에 전보를 보내 "월커슨 앤드 컴퍼니에서 13일 월요일에 귀사의 철도편으로 70배럴의 석유를 운송할거요. 보통 때와 같이 5급 요금을 적용하면 41달러 50센트지만 이번에는 57달러 40센트의 요금을 적용하시오."라고 지시했다. 54 역시 이 회사에도 이미 직원을 매수해 스파이 역할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오랜 후인 1901년에 미주리 주에 '리퍼블릭 석유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회사의 광고 문구는 "트러스트 반대!, 독점 반대!", "완전 독립!", "스탠다드 오일 일당을 뿌리 뽑자."였다. 때문에 스탠다드 오일을 혐오하는 소매업자들은 대부분 리퍼블릭 오일사로 그들의 거래회사를 바꿨다. 또 일부 회사들은 록펠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리퍼블릭회사를 중심으로 흡수를 자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스탠다드 오일에게 이미 인수된 회사로써 비밀리에 뉴욕의 스탠다드 오일에 경쟁업체들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이를 숨기기 위해 스탠다드 오일의 본사가 있는 '브로드웨이 26번지'가 아닌 스탠다드 오일의 뒷문 주소인 '뉴스트리트 75번지'로 보고서를 보내왔다. 55 결국 독립을 추구하던 경쟁업체들은 애꿎은 돌만 걷어찰 수밖에 없었다.

록펠러는 석유산업에 혁신을 일으키거나 합리적인 경쟁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록펠러는 사업계에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판을 치는 스파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제는 사업을 평화롭게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업장은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잔인하고 추악한 방식이 횡행하는 난장판이 되었다. 명예로운 경쟁은 사라지고 투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타벨의 지적이다. 56 조직이 치밀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가득 채워진 거대기업이 스파이활동을 했다는 것은 비열하고 편협한 행동

이었다. 록펠러는 산업스파이를 통해 미국 내 모든 소매업자들에 대한 정보카드를 유지, 관리했는데, 이에 따르면 독립업체가 어디로 석유를 수송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메인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잡화점이 어디서 등유를 구입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57

석유업계의 역사를 파헤친 앤서니 심슨은 그의 저서 「7남매」에서 “록펠러가 그토록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은 그의 무자비한 수법도 있지만 특히 그의 비밀주의와 산업스파이 때문이었다. 그는 경쟁상대를 매수하고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두고 겉으로는 매수된 회사도 록펠러와 경쟁하는 척했다. 그러면서 다른 경쟁상대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록펠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58 이러한 무자비한 수법과 비밀주의는 록펠러의 상징어구였다.

아나콘다

석유지대는 이로 인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다른 회사의 운송비용에 대해서도 요금을 인상한 일정비율로 스탠다드 오일사에 환급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오일 시티 데릭」지는 매일 제1면에 음모자들의 이름을 적고 검은 테두리를 쳐서 발행했다.

후에 철도회사는 리베이트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으며, 주 의회는 여론이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남부진흥공사에 내주었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그때는 이미 스탠다드 오일은 거대 공룡이 되어 있었다. 원유생산업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스탠다드 오일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자 그는 1,200명으로 운영되던 그 회사의 직원 중 3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우리의 계획’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다. 59

그러면서 원유생산업자들의 결속을 깨뜨리기 위해 개별적인 회유책으로 대응한다. 아이다 타벨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록펠러가 원유생산업자들의 결속을 깨뜨리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인 프랭크 타벨에게 당시 가격의 두 배가 넘는 배럴당 4달러 50센트라는 유혹적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록펠러의 복수로 1893년에 아버지는 파산한다. 아버지의 동업자는 이를 비관하여 권총으로 자살하고, 그가 남긴 빚을 청산하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는 집을 저당 잡혔고 회사는 록펠러에게 빼앗긴다. 60

「오일시티 데릭」지는 매일 1면에 음모자들의 이름을 게재하고 둘레에 검은 테두리를 두른 채 “아나콘다의 소름끼치는 추태를 보라.”는 등의 강력한 항의를 보냈다. 61 록펠러의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두 개의 갈라진 혓바닥으로 경쟁자를 서서히 목 졸라 죽이는 이중적인 행태’는 가히 절묘한 예술이었다.

오일지대 주민들과 정유업자들은 소름끼치는 아나콘다가 단정하고 기독교로 무장한 록펠러라는 청년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독선의 갑옷으로 무장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철저히 장막 속으로 숨어들었다. 록펠러는 거대한 아나콘다였다. 깊은 숲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낚아채는 아나콘다. 그 아나콘다는 자신의 주위에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었다. 심지어 작은 송사리마저도.

그러나 록펠러가 아무리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려고 해도, 비밀 철도 계약이 우연한 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듯이 이와 관련한 자료도 우연한 일로 타벨에게 전달되고 세상에 알려진다. 그 우연한 일이란, 스탠다드 오일에서 기록을 소각하는 일을 하던 10

대 소년이 어느 날 어떤 서류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소년의 눈에 예전 자신의 교회학교 교사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소년은 그것이 철도회사에서 나온 경쟁회사들의 선적 상황을 기록한 기밀문서임을 알아차렸다. 록펠러의 추악함을 이미 알고 있던 그는 즉시 이 문서들을 빼돌려 주일학교 교사인 석유회사 사장에게 전달했고, 석유회사 사장은 이를 타벨에게 건네준다. 62

우리의 계획

록펠러 측의 감정사들은 상대 회사를 대체적으로 최초 건설비용의 4분의 1 또는 폐기용으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받을 만한 금액만 지불했다. 록펠러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어요.”라고. 그러나 그의 고용인인 감정사가 내린 감정가는 이미 시세의 10분의 1 심지어는 20분의 1 이하인 가격이었다. 록펠러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불법적인 내용의 비밀약정과 협박, 적대적 인수합병,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무력 탄압 등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했다.63

1878년 2월 4일, 록펠러가 캠던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지금은 피츠버그에서 다른 정유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석유를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를 장악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캠던이 답장으로 보낸 1878년 3월 11일자 편지에는 “그들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일 겁니다. 땀을 좀 빼는 거야 그자들의 건강에도 좋을 테지요. 그자들은 결국 손해를 보고 회사를 넘기게 될 겁니다.”라며 록펠러의 지시대로 협박과 불법으로 그들을 누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전한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컬럼비아 송유관 회사」마저도 흡수하게 되어 마침내 록펠러의 허락 없이는 단 한통의 석유도 운반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록펠러의 나이 38세였다. 64 캠던은 후에 록펠러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아래 1880년대 초에 상원의원으로 진출해 스탠다드 오일의 천연가스 독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록펠러의 측근으로 정치계에서 활동한다.

록펠러의 불법행위로 고소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분노가 커져감에 따라 주 정부는 록펠러와 측근 여덟 명을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록펠러는 부패로 유명했던 펜실베니아 주 의회와 법원을 돈으로 장악해서 의회는 스탠다드 오일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었다. 스탠다드 오일은 모든 주와 연방 의회를 매수하고, 뇌물 공세를 펴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들을 하고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65 거액의 연금을 받는 변호사 팀은 언제나 그의 행동을 돌봐주었다.

30년간의 도망자 생활

1879년 4월 29일, 펜실베니아 주 클래리언 카운티 법원은 철도 리베이트 강요, 경쟁자 제거를 위한 가격 조작, 석유산업 독점 음모 등의 혐의로 록펠러, 아치볼드, 플래글러 등 9명을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때부터 끊임없는 탐욕과 위선으로 채워진 초유의 부자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이 해체되는 1911년까지 30년간 도망자 신세가 된다. 그는 도망다니면서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과 주지사 헨리 M. 호이트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고 자신의 혐의를 무마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뉴욕 주의 주지사 루셔스 로빈슨을 매수하여 체포장 발부를 막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여론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클리블랜드 헤럴드」를 5,000달러에, 「클리블랜드 리더」를 1만 달러에 인수하여 여론 조작을 시작한다. 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비등해지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오하이오 주, 뉴욕 주, 오클라호마 주, 캘리포이아 주 등 십여 개 주로부터 체포영장이 연속해서 발부된다.

이러한 부패로 사업계를 진흙탕으로 만들며 정유업계를 장악하자 록펠러는 원유업자로부터는 매입가를,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판매가를 마음껏 주무른다. 이후부터 스탠다드 오일의 이윤은 급속도로 불어나고 록펠러의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쌓여갔다. 스탠다드 오일은 경쟁이 발생하는 곳이면 원가 이하로 판매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스탠다드 오일이 장악한 다른 지역에서 가격을 올려 보충했다. 1886년 2월 3일 록펠러의 측근인 W. P. 톰슨 대령이 록펠러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0.5센트 추가로 인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경쟁사가 파산했습니다. 이제 가격을 0.25센트 인상했습니다. 한 번에 올릴 수 없으니 여러 차례 올릴 생각입니다. 현재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지역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라고 씌어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3배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67

타벨의 기록에 의하면 "손수레로 석유를 내다 파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날마다 스탠다드 오일 직원이 그를 뒤따라 다니며 석유를 거의 공짜로 퍼주는 바람에 결국 그는 완전히 망했어요. 또 소규모 정유업자 편에 서려다가 사업을 망친 잡화점들도 많았어요."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탠다드 오일은 무슨 짓이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라며 록펠러의 탐욕을 지적했다. 68 그는 탐욕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법도 무시했으니 상도의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보석 중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이용가치가 뛰어나거나 색상이 아름다워서 비싼 것은 아니다. 다이아몬드를 처음으로 애용하기 시작하던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부터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는 오히려 진주나 루비, 사파이어보다 값이 쌌다. 그런데 현대에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이것이 독점의 비밀이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베르스 광산을 장악하여 세계 다이아몬드의 공급의 85퍼센트를 독점하고 있는 '드비어스' 기업이 가격을 고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69

1879년 마침내 록펠러는 미국 정유능력의 90퍼센트를 장악하고, 송유관, 원유생산, 철도수송 등 석유와 관련한 모든 시설을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업체들은 운송에서의 숨막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방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송유관의 설치였다.

록펠러의 철도 리베이트와 송유관 장악뿐만 아니라 철도업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철도파업이 자주 일어나 운송에 차질이 자주 빚어지는 등의 이유로 정유업자들은 다른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이드워터사」를 설립하고 석유지대에서 동쪽 해안지대에 이르는 176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을 설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록펠러는 J. N. 캠던 의원을 매수해 매릴랜드 주 의회로부터 회기 내에는 스탠다드 오일 이외의 다른 어떤 기업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송유관부설 독점 허가를 따낸다.

캠던이 플래글러에게 보낸 1878년 7월 17일자 편지에는 "이 일을 해내는데 4만 달러가 필요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런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타이드워터는 펜실베니아 주를 우회하는 계획으로 바꾼다. 그러자 록펠러는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자리의 땅을 수직으로 길게 사들이고, 현장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파이프 생산 회사를 매수하여 파이프 공급을 차단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했다. 그러나 타이드워터사가 이에 굴하지 않고, 1879년 5월 28일 끝내 공사를 완성한다. 록펠러는 펜실베니아 주 의회도 거액으로

매수하여 스탠다드 오일사를 제외하고는 송유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지만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파이프라인의 설치가 완성된 것이다. 70

그러자 록펠러는 계획을 바꿔 늘 그가 택해온 방법으로 그 회사를 압박하기로 한다. 그는 타이드워터의 임원을 매수하여 경영을 방해하는가 하면 거래 회사를 협박하여 타이드워터의 송유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이드워터사를 파산 상황으로 몰고 간다. 결국 이 회사의 송유관의 점유율을 88.5퍼센트는 스탠다드 오일이, 11.5퍼센트는 타이드워터사가 갖기로 합의하고 독립업체로 남는다. 이 타이드워터사는 1930년대에 오클라호마 주의 석유왕이자 시대의 방탕아인 장 폴 게티에게 합병된다.71

정치인 매수

이 시기는 1876년 러더퍼드 B. 헤이스가 미국 선거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연방정치 뿐만 아니라 주 정치도 부패로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부패로 얼룩졌던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개혁주의자인 민주당의 새뮤얼 J. 틸든과 기업지원자인 공화당의 러더퍼드 B. 헤이즈가 경합을 했다. 일반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는 틸든이 앞섰지만 거액의 돈으로 덧칠을 했던 남부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부정선거로 결국 헤이즈가 백악관에 입성했다. 72 2000년에 민주당의 엘 고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의 경합에서도 고어는 일반유권자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겼지만 부시 측의 플로리다 주 부정선거로 백악관에는 공화당의 부시가 입성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었다.

록펠러는 이 기회를 이용해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뉴욕 주 등 스탠다드 오일의 자회사가 진출한 주의 의원들과 연방의회의 의원들, 그리고 판사, 공무원 등을 거액의, 그리고 정기적인 뇌물로 장악한다. 1878년 3월 4일, 뉴욕 주 상원의원인 A. N. 콜에게 의회에서 스탠다드 오일 이외에는 어떤 기업도 송유관 설치를 금지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청탁하며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상원에는 두세 명, 하원에는 대여섯 명의 유명한 변호사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그들을 고용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에게 현금을 주면 불법이니 돈보다는 정부채권으로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정부채권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부디 이 편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73 록펠러와 오고 가는 편지에는 "이 편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록펠러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뉴욕 등 거의 모든 주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정기적인 거액으로 매수하여 석유세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업폐해를 규제하고,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록펠러는 일체의 세금을 거부했다. 석유에 대한 과세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이고 기업 스스로의 자주적 결정이라는 숭고한 이념에 위반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오로지 자신만이 법이었다. 74 록펠러는 평생 동안 세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870년대 말 록펠러는 윤활유사업에 뛰어들면서 뉴욕 주 로체스터에서 하이럼 에버레스트와 찰스 에버레스트 부자가 운영하는 「베큠 오일 워크스」에 눈독을 들였다. 여러 번의 협박과 영업방해를 통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에버레스트 부자는 결국 지분의 4분의 3을 록펠러에게 헐값으로 넘기고 4분의 1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베큠사의 임원들이 별도로 「버팔로 윤활유 회사」를 설립하자 록펠

러는 버팔로사의 임원인 앨버트 밀러를 매수해 시설을 폭발시키도록 지시했다. 1881년 6월 15일, 밀러는 버펄로 공장의 기술자에게 증류기를 폭발 온도까지 올리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기계 조작의 실수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설의 일부가 파괴됐다. 폭발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록펠러의 비서인 헨리 로저스는 밀러를 계열회사인 캘리포니아의 통조림회사로 발령냈다. 버팔로사는 록펠러를 포함해 6명을 방화혐의로 고소했지만 에버레스트 부자만 각각 250달러씩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4명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 75

이 베큠사가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진출한 석유회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록펠러가 이미 미국의 석유 시장을 거의 장악해 가던 1880년, 일본으로 건너간 수호사절단원 중의 한 명인 이동인이라는 승려가 석유와 석유램프, 성냥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첫 소개였다. 이후 미국과 일본, 러시아를 통해 석유를 소량씩 수입하다가 1897년 아시아로 진출한 스탠다드 오일의 계열 회사인 「베큠 오일사」가 조선에 석유회사를 설립해 석유 판매를 시작했다. 베큠 오일은 '솔표 석유'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76

2장. 토네이도.

트러스트라는 유령회사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가 자기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주 경계 밖의 다른 주에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펜실베니아 주가 자신의 주 안에 있는 오하이오 스탠다드 오일의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세금에 대해서는 '이교도의 과일' 같이 거부감을 갖고 있던 록펠러는 이를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변호사 새뮤얼 C. T. 도드를 끌어들인다. 도드가 계획한 안은 1882년 1월 2일에 완성됐다. 도드는 이 문제를 '신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다시 말해 스탠다드 오일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신탁증서'를 발행하는 트러스트로 만든다.1 트러스트는 주주들이 맡긴 주식의 집합체였다.

도드가 완성한 트러스트의 내용은 각 주에 동일 이름의 스탠다드 오일을 별개로 설립하고, 스탠다드 오일의 지분을 존 록펠러, 동생 윌리엄 록펠러, 플래글러, 아치볼드, 올리버 페인 등 록펠러의 측근인 아홉 사람에게 인계하는 대신, 각 주에 있는 회사의 주주들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을 약속하는 지분으로 보상을 받았다. 새로운 트러스트에는 정관이 없었다. 아홉 명의 주요 이사들에게 백지위임장으로 전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들은 같은 회사명과 같은 사무실, 같은 신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 즉 유령회사였다. 따라서 이 단체는 거래를 할 수도 없었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으며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다.

이 트러스트로 위임된 지분의 40퍼센트, 즉 총액 1,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지분을 록펠러가 보유했고 그의 측근인 윌리엄, 플래글러, 페인, 프랫, 휘트니, 하크니스의 지분을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후에도 록펠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분을 늘려갔다. 그들은 브로드웨이 26번지의 사옥으로 매일 출근하며 전국에 퍼져있는 41개 스탠다드 오일을 장막 속에서 지휘했다. 신탁위원회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의 제국 깊숙이 숨겨져 있는 성소였다. 록펠러가 주관하는 비공식적인 신탁위원회가 모든 시스템을 조종했다. 일종의 비밀 이사회인 이 위원회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은 암호와 구술로 결정했다.2 형식적으로는 법망을 피해간 합법 같이 보이지만 내용에서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때문에 기록을 일절 남기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처음부터 문제를 야기했다. 실체가 없는 거대한 유령회사에 개별 주 정부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래를 독점하거나 제한하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이 같은 기업 연합을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양심적인 연방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트러스트라는 악마

6년 후인 1888년, 뉴욕 주 상원위원회는 1,50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는 이 나라의 상거래 시스템에 번져가고 있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는 어떤 법적 재제도 받지 않고, 어디서든 어떤 권한도 행사하며 41개 소속회사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고, 현재까지도 절대적인 암흑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장 무서운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조직은 구조가 너무도 복잡하고 비밀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후에 검찰, 의회 등 감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도 늘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후에 아이다 타벨도 취재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그 힘을 미루어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지만 입증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철저하면서도 냉혹한 록펠러는 트러스트의 장막 속에 숨어 거래 제한, 가격조작, 경쟁 억제, 폭력 동원, 뇌물 살포 등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연구하고 지시했다. 결국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로 인해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1887년에는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제하는 주간통상조례가 통과되고, 또 3년 후인 1890년에 「셔먼의 반 트러스트법」이 제정된다. 후에 태프트 대통령도 스탠다드 오일이 셔먼법을 통과시킨 주요인이었다고 말했다. 3

리베이트는 계속되고

'스탠다드 오일'이 트러스트 형태로 재설립된 후 기업에 대한 약탈행위가 극에 달하면서 마침내 록펠러는 1887년 11월, 연방 상원의 주간통상위원회에 소환되어 증언석에 앉게 된다. 그 때 통상위원회의 관람석에서 록펠러의 증언하는 모습을 본, 당시 언론인 헨리 데마레스트 로이드는 "미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록펠러를 '악마의 화신'이라고 비난한다. 이어서 "록펠러는 자유의 약탈자이며 돈으로 인류를 지배하려는 돈의 숭배자다. 그는 결코 법적 규제나 애국심, 자선 등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탐욕과 약탈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용매처럼 기업들과 공중도덕, 도의심, 법적 신념, 자연 질서 등 모든 것을 녹여 자신의 금으로 바꿔버린다. 그는 저지당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약탈자의 가면을 쓴 채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사고하는 악마다."며 "록펠러 같은 악마는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4

록펠러의 측근인 올리버 페인은 스탠다드 오일의 재무담당으로 1884년 아버지인 헨리 B. 페인의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 자리를 돈으로 사준다. 당시 미국의 상원의원은 주 의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기업계의 입김이 강해 주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정치계나 사업계, 언론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가 돈에 대한 탐욕으로 극도로 부패한 상황이었고 오하이오 주는 스탠다드 오일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록펠러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석유 의회'라고 불리던 상태였다. 5 올리버 페인은 컬럼비아의 한 호텔에서 주 의원들을 모아 놓고 아버지 헨리 페인의 지지를 호소하며 10만 달러를 나눠주었다.6

당시 미국 전체의 상원, 하원, 판사, 목사, 고위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정기적으로 록

펠러에게 뇌물을 받아왔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상원의원인 J. N. 캠던은 노골적으로 록펠러에게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1881년 1월 17일자로 캠던이 록펠러의 측근인 플래글러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전부들 많이 가지려 하니 정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1만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현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기록돼 있다.

곧 이어 며칠 후에 보낸 편지에는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라고 씌어 있다. 1882년에는 송유관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 두 건이 주 의회에 상정되자 철도를 장악하고 있는 록펠러는 캠던에게 그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청탁한다. 캠던이 1882년 3월 16일에 보낸 편지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다. “매릴랜드 주 의회에 올라온 두 건의 법안을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부결시켰습니다.”라고.

캠던이 하원의원이던 1876년에는 철도요금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때 록펠러는 캠던에게 그 법안을 부결시키라고 지시하자 캠던은 “상원의원 여러 명을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고 안심시킨다. 결국 하원을 통과한 운임차별금지법은 상원에서 부결된다. 당시 캠던은 비밀리에 스탠다드 오일의 자회사로 있는 석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7

1886년 스탠다드 오일은 록펠러를 최대 주주로 해서 천연가스 트러스트를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석유를 장악해 가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에 대한 엄청난 뇌물, 경쟁 가스업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여론 조작을 위한 언론인 매수 등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오하이오 주지사 찰스 포스터는 록펠러에게 보낸 1888년 1월 4일자 편지에는, 자신이 스탠다드 오일의 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댓가로 1,200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8 이 같은 부패와 관련된 기록은 록펠러문서보관소 등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장막 속에서

록펠러는 신흥 거부와는 달리 다른 재계의 인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늘 사무실과 교회에만 몰두하면서 어두운 그늘 속에서 경쟁사들을 파산시키고 가격을 주무를 계획에만 집중했다. 한 은행가가 사교 모임에서 록펠러의 측근인 조지 로저스에게 불평을 했다. “록펠러는 좀처럼 만날 수가 없군요. 그 사람은 거대한 거미인가 봅니다. 거미집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나타나 먹이를 낚아채는 거미 말이오.”9 그는 가정에서는 정 많은 남편이고 아버지였지만, 사업에서는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아나콘다였다.

록펠러는 회사 내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록펠러의 비서인 조지 로저스는 “은밀하고 음흉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사무실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라고 회상했다. 스탠다드 오일에서 50년간 근무했던 한 직원은 “그는 사무실에서 얼굴이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늘 비밀통로를 통해 다니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라고 말할 정도였다.10 비밀주의를 고수한 그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며 자신의 측근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1883년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서 뉴욕으로 이사하면서 뉴욕에 본사 사옥을 새로 짓는다. 그 사옥이 완공됐을 때 그 건물의 외부에는 스탠다드 오일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고 다만 ‘브로드웨이 26번지’라는 주소만 작은 팻말로 표기했다. 1906년 12월 23일

자「뉴욕 데일리 트리뷴」지에 의하면 “많은 저명한 사람들은 브로드웨이 26번지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은 강도들의 소굴이자 상업파괴자들의 집결지’라고 말이다.”라고 그곳을 방문했던 기자는 말한다. 11

록펠러의 철저한 비밀주의와 이중인격에 대해 타벨은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한다. “록펠러는 네 개의 객실을 갖고 있어요. 객실 중 한 칸은 사업용으로 쓰고, 또 한 칸은 종교와 자선용으로 쓰고, 한 칸은 단순한 생활용으로 쓰고, 또 한 칸은 무슨 용도로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칸의 객실 사이에는 통로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밀폐되었어요.”12 결국 독립 정유업자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게다가 남아있는 독립 정유업자들도 대부분 상호만 다를 뿐 스탠다드 오일의 비밀 계열사들이었다.

현재 세계석유를 장악하고 있는 일곱 자매[4]들은 1907년부터 1928년까지 진행되었던 치열한 경쟁기간 동안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어느 누구 혼자서도 석유시장을 독점하려고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의 눈을 피해 여기저기 지하에 꼭꼭 숨어있던 석유는 수시로 인간에게 발각되어 지상으로 끌려나오기 때문이다. 석유뿐만이 아니다. 인류의 모든 자원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쟁의 원리’다. 결코 홀로 독점할 수 없는 세계, 아니 독점해서는 안 되는 세계.

다윗의 도전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비밀의 장막에서 형체 없는 유령으로 존재하며 41개 소속 기업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 대중의 비난은 쏟아졌지만 법조계, 정치계 등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누구도 그 존재를 캐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을 악마가 지배한다 해도 어딘가에는 의로운 다윗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오하이오 주 검찰총장인 데이비드 K. 왓슨은 스탠다드 트러스트의 행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오하이오 스탠다드 오일이 자사에 대한 통제권의 대부분을 뉴욕의 브로드웨이 26번지에 있는 이사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 법령을 위반했음을 알고 1890년 5월 록펠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그러자 록펠러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미국 공화당의 절대적인 권력자인 마크 해나를 통해 무마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해나는 왓슨을 해임한다.

그러나 후임자인 프랭크 모넷은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아 록펠러를 계속 수사했고, 마침내 1892년 3월 2일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트러스트 협정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록펠러는 도드 변호사의 책략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트러스트를 해체한다. 즉, 록펠러는 오하이오 스탠다드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고 1899년 6월,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로 통합한다. 이사들의 직함을 바꾸는 등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브로드웨이 26번지에서는 여전히 신탁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전 소속사들을 통괄했다. 13 이 후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은 록펠러 기업의 최대 기업으로 부상한다.

그 후 록펠러가 여전히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모넷은 스탠다드 오일을 다시 수사한다. 결국 1898년 10월 11일, 모넷은 록펠러를 소환해 5시간 동안 심문을 하지만 거대군단

4) 메이저라고도 불리며 세계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곱 회사. 엑슨, 모빌, 셰브론, 걸프, 텍사코, 로열 더치 셸, 브리티시 등 일곱 회사. 이중 엑슨, 모빌, 셰브론, 걸프, 텍사코 등 5개 회사는 록펠러가문 소유이고 로열 더치 셸은 영국과 네덜란드 계열, 브리티시는 영국 계열이다. 그러다가 1985년 걸프가 셰브론에 합병되고, 곧이어 텍사코도 셰브론에 흡수된다. 이어서 1999년 엑슨과 모빌이 합병하여 엑슨-모빌로 탄생했다.

의 초특급 변호인단을 대동한 록펠러는 언제나 그렇듯이 묵비권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한다. 다음 날인 10월 12일자 「월드」지에 의하면 “록펠러, 흡사 조개와 같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냈다.14 “생각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등으로 진술하는 법정 풍경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는 모습이다.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자체가 질서이고 미국의 이익이므로 어떠한 문제제기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들은 공공이익의 허울을 쓰고 돈을 뜯어내려는 추악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는 세금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이익이라는 허울로 강탈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어서 스탠다드 오일의 임원들을 심문했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한 모넷은 관련 장부의 제출을 명령한다. 그러나 관련 장부 제출을 끝내 거부한 록펠러는 2주 후 직원들을 시켜 60상자 분량의 장부를 소각했음이 내부자의 고발로 드러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록펠러가 모넷에게 40만 달러를 건네며 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그 전임자인 왓슨에게도 수 십 만 달러를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모넷이 스스로 공개했다.15 그러나 결국 록펠러에게 매수된 조지프 B. 포레이커와 마크 해나에 의해 모넷도 해임되고 이 사건은 흐지부지된다.

록펠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매수행위는 계속된다. 1900년 2월 16일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인 아치볼드가 조지프 포레이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상원의원님, 아직도 불합리한 법이 살아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법을 폐기해 주십시오.” 이어서 같은 해 4월 17일 다시 포레이커에게 보낸 편지에는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도록 1만 5천 달러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6

이 뇌물과 관련한 문서는 리베이트 비밀과 산업스파이 비밀이 우연한 일로 세상에 알려졌듯이 역시 우연한 일로 알려진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는 비밀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대부분은 그들의 의도대로 지하 깊숙이에 묻혀 버렸을 테고. 스탠다드 오일에서 급사로 일하는 윌리라는 청년이 1904년 12월,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인 아치볼드의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뇌물 내용이 담긴 편지 묶음을 발견한다. 그는 이 문건을 「뉴욕 아메리칸」편집장인 프레드 엘드리지에게 전달했다. 1908년 9월 17일, 이 내용이 세상에 공개된다.17

주가 조작

록펠러는 주가 조작 혐의로 두 번 기소 당했다. 그리고 그는 주식에 투기할 때는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까지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다. 1900년대 초에는 주식투기로 1년에 5천 800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18 록펠러2세는 아버지가 청교도로서 겉으로는 월스트리트를 경계하고 늘 투기를 엄격히 반대하면서도 스스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풀리고, 거짓 정보를 유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인 혼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록펠러2세도 브라운대학을 졸업하고 브로드웨이 26번지에 입성한 1897년 첫 해에 주식투기로 수천 달러를 벌었다. 그러나 록펠러2세는 얼마 후에 다시 U. S. 피혁의 주식에 수백만 달러를 투기했다가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1890년대 이후부터 록펠러의 주식투기에는 게이츠 목사, 록펠러2세, 주식 투기 전문가인 찰스 O. 헤이트, 버트램 커틀러 등 4인이 함께 계획을 추진했다. 19

작가 헨리 클루스는 「월스트리트의 50년 역사」에서 “월스트리트 사상 최강의 세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도가 크게 바뀌었다. 대부분 스탠다드 오일 사람으로 구성된 이 세력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기업에서 사용해온 방법들 즉, 조용하지만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하고 추악한 방법들을 월스트리트에 도입했다.”고 기록했다. 20

클루스가 지적한 스탠다드 오일 사람들이란 플래글러, 헨리 로저스, 록펠러, 그리고 그의 동생 윌리암 록펠러를 지칭했음을 대중은 알고 있었다. 록펠러가 어떤 주식을 사들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해당 주식에 투기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거액을 활용해 투기꾼들의 환상을 조장했다. 그는 언제나 투기할 우량주를 찾아다녔고, 말년에도 하루 두 차례씩 주식시세표를 받아보면서 거액으로 주가조작을 계속한다.21

오늘날 유태계 거대 투기전문가인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이 어느 주식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퍼지면 투기꾼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작가 토마스 로손은 「에브리바디스 매거진」에서 록펠러의 주가조작을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록펠러는 지옥에서 쓰이는 종이인 석면으로 덧칠해진 기계 같은 인간”이라고 비난했다.22 석면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다.[5]

메사비 탄광 사건

이 음모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록펠러의 개인 목사이자 그의 재산관리인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프레데릭 게이츠 목사였다. 게이츠 역시 록펠러와 같이 근본주의 기독교를 추종하는 청교도였다. 그는 1891년부터 록펠러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스탠다드 오일 외에 철도, 광산 등 67개의 대규모 사업을 관리했다. 그 총액은 2,300만 달러에 달했는데, 1,375만 달러는 16개의 철도회사에, 300만 달러는 9개의 광산에, 200만 달러는 몇 개의 은행에, 400만 달러는 기타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는 록펠러가 장악했던 기업 중 13군데의 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23 그는 메사비탄광 사기사건, 콜로라도 탄광 학살 사건, 비과세지주회사인 록펠러재단 설립 등을 주도한다.

1893년은 공황기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황 때마다 록펠러는 승승장구한다. 1929년 대공황 때도 록펠러는 세계 최대의 은행인 「체이스 은행」을 인수하게 되는데, 1895년 공항 때에도 뉴욕의 은행가문인 맬런가가 소유하고 있는 「크레센트 송유관 회사」와 135개의 유정 등 막대한 관련 자산을 인수한다. 1893년 공황 직전에 그는 철도회사 16개, 부동산회사 9개, 철강회사 6개, 은행 9개, 오렌지농장 2개에 상당한 액수의 주식을 투기하고 있었다. 24 분명한 것은 록펠러는 ‘현금보유 능력의 강화’를 경영 철칙으로 삼아, 그의 회사에는 늘 현금이 풍부했다.

이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1894년 자금난을 겪고 있던 메릿가문에 게이츠 목사는 ‘로이드 목사’라는 가명으로 접근한다. 메릿 가문은 전 해인 1893년의 공황의 여파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었고 이미 게이츠 목사는 주변 은행들을 매수해서 메릿 가문에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였다.

로이드 목사가 늘 부드러운 미소로 접근하며 메릿 형제들과 친해지자 그는 자금난을 겪

5)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1950년대 이 후 록펠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몬산토 등에서 생산하는 주력 상품인 화학물질과 유전자조작 등을 숨기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담배로 돌릴 때, 이 ‘담배공포’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던 리차드 돌과 C. 에버릿 쿠프 등은 “석면이 암의 원인이 아니고 그들이 피우는 담배가 원인이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해주는 댓가로 몬산토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는다(V. 1984년. 공포 조작 참조).

고 있는 그들에게 달콤한 선물을 준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부자에게 이 가문을 얘기하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더니 쾌히 42만 달러를 연이율 3퍼센트로 빌려주겠다고 하는군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축복해주시는군요.” 메릿 형제에게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였다. 42만 달러라는 거액을 연 3퍼센트라는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겠다니.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갑작스런 호의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는 법!

독일에서 갓 이민 온 탓에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메릿 형제는 광산을 담보로 42만 달러를 가명을 사용하는 록펠러로부터 대출받는다. 그 후에도 로이드 목사는 메릿 형제들을 수시로 방문하며 상황을 점검한다. 마침내 몇 개월이 지나 그들이 대출금을 다 소비하자 로이드 목사는 “아침에 전보가 왔는데 그 분이 오늘 당장 대출금 42만 달러를 갚으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 록펠러이고 저는 게이츠입니다.”라며 가면을 벗는다. 그날 42만 달러를 갚지 못하자 결국 메릿 형제들은 법정으로 불려간다.

법정에서 게이츠 목사가 증거로 제시한 계약서를 검토한 판사는 “대출 형식이 콜론(call loan)이군요. 콜론은 이자가 싼 대신에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오늘 당장 42만 달러를 갚든지 담보로 잡힌 광산을 록펠러에게 넘기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어이없이 광산 소유권을 빼앗긴다.

후에 메릿 가문의 고발로 게이츠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이에 록펠러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2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게이츠의 명예를 회복해준다. 사기사건이 해결되자 게이츠는 이를 J. P. 모건의 「U. S. 스틸」에 8,850만 달러에 매각하여 5,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이 후 록펠러는 게이츠가 설립한 교회에 60만 달러를 기부한다.

후에 광산 일대에 그들의 추악한 악행이 알려지자 게이츠는 「록펠러와 메릿 가문의 진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교회, 언론사 등에 무료로 배부하면서 자신들은 법적으로 정당했다고 변명한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지역의 미네소타 신문기자를 매수하고, 인근 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갔다. 25

아나콘다 구리 회사 사건

록펠러는 메사비탄광사건에서 보듯이 늘 장막 속에 숨어 사소한 부분까지도 지휘를 하면서 전면에는 그의 측근들을 내세웠다. 스탠다드 오일의 중역들 중에서 경영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록펠러였다. 어떤 문서에도 자신을 유추할 수 있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록펠러는 평생에 걸쳐 수 십 건의 형사, 민사 소송을 당했어도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예컨대 1899년 록펠러의 측근인 헨리 H. 로저스, 록펠러의 동생인 윌리엄 록펠러, 윌리암 록펠러의 측근인 제임스 스틸먼을 내세워 몬태나 주에 있는 델리의 「아나콘다 구리 회사」를 3,9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세 명의 대리인은 아나콘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틸먼이 운영하던 「내셔널 시티 은행」의 당좌수표로 지급하기로 했다. 록펠러의 동생인 윌리엄과 스틸먼은 사돈관계이고, 또 이 은행은 록펠러가 소유하고 있었다.

지불수단인 당좌수표는 일정기간 발행은행에 예치해야 만기가 되었을 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표도 내셔널 씨티 은행에 예치됐다. 그러자 3인은 예치된 수표를 담보로 「아말가메이티드 구리 회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아나콘다 회사 소유의 모든 광산과 시설을 아말가메이티드사로 옮긴다. 그리고 주식중개인인 토마스 W. 로슨을 통해 실제 자산 가치를 턱없이 올려 7,5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발행한다. 그리고 3,900만 달러

로 아나콘다의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주식이 발행된 1899년 5월 4일, 경찰이 질서를 잡아야 할 정도로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스탠다드 오일의 계열사로 록펠러가 관여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투기꾼들이 매수 신청하는 대로 즉시 자신들의 평가절상 된 주식을 내다 판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공짜로 아나콘다회사를 줍고, 3,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수만 명을 파산지경에 몰아넣는다. 26

이 사건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주식중개인 토마스 W. 로슨이 5년 후인 1904년 7월호부터 연재로 「에브리바디스 매거진」에 '미친 금융'이란 제목으로 폭로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록펠러 일당이 개입하면서 대중들은 매수에 열을 올렸고, 일당들은 매수자들을 끌어 모으면서 그들의 주식을 전부 내다 팔았다."고 폭로하며 "여기에 극악무도한 만행이 폭로된 자들은 진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라."고 비난했다. 그는 금융인에서 언론인으로 자리를 옮긴 후 주식 거래의 실체를 계속해서 파헤쳤다. 이 폭로 기사가 나간 후에 록펠러가 끝까지 발뺌을 하자 로저스는 "그런 방법은 내가 록펠러에게 배운 제1원칙으로 스탠다드 오일 사람이라면 누구든 깊이 새기고 있으며 우리에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실을 밝히기도 했다. 27

유럽 시장

석유는 처음부터 국내 내수용보다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이 훨씬 많았다. 국제시장 석유물량의 85퍼센트를 장악했던 스탠다드 오일의 전성시대는 러시아의 카스피해 인근 바쿠에서 대유전이 발굴되면서 깨진다. 1874년에 60만 배럴에도 미치지 못했던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10년 후에는 1천 80만 배럴에 이르렀고, 이는 미국 석유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록펠러는 1885년에 W. H. 리비, 아치볼드 등을 유럽으로 보내 노벨의 석유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그해 12월부터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을 공격하고 그 부족분은 국내에서 임금삭감과 등유가격 인상, 정부보조금으로 채웠다. 28

록펠러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석유지도를 그리기 위해 1888년 이후 직접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수시로 방문한다. 1888년에 로스차일드가 영국에 자사 판매회사를 설립하자 록펠러도 즉시 「앵글로 아메리칸 석유 회사」를 차리고 이에 대응한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가 열리던 그해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원인 프랑스의 알퐁소 남작은 스탠다드 오일의 본사가 있는 브로드웨이 26번지를 방문한다. 29 이즈음에 록펠러는 유럽을 수시로 방문했던 이유를 겉으로는 '요양' 때문 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럽시장을 분점하기 위해 로스차일드 가문, 노벨 가문과의 협상 때문이었다.

록펠러의 회고록 「두서없는 회상」에서 그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중 하나는 워싱턴의 국무부였다. 우리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들은 우리가 세계 구석구석까지 새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권한을 주었다."고 회상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의 협조로 러시아 산 석유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정치인들을 매수한 록펠러는 대외적으로는 석유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석유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현재에도 석유를 자급자족하면서 수출도 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영국은 88퍼센트가, 노르웨이는 83퍼센트가, 독일은 77퍼센트가 국고로 유입되지만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 미국은 31퍼센트만이 국고로 유입된다. 1870년대부터 1920년대 까지는 석유에 소비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았다. 30

록펠러는 미국에서 '부의 왕국'을 건설했고, 루트비히와 로베르트 노벨 형제는 러시아의 자치국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수도 바쿠에서 '부의 왕국'을 건설했지만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노벨은 송유관에 엔진을 장착하는 등 끊임없는 발명과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록펠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연구에는 거의 소홀했다. 반면에 다른 기업이 개발해서 성공하면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회사를 싼값에 인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독립업체들은 스탠다드 오일을 '올드 하우스(Old House)라고 불렀다. 31 다시 말해 노벨형제는 개혁가의 길을 택했지만, 록펠러는 상인의 길을 택했다.

국제 석유 시장을 두고 유럽에서 경쟁을 했던 두 석유 사업가는 경영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록펠러가 노벨 형제의 러시아산 석유와 경쟁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가격 인하는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가능했지만, 노벨은 노동자들과 협상을 통해 정한 임금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해 사용했다. 노동자의 아이들을 회사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했고,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매년 노동자들에게 1주일의 휴가도 허용했다.

노동자들은 '노벨 가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 때문에 노벨 형제 회사는 생상성이 높아 록펠러의 가격경쟁에 대응할 수 있었다. 록펠러와 경쟁하던 해리 싱클레어 회장의 「싱클레어 석유 회사」도 노동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풍부해 일요일 휴무와 8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등 당시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체였다. 32

두려움 속에서

록펠러의 부가 쌓이는 높이에 정비례해서 대중의 분노도 더해갔다. 타벨이 여러 차례 록펠러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당하자 그녀는 신도를 가장해 그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록펠러를 취재한 후 대중에게 그의 모습을 알렸다.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갈 때마다 그를 쏘아 보는 수많은 눈초리가 번득였으며, 목사는 핑커턴 사무소의 무장 경호원들을 고용하여 신도들 사이에 배치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했다. 이제 그는 대중 앞에 노출되는 것에 불안을 느꼈으며 기자들을 철저히 피했다. 록펠러는 잘 때에도 늘 침대 곁에 장전된 권총을 두고 자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될 수 있으면 벽에 등을 기대어 앉는다. 다른 사람이 등 뒤에서 어떤 일을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고 한다. 그는 늘 이중적인 자신의 삶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40대 후반부터 심한 소화불량, 천식, 대장염, 눈과 척추 질환 등을 겪어야 했고, 온몸의 털이 다 빠지는 중증 탈모증을 겪어야 했다.33

타벨은 이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록펠러는 불안해하며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늘 목을 쭉 빼고는 이곳저곳을 살폈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미국 전역에서 스탠다드 오일을 운영하는 동안 고통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하는 협박에 그는 두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최대 부자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너무 측은했다."고 당시의 모습을 회상했다. 그것은 타벨이 직접 목격한 모습이고, 교우들이 증언해준 것이었다.

산호 기둥

그는 타인에게는 검소하다기 보다 인색할 정도로 구두쇠였지만 상하의원, 판사, 기업조

사관,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뇌물, 포칸티코 같은 호화 대저택, 최고급 마차 등에는 물 쓰듯 돈을 뿌렸다. 록펠러는 1870년대에 1만 달러에서 1만 2,500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미드나이트, 플래시, 트라이플 같은 명마들을 사들였다. 지금의 가치로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마굿간도 록펠러의 저택만큼이나 호화로웠다.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로 된 들보와 소나무 벽판, 고급 샹들리에와 난방시설로 장식한 커다란 마차 차고들이었다. 34 마치 '산호 기둥에 호박 주추'라고 표현함이 어울릴 정도였다.

그는 1904년형 최고급 피어리스 자동차와 1918년형 최고급 투어링 카를 여러 대 소유했고, 늘 최고급 명마가 끄는 사륜마차 등으로 각 주에 있는 대저택의 차고를 가득 채웠다. 그의 호화 저택은 뉴욕, 플로리다, 메인,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등 거의 대부분의 주에 1개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그의 저택에는 각양각색의 숲과 폭포, 동굴, 호수, 골프장, 고대 신전을 모방한 구조물과 조각상 등으로 꾸며진 수 십 킬로미터의 개인 고속도로를 갖고 있었다. 특히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포칸티코 대저택은 영국 조지왕의 궁전을 모방해 지었는데, 거기에는 120킬로미터에 달하는 개인 고속도로와 여러 대의 전차를 갖추고 있었고 경비, 정원사, 요리사 등 350명의 직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 연간 주택 유지비만도 50만 달러를 넘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모나코 왕국의 열 배나 되는 부지를 자랑하는 이 저택은 후손들의 재산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35

록펠러의 반격

타벨의 스탠다드 오일의 실체에 관한 기사가 「매클루어 매거진」에 연재로 계속 나가는 동안에도 록펠러는 일절 직접 대응하는 일이 없었다. 타벨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록펠러가 이미 20여 년 간 오하이오 주, 뉴욕 주, 펜실베니아 주 등 미국 전역에서 체포영장이 발급되어 이곳저곳의 대저택들을 옮겨 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하던 때였다. 한 신문은 "돈주머니보다 펜이 더 강한가? 타벨이라는 연약한 여성이 록펠러보다 힘이 더 강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내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한 시사평론가는 그녀의 기사에 대해 "고결함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예복 아래 감춰진 도덕적 범죄에 대한 용감한 폭로"고 격찬하기도 했다. 36

그러나 록펠러는 타벨의 폭로에 대해 전혀 대응을 안 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가 직접 대중 앞에 나서 대응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로이크로프트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앨버트 허버드를 매수해 타벨을 비판하고 트러스트를 격찬하는 내용의 소책자 500만 부를 발간해서 기자, 교사, 목사, 정치인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의 길버트 H. 몬태규라는 졸업생을 통해 '스탠다드 오일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졸업 논문을 작성하게 하여 이것도 미국 전역에 무료로 배포했다.

그리고 록펠러가 인수한 「클리블랜드 데릭」지 등 록펠러 측의 신문들은 연일 "정신병자인 여자 대 역사적 사실", "타벨은 정당한 사업 거래를 어떻게 왜곡했나?" 등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싣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영국의 조지 건턴이라는 경제학자를 매수해 연간 1만 5,000달러씩을 10여 년 간 지급하면서 타벨의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의 잡지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입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활용했다. 37

그러면서 그는 뇌물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늘려갔다. 록펠러2세가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다드 오일 뉴욕 본사로 출근하기 시작하던 당시를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마크

해나, 코닐리어스 N. 블리스, 넬슨 올드리치, 보이스 펜로즈 등 각 정당의 대표들과 유명한 정치인들이 뒷문으로 들어와 거액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회사 운영을 생각할 때 그들을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됐지만 점차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사회의 일원으로 뇌물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꼈지만 한 개인의 목소리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번은 이러한 관행에 사장인 아치볼드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그는 웃으며 '생존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38 뇌물은 투자라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록펠러2세도 근본주의 기독교, 인종차별주의, 불법행위, 부에 대한 탐욕 등의 사고는 아버지와 거의 같았다. 1902년 2월 브라운 대학 YMCA 강당에서 록펠러2세가 '트러스트의 정당성'이란 내용을 강연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는 '아메리칸 뷰티'입니다. 그 장미는 주변의 새싹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화려함과 향내가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 39 이는 록펠러가문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솔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아메리칸 뷰티 장미는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이어 1913년에는 콜로라도광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학살한다.

새로운 바람이 불지만

1907년 여름에 스탠다드 오일에 대해 탈세, 독점금지 위반, 뇌물수수, 리베이트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연방정부는 7건의, 주 정부는 21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심지어 오하이오 주에서는 록펠러에 의해 사기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 의해 939건의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캔자스 주의 주지사는 교도소 죄수들을 고용하여 스탠다드 오일과 경쟁할 주립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40

1905년 미주리 주 허버트 S. 해들리 검찰총장은 록펠러가 도망다니던 중에 스탠다드 오일의 자회사인 '워터스피어스'와 '리퍼블릭 오일'사가 석유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인디애나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 판매 영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록펠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스탠다드 오일의 석유값도 너무 비싼 상태였는데 두 회사의 석유값은 거의 스탠다드 오일사보다 거의 두 배나 비쌌다.41 그러니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인디애나 스탠다드 오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907년 1월, 주간통상위원회는 스탠다드 오일이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받고, 경쟁사들의 직원을 스파이로 매수하고, 유령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경쟁사를 협박하고, 약탈적인 가격정책을 펼치는 등 1870년대 이후 록펠러의 전매특허였던 추악한 죄악들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마침내 1907년 11월 18일, 해들리 검찰총장은 또 다시 스탠다드 오일과 록펠러 등 임원들을 기소했다. 곧 70대를 바라보는 록펠러는 자신의 황혼기가 이토록 파란만장한 얼룩으로 덮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42 부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그의 절대적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부의 힘으로 무죄판결이 나도 곧 다른 죄명이나 다른 주에서 기소되는 일이 계속 되풀이됐다.

이어서 1907년 8월 3일, 인디애나 주 정부가 엘킨스 법에 의거해 스탠다드 오일이 리베이트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케네소 M. 랜디스 판사는 스탠다드 오일이 1,642건의 리베리트 위반을 인정하고 2,924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랜디스 판사의 체포영장을 피해 매사추세츠 주를 거쳐 오하이오 주로 도망갔던 록펠러는 클리블랜드 대저택에서 기자와 골프를 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여유 있게 말했다. "이 벌금을 납부할 때쯤이면 랜디스 판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돼 있을 걸세." 실제로 랜디스 판결은 항소심에서 록펠러가 이미 매수한 피터 S. 그로스컵 판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는다. 43 그는 벌금을 내

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미 윗선을 다 매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책임 면제

한편 1906년 11월 15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찰스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에게 지시해 스탠다드 오일을 세인트루이스 법원에 기소한 사건에서는 스탠다드 오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록펠러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여기서도 패한다. 이렇게 연방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록펠러는 21개 주에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들과 싸워야 했다.

프랭크 B. 켈로그 검찰관은 스탠다드 오일이 터무니없는 가격조작으로 소비자들을 분노케 한 점을 지적하자, 록펠러는 공장의 화재위험, 시추작업의 불확실성, 새로운 영역으로의 투자 필요성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높은 가격은 미래에 대비한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답변했다. 록펠러의 답변에 다시 켈로그는 이렇게 응수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임원들에 대한 봉급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록펠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그래서 늘 그분께 감사드리지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악행이 문제될 때는 신을 언급했다.

결국 1911년 5월 15일, 에드워드 D. 화이트 대법원장[6]은 판결문에서 "7명의 인물과 한 회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이 꾸민 음모인 스탠다드 오일은 자유시장의 적이며 경멸의 대상이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이런 위험한 음모는 11월 15일을 기해 끝나야 한다."며 6개월 이내에 비밀스런 불법 트러스트를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스탠다드 오일은 39개의 독립회사로 분할된다. 44

그러나 보수적이고 록펠러에 매수당한 대법원은 '기업 해체' 한가지만을 명령했을 뿐 스탠다드 오일과 그 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위증, 사기, 리베이트 환급, 주가조작, 독점금지 위반 등 모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합리적인 독점은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30년간 이어지던 도망자 생활에서 록펠러는 풀려난다.

그러나 록펠러는 이런 조치마저도 부당하다고 느끼고 7번의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결국 8번째 재심이 신청되었을 때 법원은 재심금지명령을 내리고, 6개월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체 판결이 나던 시점에 스탠다드 오일의 공식적인 시장 점유율은 78퍼센트였다. 그러나 록펠러가 비밀리에 인수하여 겉으로는 독립업체인 듯이 가장하고 영업을 했던 회사들의 점유율까지 합한다면 이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공식적으로만 따져도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유조차의 절반 이상을 보유했고, 내수 및 수출용 휘발유의 85퍼센트를, 철도회사가 사용하는 윤활유의 90퍼센트를 스탠다드 오일이 장악했다. 심지어 기선 78척, 범선 19척에 자체 해군까지 보유했다.45

그러나 악마는 끝까지 록펠러의 편이었다. 뉴욕 브로드웨이 26번지의 9인 이사회로 모든 의결권을 위임했던 6,006명의 소액주주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각자의 지분을 환급

---

6) 미국의 제9대 연방대법원장(1911~21).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극단적인 보수 교단인 로마 가톨릭 예수회의 소속으로, 남북전쟁 중에는 노예해방을 반대하며 남군에 입대했다. 루이지애나 주 상원의원과 주 대법원판사, 연방 상원의원, 연방 대법원판사를 역임했다. 1911년 연방대법원장이 되어 독점 기업에 의한 거래제한은 '불합리한' 것으로 셔먼 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폈다. 그는 '합리성'이란 모호한 개념을 법에 도입해 셔먼 법의 추상적 내용과 맞물려 후의 독점금지 사건에 관한 결정들을 예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최장근로 시간을 정한 1916년의 애덤슨 법의 합헌을 인정했고, 징병을 합헌으로 인정하는 등 평생 동안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보수의 성향을 보였다.

받은 후 스탠다드 오일은 1911년 12월 1일, 사상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회사를 공개했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 자동차의 붐이 일어나면서 자동차 생산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이 해에 자동차 생산 기지인 디트로이트에서 처음으로 주유소가 문을 열었다. 46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를 여는 신호였다.

그러자 증권거래소에서는 스탠다드 자회사들의 주식가격이 연일 상종가를 쳤다. 분할 후 일주일 만에 뉴저지 스탠다드는 주당 평가액이 260달러에서 580달러로, 인디애나 스탠다드는 3,500달러에서 9,500달러로 전체 평가액이 두 배로 증가했다.47 소송이 끝나면서 스탠다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지금까지 철저히 주식 공개를 거부하며 기업을 극도로 저평가해 왔던 스탠다드 오일 주식이 공개되자 투기꾼들이 몰렸던 것이다.

다시 그 자리로

해체 판결이 나던 날 록펠러는 포칸티코의 대저택에서 태리타운 천주교회의 신부인 J. R. 레논과 골프를 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레논 신부에게 “신부님, 돈 좀 있으시면 바로 스탠다드 오일 주식을 사들이세요.”라고 말한다.

개혁론자들과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 이 판결은 결코 승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탠다드 오일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 환급을 원한 것이지 단지 형식적인 분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대중은 법의 공정한 집행을 원했다. 당시 배석 판사인 존 M. 할랜은 “의회가 규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법원이 서면 법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트러스트는 마음대로 거래를 조종해도 됩니다. 합리적이기만 하다면...”이라며 판사석을 내리칠 정도로 크게 분노한다. 48

상원의원인 로버트 라 폴레트는 “록펠러가 원하는 대로, 반면에 의회가 반대해온 대로 되어 걱정이다.”며 판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 “인류를 돈의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고 강력하게 개혁을 주장했던 상원의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도 “대법원장 화이트는 15년간 트러스트를 보호해주고, 이제는 그들에게 도망가는 길을 알려주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50년이 지난 1990년에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록펠러재단 소유인 스펠먼대학 교수인 하워드 진은 “부패한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판사들의 대부분이 상층계급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겠는가?”라며 회의한다. 49

판결 이후에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스탠다드 오일의 경영에서는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1914년 연방의사록의 기록에 의하면 “스탠다드 오일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정부’로 군림하고 있다.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 뉴욕 시장을 지낸 존 할렌도 1922년에 “우리 미국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거대 문어처럼 끈적거리는 촉수로 우리 시와 주, 국가 전체에 다리를 뻗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부’이다. 이 문어의 머리는 스탠다드 오일이다.”고 지적했다. 50 이때는 록펠러가 ‘비과세 록펠러재단’이란 기업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해 가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록펠러의 후손들은 20세기의 끄트머리인 1999년 12월 1일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세계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 엑슨과 모빌이 합병하여 ‘엑슨-모빌’이라는 공룡기업으로 재탄생한다. 엑슨의 모체는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이고, 모빌의 모체는 뉴욕 스탠다드 오일이다.51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록펠러의 복수’라고 한다.

풍선은 터지고

1910년대 후반,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럽으로 곡물, 철강, 의류, 석유 등 모든 물자를 수출하면서 경기가 호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환희의 분위기에 빠졌고, 유럽에서 건너오는 전쟁 배상금과 수출의 호황으로 젊은이들은 새롭게 황금의 맛을 보기 시작했다. 소위 재즈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미국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전쟁 전 37억 달러의 빚으로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던 미국은 전쟁 후 126억 달러의 채권국으로 바뀌었다. 남북전쟁 당시 110만 명의 사상자 속에 록펠러는 백만장자가 되었듯이, 3,6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1차 대전 이후에 록펠러는 억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선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비과세 지주회사인 록펠러재단으로 대부분의 부를 숨긴 록펠러가문은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리카내전, 이라크전쟁 등 전쟁을 통해 부의 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쌓여갔다.

대공황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거리로 내몬 채 10년간을 이어갔다. 이전 농업시대와는 달리 산업화된 나라에서 실업자들은 돌아갈 땅도 없었다. 땅과 집을 잃고 도시 빈민이 되어 쓰레기장에 급조된 '후버촌'의 주민으로 변해가는 농민들의 슬프고 분노에 찬 얼굴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책동으로 시작된 광란의 주식투기는 1920년대 초부터 1929년까지 유통되는 화폐는 36억 달러였으나 신용의 형태로 이루어진 총통화량(M3)[7]는 1921년 6월 453억 달러에서 1929년 7월에는 730억 달러로 증가했다. 무려 200퍼센트가 넘는 부채가 증가했다. 모두들 일확천금의 망상으로 빚으로 투기에 달려들었다. 미국 인구 1억 2,000만 명 중에서 3,000만 명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했다. 이미 그해 6월에 미국 경제는 성장을 멈췄는데도 말이다. 연방준비은행이 공언한 정책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자극할 만큼 이자율을 낮춰 신용자산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자기 자본의 10배에 달하는 저리의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52 부는 산술급수적으로 뛰었지만,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마치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나방들처럼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서 빼내 그것을 몽땅 '인슐유틸리티 투자사'와 같은 회사들의 주식 매입에 쏟아 부었다. 1929년 당시 미국에는 1가구당 1대꼴로 승용차가 보급되었다. 도시든 시골이든 승용차가 길을 메웠다. 금주시대의 사회적 불안을 주가 상승으로 돌리려했던 광풍은 결국 터지고 말았다. 풍선이 터지자 현실은 아비규환의 지옥이었다. 2년 만에 주가는 10분의 1로 추락했다. 53 대중들은 집이든, 토지든, 심지어 가재도구까지 모두 잃고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길게 늘어선 무료급식소의 대열이다.

그러나 록펠러2세는 1929년 주식시장 대붕괴 이전에 벌어들인 돈으로 당시 미국의 최대 은행인 '체이스 내셔널 은행'을 대공황기인 1930년에 인수하여 그가 운영하던 '이퀴터블'

7) 통화지표란 시중에 돈(통화)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통화 지표에는 통화(M1), 총통화(M2), 총유동성(M3) 등 포괄범위에 따라 지급 수단 기능을 중시하는 지표로,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은행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된다. M2는 M1에다 은행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을 합한 것이다. M3는 총유동성으로 총통화(M2)에 증권, 보험, 단자, 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의 각종 예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이다. 은행 및 제2금융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금융거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M3를 작성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데다 통화당국이 직접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신탁회사와 합병한다. 이로써 체이스은행은 84개의 국내지점과 76개의 해외 지점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으로 탄생한다. 이 최대 은행은 1932년부터 록펠러2세의 처남이며 넬슨 올드리치의 아들인 윈스롭 올드리치가 맡는다. 54

금주시대

록펠러부자는 자신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변하자 자신들의 또 하나의 철학, 즉 금주를 대중에게 전파하려고 시도한다. 록펠러 자신을 포함해 그의 아내 스펠먼, 록펠러2세 등은 오래 전부터 금주협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상황이었다. 그리고 록펠러2세는 1950년대부터 담배공포도 만들어간다. 마침내 1919년 수정 헌법 제 18조를 통과시켜 미국 전체 시민에게 금주를 법으로 강요한다.

사실 억압적인 경향을 지닌 금주법은 미국에 있는 소수 인종을 '청교도로의 미국화' 즉, 이민노동자들의 '질 나쁜 음주 습관'을 교화해 그들의 청교도로 개종시키려는 의도였다. 그 30년 전인 1885년 11월 25일, 애틀랜타에서도 금주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년 후인 1887년 11월 26일에 실시된 주민 투표에 의해 금주법은 폐기된 적이 있었다. 55 금주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삶의 현장을 봉쇄하는, 숨 막히는 억압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금주법은 전 지역에서 무시되면서 범법자들만 양산해냈다. 예컨대 워싱턴에서는 금주법이 시행되기 전에 300개의 합법적인 술집이 있었는데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700개의 불법 술집이 생겼다. 메사추세츠에서는 1,000개의 허가 술집에서 4,000개의 불법 술집으로 늘어났다. 금주법의 망을 피해 형성된 불법 자금은 매춘, 도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저널리스트 월터 리겟은 1929년 11월의 상황을 의회에서 이렇게 묘사한다. "그것은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술은 데니 머피라는 디트로이트의 거물 도박꾼이 무료로 제공했고, 그 술판에는 미시간 주지사, 디트로이트 시 경찰서장, 미시간 주 경찰총장, 미시간 주 판사, 정치인, 일류클럽회원, 도박꾼, 밀주 제조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의 신 바쿠스 밑에서 완전한 평등정신으로 형제애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알몸의 댄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선이 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과 같은 시기인 1919년에 노르웨이도 금주법을 시행했지만 7년 만에 폐기했다.56 그러나 청교도 국가임을 자부하는 미국은 14년이나 위선을 가장하며 금주법을 유지한다.

록펠러가문 같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죄의 개념을 인종과 성에 따른 차별, 생태계 파괴,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 주식시장 조작 등 사회 구조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음주, 흡연, 방탕, 성적 자유 등 개인적인데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금주법으로 인해 오히려 주류가격은 폭등하고, 음주는 그늘 속으로만 숨었을 뿐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이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반작용으로 주류를 장악한 '마피아' 같은 거대 폭력조직이 만들어지는 계기만 제공했을 뿐이고 사회 전반적인 부패는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결국 대공황 시기인 1933년에 수정헌법 제21조에 의해 금주법은 폐기된다.

폭풍우 치던 밤의 사건

1915년 3월 11일, 10년 이상을 병고에 시달리며 반신불구로 고통을 겪어오던 록펠러의 아내 세티는 뉴욕 주에 있는 포칸티코 대저택에서 죽음을 맞는다. 록펠러는 그의 아내를 고향인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가족 묘지로 옮기기를 원했지만, 당시 그는 대중과 여러 주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여서 시신을 클리블랜드로 옮길 수가 없었

다. 클리블랜드는 스탠다드 오일이 초기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이웃의 업체들을 파산시키고 헐값에 사들였던 곳이다.

게다가 클리블랜드의 카이어호가 카운티의 세무서로부터 15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 받고, 몇 년 동안 납부를 거부하자 50퍼센트의 추징금도 부과 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록펠러가 서류상 거주지를 클리블랜드에 두고 실제로는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펜실베니아 주 등 이곳저곳의 대저택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던 시기로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세티는 너무도 쇠약한 상태여서 고향인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록펠러는 장례식을 클리블랜드 가족묘지에서 치르지 못하고, 록펠러의 측근이자 스탠다드 오일의 제2대 회장 아치볼드의 가족묘지인 태리타운 슬리피할로에 5개월 동안 임시로 매장하고 경비원 두 명을 24시간 교대로 배치하여 지키도록 했다. 57

그 후 새로 취임한 오하이오 주지사는 록펠러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공무원들을 모두 경질하고 부과됐던 세금을 취소했다. 이제 록펠러는 더 이상 법적인 세금문제 때문에 고향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주지사 선거 당시 두 후보자를 이미 매수해둔 결과였다. 그러나 아직 언론과 마을 주민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었다. 록펠러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시신은 일급 기밀작전 아래 클리블랜드로 옮긴다.

우박과 소나기를 동반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8월의 어느 깊은 밤, 록펠러는 밴더빌트라는 장의사를 시켜 경호원 몰래 가매장지에서 시신을 옮긴다. 그리고 미리 대기해 있던 특별열차와 승용차로 클리블랜드로 수송하여 가족묘지로 이장한다. 열차승무원들도 일반 상자에 담긴 것이 세티의 시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은 록펠러와 사촌들 3명,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 비밀리에 보낸 직원 2명, 장의사 이렇게 7명뿐이었다. 심지어 록펠러의 유일한 상속자인 록펠러2세에게도 비밀에 부쳐진 상황에서 진행됐다. 1915년 8월 12일에 직원 리차드슨이 록페러2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스펠먼의 시신 이동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일이 끝나기 전에 언론이나 대중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진행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고 기록되어 있다. 58

그 후 록펠러는 20여년 후 자신이 사망하여 이곳에 매장될 때까지 다시는 고향땅을 밟지 못한다. 취소됐던 세금문제도 다시 불거졌고 고향에 있는 포레스트 힐의 대저택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향인 클리블랜드에서 자행했던 대학살로 인해 고향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이 이곳의 가족묘지에 묻힐 때에도 그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22년 후인 1937년 5월 23일에 록펠러도 눈을 감는다. 클리블랜드로 옮겨진 그의 시신은 대중이 무덤을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방탄 처리된 특수 관에 안치한 후 무덤은 거대한 돌로 봉쇄됐다. 록펠러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59

미국의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는 남북전쟁 이전에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예정설과 금욕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청교도 이주민들은 더욱 보수적이 되면서 결국 흑인노예까지 합리화시키고 부의 탐욕을 강화하는 등의 비이성적인 미신으로 변질했다. 칼뱅이 종교 개혁 당시 강력히 주장했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금언은 구속과 금욕, 부의 탐욕으로의 개혁으로 받아들였고, 공황기마다 일어나는 각성운동은 보수주의로의 회귀를 부추겼다. 사실 칼

뱅이 금욕과 직업소명을 강조했던 것은, 교황이 자기희생과 봉사를 이행하는 대신 호화로운 자신의 왕궁과 수도승의 무직업을 반대하는 데서 나온 교리였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값비싼 그림도, 호화로운 장식도, 거대한 오르간도 없는 소박한 교회를 주장했다. 60 그러나 이후 청교도들이 부와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다시 예전의 중세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교회는 화려해지고, 노동은 천시되고, 계층분화는 심해지고, 탐욕은 깊어지고...

미국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하던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사회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빈민에 대해 관심을 갖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잠깐 제이콥 리스의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이 사는 법」등 노동자, 빈민들의 비참한 삶이 르뽀 형식으로 소개되면서 미국 청교도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깐 이었다. 61 이미 비뚤어져 굳어진 관념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82년 가을 미국을 방문한 허버트 스펜서가 쓴 「사회 역학」은 미국의 부자들에게 35만부나 팔려나갔다. 청교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적자생존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면 병약자들이 살아남아 인종의 생존 조건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연의 근본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병에 걸려 해고당한 노동자가 궁핍을 견뎌야 하는 것이나, 과부와 고아들이 굶주림에 헤매는 것이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보편적인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는 은혜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의 댓가로 다가오는 어떠한 고통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한다. 62

이러한 ‘돈에 대한 극단적인 탐욕’은 칼뱅의 예정설,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론과 합치되면서 쉽게 미국의 정통사상이 되었다. 필라델피아에 템플신학대학을 설립한 백만장자 목사인 러셀 콘웰은 「다이아몬드 땅」이란 책과 강연을 통해 “누구든지 부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난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가난해진 사람을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인 부자 100명 중에 98명은 정직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정직한 눈으로 주위를 보면 모든 곳에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알 겁니다.”라고 말한다. 63

막스 베버가 소개하는 칼뱅의 가르침은 “신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택받은 사람이 이웃의 죄에 대해 이해하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 도리어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은 신의 적이므로 그 사람에게 저주와 경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만일 신이 합법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지시하는 데도 이를 거부하고 보다 적은 이익을 얻는 방법을 택한다면 너희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신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64 이러한 베버의 설명에 의하면, 칼뱅의 견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성서의 본래 가르침에서는 멀어졌지만. 그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를 확보할 것을 강조함으로 구약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금지해왔던 ‘이자’와 ‘부의 축적’을 당연한 것으로 허용했다. 65

그러나 칼뱅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해」에서 “교회 수입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가난한 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말에 따라 고대 교회의 암브로시우스가 교회의 황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지지하며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고 교회와 기독교인의 사명을 설명했다.[8] 66 그러나 막스 베버와 같은 청교도 학자

8)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들이나 목사들은 오직 부의 축적만을 강조하고 '나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숨겼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는 크게 왜곡된다. 칼뱅의 핵심 주제인 예정론은 '인종차별주의'로, 직업소명은 '부의 끝없는 탐욕'으로 변질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미국의 허실을 파헤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종교까지도 왜곡시키면서 철저히 개인주의적 사고 아래 일편단심 부만 좇는 미국인들을 보면서 "돈에 대한 숭배가 인간에 대한 애정을 압도하는 나라를 나는 미국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다. 또한 흑백간의 갈등은 영원히 아메리칸 드림을 괴롭힐 것이다."고 꼬집으며 계급, 인종간의 엄청난 격차를 능력주의로 정당화하는 미국식 사고를 경고했다. 67

3장. 선교의 실체.

부의 제국

미국 연방정부보다 권력이 더 막강한 비과세 지주회사인 록펠러재단은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등의 신문사를, CBS, NBC, ABC 등의 방송사를, 하버드대학교, 시카고대학교, 록펠러대학교 등의 대학교를, 매시, J. C. 페니, 시어스 등의 백화점을 장악하고 있고, 체이스맨하탄 은행, 내셔널 씨티 은행, 케미컬 은행 등 미국 50대 은행의 25퍼센트를,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 메트 생명보험, 뉴욕 생명보험 등 50대 보험회사의 30퍼센트(특히 10대 보험회사 중 6개를 소유)를, 신탁회사의 14퍼센트인 총 3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록펠러재단은 맥도널 더글러스, 록히드 마틴, 유나이티드 항공사, 노스웨스트 항공사, 롱 아일랜드 라이트닝 회사, 내셔널 철강회사, 내셔널 항공사를 포함해 16개 대기업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 현재 미국 10대 기업 중 6개가 록펠러재단 소유이고 이를 통해 록펠러가문은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50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인다. 총 자산은 6,400억 달러를 훨씬 넘는다.

1974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록펠러재단이 미국 주요 상장회사의 지분 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이외의 신탁회사를 통해 2퍼센트를 보유했고, 재단 이사들을 통해 보유한 것까지 합치면 10퍼센트가 넘는 액수다. 넬슨의 부통령 청문회 당시「워싱턴포스트」지는 이렇게 염려했다. "만일 넬슨 록펠러가 부통령이 된다면 록펠러재단의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1 록펠러재단이라는 최대 이윤을 목표로 하는 지주회사의 주요 임원인 넬슨이 부통령이 될 경우 드러나게될 부패를 염려한 지적이다.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록펠러재단은 록펠러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부를 근거로 해서 만든 세금피난처다. 록펠러재단이라는 이름의 '부의 제국'이 소유하거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이미 록펠러재단은 '보이지 않는 국가'로 세계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러스트 해산 사건 이후로 미국 최초로 억만장자가 된 록펠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3~15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애굽기 16장 18절)

에 대한 탐욕을 더욱 강력하게 불태울 수 있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계획한다. 게이츠 목사의 주도 아래 추진된 새 트러스트는 어떠한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곳으로도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고, 어떠한 비난도 피해갈 수 있는 조직이었다. 이전의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세금을 회피하다가 법적 제재를 받은 것을 고려해 이번의 트러스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필요를 느꼈다.

합법을 가장한 추악한 조직, 그것이 「록펠러 재단」이다. 그 이전부터 측근들의 조언에 따라 기부를 계속 해왔던 록펠러는 부를 은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부를 은닉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기부', 특히 재단을 통한 기부다.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배권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육영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두고 박근혜와 동생 박근영 사이에 10여 년간의 법정 싸움을 돌이켜보면 재단의 이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민의식이 강한 청교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누리는 부귀와 권력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므로 선택받은 사람으로부터 부와 권력을 빼앗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으로 금기시했다.2 자본주의 국가, 특히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서는 사유재산의 절대적인 존중이라는 이념이 하나의 종교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 재산은 자신의 권력을 자손에게 이어주는 가장 신성한 제도였다. 따라서 록펠러는 재산을 그대로 자손에게 이어주는 것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지금도 미국인들은 '재산의 상속'에 대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여러 번 시도한 것도 동일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도 모두 청교도다. 록펠러재단 사이트에는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월급의 일부를 주일학교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고, 부가 쌓여감에 따라 기부액수도 늘렸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를 활용해야 한다.'는 카네기의 충고에 감동을 받아 기부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계급에 의한 노예제도

게이츠 목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록펠러재단을 구상하던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록펠러 회장의 부에 대해 대중이 증오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은 그의 재산을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의 거대한 재산에 대한 대중의 질투가 아니라 그 재산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막대한 유산들처럼 자손들에게 상속되고 나서 추문을 낳고 사회도덕이 해이해지게 될 것이 걱정이었다. 결국 록펠러 회장과 그의 아들로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문명의 진보에 기여하도록 거대한 비영리재단을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인류애를 위한 사업에는 시간과 장소, 범위의 제약이 없으며 스스로 영구히 지속되는 힘이 있다." 3 게이츠 목사의 위선적인 음모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규모, 집행 방법 등을 통해 처음부터 여실히 드러나 대중의 비난의 표적이 됐다.

게이츠는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록펠러의학연구소(후에 록펠러대학교로 이름이 바뀐다)」설립을 권유한다. 마침내 1901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사이먼 플랙스너를 소장으로 영입하고, 모든 연구원들과 직원을 엄선하여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실제 내용은 쓰레기 학문인 우생학연구, 석유로 지구를 덮는 녹색혁명, 제약산업을 위한 특허연구, 전 인류를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유전자조

작연구 등을 위한 전초기지였다.

게다가 유전자조작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공학도 주원료는 화학물질이고, 화학물질은 석유에서 나온다. 게이츠는 이 연구소가 설립되자 이곳에 종교적인 신비를 부여한다. “이 성스러운 곳에서 그분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능자의 감춰진 신비를 드러내신다.”고. 4

이 신비로운 기운이 도는 이곳에서 후에 진행된 것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핵무기 연구와 인류를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유전자조작 생명체에 대한 연구였다. 아마도 게이츠와 같이 록펠러도 이런 신비를 느꼈으리라. 그러나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같이 록펠러는 다소 비과학적이고 주술적인 동종요법을 추종했고, 동종요법[9]의 대가인 해밀턴 비거 박사를 자신의 주치의로 두고 있었다.

반면 록펠러는 스티븐 더글러스가 세운 ‘모건 파크 신학 대학’을 1887년에 60만 달러에 인수해 침례교신학대학인 ‘시카고대학’으로 발전시킨다. 록펠러가문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시카고대학은 195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주창하여 경제학에서 케인스주의와 대결한다. 헨리 사이먼스, F. A.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 스티븐 레빗, 프랭크 H. 나이트, 게리 베커, 시어도어 W. 슐츠, 제임스 뷰캐넌 등을 중심으로 일명 ‘시카고학파’를 형성하며 마침내 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요람으로 발전한다.

케인스학파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입지를 굳힌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 이후로 노벨경제학상을 독점한다. 그러나 칠레 등 남미의 독재자들과 필리핀 등 아시아의 독재자들이 미국의 강요 아래 대부분 시카고대학에서 신자유주의를 훈련받은 학자들을 경제계에 포진시킴으로 결국 시카고대학은 경제적으로 남미와 아시아의 독재를 조장했다는 오명을 얻으면서 ‘시카고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5

케인스주의란 시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요를 창출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국가는 시장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금융자유화, 무역자유 등을 통해 사회통치를 기업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결국 록펠러가 사망하고 50년이 지난 1980대부터는 산업에서는 록펠러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물질과 유전자조작생명체가, 정치·경제·사회에서는 시카고대학교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기조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게이츠 목사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록펠러의학연구소가 설립된 후 2년 후인 1903년에 역시 게이츠의 권유에 의해 남부의 흑인 교육을 위한 일반교육위원회(GEB)도 만든다. 당시

---

9) 19세기에 특히 널리 쓰인 치료법의 하나로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like cures like)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면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과 동일한 증상을 일으키게 될 약물이나 치료제를 환자에게 처방하는 치료법이다. 즉 “독은 독으로 제거한다.”와 “희석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1810년 독일의 사무엘 하네만이 발전시킨 유럽의 전통의학이다. 예를 들면 동종요법에서는 화상을 치료하는 데 뜨거운 찜질을 사용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크게 희석된 같은 종류의 독약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동종요법은 질병의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려는 연구에는 소홀하다는 이유로 현대의학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면서 20세기 이후 약해졌으나 20세기 후반 합성화학물질에 의한 진통효과에 의존하는 현대의학의 허구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살아나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주류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류층을 상대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동종요법 약병에는 30x 또는 30c라는 표기가 있는데 x는 10을, c는 100을 의미한다. 따라서 30x란 10분의 1로 30번을 희석한다는 의미이고, 30c란 100분의 1로 30번을 희석한 정도의 약제가 들어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약에는 약제가 극미량 들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다.

미국 전체의 문맹률은 4.6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던데 반해, 남부의 백인 문맹률은 12퍼센트, 흑인의 문맹률은 50퍼센트에 달하던 상황이었다. 6

그러나 이 위원회도 실제로는 흑백평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남부의 인종분리법인 '짐 크로 법'[10]을 강력히 옹호하는 위선 조직이었다. 당시 인종주의에 빠져있던 연방 대법원은 해방 노예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수정 헌법 제14조의 "법률에 의해 당연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란 규정을 흑인에게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주로 기업을 보호하는 데 적용해 기업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법인격체"로 해석했다. 이를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설탕의 98퍼센트를 장악했던 회사를 통상 독점이 아니라 제조 독점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며 오히려 합법적인 기업의 제조 활동을 방해한 파업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수정 헌법 제14조를 근거로 해서 대법원에 상고된 재판은 19건이 흑인보호문제였고, 기업보호문제가 288건에 이르렀다. 1875년 평등주의자인 대법원 판사 새뮤얼 밀러는 "거대기업자본 밑에서 고액연금을 받는 변호인으로 40년간 일하다가 이제는 법정에 들어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판사들과 싸운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라며 한탄했다. 7 지금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은 인간의 권리를 능가하는 경제적 권력뿐만 아니라 법적 권력까지 갖고 있는 거대한 힘으로 존재한다.

타벨의 폭로기사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던 시기에 추진된 이 위원회의 설립 허가서에 기록된 목표는 "인종, 성별, 종교에 대한 차별 없는 미국 내 교육의 증진을 위하여"였다. 8 그러나 그것은 구호였을 뿐 인종차별 분위기에 어울리며 록펠러와 록펠러2세, 게이츠 목사 등은 흑인에게 이성을 깨우치기 위한 인문과학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에 머무르며 흑백의 자연스런 분리를 유도했다. 9

게이츠 목사는 흑인들에 대해 직업훈련을 지지하면서 지적으로 백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은 반대했다. "라틴어, 그리스어, 형이상학 등 수준 높은 학문은 흑인들에게는 비실용적이어서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기만 한다. 흑인은 아직 수준 높은 학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게이츠 목사의 흑인관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이 입학하자 불결하다며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리고 게이츠 목사는 이 위원회의 사무총장에 로체스터 신학교 동창이며 인종차별주의자인 월리스 버트릭을 기용한다. 버트릭은 "검둥이들은 열등한 인종이고, 앵글로색슨족은 우월한 인종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진실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역시 게이츠가 임명한 재단 이사장인 윌리엄 H. 볼드윈도 롱아일랜드 철도회사 사장 출신으로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로 "흑인들은 미국의 백인이나 지금까지 미국으로 이주해 온 어떠한 인종들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힘든 일을 해야 한다. 남부 백인 노동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농업, 광업 등 단순한 일들은 흑인들이 맡아야 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말하곤 했다. 10

10) 평등하되 분리해서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 백인과 흑인을 버스, 전차, 기차, 배 등의 대중교통수단이나 식당, 영화관 등 대중위락시설 등에서 동석을 금하는 법. 그리고 교육시설은 시설 자체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고 심지어 흑인간호사는 백인을 간호할 수 없고, 백인간호사는 흑인을 간호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법은 195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짐 크로는 흑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KKK단이 상영하는 연극에 나오는 흑인 이름으로 흑인 비하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사고로 인해 GEB가 1910년까지 남부에 설립한 기술학교는 800개에 달할 정도였지만 모든 학교의 관리자는 백인으로 채워졌다. 1914년 단 한 해에만 흑인 관리자가 시골학교에 임시로 임명됐을 뿐이다. 11 이는 강력하게 흑백분리를 주장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찰스 B. 에이콕이 북부의 자본을 남부로 끌어들여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흑백분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 재단(일반교육위원회)은 록펠러가 설립한 재단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연방의 승인을 받은 재단으로 당시 의회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넬슨 올드리치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였다. 12

그러나 일반교육위원회에 기부된 1억 2,900만 달러의 90퍼센트는 록펠러의학연구소, 시카고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플래글러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등 24개의 대학으로 전용되어 백인의 고등교육과 침례교 신학을 전파하는 데로 쓰였다. 게다가 정관에 의해 록펠러와 그의 아들 록펠러2세에게 GEB에 출연한 기금의 3분의 2에 대해 용도를 지정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록펠러가 60만 달러를 기부해 침례교 신학대학인 시카고대학을 설립할 당시인 1889년 6월, 당시 철강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노스아메리칸 리뷰」에 "부"라는 제목으로 이런 칼럼을 보낸다. "거물 기업가들의 막대한 재산 뒤에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13

또한 흑인 교육자로 당대를 풍미하던 W. E. B. 두보이스는 "록펠러가 추진했던 흑인에 대한 그런 식의 직업교육은 백인들의 만족감만 채워줄 뿐이다. 이러한 직업훈련 때문에 흑인들은 스스로 미천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천한 신분으로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며 "학교에서 인종들이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흑인학교는 주로 기술만을 가르쳐야 하고 따라서 '백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교육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14

실제로 록펠러가 지원했던 스펠먼신학교 등 흑인학교에서도 인종간의 차별을 강조했고, 흑인들은 창의성을 억누르며 재봉, 목수 등 생계형 기술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신학만을 익히도록 교육했다. 즉 록펠러가 지원한 일반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인종차별론을 수립하여 유능한 흑인에게도 대학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백인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초등교육과 생계형 단순 기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15 19세기 중엽 이후 전 세계로 마르크스 사상이 전파되면서 진보의 층이 두터워지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자 보수적인 청교도 부호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잠재우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한 것이다.

록펠러1세와 그의 최측근인 게이츠 목사의 그늘에서 자란 록펠러2세 역시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가 브라운대학 시절에 쓴 논문에서는 「무제한적 이민이 미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이란 제목 아래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등 해외 도시에서 튕겨져 나온 인간쓰레기들, 부랑아들, 거지들, 극빈자들은 짐승보다 더 나을 게 없는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이다."고 말한다. 16

이후 백인우월주의 사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록펠러가문은 1950년대에 흑백평등에 대한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자 록펠러2세는 그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체이스 맨하탄 은행을 통해 흑인기업들을 지원하며 흐름을 잠재우기 위한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한다. 그러나 1974년 가장 큰 흑인 기업인 '모타운(MoTown) 회사' 가 4,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데 반해 엑슨의 매출액은 420억 달러를 기록했다. 흑인소유 사업체의 총수입액은 전체 기업소득의

0.3퍼센트에 불과했다. 바뀐 것은 별로 없지만 신문과 텔레비전에 흑인들의 얼굴을 자주 등장시키며 변화가 일고 있음을 선전했다. 적지만 일부의 흑인 지도자들을 주류 세계로 편입하기도 했다. 17

선교라는 상술

흑인 교육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일반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2년 후인 1905년, 록펠러는 침례교의 해외선교를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가 '더러운 돈' 논쟁에 휩싸인다. 보스톤에 모인 침례교회 목사들은 10만 달러의 거액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선교라는 목적에 쓰라는 헌금을 평소 같았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지만 그 헌금이 그 시대의 최악의 악마에게서 나온 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했다.

1905년 3월 29일자 「뉴욕 해럴드」에는, 워싱턴 글래든 목사가 말한 이런 기사가 실렸다. "이게 깨끗한 돈이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그 출처를 아는 이상 어떻게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록펠러의 부는 로마의 약탈자들이나 암흑시대의 강도 귀족들이 쓰던 만행과 다를 바 없는 악랄한 수단으로 긁어 들인 것입니다. 냉혹하고도 무자비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재산을 빼앗아 억만장자인 자신의 창고에 쏟아 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그토록 추악한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그 더러운 돈을 당장 돌려보내세요." 이 '더러운 돈'이란 말은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그 시대의 유행어가 됐다. 18 양심적인 목사들은 가롯 유다의 피 묻은 돈을 선교에 사용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당시 「뉴욕 데일리 뉴스」는 "록펠러는 호화로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아래 앉아서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 그는 아주 긴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며 록펠러의 심정을 전했다. 그리고 끝내 다음 해에는 뉴욕의 호화 대저택인 '포레스트 힐'주변에 가시 철망을 두른 높이 2.5미터의 철 담이 둘러쳐져 대중의 접근을 막고, 주위에 무장 경호원인 핑커턴 사립탐정들을 수십 명 배치했다. 당시 타벨의 폭로 기사가 나가면서 그는 대중으로부터 무수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었다. 19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도 '영어를 말하는 백인'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낙관론의 화신이었던 게이츠 목사가 록펠러의 제국을 해외로 확산시켜 '록펠러의 세계제국'을 계획하면서 촉발된 사건이었다. 그는 기독교와 더불어 록펠러의 상업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산하고자 했다. 게이츠는 자신의 자서전인 「내 인생의 사건」이란 책에서

>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람들의 개종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의 노력이 이 나라의 상업에 미치는 성과들은 매년 선교에 들어가는 돈보다 수천 배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하와이제도에서 소비되는 우리의 상품은 연간 1,700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반면에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그것의 5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출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선교의 주도 아래 외국의 땅을 상업적으로 정복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

라고 선교라는 미명 아래 수행됐던 음모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1914년, 게이츠 목사는 중국의 시장 확보를 위해 침례교 선교 사업을 벌이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중국의 혼란을 고려한 종교계와 미국정부의 반대에 부딪친다. 그러자 게이츠 목

사는 방향을 바꿔 북경에 현대식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그의 측근인 존 R. 모트를 이사장에 임명한다. 59개동의 건물이 있는 옛 궁전 터를 이용하여 '베이징연합의과대학'의 의료사업 위원회에서 모토 이사장은 중국이 불안정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빨리 상업을 석권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상업적 거래를 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고 역설했다. 21 미국의 해외에서의 선교, 의료, 교육 행위가 결코 박애사상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초석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록펠러가 이때까지 침례교회에 헌금한 액수는 1억 달러를 넘었다.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인 로버트 라 폴레트는 "나는 어제 록펠러가 기도모임에 또 참석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는 내일이면 또 다시 어느 대학에 기부할 것이다. 그는 앞으로는 두 손으로 기부하지만 뒤로는 여러 개의 손으로 약탈한다. 그는 이 시대 최고로 추악한 범죄자다."라고 비난했을 정도이니. 22

자서전의 추태

록펠러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도를 더해가자 록펠러는 지금까지 그들의 분노를 단지 부에 대한 질투심으로 치부하며 일절 대응하지 않던 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전을 시작했다. 타벨의 폭로 기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는 어둠의 장막에서 나와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기 시작한다.

1907년 록펠러는 「뉴욕 헤럴드」지의 편집자였던 조셉 I. C. 클라크를 스탠다드 오일의 홍보담당 책임자로 끌어들인다. 그는 제일 먼저 록펠러의 전기를 써서 대중에게 알리자고 제안하고 레너드 울시 베이컨이라는 침례교 목사에게 전기를 쓰도록 의뢰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베이컨 목사는 록펠러를 변명하는 일에 염증을 느꼈고 또한 몸이 쇠약해지기도 해서 전기 집필을 중단한다.

다시 시라큐스 대학교 총장인 제임스 로스코 데이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그러나 그 전기가 완성됐을 때 그 내용이 너무 심할 정도로 날조와 왜곡을 통해 록펠러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어서 게이츠 목사와 록펠러2세는 출판을 거부했고, 결국 출판되지 않은 채 록펠러문서보관소의 구석으로 보내졌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 끝에 결국 1908년 스타 머피에 의해 「두서없는 회상」이 발간되어, 당시 록펠러가 설립한 일반교육위원회 이사인 월터 H. 페이지가 운영하는 「월드 워크」지에 연재한다. 이 때 이 글의 내용들이 법적으로 꼬투리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변호사들이 점검했다. 23

록펠러가 스타 머피가 대필한 이 연재를 통해 반성보다는 자신을 변명하려고 안간 힘을 쓰자 타벨은 1909년 4월 25일자「시카고 레코드 헤럴드」를 통해 이렇게 그를 질문조로 힐난한다. "소용돌이나 급류처럼 철저하게 비인간적이고 추악한 록펠러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쓸어버린다. 마치 훈족처럼 파괴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는 너무도 악하다. 그는 관습과 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면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는 괴물이며 거대한 기계다. 하기야 증기로 움직이는 기계나 발전기에게 양심의 가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24 이후 1913년 러드로 학살 사건 이후부터는 아이비 리가 채용됐으나 그 역시 날조와 왜곡이 심해서 대중으로부터의 비난은 오히려 더 거세졌다.

베이컨, 데이에 이어 아이비 리의 추천으로 3번째로 록펠러의 전기를 쓴 사람은 윌리엄 O. 잉글리스였다. 그는 1917년부터 5년에 걸쳐 록펠러와 대담을 나누고 이를 정리했다. 그

러나 1923년에 원고를 마무리한 전기는 전에 로스코 데이가 쓴 것과 비슷하게 너무 심할 정도로 과장과 미화로 가득해서 록펠러2세도, 아이비 리도 출판을 반대했다. 결국 이것 역시 록펠러문서보관소로 옮겨져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꽂혀있다. 25

4장. 세금도피처.

부의 대물림

록펠러가 대중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부가 쌓여가자 게이츠 목사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계획한다. 세상의 온갖 지탄을 받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부가 언제나 영속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 쌓여가는 부가 추악한 부라는 사실을 게이츠 목사도 알았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일단 쌓인 부는 신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신성시 했다. 그래서 단독 상속자인 록펠러2세에게 부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를 록펠러2세와 별도로 분리해서 자선을 표방하는 부의 제국을 건설하여 온전히 이전해주기로 계획한다. 록펠러재단! 세금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고, 스스로 자가 증식하는 거대한 부의 제국으로...

게이츠는 후에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미화한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인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나의 종교가 되었다. 그것은 진정한 나의 종교 정신이었다. 그것은 예수의 종교이며, 동시에 과학과 진보의 종교였다.”고. 1 그러나 사실 이것은 록펠러와 게이츠만의 종교였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제단 아래서 맘몬을 찬양하는 종교. 기독교 바이블 중의 한 부분인 신약성서에는 맘몬(재물의 신)이라는 용어가 구원이라는 용어보다 15배가 많은 2000여 번 사용된다. 그만큼 맘몬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게이츠는 재단 설립 이전에 록펠러의 엄청난 부를 관리하면서 느꼈던 고충을 이렇게 말한다. “이제 사심 없는 친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음모와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며 록펠러의 재산을 노리고 책략을 꾸미거나 굽실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에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게이츠가 기금 배정에 주춤하자 자신의 조심성을 질타하는 레이니 하퍼 시카고 대학 총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직접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록펠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비열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는지 이해할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신중함을 알아주기를 요청한다. 2

그러면서 그는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돈을 끌어내려면 가장 고매한 동기에만 호소해야 한다네. 조금이라도 저급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언급하면 기부자는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말일세.”라고. 3 그 역시 자신의 탐욕스런 이기심을 철저히 숨기고 ‘고매한 동기에만 호소하며’ 록펠러의 돈 주변에서 30년을 서성거리면서 작은 빨대로 끊임없이 ‘더러운 돈’을 빨아들였다.

1909년 6월 29일, 록펠러는 게이츠 목사, 록펠러2세, 록펠러의 사위인 헤럴드 파울러 매코믹 등 세 사람의 이사에게 1억 달러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단설립신청서에 서명한다. 그리고 그 중 먼저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오일 주식 7만 3,000주를 이전함으로 록펠러재단이 출범한다. 동시에 록펠러2세의 장인이자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큰 7선의 상원의원인 넬슨 올드리치[11]가 재단인가 법령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11) 록펠러2세의 장인인 올드리치는 로드아일랜드의 상원의원으로 대기업과 은행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이 당시

게이츠는 조직을 지주회사인 트러스트 형태로 꾸미기 위해 재단출연금을 현금이 아닌 계열사의 주식으로 신탁할 것을 권유하고, 재단이사회는 작은 규모로 만들어 다섯 명의 가족과 록펠러가의 최측근 2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었다. 조직이 작아야 이후에도 눈 더미같이 늘어나는 부를 록펠러가문이 손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록펠러는 이사회의 결정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선을 표방한 이 트러스트는 록펠러에게 규제 없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조직이었다. 게이츠 목사는 의도적으로 트러스트의 목적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라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록펠러도 록펠러2세도 흡족해했다. 4

그러나 대중은 그들의 음모를 의심했다. 자선을 겉으로 표방하는 이 트러스트 재단은 거대하고 세계적이며, 그 돈이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어떤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여타 재단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재단이었다. 록펠러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설립허가를 요구했다. 한 신문은 설립허가 신청을 비난하면서 "늙은 록펠러는 이 거대한 트러스트를 통해 자신과 그 아들, 자신이 거느린 마굿간에서 살찌운 대학 졸업생들과 함께 더러운 돈을 가득 실은 마차를 타고 세금도피처로 도망가려고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 2년 전인 1907년에 일반교육위원회에 3,200만 달러를 기부할 당시에는 랜디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직전이었고, 지금 1억 달러의 거대 재단을 만드는 시점은 대법원이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에 대한 판결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5

존 스튜어트 밀은 '결과의 균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옹호하며 세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례세를 주장했지만, 상속세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주장하여 '부의 대물림' 현상을 세금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해야 한다고 하며 "상속재산은 상속받는 자가 직접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치품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주장했다. 6 조세제도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다.

재단 승인을 연방에 신청했을 때 연방정부의 법무장관인 조지 W. 워커샴도 분개하면서 태프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목표를 위해 쓰인다고 하는 1억 달러 이상의 돈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부패로 이어질 겁니다. 록펠러가 건설한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미국이 법을 통해 파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미국 의회가 그 부패한 부의 제국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도를 마련해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태프트 대통령은 답신을 보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코 설립이 되면 안되지요. 재단 설립을 승인해주는 것은 록펠러의 추악한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전임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그 부를 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부를 쌓으려고 저지른 악행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며 비난했다. 또 미국노동자총연맹(AFL) 회장인 새뮤얼 콤퍼스는 "록펠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록펠러처럼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길에..."라고 했다. 7

공화당의 원내총무였다. 30년간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왕두목'이란 별명으로 불리던 부패의 축이었다. 1910년 국가화폐위원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국가 기구인 '연방준비은행'을 민간은행으로 바꿔 국가와 은행이 공모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들은 “이 추상적인 목표에 부응하는 비과세재단 설립허가서를 내주는 것은 악마인 록펠러 무리에게 그들의 목적에 따라 재단의 거대한 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백지위임장을 건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911년 4월 25일,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록펠러2세의 장인인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록펠러2세와 그의 아내이자 올드리치의 딸인 애비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은 확답을 기피한다.

결국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게이츠 목사는 상당히 계획안을 양보한다. 이사회는 25인으로 구성하되 록펠러 측은 5명만 참여 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 연방대법원장, 상원의장, 하원의장, 그리고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존스 홉킨스, 시카고대학의 총장들은 이사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을 수정했다. 그리고 재단의 본부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둘 것이며, 재단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기금을 1억 달러로 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8] 그렇게 내용을 바꾸며 재단승인을 위해 온갖 매수, 홍보 전략을 동원해도 승인안이 상원에서 계속 미뤄지자 록펠러와 게이츠 목사는 초조해졌다. 최초의 상속세 법안이 의회에서 한창 논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세금 없는 지주회사

트러스트 재단의 설립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처리가 지연되며 3년이 지났다. 마침내 1913년 수정 헌법 제16조가 통과되어 그 다음해인 1914년부터 소득세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과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곧 이어 1916년에 누진소득세법이 통과된다. 물론 남북전쟁 전에 잠시 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있지만 부자들의 반발로 곧 폐지됐다. 소득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초조해진 록펠러와 게이츠 목사는 재단 승인안을 연방에서 뉴욕 주로 옮겨 신청하고, 정치권을 매수해 바로 승인을 받는다. 주 의회에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처음 소득세와 상속세율은 6퍼센트에 불과했지만 부에 대해 끝없는 탐욕을 보이는 록펠러에게는 그것도 부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특히 그는 세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기피했다. 1914년에 록펠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불평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를 확보한 것이라면 국가는 그 소득을 어떠한 이유로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이후로 1916년에 소득세율은 500만 달러 이상을 상속할 때는 10퍼센트의 상속세를, 1917년에는 1,000만 달러 이상을 상속할 때 25퍼센트의 상속세로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해서 현재는 거의 50퍼센트에 달한다. 그러자 이제까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간헐적으로 소액씩 이전해 주던 록펠러는 본격적으로 록펠러2세에게 거액씩 이전해 준다. [9]

그러나 재단을 설립하면 이런 세금들이 모두 면제된다. 특히 재단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에도 자본 이득세, 부유세 등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에 록펠러재단은 재단의 취지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어떤 것에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투기, 부동산 투기, 관광사업 투기,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등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아무런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활동내용에 대해 1년에 한번 씩 자체적으로 작성한 연차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보고서를 제출 받은 기관은 의문이 있어도 어떠한 조사를 할 수 없다. 재단은 철저한 ‘사적재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단에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세금은 없고, 추가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것이 재단의 비밀이다. 이 때문에 누락되는 국고수입은 재단을 설립할 재력이 없는 서민층과 중산층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미국의 '세금재단'이라는 단체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 서민층의 '세금해방일'12)은 1930년에 2월 13일, 1950년에 4월 4일, 1980년에 5월 11일, 2008년에 4월 21일, 그리고 2010년에는 4월 13일이라고 한다. 1980년 9월 13일자 연합통신(AP)에 의하면 "소수인 중산층이 전체 세금의 60.1퍼센트를 부담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어들고, 중산층의 세금이 늘어나는 세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10 때문에 재단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의심스런 부분, 음모?

그러나 록펠러가 연방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3년이란 긴 기간을 기다리다가 1913년에 갑자기 뉴욕으로 옮겨 신청을 한 것은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듯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단 신청을 연방에 제출하던 1910년은, 미국을 영원한 부채의 국가로 만들게 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13) 관련 법안이 넬슨 올드리치에 의해 기초법안이 만들어지던 해였다. 올드리치는 로드아일랜드 주의 상원의원으로 금융계의 거물 J. P. 모건과 절친한 관계이고, '설탕 게이트'를 일으키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패한 정치인으로 유명했다. 그는 30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자들의 대변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재산을 거의 1천배 축적한다. 이 부패한 정치인 올드리치가 록펠러2세의 장인이다. 11

이 거대한 금융가들의 음모는 록펠러재단 설립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온 나라가 시끄럽던 1910년 11월 22일에 지킬섬의 J. P. 모건 별장에서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록펠러재단이 뉴욕 주에서 승인되던 해인 1913년 12월 23일 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흥청대던 시간에 의회를 통과한다. 12 이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질 즈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역시 대중의 관심에서 다시 사라진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록펠러재단이 뉴욕 주에서 신속하게 승인이 나던 1913년은 미국 최초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수정 헌법 제 16조가 효력을 발휘하기 직전 해이고, 러드로에서 콜로라도 탄광 노동자들 200여명을 학살하던 해이기도 하다. 또 일명 '아머리 쇼'14)라고 하는 대대적인 현대미술 전시회도 이 해에 열린다. 분명 연준 관련 은행법의 통과를 위해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음모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록펠러가 1890년대 후반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요양을 핑계로 수시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방문하는 것도 유럽의 은행 거물이자 연준의 배후 조종자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만나기 위함이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그리고 연준의 산하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의 최대 주주인 뉴욕은행은 록펠러가문

12)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날에서 해방되는 날을 말한다. 즉, 매년 1월 1일부터 세금해방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쓰이고 세금해방일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자신의 개인소득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3월 21일, 2006년에 3월 14일, 2009년에 3월 27일 그리고 2010년에는 4월 1일이다.

13) FRB는 비공개 주식회사인 민간은행으로 미 연방정부의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12개의 지역은행을 주주로 두고 있으며, 그 중 최대 주주인 뉴욕 연방은행은 록펠러가 최대주주이다. 뉴욕 연방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추천권과 최대 숫자의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의장을 포함해 7명의 이사가 모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는 FRB로부터 돈을 빌려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시민이 내는 소득세로 충당한다. 2011년 현재 미국의 국채는 법정한도를 넘어 14조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액수는 미국 GDP의 96퍼센트에 이른다.

14) 뉴욕에서 열린 미국 최초의 국제 현대미술전으로 록펠러2세의 부인인 애비 올드리치가 주최한다. 무기 창고인 아머리를 전시장으로 사용한데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다다이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전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현대미술 붐이 일게 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1929년 록펠러2세의 부인인 애비 올드리치 록펠러가 뉴욕의 웨스트 54번지의 자택을 기부해 현대미술관을 개관한다.

의 소유다.

부패한 부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의회는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헌법을 수정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었다. "가장 훌륭한 정부는 가장 규제가 작은 정부"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논리에 따라, 건국 이래 지금까지 개인 소득은 사유재산이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 아래 관세와 소비세 이외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아무튼 록펠러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자신은 정당한 방법으로 신의 뜻에 맞게 벌어들인 것이므로 자신의 재산을 세금의 명목으로 빼앗아 가는 것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후에 록펠러가 자신의 재산 거의 전부를 록펠러재단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전하고 남은 2,500만 달러로 주식 투기를 즐기며 노년을 보내다가 사망했을 때, 그의 남은 유산 2,640만 달러는 거의 대부분 미국 연방의 재무부 채권 형태였다. 결국 재무부 국채 형태로 최후로 남은 유산 2,640만 달러는 그가 가장 싫어했던, 연체된 세금납부에 거의 사용되었다. 13

재단의 난립

미국의 재단 수는 1900년 이전에 18개였던 것이 1920년대에는 173개로, 1950년대에는 2,839개로, 2005년 현재에는 6만 3,000개로 급등한다. 2008년에는 10만개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20만개를 넘어섰다. 그 중 90퍼센트가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비과세재단이다. 14 그리고 현재 미국의 비영리재단은 전체 운영비의 54퍼센트는 자체 수익으로, 36퍼센트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10퍼센트는 다른 재단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기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떠받치는 힘이라는 부자들의 기부도 사실은 이들 모두 강도귀족들이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재산을 일부 환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강도귀족들의 이름은 미국의 대학과 도서관 등에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특징은 대부분 주가조작이나 뇌물, 독점 등의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고 비난한다. 15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지적은 아니다. 강도귀족들이 만든 재단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의 대부분을 세금도피처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탈법행위[15]다.

이렇게 세금도피처인 재단이 급증하자 미국 대학에서는 '비영리재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만도 300개가 넘고, 재단 설립을 대행해주는 「택티컬 필랜스로피 어드바이저」 같은 회사도 수십 개가 있다. 세금을 피하고 안전하게 전액을 상속해줄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명예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재단 설립이 유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단이 기금을 운용할 때는 엄청난 금액의 정부보조금도 받는다. 16

미국에서는 1952년까지는 기업의 기부활동이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에 의한 기부는 금지되었으나 1952년 연방 대법원이 기업의 기부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기업에 의한 기부도 세금환급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는 1886년 '산타 클라라 카운티 v. 서던 퍼시픽 철도회사' 사건에서 '기업도 사람과 같다.'라는 판례가 생긴 이후로 미국에서 확고해진 법이론을 기초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었다. 모두가 탈세를 위한

15) 탈법행위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다른 수단, 즉 법망을 피해 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불법행위란 직접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둘 다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도피 행각이다. 재단은 연간 총소득의 5퍼센트만 비영리사업에 기부하면 된다. 17 그러나 그 5퍼센트도 대부분 재단이 의도하는 연구를 위해 또는 재단에 속한 단체에 기부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비영리재단의 본질은 비과세재단, 다시 말해 '비과세기업'인 것이다.

2000년 현재 록펠러재단의 총자산은 38억 3,754만 2,000달러에 달하고, 그해 8,700만 달러를 기부했다. 3퍼센트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리고 나머지 2퍼센트는 대부분 록펠러 가문의 일원들과 그의 측근들로 이뤄진 79명의 재단 임원들이 받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고액 연금과 활동비이다. 18

예컨대 스웨덴의 유명 가구 업체인 이케아(IKEA)의 경우도 그 창업자인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비공개기업인 이케아의 주식 전부를 '슈티슈팅 잉카' 라는 재단법인에 출연해 세금으로부터 도피하고 가문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재단은 잉그바르가 회장으로 있고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5인의 집행위원회가 운영한다. 이 회사는 비영리재단이므로 어떠한 감사도, 회계보고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즉, 외부로 어떠한 것도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케아는 2004년 5억 5,300만 유로의 순수입을 올렸어도 1,900만 유로의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다. 반면 가족에게 배당된 총 금액은 6억 유로가 넘는다. 창업자인 잉그바르는 포브스 선정 세계 4위의 갑부이다. 19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록펠러가 개별적으로 자선사업을 명목으로 기부했던 금액에 대해서도 전부 세금환급을 받기 때문에 '기부'란 실제로는 허울뿐이다. 유가증권, 부동산 등 거대한 부를 운용하면서도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운용하는 자금이 거대하기 때문에 시장에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작용한다. 반면 비과세재단이 다른 기업을 소유할 때는 미국 세법상 3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임원들의 명의와 상호출자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

이런 이유로 세계사를 통해 보면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재단을 폐지하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 당시 일체의 재단을 금지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재단의 설립이 법으로 금지된다. 일본에서는 1998년에 이르러서야 비과세재단 설립이 가능해졌고 현재 2만여 개의 재단이 있지만 세금환급을 받는 비과세재단은 30개도 안 된다. 21

우리나라에도 육영재단, 유한재단, 삼성문화재단, 현대문화재단, 삼송문화재단, 롯데복지재단, 청계재단 등 1,000여개의 재단이 설립되어 그 설립자의 가족과 후손들이 재단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설립한 이후로는 행정부의 많은 장관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부를 은닉할 수 있디 때문이다.

2010년 현재 록펠러재단은 한국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설립 인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중으로 알려졌다. 설립자는 록펠러의 5대 손자인 스티븐 록펠러이고 이 지부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은 한국에서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사업이다.

부를 숨겨라

3년 동안 미 연방 의회가 록펠러재단 설립 법안을 승인하지 않자 록펠러는 1913년 뉴욕주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곧 바로 뉴욕 주는 설립을 인가한다. 1913년 5월 14일, 뉴욕주지사 윌리암 술저가 재단안에 서명함으로 록펠러와 그의 상속자인 록펠러2세는 안전한 세금도피처인 록펠러재단으로 부를 이전하기 시작한다. 예수를 로마 군인에게 팔고 받은 가

롯 유다의 돈으로 예수를 추모하는 거대한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록펠러와 그의 측근들은 그 교회 속으로 숨어들었다.

1913년에 록펠러는 1억 달러를 이전했고, 이어서 1919년까지 8,280만 달러를 추가로 이전한다. 이어서 그는 사망하기 직전에 1억 8,000만 달러를 더 이전한다. 록펠러2세도 5억 3,700만 달러를 이전하고, 다른 가족들도 5억 4,000만 달러를 이전한다. 이제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는 '록펠러가의 왕국'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속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록펠러의 손자들은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를, 그의 증손자들은 「록펠러 패미리 펀드」를 설립한다. 22 모두 비과세 재단들이다.

록펠러는 그의 생애 동안 24개의 대학과 4,928개의 대형 교회를 설립하여 사회에 기부했다. 물론 모두 세금이 환급되는 항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환급비율이 가장 크다. 록펠러와 같은 부패한 기업가들이 재단을 설립하여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까닭은 박애주의자라는 명예 확보와 동시에 체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완충작용을 할 의사, 목사, 교사, 변호사, 관리 등 중간계층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권위에 복종할 층을 두텁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23

일본의 저널리스트 히로세 다카시는 그의 저서 「제1권력」에서 "록펠러재단은 자선사업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젝트 가운데 한 가지 항목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록펠러가의 부를 이곳저곳으로 이용하여 미국인들을 세뇌시키는 몇몇 비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최고의 브레인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이사장을 통해 속속 지령을 내려 보낸다."고 지적한다. 24

비과세재단이라는 기업은 기본 재산의 대부분을 계열사의 주식 또는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현금으로 재단에 기부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예금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록펠러는 전부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형태로 기부했다.

록펠러재단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연간지출액은 순자산가치의 5.5퍼센트로 되어 있다. 자산배분은 미국기업주식 35퍼센트, 외국기업주식 22퍼센트, 채권 22퍼센트, 비상장기업주식 10퍼센트, 동산 10퍼센트, 현금 1퍼센트로 되어 있다. 25

그러나 그 재산의 규모는 마치 미국의 국가 기밀과도 같이 취급되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사적 재산의 절대적 존중'이라는 가치 아래. 록펠러재단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회계자료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재단 스스로가 만든 자료에 불과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년간 순 재산 증가는 12억 4천 8백만 달러라고 한다. 26 1974년 9월 30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의하면 "록펠러2세가가 건설한 록펠러센타의 정확한 가치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그 가치를 추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27 록펠러재단과 록펠러가문의 재산 규모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고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1974년, 록펠러의 둘째 손자인 넬슨이 부통령으로 지명된 후에 열린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은 할아버지인 록펠러는 5억 5,000만 달러를 각종 재단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4억 6,500만 달러를 상속세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외아들인 록펠러2세에게 상속한 반면 세금은 6,700만 달러를 납부했다. 거대한 부는 유럽의 왕실과 같이 운용되면서 교육과 의료의 장래 방향을 결정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들은 지금도 브로드웨이 26번지의 록펠러센타 56층에 진을 치고 국가와 사회에 도전하며 어떠한 규제에

도 굴복하지 않는 공룡으로 존재하고 있다. 28

이 같은 거대한 재단은 세금피난처의 하나로 재단에 속한 재산은 눈덩이 같이 불어나 9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수천 개의 다른 명의의 재단과 산하기관이 수천 개의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에 의하면 "록펠러의 대부분 재산은 다양한 수준, 다양한 차원의 재단 및 그 재단에서 파생된 산하 기관, 재단의 직간접 지배를 받는 기업에 모두 이전되었다. 그래서 거대한 규모의 재단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 재단 내의 단위 기업은 재무제표나 회계감사의 공개가 필요 없고, 재무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국가에서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출범한 회계제도나 감독 시스템도 이들 기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록펠러가 개발한 이 같은 '재산 숨기기' 전략은 오늘날 초특급 거부들이 앞 다퉈 모방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등을 막론하고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부란 미명 아래 재산 숨기기'는 록펠러를 원조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록펠러가 거대한 부를 확보하고, 또 이를 재단을 통해 숨기는 기법은 록펠러가 만들어낸 전형이고, 이것은 오늘날의 미국 자본주의의 어두운 모습으로 굳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미국의 부를 일컬어 "투기와 저임금, 탈세로 이룩한 깡패들의 부"라고 평한다. 이에 대해 록펠러재단의 지원 아래, 타임머신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H. G. 웰스가 1934년에 발간한 「인류의 일, 부, 행복」이란 책에서는 "록펠러의 행동에 대해 근거 없이 행해지는 모든 비열한 비난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것은, 그의 장엄하고 선한 기부행위가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는 그가 믿는 침례교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탈세를 위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이다."라고 항의하며 비난을 잠재우려고 했다. 29

반면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한 함부르크의 거부 페터 크래머는 "미국에서는 기부액의 대부분이 세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기부를 할 것인지, 세금을 낼 것인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서 "부자들이 막대한 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부가 아닌 극소수의 부자들이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래머는 "'기부 서약'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누가 부자들에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주었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빌 게이츠의 말대로 '부자나라들의 수탈에 의해 많은 어린이들이 죽음을 불러온 제3세계에 의료비, 식량 등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 미국 정부가 이들 국가에 대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비판한다. 30

미국은 부의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세계 최하위이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1퍼센트의 부자가 국가 전체 부의 33퍼센트를 장악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하다. 31 세금납부는 훌륭한 기부다. 국가 차원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전체의 공공복지를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거대한 규모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재단설립을 일반적으로 세금도피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대재단의 3분의 1 이상이 비영리재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늘 부패에 물들어 있다. 미국의 재단은 90퍼센트가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다. 재단 운영진이 가족만으로 구성되고, 전적으로 가족이 맡아서 기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오클라호마 주의 석유왕 장 폴 게티가 설립한 '폴 게티 재단'은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자녀들의 재산 다툼으로

얼룩지는 등 늘 재단부패의 기사가 미국 신문을 채우고 있다. 32

이런 이유로 최근 자선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자선행위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 중 극소수인 2퍼센트만이 사회재단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대다수는 이에 대해 냉담하며 점점 그 비율은 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탐욕스런 반면에 구호에 있어서는 가장 인색한 나라로 유명하다. 유엔이 권고하는 국민총생산(GDP)의 0.7퍼센트에 한참 모자라는 0.11퍼센트만 사용한다.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은 권고안을 잘 준수하고 있다. 33

미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 회비도 거의 10여 년 간 연체 상태다. 미국이 선진국 중 구호에 가장 인색한 까닭은 '부는 신의 축복이고, 가난은 죄의 댓가다.'라는 청교도적인 믿음이 국민감정 밑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또한 재정도 부족하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세금도피처인 재단을 만들어 재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는 재단의 탈세형태에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어 국회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 전 부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재단, 특히 록펠러재단의 끈질긴 협박과 방해공작으로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의 정치학자 노암 촘스키는 자기나라를 "초대형 깡패국가"라고 평가한다. 34

완벽한 성역

부는 물리학의 원심력이 작용해서 개별적으로 상속하게 되면 쉽게 뿔뿔이 흩어지는 물체와 같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너무도 거대해진 부를 이제는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 관리'로 전환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산을 어떻게 잘 보존, 증식시키고 그 자산에 따른 가치를 집안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온전히 이전시켜 주느냐의 문제다.

현재는 록펠러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록펠러센타 5600호실에서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록펠러재단의 재산을 관리한다. 물론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싸여 있다.

현재 록펠러재단에서 고액의 연금을 받는 전문위원은 79명으로 대부분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외환관리인, 주식중개인, 부동산중개인, 기업합병 전문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세와 투기를 위함이다. 록펠러는 그의 회고록 '두서없는 회상'에서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결성되어 그들이 나라의 부를 모두 모아 인류의 평화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1914년 1월 14일 「더 선」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국가는 그 소득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35

재단은 외부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는 록펠러 가족만의 왕국이었다. 이에 맞춰 이사회 구성원은 측근들을 배제하겠다는 의회와의 약속과는 달리 2인 가족과 측근 7인을 합쳐 9인으로 구성했다. 후에 조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록펠러의 자손들 중 남자는 만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이사 자격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이사장은 다른 이사를 지명할 권리가 있었다.

당연히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어떠한 용도로도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임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9인의 이사는 록펠러와 록펠러2세, 록펠러의 측근이며 일반교육위원회의 이사인 게이츠와 스타 머피, 록펠러2세의 비서인

찰스 O. 헤이트, 록펠러의학연구소 소장인 사이먼 플랙스너와 연구원인 제롬 그린, 시카고 대학 교수인 해리 프랫 저드슨, 록펠러 위생위원회의 위클리프 로즈 등이었다.

그리고 재단의 수입 중 200만 달러는 록펠러에게 속하도록 했다. 록펠러의 측근들은 서로 겹치는 형태로 모든 재단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결국 록펠러재단의 재원은 록펠러와 그의 가족들의 의향에 맞는 내용으로만 재원이 사용된다. 침례교 선교사업, 찰스 B. 데이번포트의 우생학기록보관소, 록펠러의학연구소, 독가스연구, 핵무기연구, 농약연구, 유전자조작연구 등으로... 특이한 것은 록펠러는 생애 동안 성경이나 얇은 설교집 이외에는 책을 거의 기피했는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 초기의 록펠러재단은 인문, 사회, 예술, 철학 분야를 종교적, 정치적으로 위험한 분야로 여겨 지원을 기피했다. 36

록펠러재단은 1918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600만 달러를, 1921년에 하버드대학에 600만 달러를 지원해 공공보건학과와 생물학과를 개설하고 연구에 돌입했다. 이 연구는 의약품을 개발해 ‘의약특허’와 유전자조작을 위한 기초 학문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생전에 기부한 5억 3,000만 달러 가운데 4억 5,000만 달러는 의학연구와 유전자조작연구에 들어갔다. 37

이후 록펠러재단 이사장들은 록펠러의 직계 후손 또는 그들이 철저히 신임하는 사람들로 채워졌고, 이사진 역시 록펠러 가족과 그의 측근들로 구성됐다. 제1대 이사장으론 록펠러2세가 선출됐다.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재단 이사장 출신들은 미국 정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록펠러2세, 조지 빈센트, 워렌 위버, 레이먼드 B. 포스딕, 피터 골드마크, C. I. 버나드, 록펠러3세, 스티븐 C. 록펠러와 이후 국무장관이 되는 존 포스터 덜레스는 넬슨 록펠러의 사촌 동생이었고, 크리스, 더글러스 딜론, 에치슨, 딘 러스크, 사이러스 밴스, 키신저 등은 모두 록펠러재단의 이사장 또는 고위 임원 출신들이다. 그 외에 행정부, 의회, 법원,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우주정보국 등의 고위 관료는 대부분 록펠러재단의 임원 출신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록펠러재단을 ‘정치계의 사관학교’라고 말한다. 38

2010년 현재 이사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장은 데이비드 록펠러2세이다. 이탈리아 메디치가문이 이탈리아의 금융을 비롯한 모든 부를 장악하고 교황과 도시국가들을 마음대로 주물렀듯이 록펠러가문은 ‘록펠러재단이라는 기업’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문의 후손들은 재산에 큰 흥미가 없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뿐이다. 따라서 가문의 재산은 그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 가문의 재산은 대폭 줄어들었다. 과거의 부자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록펠러2세가 말했지만 이를 믿는 바보는 거의 없을 것이다. 39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록펠러재단이라는 지하로 숨겼을 뿐이다.

실제로 록펠러가의 재산은 단 한 푼도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감춰졌을 뿐이다. 오히려 어떤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어떤 내용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부가 증식되고 있다. 록펠러와 그의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고 재단의 장막 뒤로 숨은 것에 불과하다. 재산에 대한 통제권과 탐욕을 지금껏 포기해 본 적이 없던 그들은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다. 과거에는 부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각 방면에서 얼굴을 드러냈으나 이제는 부자 타이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록펠러와 그의 아들들은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들은 대리인을 앞에

내세우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40

록펠러의 후손들은 직접 부를 관리하지 않고 재단의 이사 또는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보유한 채 거대한 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록펠러재단이라는 기업은 5600호실에서 200여명의 전문경영인들이 록펠러가문의 다른 200여 개 기업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세금 도피처인 록펠러재단을 완성하고 이 단체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72세의 나이로 퇴임하면서 게이츠 목사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죽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이나 선행을 지적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록펠러재단의 이사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41

평생을 인종차별과 돈을 향한 탐욕을 불태우던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신앙고백이었을 것이다. 반면 타벨의 기사가 신문에 연재되던 1905년에 네브래스카 대학이 록펠러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타벨은 “록펠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그가 미국에서 저지른 추악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 본성 때문에 기부금을 받은 사람은 조만간 기부자를 옹호하고, 기부자의 방식까지도 옹호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인 견지에서 네브래스카 대학은 록펠러의 기부금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록펠러의 기부에 대해 “록펠러재단의 기부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떤 때는 이타적으로 쓰였으나, 어떤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 추악하게 쓰였다.”고 지적했다. 42 탈세와 환급, 투기를 두고 한 말이었다.

생체실험 준비

이후 록펠러재단이 가장 염두에 두고 추진한 일은 ‘현대의학부문’과 ‘분자생물학부문’이다. 현대의학에 집중함으로 1950년대 이후로는 인구 억제를 추진하며, 세계의 거대 제약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제약특허’를 독점하게 되고, 분자생물학에 집중함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유전자조작 특허를 장악하게 된다. 이 부문의 장악을 위한 교두보가 록펠러대학교이다.

이 학교는 전 세계의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학생 중에서 무상으로 생명공학 박사 과정과 박사 후 과정에만 집중하고 학부는 두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이미 교육이 끝난 영재들에게 암과 유전자조작에 관한 연구 기회만 제공한다.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비 명목으로 임금도 지급된다. 이 대학 출신자들 중에 노벨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15명이나 되고, 현재 교수진 중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23명이 된다. 43 현대의학에 집중함으로 1950년대 이후로는 인구 억제를 추진하며, 세계의 거대 제약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제약특허’를 독점하게 되고, 분자생물학에 집중함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유전자조작 특허를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에이즈공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의학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분자생물학은 환원주의를 근원으로 하는 유전자조작의 기초 학문이다. 록펠러재단이 시행한 ‘인구 억제’를 위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불임수술과 ‘녹색혁명’, ‘유전자조작’ 등도 모두 현대의학과 분자생물학의 결과이다. 인구 억제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록펠러가문이 임의로 선정한 국가의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단종을 실시함으로써 인구를 줄이자는 것이고, 녹색혁명은 록펠러가문의 최대 사업인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비료, 살충제, 제초제, 농기계 등에 의존하자는 것이고, 유전자조작은 인류의 천부적인 권리인 식량주권을 인류에게

서 빼앗아 인류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이다.

록펠러재단의 일원이며 넬슨 록펠러의 오른팔인 키신저 국무장관은 록펠러가문의 이념을 이렇게 표현했다. “석유를 장악하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고, 식량을 장악하면 인류를 장악할 수 있다.”고. 로버트 맥나라마 세계은행 총재는 인구폭발을 핵전쟁의 위협에 비교하며 록펠러재단이 만들어낸 위기의식을 부추긴다. 44

손자의 청문회

록펠러의 손자인 넬슨 록펠러가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그가 포드 대통령에 의해 부통령으로 지명됐던 1974년에 법규에 따라 의회에서 그의 재산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 기밀과 같이 다루어졌던 록펠러가의 비밀이 극히 일부 공개된다. 이 때 넬슨 록펠러는 개인 재산이 3,300만 달러밖에 안된다고 증언했다. 미국 상원과 국세청, FBI의 전문요원 300명이 1개월이 넘게 조사한 결과 그의 재산은 2억 1,800만 달러로 밝혀졌다. 넬슨의 재산은 이전 대통령 37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이 개인 재산은 록펠러2세가 대부분의 재산을 록펠러재단에 기부하고, 그 중 남은 재산을 84명의 가족들이 나눠가지면서 배당받은 몫일뿐이다. 45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록펠러재단 이사로써의 지위나 교묘하게 은닉한 재산은 빼놓고 말이다. 상원이 넬슨의 개인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1970년대에 몇 년 동안 단 한번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100만 달러를 탈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담당 전문가인 J. 리처드슨 딜워스 등의 재무담당 고문과 개인 변호사들이 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또 록펠러재단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넬슨에게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빼돌렸던 것이다. 46

불법적으로 뒤로 빼돌린 액수가 2,000만 달러에 달했다. 넬슨이 스스로 공개한 록펠러재단의 기부 내용에 의하면 자선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탐욕을 채워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록펠러재단이 기부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록펠러 가문의 사업에 돌아가는 것이거나 록펠러가의 측근을 만드는데 쓰였다. 넬슨의 기부액 중 대부분도 자기 자신과 가문의 사업에 돌아가는 것과 자신의 측근을 만드는데 쓰이는 비용이었다.

그 내용은 잭슨 홀 프리저브,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 록펠러 패밀리펀드, 현대미술관, 자신이 주지사로 있던 뉴욕 주지사관저의 조경, 수영장건립, 골프장 건립 등이었고 그 기부금은 다시 세금환급형태로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당시 뉴욕 타임스는 넬슨이 1,600만 달러를 공제받기 위해 8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비난했다. 47 「뉴욕타임스」는 록펠러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신문인데도 오죽하면 이런 사실을 보도했을까.

딜워스가 관리한 재산에는 84명에 이르는 록펠러 후손들의 개인 재산 10억 3,3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재산은 주로 록펠러2세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을 위해 설립한 두 개의 신탁회사에 투자되었다. 이 밖에 록펠러가의 명의로 된 재단은 200개를 넘었고 록펠러가문이 지분 보유 및 경영권 지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재단과 신탁회사는 대략 수천 개를 넘었다. 얽히고설킨 방법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록펠러 가의 재단과 신탁회사는 모두 국제적 기구들로 세계적 범위에서 자금 유통이 이뤄졌다. 따라서 록펠러재단의 실재 자산규모와 흐름을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록펠러재단은 거액을 투자할 때 직접 투자하지 않고 대리인인 ‘메릴린치’와 ‘골드만 삭스’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48

넬슨청문회 때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찰스 스와츠와 윌리엄 돔호프 교수는 공동으로 「록

펠러가의 재산에 대한 탐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과 가족 회람용 팜플렛에 의하면 록펠러센타 56층 전체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재벌의 그룹조정실과 같은 비밀 사무실인 5600호실에서 록펠러가문의 전 재산을 관리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총책임자인 회계사 데이빗 퍼날드의 지휘 아래 회계담당자 15명, 부기 계원 6명, 10명의 사무원, 5명의 컴퓨터 전문가 등 200여명이 '비과세 기업인 록펠러재단'과 IBM, 록펠러센터, 록히드 마틴 항공사, 맥도널 더글러스 항공사, 체이스 맨하탄 은행, 스탠다드 오일, 이스턴 항공 등 거의 100개에 달하는 기업의 이사로 앉아서 총 7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 운영비의 연간 예산만도 600만 달러를 넘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기밀 사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산의 30퍼센트는 투자용으로 사용하고, 자선사업용으론 광고비보다 적은 8퍼센트만이 책정되었다. 49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미국 연방의회도, 어느 언론사도 밝혀낼 수 없는 거대한 피라미드였다.

연방의회도 접근하지 못하는

1950년 미국 상원의원인 라이트 패트만은 록펠러재단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재단들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안을 발의했다.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전체의 경제생활은 이미 록펠러재단의 상업적 활동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록펠러재단은 국가와 민간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고 염려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미 정치, 경제, 언론, 법조 등을 장악한 록펠러재단의 방해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고 만다.

이어서 1952년에는 유진 콕스 의원의 주도로 비과세재단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록펠러재단은 조사가 시작된 첫 날부터 매수한 의원들을 통해 활동비용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이 조사는 6개월 만에 종료됐다. 그리고 콕스 의원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이후 캐럴 리스 의원이 3차 조사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역시 록펠러재단은 치밀하고 거대한 방해공작을 시작한다. 리스는 5명의 조사위원 중에 자신을 제외한 웨인 헤이스 의원 등 4명이 록펠러재단의 임원임을 알았다. 헤이스는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곤 했다.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1954년 8월 19일, 리스는 보고서를 완성한다. "록펠러재단은 미국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권력집단이다. 어쩌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 연방정부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의회보다 권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50

1970년대까지 미국 최대의 석탄 공급자이며, 안전 규정을 무시해 가장 많은 진폐증환자를 양산해 대중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컨설리데이션 석탄회사」도 록펠러재단의 소유이다. 51 노동 분규가 일어나자 200여명을 학살했던,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콜로라도 철강석탄 회사」도 록펠러재단 소유의 회사였다.

록펠러의 손자이고 넬슨 록펠러 부통령의 동생인 데이비드 록펠러도 투기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지난 2007년 5월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색면추상화의 대가로 불리는 화가 마크 로스코의 '화이트 센터'가 7,28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에 낙찰된 일이 화제가 됐다. 화이트센터는 직사각형의 화폭에 검은 선, 흰색 면, 분홍색 면만 그려져 있는 매우 단순한 그림이다.

'화이트 센터'의 원주인은 록펠러 2세의 막내아들로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소유주이자 록펠러재단 소유의 뉴욕 현대미술관 회장인 데이비드 록펠러였다. 이 그림은 1950년에 제작되어 팔리지 않고 있던 것을 데이비드가 1960년 1만 달러에 구입해 50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 뒀는데, 7280배의 엄청난 수익률을 낸 것이다. 1954년에 제작된 로스코의 또 다른 그림 '마티스를 위한 경의'도 1960년에 위의 그림과 함께 1만 달러에 구입해 200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240만 달러에 팔렸다. 52 두 경우 다 측근들을 대거 동원해 그림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윤을 낸 것이다.

제Ⅱ부. 신의 이름으로 모두를 죽여라. 죽임의 향연

1장. 지옥 스케치.

게이츠의 추악한 음모

게이츠 목사의 추진 아래 메사비 광산을 거의 50배 이상 이윤을 붙인 가격으로 U. S. 스틸에 매각한 록펠러는 자금력이 더욱 탄탄해지자 오래 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콜로라도 석탄회사」(CFI)를 1902년에 매입했다. 이 역시 게이츠 목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둘째로 큰 철강회사이자, 17위의 기업체였다. 록펠러는 그의 아들 록펠러2세와 함께 600만 달러를 들여 전체 주식의 40퍼센트와 채권 43퍼센트를 매입하여 명실상부한 회사의 소유주가 된다.

그러나 애초부터 록펠러는 CFI를 경영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메사비광산과 같이 경영부실로 적자운영을 하던 회사를 인수해 단기간에 경영을 쇄신시킨 후 웃돈을 얹어 매각할 생각이었다. 1907년 게이츠는 전에 메사비탄광에도 관여했던 자신의 삼촌 레이몬드 M. 바워즈를 추천하여 이사장을 맡게 한다. 바워즈는 브로드웨이 26번가에 있는 게이츠와 록펠러2세에게 편지와 전화로 수시로 업무보고를 했다. 1

바워즈는 성격이 잔인하고, 극단적인 청교도 사상에 젖어 폐쇄적이었으며, 경영개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채탄가격을 삭감해 평균 일당 1달러 68센트를 지급하고, 그것도 회사가 운영하는 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매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터무니없이 비쌌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방 2개짜리 사택에서 비싼 집세를 내며 살아야 했다. 그들이 다니는 교회도 회사가 운영하는 침례교회로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내야했다.

목사들은 영적으로 노동자를 지배하며, 그들을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기계로 만들려고 했다. 심지어 주당 80시간을 일하고 남은 시간마저도 회사의 이윤을 남기는 일에 소비하도록 권유했다. 당시 미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400달러였지만 이곳에서는 8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해인 1913년 7월 1일부터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지만 록펠러의 모든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임금이 주어졌다. 2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잡이들로 구성된 볼드윈-펠츠의 탐정, 스파이 등을 고용하면서 매년 2만 달러를 지출했다. 경영진은 지방 선거에 시민권이 없는 이민노동자들에게도 투표를 하게 하는 등의 불법으로 콜로라도 주 의회에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콜로라도 주 카운티 법원은 CFI의 지사와 같았고, 보안관은 회사의 직원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갖고 노사분쟁을

화려한 설교 솜씨로 종말론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묘사하는 게이츠 목사와 록펠러, 그의 아들 록펠러2세, 바워즈 이사장 등은 노동자 임금 착취를 통해 경영을 개선할 생각이었다.3

고장 나면 바꾸고

"자본은 종교를 쓰레기통에 처넣었다."고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가인 록펠러 측근들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바퀴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윤활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종교는 오로지 이윤(맘몬)이었다. 당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열풍 속에 세계 곳곳에서 이민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밀려들어 왔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흑인들은 일거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던 시기였다.

여러 해 동안 콜로라도 광산들은 추악한 경영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황량하고 몸서리쳐지는 이 일대는 야간 통행금지와 무장 감시원들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었다. 법은 노동을 전체로 파악해서 1개월 단위로 노동계약을 갱신하며, 중도에 사고로 노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금지불을 거절했다. 노동관계는 전적으로 사적 영역이어서 어떠한 법도 개입할 수 없었다.4

새로운 노예제도인 것이다. 록펠러2세와 게이츠, 바워즈 등은 이윤증가에 온 힘을 쏟았지만 예전 메사비 투자가 그랬듯이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게이츠 측근들은 '최저비용에, 최대이윤'이라는 설익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고자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줄여나간 것이다.

암흑에서 깨어나다

탄광 노동자들 1만 1천 명의 대부분은 흑인이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시아 등에서 넘어온 이민노동자들이었다. 그 당시의 탄광, 철도 등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은 다른 곳도 거의 비슷했다. 당시 광산노조의 어머니로 유명했던 마더 존스가 이 지역에 나타나 광부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면서 그들은 암흑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존스는 곧바로 체포되어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주에서 추방된다.5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했다. 채탄가격의 10퍼센트 인상, 하루 8시간 노동, 철로 부설 등의 작업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 것, 채탄량을 측정할 때 노동자도 참석시킬 것, 회사 상점 이외에 다른 상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교환권으로 지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6 당시 임금은 채탄량을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채탄량을 산정할 때 회사 직원만이 저울을 확인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었다. 때문에 채탄량을 실제보다 줄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회사는 노조에 동조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들의 가족을 모두 사택에서 좇아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회사 사유지를 벗어나 러드로(Ludlow) 마을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천막을 짓고 생활하며 직장복귀와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영진의 요구로 인해 출동한 보안관들과 사설탐정들이 때때로 학살과 방화를 일으키자 노동자의 아내들은 산에서 과일, 채소, 약초 등을 캐다가 시내 장터에서 판돈으로 한두 정씩 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군 보안관들에게는 일당 3달러 50센트씩을 록펠러 부자가 지급했다.

1913년 10월 17일, 천막촌에서 파업 노동자들과 보안관 사이에 총격이 오가면서 사태는 최악으로 내달았다. 전투가 끝날 무렵, 보안관들은 '데스스페셜'이라는 특수 장갑차에 올라타 천막촌을 누비며 기관총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을 사살했다. 경영진 측에서는 눈부신 서치라이트로 천막촌을 비추며 지원에 나섰다. 바워즈는 록펠러2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파업

노동자들이 윈체스터 소총과 권총을 밀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해서 알리고 회사 측에서 기관총과 장갑차 등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7 1913년 겨울에 시작된 대치는 간간히 유혈사태를 일으키며 해를 넘겼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다.

부활절 다음 날

콜로라도 산맥의 얼어붙은 바람이 몰아치던 1914년 4월 20일 아침, "인류 복지의 증진을 위해"라는 구호 아래 록펠러재단을 설립하고 1년이 지난 때였다. 그날은 청교도의 최대 축제인 부활절 다음 날이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추위와 총알을 피하기 위해 천막 밑으로 낮게 파놓은 지하로 들어가 잠을 잤다. 그때 멀리서 적막을 찢는 한방의 총성이 추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학살의 신호였다. 동시에 사방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노동자들은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해서 응사하기 시작했다. 특수 장갑차와 호치키스 기관총을 갖추고 잘 훈련된 총잡이들에 맞서 권총과 장총을 갖고 있던 노동자들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다 쓰러졌고, 총마저 없던 노동자들은 도망가다 쓰러졌다. 그러다가 잠시 소강상태를 맞으며 양측이 조용해졌다.

적막만이 흐르던 그 때 주 방위군 진영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휴전을 협상하자는 말이었다. 노동자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루 티카스라는 그리스 청년을 내보내기로 했다. 그가 50여 미터를 걸어간 순간 총성이 연속 울렸다. 동시에 티카스는 가슴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속은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 진영에서도 소총이 불을 뿜었다. 그러나 기관총과 장갑차에 밀린 노동자들은 언덕으로 밀려났다. 술에 취한 방위군들은 떼를 지어 기름통과 횃불을 들고 다니며 천막마다 불을 질렀다.

다음날 아침, 러드로는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만이 하늘이 울어대는 통곡을 감싸고 있었다. 마침 연락을 받고 온 전선 수리공이 공사를 위해 불에 탄 채 찢겨져 흩어진 천막을 걷어 내자 그곳에는 여자와 어린이 13명이 서로 뒤엉켜 그을린 채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죽어 있었다.8 파업 기간 중 콜로라도 주 발표로는 199명, 록펠러 측 발표로는 69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32명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한다.9

러드로 학살이 있던 날, 록펠러2세는 뉴욕 주에 있는 카이컷 대저택에서 조경을 돌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후에 그가 남긴 일기 형식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러드로에서 학살은 없었다. 교전은 각각 12명과 22명으로 이루어진 보안관, 민병 소부대와 전체 천막촌의 300명이 넘는 무장 폭도들 간의 필사적인 사투로 시작되었다. 러드로 교전과 관련해서 주 당국이나 경영자 측에 의해 총을 맞은 여자나 어린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여자 2명과 아이들 11명이 막사 구덩이에서 죽은 것은 천막촌 남자들이 그들을 그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통풍도 전혀 되지 않는 가로 2.4미터, 세로 1.8미터, 너비 1.3미터의 구덩이에 그들을 몰아넣은 결과로 참사는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법과 재산권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같은 록펠러의 만행에 대해 전부터 여러 차례 록펠러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당시의 사상가 헬렌 캘러[16]는 "록펠러는 자본주의의 악마입니다. 그는 앞으로는 자선을 하는 척 하면

16) 헬렌 A. 켈러(1880~1968년)는 미국의 작가, 사상가, 정치가, 교육자이자 청각, 시각 장애인이다. 그녀는 우

서, 뒤에서는 힘없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아내, 아이들을 잔인하게 총으로 죽였습니다."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가장 부자인 사람들과 회사들, 은행가, 토지투기꾼, 주식투기꾼, 그리고 노동착취자들을 위해서 통치되는 추악한 나라입니다."라고 통곡했다.10

러드로에서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가 처참하게 묵살되고, 수많은 생명이 한스럽게 사라지고 난 한 달 후에 록펠러와 그의 아들 록펠러2세 그리고 게이츠 목사가 흑인교육을 위해 설립한 일반교육위원회(GEB)에 140만 달러를 기부한다.11

사람이 냉혹해 지는 까닭은

구소련의 반체제작가로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경계선은 개인의 마음에 따라 정해진다."고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철학에 의해 그 경계선이 만들어지며 따라서 그 안에서의 행위는 어떠한 것도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잔혹하게 다룬 사람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여김으로써 그런 행위에 가담할 수 있고, 더 큰 공공의 선이라는 허울 아래 확실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을 것이다. 모든 현상은 자신의 믿음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막스 베버는 칼뱅주의를 옹호하고 부의 축적을 지지하지만 그는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인간에 대한 배려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염려했다. 윈스턴 처칠은 "인류사를 통해 볼 때 문명화된 기독교인은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이 자제한 것은 고문과 식인뿐이었다."라고 말하며 종교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얼마나 잔인해지는가를 탄식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이 자제한 것은 식인뿐이었다. 세계사를 돌이켜볼 때 그들은 얼마나 끔직한 고문을 자행해 왔던가.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은 종이 다른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공감'을 발견하고 감동했다고 한다. 그는 고양이와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한번은 고양이가 아파서 바구니에서 꼼짝 않고 누워있을 때였다. 그러자 개가 고양이 옆을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고양이를 몇 번 핥아주었다. 그것이 개에게는 친절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시였다."12 이렇게 종이 다른 동물끼리도 공감을 느끼는 것이 생명체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명체의 본성마저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냉혹한 신앙과 철학이다.

1915년 1월에 열린 연방의회의 노사관계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1913년 한 해에만 콜로라도 석탄회사에서 464명의 노동자들이 탄광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도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 수당 700달러를 지급하고 종결했다. 불구가 된 경우에는 오히려 1년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불한 임금마저도 회수했다. CFI 사장인 존 오스굿이 1914년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증언에 의하면 노동자가 작업 중에 사고로 평생불구가 된 경우에도 전적으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회사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13

1910년 1월 31일, CFI 광산 폭발로 7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콜로라도 노동통계국에서 회사의 "추악한 야만성"을 지적했지만 바워즈는 이를 하나님의 뜻 또는 부주의한 광부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1914년 2월 7일 록펠러2세가 바워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잔혹한

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하자 "미국이 인종차별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말인가?"라고 논박하며 전쟁 참여를 반대하기도 했다. 여성참정권운동, 노동조건개선, 인권운동에 전념하면서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평생을 바친다. 20대 중반까지는 록펠러가 후원해준 탓으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으나 20대 후반부터 그녀의 스승인 앤 설리번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진영에 가담함으로 그녀의 역사는 모든 언론에서 지워진다.

사고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이야기도 없고, CFI의 성장이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는 사실만 지적하며 질책한다. 그러면서 "거대 산업체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동등하게 대하며, 개방적이고, 모든 면에서 공명정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점점 그 공명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라고 바워즈를 칭찬한다. 14

후에 노사분규가 극한 대치 상태로 확대되자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윌슨 노동장관에게 1913년 11월 19일에 록펠러2세가 보낸 편지에 의하면 "CFI 임원들은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복지에도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가족같이 대하고 있습니다."고 거짓으로 일관한다. 15

이 같은 내용의 편지들을 근거로 록펠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류 역사학자들은 "록펠러부자가 노동자들을 가족 같이 대해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고, 늘 록펠러에게 고마워했다."고 기술한다. 얼마나 어이없는 왜곡인가?

타이쿤의 저자인 은행가 찰스 R. 모리스도 록펠러를 이렇게 말 한다 "카네기만큼이나 록펠러도 노조에는 혐오감을 가졌지만 스탠다드 오일에 노조도 없고 노동분쟁도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록펠러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러드로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록펠러가 75세여서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인 록펠러2세가 저지른 일이었으며 이일로 인해 록펠러2세도 노동개혁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16

록펠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해보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노동착취를 하는 악덕기업가로 유명했는데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또는 자료를 은닉한 채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독자들과 록펠러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u>이제는 장막 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록펠러를 햇빛 아래로 불러내 진실을 밝혀야 한다.</u>

퓰리처상을 수상한 월터 리프만은 「뉴리퍼블릭」지에 록펠러에 대해 이렇게 썼다. "여기에 사상 최대의 부를 긁어모은 사람이 있다. 그는 자본주의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모든 평등에 대한 최대의 부정이며,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17

록펠러와 그의 아들은 최저임금이라 해도 고용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에 10센트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카네기의 홈스테드 철강회사에서 일어난 노동자 파업에 대해 그 회사 사장인 헨리 클레이 프릭이 학살을 명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록펠러 부자는 전보를 보내 그의 행동을 극찬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 10명이 죽고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18

록펠러와 프릭은 노동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사업에서의 거친 자세 등이 서로 통해서 절친한 사이로 지내는 사이였다. 메사비광산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중개인 역할을 한 것이 프릭이었다. 그들은 언론을 피하기 위해 어두워진 밤을 이용해 포칸티코의 덤불 속에서 자주 만나 우정을 쌓아갔다.19

게이츠 목사도 록펠러 부자만큼이나 노조에 대해 완고해서 록펠러2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만약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탐욕스럽게, 가능하다면 사회 전체의 부를 강탈하고 몰수하고 흡수하려고 할 겁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노사갈등을 선과 악의 종말론적 대결로 이해했다. "CFI의 직원들은 지금 이 나라의 혼돈과 무질서, 즉 사유재산에 대한 약탈이 마구 일어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정의를 위해 노동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록펠러2세에게 편지로 그의 입장을 설명했다.20

게다가 뒤에서 전체를 조종했던 게이츠는 백인우월주의, 제국주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청교도 목사였으며 다른 측근들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 편협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록펠러2세에게 전문가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료주의적 이익을 앞세울 것이라며 전문가를 측근으로 두지 말 것을 충고했다. 그러나 록펠러2세는 러드로 대학살 사건 이후로는 게이츠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주변에 레이먼드 포스딕, 찰스 헤이트, 토머스 데아부아즈, 버트램 커틀러 등 전문가들로 벽을 쌓기 시작해서 거대한 측근 집단을 만든다.21

러드로 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윌슨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윌리엄 B. 윌슨 노동장관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록펠러와 록펠러2세를 면담하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록펠러는 자신은 경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휴식만을 즐긴다며 아들을 만날 것을 권했다. 반면 그의 아들은 단지 이윤만을 기다리는 주주일 뿐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후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록펠러2세가 수시로 바워즈로부터 경영보고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바워즈에게 자신은 노조를 거부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했음이 밝혀졌다. 바워즈는 록펠러2세의 지시에 따라 노동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광산이 폐쇄되고, 모든 설비가 파괴되고, 모든 투자가 소용없어 지는 한이 있어도 노조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며 협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2

바워즈가 록펠러2세에게 보낸 “우리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우리의 뼈가 록키산맥에서 하얗게 변할 때까지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 록펠러2세는 “우리는 여러분의 행동이 옳다고 믿으며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 같이 바워즈의 강경행동에 대해 지원해주는 내용의 편지가 이후에 수없이 공개됐다.

청문회에서 마틴 포스터 위원장은 록펠러2세에게 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증인이 나서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록펠러2세는 대답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듣느니 차라리 회사를 폐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은 가능한 한 많이 받고, 일은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지요.” 증언은 계속된다. “증인은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노동자들이 전부 죽더라도 끝까지 그런 입장을 고수할 생각입니까?" "그게 저의 원칙입니다.”

아들의 강경한 입장을 전해들은 그의 부모들은 감격했다. 어머니 세티는 병고에 시달리며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임에도 전보를 통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내 아들의 목소리가 여호수아의 나팔소리와도 같았다. 너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다. 전에도 남편인 록펠러를 하나님으로, 그의 아들인 록펠러2세를 신의 아들로 묘사했던 그녀는 아마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의 모습을 상상했으리라. 아버지 록펠러는 아들을 격려하며 CFI주식 1만주와 두둑한 현금을 건네줬다. 이후 3만주를 더 주어 록펠러2세는 최대 주주가 된다. 23

대중의 분노

그러나 부모들의 격려와는 달리 록펠러 부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스탠다드 오일의 본사가 있는 브로드웨이 26번지에서는 검은 완장을 차고, 피켓을 든 군중들이 록펠러 부자를 비난했다. 메리 갠즈라는 사람은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록펠러 부자를 암살할 것을 제안했고, 며칠 후 렉싱턴의 주택가에서는 사제폭탄이 터져 몇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그들은 세계산업노동조합원으로 웨스트

54번가의 록펠러2세의 집을 폭파하려고 준비하다가 실수로 폭탄이 터졌다고 했다. 한 여인은 권총을 휴대한 채 록펠러2세의 사무실로 침입했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기도 했다.

그 후로 그는 늘 사무실 서랍 속에 ‘스미스 앤드 웨슨 38구경’ 권총을 넣어 두었고, 뉴욕에 있는 자신의 포칸티코 대저택의 담장을 가시철사로 두르고 담 꼭대기에는 예리한 칼날을 꽂아 두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수 십 명의 무장한 경호원들을 24시간 배치했다. [24]

그는 평소에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불안해질 땐 존 헨리 조웨토가 쓴 얇은 설교집 「순환하는 시간속의 명상」의 한 페이지를 큰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조웨토는 책에서 오만과 탐욕을 버리라고 강조했고,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고 설교했지만 록펠러에게 내용은 새겨질 리가 없었다. 그냥 근본주의 목사가 쓴 성서적인 내용이라는 데서 위안을 받을 뿐이었다. 아침 식사 때는 신약성서를 한 페이지씩 습관적으로 큰 소리로 읽어 나갔다. [25]

그러나 록펠러부자의 만행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록펠러재단이 만들어지고 3년 후, 러드로 학살 사건이 있은 후 2년 후인 1916년에 그들은 록펠러재단 소유인 스탠다드 오일의 계열사 중 가장 거대한 기업인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에서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키자 회사 수비대에게 사살을 명령한다. 결국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베이온의 학살’을 또 저지른다. 이 공장에서는 “일반교육위원회”를 설립하던 해인 1903년에도 학살 사건이 있던 곳이다. [26]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같은 뉴저지 주 엘리자베스에 있는 같은 회사 소유의 테트라에틸납 처리 공장(에틸 사)에서 1924년 10월 24일에 노동자 49명 중에 5명이 죽고, 35명이 납중독으로 인한 중증치매와 다른 신경질환증에 걸렸음이 확인되었다. 그 중 몇 명은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 남은 생을 보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을 두고 당시 회사는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미쳐버린 것 같다.”고 하며 모든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돌렸다. 이 재앙은 에탄올은 자연에 존재하는 석유로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납 원자 하나와 수소원자 20개, 탄소원자 8개를 섞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화학물질’을 만들어 낸 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특허품이 악명 높은 4에틸납[17]이다.[27]

3일 후인 10월 27일자 「뉴욕 월드」지의 1면에는 “휘발유의 광기가 공장에 만연. 두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정신병에 걸리다”라는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보냈다. 그 후 미국 광산국은 에틸납 실험 결과를 그해 11월 1일 「뉴욕타임스」지에 발표한다. “에틸휘발유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 광산국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 오랜 실험을 한 결과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제목이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스탠다드 오일의 에틸사가 자금을 대고 지휘했음이 밝혀진다. [28]

그러나 이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동차의 노킹 현상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에 납을 첨

---

17) 테트라에틸납(Tetraethyllead) 또는 사에틸납(四에틸납)이라고도 하며 화학식은 $(CH_3CH_2)_4Pb$로 나타내는 납의 알킬화물이다. 클로로에탄과 납나트륨 합금과의 반응에 의해 합성된다. 특이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로 휘발하기 쉽다. 햇볕에 불안정해 서서히 분해된다. 인화성이 있고 금속에 대하여 부식성을 가진다. 증기와 피부로부터 흡수되기 쉽고 강한 신경독성을 일으킨다. 에틸사의 철저한 은폐공작에 의해 산업재해의 진상이 대부분 감춰진 상태다. 지금도 통조림 캔, 물탱크, 치약 튜브, 호일 등에 사용되고 있다.

1921년에 미국 GM사의 토머스 미즐리에 의해 엔진의 노킹 방지제로서 개발되었다. 후에 미즐린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인 프레온 가스도 발명한다.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휘발유에 첨가되고 있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배기가스의 납이 인체 및 환경에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1990년대에 무연 휘발유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발명자 미즐리도 납중독으로 사망한다.

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납중독이었다. 납은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하는 우라늄의 폐기물인 중금속이고, 칼슘과 똑같은 전하 또는 원자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납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채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한다. 납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조금만 들어가도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한다.

많은 역사가들은 로마제국이 멸망한 중요 이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납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그릇, 술잔, 수도관, 장난감, 건축자재 등 일상 용품의 대부분을 납으로 만들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귀족들이 납에 중독되어 정신질환과 불임을 앓으면서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일면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로마가 폐쇄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제국을 만들어 냈던 강력한 힘인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정신적 기틀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대세다.

그럼에도 대중의 건강은 외면한 채 자동차용 휘발유에 납을 첨가하는 특허 기술을 통해 에틸납(유연휘발유)은 1990년대까지 계속 생산됐다. 미국에서 1920년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된 1990년대 중반까지 약 700만 톤이 휘발유에 첨가됐고 그 중 90퍼센트가 대기 중에 미세먼지로 존재한다. 지금도 군사용 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29 미국은 1995년부터, 일본은 1986년부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유연휘발유의 사용이 금지됐다.

예수는 노동자를 쳐냈을 텐데

얼마 후에 록펠러2세가 자기 가문의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 청문회에서 다소나마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듯하자 게이츠 목사는 이렇게 개탄하며 아쉬워한다.

> "내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노동조합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에 대해 절대 사랑의 뜻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 뉴욕에서 가장 능력 있고 법정에서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해 힘으로 해결했을 것이다. 아니면 끝까지 구속을 감수하고 밀어붙이며 차라리 질질 끌려갔을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내 주장을 강력하고 생생하게 밝히면서 큰 소리쳤을 것이다." 30

끝내 노동자와의 화합정책을 거부했던 게이츠 목사와 그의 삼촌 바워즈는 콜로라도 탄광에서 해임되고 그곳에는 노사위원회라는, 록펠러2세가 재정을 지원하는 어용노조가 들어섰다. 그러나 1915년 10월에 록펠러2세가 설립한 어용노조는 연방 의회에서 부결되고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은 1933년에 가서야 설립된다. 31

1915년 9월 20일, 콜로라도 탄광을 방문한 록펠러2세는 노동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한다. "우리는 모두 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자본은 여러분들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여러분 역시 자본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본과 노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최악의 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바로 이 광산에서 충분히 우호적으로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더라도 회사 관리자들과 여러분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32 그러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CFI의 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는다.

록펠러 가문의 상속자에게서 이 정도나마 유연함을 보인 것은 커다란 변화라며 반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록펠러2세가 유연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이

제 뉴욕 주에서 록펠러재단 설립이 끝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18] 법안도 의회를 통과했으니 소동을 질질 끌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러드로 학살사건이 시작되는 1913년은 "세계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안전하게 재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비과세 록펠러재단이 설립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법안이 통과되던 해였다. 연방준비은행의 12개 주주은행 중 최대 주주인 '뉴욕 내셔널시티은행'은 록펠러 소유의 은행이다. 33 그리고 최초로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수정 헌법 제16조가 통과된 해였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의혹이 짙게 일어난다.

그 후 록펠러2세는 이미지 쇄신의 일환으로 아이비 리의 권유로 소식지를 만들어 수없이 배포한다. 아이비 리는 미국에서 최초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사람이다. 기자 출신인 그는 기자에게 자신이 만든 자료를 많이 줄수록 기자들은 심층취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성향을 간파했다. 한 소식지에는 "두 여자와 열한 명의 어린이가 타죽은 사건은 민병대의 총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로 난로를 엎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짓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정육업계의 비리를 폭로한「정글」로 유명한 업튼 싱클레어는 그를 보고 "독에 절은 아이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시인 칼 샌드버그는 "아이비 리는 고용된 총잡이보다 더 추악한 인간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의 관념은 여자와 어린이를 태워 죽이는 러드로보다 더 사회에 해독을 끼친다."고 했다. 34

얼마 후에 콜로라도 석탄회사가 1915년에 통합석탄회사에 매각되자 록펠러는 게이츠 목사에게 수수료로 2만 5,000달러를 지불하려하자, 게이츠는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결국 6만 달러를 받아낸다. 그는 러드로 학살이 있기 얼마 전인 1912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호프만 근처에 2만 7천 에이커의 농장과 1,000에이커의 목장을 사들였다. 35 그리고 록펠러2세에게 배척되고 나서는 이곳에서 백만장자로 여생을 부유하게 보낸다.

2장. 학살은 또 이어지고.

학살은 가문의 전통

록펠러2세가 아버지인 록펠러에게 물려받은 강경하고 인종차별적인 성향은 록펠러2세의 둘째 아들인 넬슨 록펠러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그는 뉴욕 주지사로 4번 연속 연임되고, 민주당 대통령 지명전에도 4번이나 출마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간절했던 사람이다. 그는 40여 년간 정치를 하면서 냉전 강화, 핵무기 개발, 베트남전 확전, 복지축소,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인종차별주의, 힘으로의 해결, 뇌물 공세, 협박 등 강경하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는 모두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아서 골드버그와 맞섰을 때, 골드버그는 35명의 선거 참모를 고용

18) 1913년 12월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한 기구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한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되는데, 가맹은행의 예금지불준비를 관리하고, 재할인율을 결정하며, 공개시장을 조작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발행하여 연방정부에 대출하는 비공개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은행이다. 국채 담보 이율은 10퍼센트이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세수가 소득세이다.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장되는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민간은행이므로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에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연준의 최대은행인 뉴욕 은행은 록펠러재단 소유로 되어있다.

한 반면에 넬슨은 350명을 고용했고, 골드버그는 정기 항공기를 이용해서 유세를 했지만 넬슨은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해 보도진을 동승시킨 채 뉴욕 주 모든 곳에서 유세를 했다. 선거 광고에만 35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골드버그의 선거비용 총액과 맞먹는 액수였다. 당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뉴욕 주민은 평균 9.4회에 달하는 넬슨의 선거 광고를 접했다고 한다. 지출한 총 선거비용에 대해 그의 주장으로는 2,100만 달러, CBS 뉴스 보도로는 2,700만 달러, 「돈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의 저자인 조지 테이어의 추산으로는 4,800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1 미국에선 선거비용 사용에 제한이 없다.

1963년에 암살당한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이어 1968년 암살당한 로버트 케네디의 후임으로 상원의원이 된 찰스 구델이 베트남의 미군 철수안을 상정하자, 넬슨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북베트남과의 협상 지위만 불리하게 만들뿐이다." 또 국내 정치에서도 복지확대, 저소득자 의료보조비 지급, 구제기금 집행, 인권신장 등을 주장하는 동료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1960년대 전반적인 저항 분위기 속에서 그의 강경노선은 그가 소속돼 있는 민주당의 노선과는 다른 넬슨만의 독특한 이미지로 주변 동료들마저도 당혹해 할 정도로 강경하게 굳어졌다. 2

현대사에서 미국의 베트남 참전은 가장 설득력이 없는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넬슨, 키신저 등 록펠러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베트남전을 강력히 주장했던 이유는 전쟁의 필수품인 석유, '에이전트 오렌지' 등 독가스, '네이팜탄' 등 신무기, 남지나해상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유전 등 록펠러재단의 이익에 크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강경책과 탐욕으로 인해 그가 초기에 정치활동의 기반이었던 라틴아메리카는 대부분 반미와 반 록펠러로 돌아섰다. 1969년 5월,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남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온두라스,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산토도밍고 등에서는 거대한 반 록펠러 폭력 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결국 20개국 중에서 악랄한 독재국가인 파라과이와 아이티에서만 제대로 순방을 마칠 수 있었다. 3

그는 처음 뉴욕 주의 주지사가 되자 즉시 은행법의 규제를 개정해 동생 데이비드가 소유하고 있는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합병과 지점 설치, 그리고 은행이 타 업종으로의 진출 등을 가능하게 해줬다. 또한 데이비드가 추진했던 세계무역센타 건립비용이 예상을 초과하며 자금난에 봉착하자 뉴욕 주의 항만관리위원회를 통해 8억 5,0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여 지원해 줬다. 마침내 110층의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타가 완공되었지만 입주 업체를 찾기가 어렵게 되자 넬슨은 20여개의 주 정부 사무실을 센터 건물로 옮기고 빌딩 한쪽의 60개 층을 40년간 주 정부에서 임대하는 계약을 맺어 지원해 줬다. 결국 연방정부 감사원은 무역센터에 일반 임대료보다 연간 400만 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었음을 적발해 낸다. 4

그러나 록펠러가 특유의 해결 방법인 정치인 및 판사, 언론인에 대한 매수로 흐지부지 된다. 그 후 2001년 9.11테러 당시 이 쌍둥이 빌딩인 록펠러센타는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에 무너진다.

그는 늘 자신 자체가 미국의 국익이고, 자신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반국가 행위'라는 극단적인 망상에 젖은 사람이었다. 닉슨같이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언제든 지원해 주었고, 것슨 모어하우스 같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은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도 즉시

사면해 주었다. 그는 뉴욕 주를 주지사 4선의 경력과 거대한 부의 힘으로 장악해 자기 개인의 기구로 만들었다. 5

아티카 학살 사건

미국에서 감옥의 폭동은 언제나 있어왔다. 가난할수록 결국 감옥에 갈 확률이 크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실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범죄를 더 잘 저지르기 때문은 아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부자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또 기소되더라도 보석으로 풀려나와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기용해서 판사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늘 법은 강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왔기 때문이다.

1969년에 기업가들이 저지른 탈세에 대한 502건의 기소가 있었다. 평균 탈세액은 19만 달러였다. 그 중 20퍼센트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평균 형기는 7개월이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자동차 절도에서는 60퍼센트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평균 절도 액수는 992달러였고, 평균 형기는 18개월이었다. 강도죄의 경우는 평균 321달러에 33개월이었다.6

1971년 9월 9일, 넬슨이 4선의 주지사로 있던 뉴욕 주의 '아티카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대부분 흑인과 유색인종인 1,200여명의 재소자들은 20여명의 백인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주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재소자는 모두 유색인종이었고, 교도관은 전부 백인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했던 시절이었고 넬슨 주지사 역시 인종차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에서 개혁운동가 조지 잭슨이 교도관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티카에서도 분노가 폭발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 사항은 단순했다. 일주일에 한번은 샤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한 달에 한 통씩밖에 지급되지 않는 화장실 휴지의 배급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폭동의 진행과정 중에는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살 수 없으니 제3세계로 망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혁명적인 요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7

그러나 청교도임을 표방하며 힘의 논리에 젖어 있던 넬슨은 그들과의 면담을 일체 거부한다. 결국 뉴욕타임스 편집장인 톰 워커, 주 의회 의원인 아서 이브, 변호사 윌리엄 쿤슬러 등 3인의 협상단이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넬슨의 비협조로 협상은 결렬된다. 폭동이 일어난 다음 날, 넬슨은 참모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대저택이 있는 넬슨의 휴양지 '포칸티코'로 가서 모든 연락을 단절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 휴양지는 허드슨 강을 끼고, 100여 킬로미터의 사유 고속도로를 갖추고, 드넓은 골프장과 75채의 호화저택과 다양한 모습의 동굴, 호수, 분수, 밀림, 고전적인 조각상, 다양한 강 등을 수십 곳에 갖추고 있는 저택이다.

3인의 협상팀은 뉴욕 라디오를 통해 "아티카 교도소의 제3자 대책위원회 일동은 여기서 재소자들과 경찰들의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염려합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에 호소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주지사님께 아티카로 오시도록 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호소한다. 위커, 바딜로, 존 던 등 넬슨의 비밀 연락번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현장으로 와달라고 호소하지만 그는 끝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무력 진압을 명령한다.

사전 경고도 없이 한 대의 헬리콥터가 저공비행을 하며 최루가스를 다량 분사했다. 동시에 백인으로 구성된 저격수들과 특수경찰대의 고성능 총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다. 6분 만에

사건은 종료됐다. 인질로 잡혀있던 교도관 10명과 재소자 33명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갔고 80명이 부상을 당했다.8

내가 곧 질서

며칠 후 넬슨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우리는 아티카에서 숨진 인질들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 비극은 고도로 조직화된, 폭력혁명 전술을 따르는 무장 조직들이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거부하고 갈등을 강요하며 그들이 처음부터 위협했던 대로 냉혹한 학살을 자행했던 결과입니다.”고 백인 인질들이 흑인 재소자들에 살해됐다고 왜곡한다.

그러나 다음 날 넬슨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간, 부검 결과가 나왔다. 넬슨의 주장대로 인질들이 재소자에 의해 목 졸려 숨진 것이 아니라 특수경찰대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후에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넬슨은 “왜 끝내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묻는 톰 위커 뉴욕 타임스 편집장의 질문에 그는 “내가 협상장에 나타나면 다음에는 대통령하고만 협상하려 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인종차별주의와 힘의 논리에 젖어 있던 넬슨은 자신의 권력을 무한대로 휘두르길 좋아했다. 9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 가치가 없으며 인명피해 정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넬슨의 보좌관이며 그의 사위인 톰 모건은 “아티카 사건은 오직 힘으로 해결하려는 록펠러가문 식의 전형적인 처리 방법이었다.”고 기자에게 진술했다. 50년 전에 그의 아버지 록펠러2세가 러드로에서 200명을 학살하던 그때의 방법과 너무도 똑 같았다. 10

교도소를 재탈환한 경찰은 죄수들을 발가벗겨 깨진 유리조각 위를 기어가게 했고 그 중 경찰 한 명은 저항하는 죄수의 항문을 스크루 드라이버로 후벼 파는 등 인권 유린이 속출한다. 사람들은 아티카 사건을 ‘제2의 러드로 대학살’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에 대해 넬슨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경 노선으로 치닫는다. 유아 인질범, 살인범 등 42명에 대해서는 특별감형으로 석방하면서도, 아티카 교도소의 관리, 위병, 재소자 중에서 넬슨의 강경 진압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시켰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한다. “당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 법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했지요. 우리 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질서 말입니다.” 11

당시 부상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죄수들이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건은 무려 30여년을 끌어오다가 넬슨 록펠러가 죽은 후인 2000년에야 비로소 800만 달러라는 보상액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많게는 1인당 2천 달러, 적게는 수백 달러에 그치는 상징적 보상이었다. 12 아티카 폭동 사건은 1980년, 1994년, 그리고 2001년에 각각 TV 영화로 만들어져 방영되기도 했고, 비틀즈의 우상이자 반전 평화운동가인 존 레넌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곡을 만들어 부르기도 했다.

넬슨 부통령

넬슨은 뉴욕 주지사로 재직하던 15년간 외형 성장에만 골몰한다. 이를 통해 백악관으로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외형 성장에 대한 집념은 건설과 마약단속에 집중됐다. 고속도로, 학교, 교도소 등... 특히 십여 년의 기간을 들여 수십 번 설계도를 변경하며 추진했던 올버니 몰은 결국 주 재정을 파탄시키고, 주민들의 세금을 폭발적으로 인상시켰다. 그는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만 했던 사람도 예외 없이 징역형에 처하는 한

편, 그들을 밀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넬슨이 주지사를 맡았던 15년 후의 뉴욕 주의 상황은 참담했다. 그가 처음 주지사가 되었을 때 주민 1인당 부담 세액은 94달러였지만 그가 사임할 때는 460달러였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었던 3센트의 세금은 15센트로 되었고, 1갤런당 4센트였던 휘발유세는 8센트가 되었다. 마약관련 사망률은 32퍼센트나, 주 정부의 부채는 400퍼센트나 급증했다. 13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부통령이었던 헨리 포드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포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넬슨을 부통령으로 지명했고 부통령직을 수락한 넬슨에 대한 의회청문회가 열린다. 닉슨이 사임하기 전에 넬슨 록펠러는 뉴욕 주지사를 사임하고 다음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 팀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 청문회에서 록펠러가문과 록펠러재단에 대한 약간의 비밀이 공개된다. 지금껏 록펠러가문은 미국의 힘의 상징으로 그 가문에 대한 비밀은 국가기밀과도 같이 취급되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미 의회와 백악관, 언론, 법원 등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록펠러가의 방해공작으로 제대로 청문회가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넬슨으로 인해 일부는 공개됐다. 결국 이때 장막 뒤에 숨겨져 신비롭게만 비쳐지던 악취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록펠러가문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록펠러가문의 비밀 사무실 5600호실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록펠러가문은 1세 때부터 언제나 비밀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 청문회에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분위기는 현재 록펠러재단 이사장인, 넬슨의 아들 스티븐 C. 록펠러도 이어서 말한다. "우리 일가는 더러운 세탁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쌓아 두기만 했어요. 그래서 별안간 대 소동에 휘말린 겁니다." 14 한편 워터게이트 사건은 권력에 끝없는 욕망을 분출하던 넬슨이 대통령 자리를 탐내 꾸며낸 음모였다는 얘기도 많다.

가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가문의 신비를 깨뜨린 넬슨은 결국 부통령직을 마친 후 3년 후인 1979년에 호텔에서 젊은 여비서와 투숙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록펠러가문은 넬슨의 죽음에 대해 "록펠러센타 5600호실에서 사망했고, 이를 경비원이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15

록펠러가문의 비밀 일부가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그 가문의 탐욕을 향한 교활함과 치밀함, 그리고 부의 거대함에 경악했다. 체이스 맨하탄 은행,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센타, 록펠러재단 등을 통해 얽히고설킨 재산은닉과 탈세 행태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다. 9월 15일, 청문회가 끝나자 대중은 그를 부통령으로 지명하지 말라는 편지 수십만 통을 백악관으로 보내고, 연일 반대 시위를 했다.

그 중 '리버티 로비'의 앤젤라 데이비스가 보낸 항의서한에 의하면 "록펠러 일가가 국제 공산주의 음모에 적극 가담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에 의하면 록펠러가문은 비밀리에 소련을 지원하며, 냉전을 교묘히 부추겨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수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여론이 잠잠해지자 3개월 후인 그해 12월에 넬슨은 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16

3장. 쓰레기 과학.

우생학

고대 그리스시대, 플라톤은 자신이 책 「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호위자 계층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동침시켜야 하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육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버려야 하며,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자와 천성적으로 약한 자는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사유재산제와 결혼제도를 반대하고 호위자 계급의 남성은 우수한 여성을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주장했다. 1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이상적 공동체를 설계해야 하며, 하층 계급의 다산으로 인한 과잉 인구는 빈곤이나 범죄, 혁명의 중심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층계급의 출산율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진 우생학에 대한 사고들은 19세기에 영국인 골턴의 정교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그는 광범위한 가계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인간의 지적, 도덕적 능력이 환경에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혈통에서 우수한 자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인간의 능력이나 성격이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만들었다. 3

사실 그 당시에 우수한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계층은 귀족 등 부호여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귀족계급이었다. 결코 유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를 다윈의 진화론과 결합시켜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된 개개인들 사이의 경쟁과 선택을 통해 인간의 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은 자연선택도 있었지만 그것은 매우 느린 과정으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위적인 선택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다윈주의는 모든 인종의 기원이 같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반대했지만 그는 다위니즘을 자의적으로 이해했다. 4

20세기 초에 심리학자 왓슨은 이러한 유전자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의 성격과 능력은 환경에 의해 지배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는 “나에게 건강하고 잘 자란 12명의 아이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나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 아이들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해 훈련시켜 법률가든 의사든 예술가든 실업가든 원하는 대로 키워낼 수 있다. 아이의 조상이 가진 재능, 취미, 성격, 능력이 어떻든 간에...”라고 장담을 했다. 5 물론 인간의 성향을 환경에만 돌리는 것도 무리이긴 하지만 왓슨은 과학적 근거 없이 유전자에 원인을 돌리고 흑인을 박해하려는 의도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강력한 청교도의 흐름에 눌려 빛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우생학은 미국에서 청교도의 예정설과 어울리며 더욱 광기로 나타난다. 우생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미국은 인종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부터 많은 흑인을 포함하고 있었던 미국은 19세기 이후에 동, 남부 유럽인과 중국, 일본인 등의 이민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국에서 이주해 온 앵글로 색슨족이었으며, 이들은 다른 인종의 수가 많아지자 서서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각하며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 흑인은 물론 중국, 일본인 등의 황인종, 그리고 백인이지만 앵글로 색슨족이 아닌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인 등은 자신들과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박약, 범죄, 매춘, 도박, 알콜중독 등이 미국 사회 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1892년 미국과학발전협회 회장인 조셉 르 콩트는 「남부의 인종문제」에서 “두 민족이

접촉하게 되면 한 쪽이 한 쪽을 지배하게 된다. 이럴 때 흑인과 같이 약한 민족이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을 때에는 흑인의 원시적 정신 상태를 고착시키기 위해 노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디언과 같이 고도로 발전한 상태에 있는 인종은 말살해야 한다."고 끔찍한 주장을 폈다. 이러한 사고는 유럽의 인구 감소가 실제로는 미국으로의 이민 열풍이 주요한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간의 관대함에서 오는 혼혈 때문에 인종이 퇴화됐다는 사고와 결부되면서 호응을 받기도 했다. 6

이러한 사고로 인해 1915년 조지아 주의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시몬스는 쇠퇴해가던 KKK단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 단체는 1867년 목사, 남부의 군인 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백인 기독교인이 주도하는 미국에 희망을!'이라는 스로건 아래 흑인 및 유대인, 카톨릭 신도, 동양의 이민노동자 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주도했다. 그들은 경찰과 여론의 지원하에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켜 한 때는 회원 수가 500만 명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7

이 조직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질이 다른 소수 인종집단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앵글로 색슨족 같은 훌륭한 혈통의 사람이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지적, 도덕적 장점이 질이 낮은 다른 인종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베스트셀러였던 메디슨 그랜트의 '위대한 인종의 소멸'에 의하면 "멕시코에서는 스페인 정복자들의 피가 인디언 원주민들과 섞여서 질이 낮은 혼혈이 태어났으며, 때문에 자치능력이 없는 멕시코 상황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흑인과 피를 섞으면 흑인이 되고, 유태인과 피를 섞으면 유태인이 된다."며 인종분리를 적극 찬동한다. 8 그의 주장은 록펠러의 측근인 게이츠 목사가 강조하던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즉, 앵글로색슨 지상주의와 동일했다.

인종간의 차별이 나중에는 인간 사이의 차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가게 되는 동기를 프랑스의 샤를 리셰가 강화시킨다. 그는 그의 저서 「인간의 선택」에서 인류의 진보를 위해 유전적 결함이 있는 신생아는 모두 죽여야 한다며 "유아기가 지난 다음에는 결핵, 구루병, 간질, 매독, 키가 너무 작은 사람, 허약한 사람, 범죄자 등은 거세가 최상의 방법이며, 문맹자끼리의 결혼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9 그들은 인간의 본질이 전적으로 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전자나 원자보다 더 근원적인 유전자에 의해 생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과학적 결론은 신앙면에서 충격이었다. 그러한 충격을 자신들의 비이성적인 광기로 해소하려고 한 것이다.

이같이 우생학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찰스 데이븐포트 등의 우생학자들은 이민자들이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빠른 증가가 미국 사회에 위협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이민제한법을 주장했다.

이 시기 우생학은 가계도 연구,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가족 선발 대회', 지능 검사 등을 통해 더욱 활발히 전파되었으며 각종 대규모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록펠러재단은 우생학연구에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재정지원을 해준다. 덕데일, 고다드 등의 우생학자들은 가계도 연구를 통해 범죄, 사기, 매춘, 정신박약 등의 형질이 한 가족 내에서 계속 유전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고다드는 1912년부터 1차 대전 발발까지 프랑스 비네의 아이큐 검사를 번역해 수많은 검사를 한 결과 터무니없게도 보통 이민자인 미국인의 50~80퍼센트가 정신연령이 11세 미만인 정신박약자로 나타났다고 한다. 소위 일벌인 노동자계급을 구분해낸 것이다. 그는 '칼리칵' 가계도의 연구를 통해 정신박약은 유전되며, 흑인이나 이민노동자 같은 하층민들은

저능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지배당하는 사회구조는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가 연구했다는 가계도는 조작임이 후에 밝혀진다. 10

그런데 그가 사용한 설문은 영어로 표기됐고, 내용도 미국식 문화를 다룬 것이었다. 새로 이민 온 그들은 아직 영어에 서툴렀고, 미국문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당연한 결론이었다. 이민자들은 이 연구서들에서는 우생학적으로 열등한 가족과 우월한 가족의 도덕적, 신체적, 인종적 차이가 잘 부각되었다. 그러한 차이는 여러 주에서 개최된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가족 선발 대회와 단종의 기준이 되었다. 록펠러재단의 막강한 금전적인 지원 아래 이와 같은 대중적인 선전과 연구의 결과 강제적인 단종수술을 허가한 법은 금주법 시대에 30개 주에서 쉽게 통과된다. 11

일리노이 주의 정신병원은 새로 들어온 환자에게 결핵에 걸린 소에서 채취한 우유를 먹이기도 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사람은 결핵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12 당시에 결핵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걸리면 반드시 죽는 병이었다.

강제단종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보이스, 본드, 존슨 등의 흑인 지식인들은 유전적 결정론과 백인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현재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한 것은 그것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흑인들의 지적, 도덕적 형질들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반인종주의적 활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골턴의 우생학이 쇠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1920년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다양성의 존중이 아니라 극단적인 흑백논리가 강화된 결과, 미국에서 이민제한법과 강제단종법이 통과되자 우생학에 대한 양심적인 비주류의 사회학자, 인류학자, 생물학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갔다. 이들은 범죄, 매춘 등의 사회문제는 가난, 문맹 등과 같은 불리한 사회여건의 결과이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며, 인종간의 차이도 생물학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의 결과로 봤다. 1930년 로마 카톨릭도 교황의 교서를 통해 우생학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헨리 애덤스는 혈통을 통한 민족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하며 "미국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인 면에서는 가장 추악하다."면서 이를 역으로 비판했다. 13

미국에서 인종주의 뿌리가 깊어지게 된 이유는 청교도의 근본주의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근본주의 기독교는 그들의 경전인 바이블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언제나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종교의 의지, 즉 '신의 뜻'으로 여기게 된다. 그들의 경전인 창세기에는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한 노아의 아들 '함'이 신의 저주를 샀다고 한다. 백인인 포루투갈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흑인들을 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며 노예로 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의 족속이 남쪽으로 갔다."는 탈무드의 구절을 통해 아프리카 인종을 함의 후예로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서, 남, 북'의 기준은 함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5000년이 지난 중세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데카르트는 흑인과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흑인과 짐승을 동일시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논리인가. 평등은 도덕적 개념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들의 능력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이웃으로 취급해야 한다. 14

우생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기독교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쓰레기 학문으로 그 자체가 악이었다. 미국의 우생학자들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동양인이나 남, 동 유럽 인종들은 종족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잡종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 언론, 학교에서는 이런 경고들이 난무했다. 그들은 심지어 같은 백인 중에서도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남·동 유럽인도 열등인종으로 간주했다. 15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이른바 '우등가족' 선발대회가 미국 전역에서 풍미했다. 1920년 캔자스 자유박람회에서 처음 열린 선발대회의 주최자인 메리 T. 와츠는 연설에서 "소품종 전문가가 우시장에서 홀스타인, 저지, 헤어포드 등의 우수한 품종을 평가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존스, 스미스, 존 가문을 심사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백인만의 혈통을 찾는 일을 장려했다. 선발대회 입상자들에게는 "와, 나는 훌륭한 핏줄이다."(Yea, I Have a Goodly Heritage.)라고 쓰인 매달과 상금과 함께 취업 보장 등 각종 사회적 이익들을 주었다. 16

유럽사회는 출생에 따른 신분차별이 워낙 견고한 사회였기 때문에 새로운 차별개념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백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었던 미국에서는 자신들만의 특권계층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고, 따라서 피부가 희다는 것만으로도 흑인과 인디언, 동양인들과 구별되는 신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백인들 사이에는 재산과 종교를 기준으로 신분을 삼는 전통을 만들었다. 17 특히 미국은 돈에 대한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돈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최고의 기준으로 인정됐다.

1927년 연방대법원은 '버크 대 벨' 사건[19]에서 올리버 웬델 홈스 2세는 "명백한 부적격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기다리고 있거나 정신박약자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국가가 나서서 더 이상 후세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그 유명한 "저능아는 3대로 족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버크에게 강제단종을 선고했다. 버크의 어머니와 버크의 아이 모두 정신지체라는 이유였다.

따라서 버지니아 주가 시행한 강제단종이 합헌이라는 것이다. 그는 친구인 경제학자 해럴드 J. 라스키에게 보낸 1922년 6월 14일, 편지에서 "내가 보기에 모든 사회는 사람들이 적당히 죽어야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A의 방법으로 죽이지 않는다면 아마 B의 방식으로 죽여야 할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아예 태어나지 않도록 막아야겠지요." 홈스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번도 버크를 심문하지 않고 단지 검사의 의견과 검사가 작성한 기록만 봤을 뿐이다. 후에 확인된 버크의 학교생활 기록에는 오히려 성실하고 유능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홈스는 "삶에 일방적인 길이란 없다."며 "확신은 폭력을 낳는다."고 극단주의를 배격했지만 인종문제에 있어서만은 극단주의를 택했다.18

이 판결을 계기로 인종차별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의 단종법을 계기로 각 주는 강제단종법을 만들기 시작하여 1935년까지 30개 주에서 강제단종법이 제정됐다. 1907년에 약 3,000건의 강제단종이 시술됐는데 1935년에는 22,000건으로 급증한다.

19) 1924년 버지니아 주에서 캐리 벅이란 여성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몸을 팔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후, 양부모 돕스 가족 밑에서 자라다가 17세 때 돕스의 조카에게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한다. 이에 양부모는 가문의 수치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를 정신박약자란 이유로 강제수용소로 보내 강제단종을 시도한다.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20,108명이 강제 단종 수술을 받았다. 미국 전체에서 6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 히틀러의 독일보다 미국은 강제단종에 있어서 가장 앞선 나라였다. 19

우생학은 아직도

이러한 미국의 우생학 분위기는 문화의 밑바탕에 깊이 파고들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여름, 미네소타대학 학보지인 「미네소타 데일리」에는 난자기증 광고가 실렸다. 제시된 조건은 165센티미터 이상의 백인 여성으로 미국 대학 수능 입학시험인 ACT또는 SAT에서 고득점을 받았어야 하며 유전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며 8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서 수학, 음악 또는 예술에 특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20

기계같이 우수한 인간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우생학인 것이다. 루이지애나 주의 '혈통법'에 의하면 "현재 백인이라 해도 조상 중에 단 한명이라도 흑인이 섞여 있다면 흑인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1970년에 개정되어 "흑인의 피가 32분의 1 이상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미국의 청교도 문화는 철저한 가부장제여서 모든 결정은 남성중심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혈통도, 상속도 남자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서도 유독 피부색을 기준으로 하는 흑인노예는 모계혈통을 따랐다. 이 얼마나 자의적인가?

세계 최초로 가볍고 튼튼하며 안전한 플라스틱 렌즈를 개발해 백만장자가 된 로버트 그레이엄은 1980년에 '노벨상 정자은행'을 설립한다. 그는 복지정책이나 식량생산의 증가가 '적자생존' 과정을 통해 도태돼야 할 열등한 인종들을 살아남게 하기 때문에 인류는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우생학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다. 그는 인간의 질이 세포 내의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정보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수한 인종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 여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최초에 기증 받은 세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정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도 평균보다 조금 나을 뿐이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학습능력은 전적으로 주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우수한 유전자를 받으려고 할 정도의 여성이라면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경제력이 안정된 여성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22 결국 유전자에 의해 자질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2009년에 5,748명에게서 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54개의 유전자를 관찰한 자료를 근거로 사람의 키를 예측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도 참담했다. 부모의 키를 성별로 구분하여 평균치를 내던 125년 전의 예상치보다도 유전자를 통한 예상치의 정확성은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능과 관련한 유전자의 상관성도 0.5퍼센트의 정확성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23

이는 2만 8천개의 인간 유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형질이 결정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상호작용이 자연의 질서라는 말이다.

생체실험

카리브해의 북서쪽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 식민지로 인구 4백만 명의 휴양도시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경치 좋고 따스한 휴양도시는 록펠러가문에 의해 '슬픈 도시'로 전락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 섬에서 '체이스 은행'을 통해 노동착취와 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끝없이 약탈하는 동안, 그의 형인 록펠러3세는 그곳의 가난한 시민들을 상대로 대규

모 생체실험을 실시한다. 록펠러3세는 자신이 설립한 인구협회를 통해 인구감소를 위한 몇 가지 실험에 착수한다. 1965년 푸에르토리코 공중보건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그 해에 푸에르토리코 가임여성의 약 35퍼센트가 영구불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24

록펠러3세와 그의 동생 넬슨이 차관으로 있던 미 보건교육복지부는 "불임시술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며, 자녀가 줄면 소득이 안정된다."는 잘못된 주장을 선전했다. 푸에르토리코의 가난한 여성들은 미국이 세운 병원에서 아이를 낳도록 장려되었고, 대개 병원 측은 아이를 둘 낳은 여성일 경우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실시하라는 록펠러3세의 명령을 순순히 따랐다. 록펠러3세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체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종주의적 편견에 기인한다. 가난한 사람, 흑인 등에 대한 극단적인 인종주의적 사고는 록펠러가문의 특징으로 록펠러1세 때부터 2세를 거쳐 3세에게까지 이어진 관념이다. 25

1931년 록펠러재단은 록펠러의학연구소를 통해 푸에르토리코에서 암 실험을 실시한 코르넬리우스 P. 로즈에게 자금을 대주었다. 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그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고의로 암세포를 주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여덟 명이 죽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종족들 가운데 가장 더럽고, 가장 게으르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손버릇이 나쁜 종족이다. 이 섬나라에 필요한 것은 공중보건사업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 같은 게 덮쳐서 이 인종들을 모조리 몰살하는 것이다. 나는 여덟 명을 죽임으로써 몰살과정에 이바지했다."라는 내용의 비밀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우연한 일로 인해 푸에르토리코 국민당 당수인 페드로 알비주 캄포스에게 입수되면서 1932년 2월 15일 「타임」지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로즈는 살인혐의로 처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 원자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죄수, 환자 등을 상대로 한 방사선실험에 다시 참여한다. 록펠러3세는 196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강연하면서 "나는 인구증가의 억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문제들 가운데 핵무기통제 다음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는 인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라고 강조했다. 26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여성이 복용하는 합성화학물질로 이뤄진 '먹는 피임약'이 개발되자 그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시기인 1956년 푸에르토리코 여성들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몇 년간의 임상실험을 거친 후에 이약이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미국에서는 1960년이었고, 유럽에서는 1961년이었다. 이약은 현재 부작용이 심각해 복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초기의 먹는 피임약은 현재의 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5배 이상 많았다. 27

인구협회

록펠러3세는 프레더릭 오즈번, 헨리 페어차일드, 앨런 그래그 같은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둘러싸여 성장했다. 록펠러1세가 탐욕에 눈이 멀고, 극단적인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게이츠 목사를 2인자로 삼고 늘 곁에 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인종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기 위해 차이를 만들어낼 뿐이다. 28

록펠러3세는 지구에서 삶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자신과 같은 부유한 인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너무도 끔찍한 망상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녹색혁명'과 '유전자조작'을 주도하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인구감소'를 단행했다.

록펠러가문, 은행가 J. P. 모건 가문, 담배업계의 거부인 듀크 비들 가문과 클리블랜드 도지 가문, 시리얼의 거부 존 하비 켈로그 가문, 오락업계의 거부인 클레어런스 갬블 가문 등은 모두 미국 우생학회 회원으로 미국의 강제단종 뿐만 아니라 독일 히틀러의 강제단종 연구에도 거액의 자금을 대준다.

대공황 시기인 1922년부터 1926년까지 록펠러재단은 수백 명의 독일 우생학연구자에게 개별적으로 41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원해준다. 1926년에는 독일의 에른스트 뤼딘이 이끄는 베를린의 '카이저빌헬름연구소'라는 우생학연구기관에 25만 달러를, 1929년에는 31만 7,000달러를 기부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거액을 기부했다. 록펠러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는 1932년 세계우생학회 회장으로 선임된다. [29]

그는 "오직 히틀러 총통의 힘을 빌려야만 우리의 30년 꿈인 우생학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포페노, 그레그, 홈스, 조든, 생어 등의 꿈은 뤼딘에 의해 실현됐다. 록펠러재단이 독일 우생학회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일을 맡은 사람은 앨런 그레그와 레이먼드 B. 포스딕이었다. 녹색혁명을 지휘했던 포스딕은 록펠러1세의 게이츠 목사에 이어 록펠러2세의 개인 목사가 된 해리 에머슨 포스딕의 동생이다. 레이먼드 포스딕도 형인 해리 포스딕 목사와 같이 열렬한 우생학 옹호론자로 록펠러재단 이사장을 맡은 변호사이며 후에 록펠러2세의 전기를 집필한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41년 12월까지 록펠러재단은 나찌에 대해 지원을 계속됐다. [30]

또한 록펠러재단에서 34년간 고위 임원으로 일하면서 록펠러재단의 이념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앨런 그레그는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 속의 슬럼가는 인체에서 발견되는 암세포와 너무도 흡사하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암세포의 찌꺼기와 슬럼가 중 어느 쪽이 인간에게 더 해로운가?"라고 질문하며 빈민계층을 저주한다. [31]

록펠러재단은 1917년 미국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만든 단체인 우생학기록국에 거액을 기부한다. 이 단체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은 폴 보먼 포페노로 그는 자신의 저서 「응용우생학」에서 "열등 민족에 대해 가장 먼저 수행할 것은 처형이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 세균, 굶주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의한 말살도 필요하다."며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미국에 5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간호사 출신의 마거렛 생어가 설립한 '미국가족계획연맹'에도 거액을 기부한다. 가족계획연맹은 흑인, 이민자들에게 산아제한을 장려하는 일을 담당한 곳이다. 1921년 10월호 「가족연맹 리뷰」라는 기관지에 실린 글에서 그녀는 "산아제한은 우생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백인과 비백인 간의 출생률 불균형은 현대 문명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다."고 강조하며 흑인 여성의 단종에 앞장선다.

그 당시 백인의 출산률이 비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백인들의 청교도 금욕주의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며 그 해결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이 증상의 완화에만 치중하는 대증요법에 치중하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이다. 우생학과 현대의학은 록펠러재단이 만들어낸 학문이다. 생어는 "여성은 자기 몸의 주인이다. 임신의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다."며 여성운동가로 활동하고 피임약 개발에 앞장서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얻은 명성을 이용해 흑인차별운동에 앞장섰는데 늘 "흑인의 씨를 말리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록펠러재단이 후원하고 생어가 앞장섰던 산아제한은 열등인종이라고 생각한 흑인과 이민노동자의 인구를 줄이기 위한

우생학의 실천 강령이었다. 32

당시 록펠러를 비롯한 카네기, 포드, 모건 등 최고의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종차별주의에 젖어 있던 까닭은 그들이 '도금시대'에 벌어들인 막대한 부가 흑인, 이민노동자들에 의해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강조하는 '지배민족'이란 개념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확산되고 연구, 적용된 것으로 후에 나찌의 히틀러도 록펠러재단의 지원 아래 이 개념을 연구하고 적용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타 조든 총장은 1902년 자신의 책 '국가의 피'에서 "빈곤이란 유전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3

반면 미국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독일을 탈출하는 학자, 예술가, 체육인 등 자신들의 나라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이민제한법에 특별조항을 두어 그들을 적극 유인한다. 이때 생물학자 113명, 물리학자 107명, 수학자 150명 이상을 '긴급방문객'이라는 자격으로 받아들였다. 34 그들의 대부분은 록펠러의학연구소 등 록펠러재단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배치돼 '녹색혁명'과 '유전자조작'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록펠러3세는 아버지인 록펠러2세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록펠러2세는 록펠러3세가 프린스턴대학 4학년이던 1928년에 그를 록펠러재단의 산아제한기관의 이사로 임명한다. 록펠러3세의 스승인 경제학 교수 프랭크 패터도 우생학 옹호론자로 그는 "민주주의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수가 늘고 우수한 혈통은 줄어든다."며 탄식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레이먼드 포스딕, 해리 포스딕, 프레더릭 오즈번 같은 극단적인 우생학 옹호론자들이 그의 곁에서 우생학 사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마침내 매카시 선풍으로 미국이 어수선하던 1952년에 록펠러3세는 록펠러재단 이사장인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우생학회 회장인 오즈번, 록펠러의학연구소 소장인 데틀레프 브롱크[20]와 함께 '인구협회'를 설립한다. 오즈번은 인구협회의 초대 이사장이 된다.

이 협회에는 미 공중위생국 고위 임원인 토머스 패런도 적극 관여한다. 패런은 후에 악명 높은 터스키기 생체실험[21]에 적극 관여한다. 그러나 이 협회는 지금까지 우생학회란 이름이 나찌의 전쟁 패배와 전범재판소에서의 처벌을 계기로 이미지가 나빠지자 이름과 본부만을 바꾸었을 뿐 사람, 활동내용 등은 동일한 단체였다. 이는 록펠러가문의 인종 이데올로기와 계급 이데올로기를 슬그머니 인구 억제로 바꿔, 미국의 가난한 이민노동자나 심신장애자 같은 국내문제에 주력하는 대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 전체로 시야를 넓혀 '미국의 부유한 백인'의 꿈을 펼치게 된 것이다. 35

이 단체의 주된 개발 목표는 피임약이었다. 60년대 이전까지 '피임'이라는 용어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외설이었다. 그러나 록펠러재단이 지원하는 인구협회는 여성의 피임운동을

---

20) 1947년 7월 7일, 워싱턴 주 케스케이드 산 중턱에 미확인비행물체(UFO)가 추락했다는 주민의 보고를 받고 인근 로스웰 공군기지에서 잔해를 수거해 조사. 그 보고서는 1947년 9월 24일자로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 극비문서로 처리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다. 미 국방장관, CIA국장, 육군장관 등 최고위층 12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팀에서 브롱크는 외계인 사체4구의 조사를 맡은 팀장이었다. 이 보고서를 「MJ-12」라고 한다.
http://blog.naver.com/spinor/40120370931

21) 미국 보건위생국(CDC)이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앨라배마 주 터스키기에서 시행한 생체실험. 대공황시절에 이 지역의 가난한 흑인 매독환자 399명과 건강한 흑인 201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무상으로 한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회유했다. 그리고 매독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전염되고, 진행되는지를 지켜봤다. 실험 도중 매독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부를 조건으로 가족에게 50달러가 지불됐다. 물론 모든 치료행위는 금지된 채로. 결국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1972년 7월 25일 '워싱턴스타'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중단됐다.

벌이던 마거렛 생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피임약과 낙태약을 연구했다.36

"인류가 이제껏 시도해온 실험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실험은 나찌의 우생학실험"이라며 극찬했던 오즈번은 "단종프로그램이 나찌에 기인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며 개탄했던 인물이다. 나찌의 아이슈비츠의 잔학행위가 세상에 알려진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은 1950년대에 인구 억제라는 주제는 미국의 특정 엘리트 집단 내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했다.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을 이용해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록펠러2세와 그의 아들 데이비드 록펠러가 운영하던 체이스 뱅크의 이사이자 세계은행 총재인 유진 R. 블랙은 강경입장의 냉전주의자로 제3세계 국가의 인구폭발과 식량부족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공산화'의 두려움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담담했던 인물이다. 37

1990년대 초, 국제백신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록펠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니카라과,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 파상풍을 예방하는 대규모 백신 접종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이 백신은 접종 대상이 15~45세의 여성으로 한정됐고, 이 백신을 맞은 여성들은 그 이후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파상풍 백신은 보통 한번 접종에 10년간 효능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간격으로 세 차례나 접종했다.

이러한 사실을 수상히 여긴 로마카톨릭 계열의 「멕시코 친생명위원회」가 그 백신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 백신에는 '인간융모막성선자극호르몬(HCG)'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HCG는 임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천연호르몬이지만 파상풍 변성독소와 결합하면 그 호르몬에 대한 항체가 생겨 여성의 임신을 방해한다. 은밀한 낙태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그 후에 니카라과와 필리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38

영국의 유명한 의학잡지 「랜싯」은 1988년 6월 11일자에서 멕시코친생명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직접 관여했던 G. P.톨와는 "30명의 여성을 5개 그룹으로 나눠 6주 간격으로 두 차례 용량을 서로 달리해서 접종했다."고 시인했다. 피임에 대한 은밀한 생체실험이었다. 그러나 WHO는 대변인을 통해 그런 사실은 없으며 제조과정에서 다른 약제가 실수로 들어간 것 같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39

4장. 맬서스의 망상

혁명을 잠재우려면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계급을 유지하고, 그 계급의 이권을 강화하기 위해 늘 공포를 조장해 왔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들이 공포를 조장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것이 전쟁과 식량이었다. 중세를 거친 인류가 계몽시대로 넘어오면서 계급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자 귀족 계급들은 초조해졌다. 특히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부와 권력을 만들어내던 청교도들에게는 초조감이 더욱 컸다. 무너지는 종교 권력을 새롭게 변화시켜 이제 막 청교도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인류사에는 계몽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교도에게는 공포가 필요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엮어내 공포 의식을 조장해 내야 했다.

청교도 목사였던 맬서스는 세상의 인구가 지구의 식량 제공 능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식량공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즉,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는

1,2,4,8,16,32,64,128... 식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1,2,3,4,5,6,7,8...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기근과 전쟁,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5년마다 인구는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므로 산아제한과 고도로 개량된 농법만이 맬서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개량된 농법으로 식량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멸종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는 공급을 늘리는 노력 이외에 시급한 것이 수요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는 수요 감소의 해법을 하층민의 제거에서 찾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열등인종의 축소를 위해서 전쟁, 기아, 질병 등이 필요하며, 빈민들에 대해 사회복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것이 생존경쟁의 법칙이라면서. 결국 1796년에 의회를 통과했던 '빈민구제법'은 4년 뒤에 폐기된다. 1

이 시기는 중세의 암흑시기에서 벗어나 계몽기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산업혁명을 통해 빈부의 차가 극심해지는 시기였다. 도시는 온통 매연과 빈민으로 뿌연 회색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는 또한 사회의 불평등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며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집을 헐어버리라고 권했다. 집이 없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의 결혼이 위축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2

그는 콩도르세와 고드윈이 주장하는 국가 간의 평등, 개인 간의 평등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자는 주장에 반박하며, 전쟁과 기아를 없애면 인구증가를 촉진시켜 결국 인류는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류를 괴롭히는 악과 불행은 인간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성한 성욕, 특히 가난한 계층의 성욕에 기인하는 것으로 봤다. 물론 그 당시의 진보적인 학자들도 산아제한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맬서스같이 극단적이고, 냉혹한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3 이후 맬서스의 이론은 후에 사이비 학문인 '우생학'의 뿌리가 된다.

물론 빈민구제법은 허울뿐이었고, 실질적으로 빈민들에게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 법이었지만 그 것마저도 폐기됐다. 그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인류는 갓난아이를 죽이거나 노인을 산에 버리는 등 과거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 과다한 인구를 제거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신의 뜻이다." 그의 이러한 폭력적인 사고는 너무도 끔직해서 당시의 보수주의 측에서도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청교도 목사들은 "과다한 인구 문제는 '노동자들의 절제되지 않는 성욕'이 원인이라며 성욕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고된 일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귀가해서도 피곤해서 아내와 섹스를 하지 않고 바로 잠에 들게 된다."는 맬서스의 주장을 옹호했다. 노동자가 부자들보다 아이를 많이 낳는 까닭은 가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섹스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그냥 해본 말

그는 당시 유행하던 통계학의 허구를 논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만을 근거로 이론을 정립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가 근거로 삼은 통계학은 미국의 밴저민 프랭클린이 넘겨준 자료인데 거기에는 식량에 관한 자료는 없었다. 미국에서의 인구 증가 자료도 자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통계치를 산정했고 식량생산량에 대해서는 자료 없이 추정을 했을 뿐이다. 이런 오류 때문에 데이비드 리카르도 마저도 "맬서스의 책에는 오류가 없는 페이지가 단 한 페이지도 없다."고 혹평할 정도였다.

그의 이러한 비관적 관점은 그가 근본주의 청교도 목사였고,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생활

했던 것도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빈민 구제의 금지'와 '노동자계급의 성욕 억제'였다. 그가 주장한 법칙에 의하면 "신은 인간에게 '출산을 억제하고, 부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항상 식량을 충분히 비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5

그러나 맬서스의 이론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추측과 통계의 허구 등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내용이 부자들이 강력히 옹호하는 내용이어서 그의 책은 보수성향의 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의 이론이 점점 인기를 끌자 고드윈은 맬서스의 이론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다. "아직 경작되지 않은 땅이 많고 출산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빈곤은 평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분배의 정의를 이룩하면 빈곤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6

마르크스에 의하면 식량을 구입하는 수단인 임금은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예비군(실업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고용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즉, 자본가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산업예비군은 임금을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식량을 살 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빈곤이라고 한다. 그는 유스투스 폰 리비히의 저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비료 등의 투입요소로 식량생산은 꾸준히 일어나게 되고, 다만 상대적인 부의 격차로 인해 식량부족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식량도 결국은 자본이 이를 강탈해 갈 것이고, 자본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생산을 늘리려 하기 때문에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이 발전하면 반드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므로 보존과 생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고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7

멜서스가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언하며 잘못된 신념으로 공포를 조장했던 까닭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거대한 변혁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다. 과학적인 증거 제시 없이 그냥 해본 소리에 대해 다른 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후기작에서 수확체감의 법칙을 인용하며 점점 열등한 토지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식량생산의 감소는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자신의 이론을 폐기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진화론자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8 일찍이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은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태어났지만 사회제도와 인간 질병에 의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고 했다.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으로 사회시스템을 비틀고 짓누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생긴다는 말이다.

맬서스가 참고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자료에서 인구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던 까닭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아메리칸 드림'에 따른 이민 열풍이 크게 작용했던 것인데 그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한 인구 증가만을 수치로 산정했다. 또한 농업생산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보건위생의 발전 자료가 많았는데도 그는 그런 자료를 일체 무시했다. 9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고 쓴 그의 경제학 저서들은 과학서가 아닌 단순한 예언서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빗나갔다. 맬서스의 예언대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고, 식량은 예언과 달리 바닥을 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1750년대에 들어 영국은 농업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남은 식량 13퍼센트를 해외에 수

출할 수 있게 되었다. 10

록펠러재단의 표어

맬서스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 이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록펠러재단을 중심으로 한 주류 학자들이 아직도 이를 신봉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인구위기와 식량위기를 과장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이고, 또 하나는 탐욕스런 주류 학자들이 세계의 불합리한 모습에서 눈을 돌려 양심의 가책을 피하려는 것이다. 11

"역사라는 기차가 굽은 길을 돌 때마다 주류 지식인들은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마르크스의 지적대로 맬서스도 이미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 외딴 숲속을 떠돌고 있었다. 인류의 진보를 저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지 가난한 소외계층이 아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는 싯구로 유명한 19세기 초의 시인 셸리는 오죽하면 "맬서스와 함께 천국에 가느니 베이컨과 함께 지옥에 가겠다."고 했을까? 12

맬서스는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 100여 년 간 외딴 숲을 떠돌다가 1940년대 힘 있는 친구를 만난다. 바로 록펠러2세였다. 록펠러재단을 이끌고 있던 록펠러2세는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을 동원해 맬서스 이론을 정통교리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록펠러2세가 적극 지원하며 미국 경제의 판을 바꾸도록 했던 케인스는 "맬서스가 죽고 200년이 지나서야 인류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며 맬서스를 옹호한다.

1973년 미국 정치인이자 세계은행총재인 로버트 맥나마라는 "인구폭발은 핵전쟁과 같은 정도로 위협적이다."고 주장하며 식량위기공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경제학자 로버트 하일브로너는 그의 저서 「인류에게 미래는 있는가?」에서 식량위기공포를 재차 확인한다. 이에 인류는 그가 퍼뜨린 교리에 감염돼 석유와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고,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을 덮어쓰기 시작했다. 담배공포 속에서. 2011년 록펠러재단 사이트의 표지에는 "2008년 기준으로 아직도 아프리카인 3억 명이 매일 필요한 곡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나타난다. 13

그러나 많은 자료를 검토해보면 지구의 인구성장이 점점 느려지고 있으며 일정 시점이 되면 인구 성장은 멈춰지게 될지도 모른다. 1987년 50억 이었던 인구는 1999년 60억을 넘어서면서 인구 성장률은 1.3퍼센트였지만, 2010년에는 69억 명을 넘어서면서 1퍼센트로 떨어졌다.

유엔은 인구 통계자료를 근거로 인구 증가율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며, 인구 예측도 계속 하향 조정해 왔다. 2000년 개정에서 유엔은 2050년에 인구가 93억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것은 4년 전에 예측한 100억보다 적은 것이고, 그 4년 전의 예상수치인 149억 명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이런 결과로 유엔은 2100년에는 인구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견했다. 이런 예를 볼 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14

분명한 것은 현재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세계 인구 120억 명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2010년 현재 세계 인구는 69억 명이다. 심각한 기아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생산되는 곡물의 거의 절반을 에너지효율이 낮은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또한 분배구조가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쇠고기 450그램을 얻으려면 곡물사료 3,000그램을 먹여야 한다.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부도덕으로 인해 생기는 개도국의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15

제Ⅲ부. 1984년!

1장. 창고에 가득 쌓인 독가스

몬산토, 듀퐁, 로슈[22], 신젠타 등 다국적 화학기업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타 국지전 등에서 사용할 화학 독가스를 생산하던 기업들이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의 규모가 확산되고 전쟁이 길어지자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독가스 개발 및 생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23]에 따라 생산된 핵무기로 인해, 더욱 확산되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은 끝이 났다. 전쟁이 예상외로 일찍 끝나자 화학기업들은 창고에 가득 쌓인 독가스의 소비를 염려했고, 결국은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비료, 제초제, 살충제 등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독가스, 폭약 등의 원료인 질산암모늄은 록펠러재단 소유인 스탠다드 오일의 주력상품이다.

석유산업과 화학산업을 장악하고 있던 록펠러재단은 이를 기회로 세계적인 1차 녹색혁명을 시작한다. 녹색혁명은 비료(질소, 인산, 칼륨이 주원료), 제초제, 살충제와 농기계에 의존하는 단작형태로 단기간의 생산력은 증대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실패로 판명 났다. 화학혁명이라고 불리는 녹색혁명의 주재료인 비료, 제초제, 살충제, 농기계는 모두 석유에서 나온다.

비료 1톤을 생산하는데 석유 5톤이 소요된다. 농부들은 1칼로리의 식량을 생산하는데 10칼로리의 석유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석유산업과 화학산업, 금융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록펠러재단은 초거대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지구생태계는 파괴되고, 농부들은 부채와 질병 및 토지의 산성화로 점점 줄어드는 생산물로 인해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

이런 상황에서 몬산토, 다우케미칼, 듀퐁 등 화학기업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베트남전쟁이었다. 군사비밀로 오랜 기간 동안 비밀로 묶여 있다가 1998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과세 록펠러재단이라는 초거대 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몬산토는 1950년부터 미국방부의 화학전 담당부서와 제초제의 무기화를 위해 정기적인 접촉을 했음이 밝혀졌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가담했던 찰스 토머스는 후에 몬산토의 최고경영자(1951년~1960년까지)가 되었고, 그가 퇴직하기 직전 에이전트 오렌지 생산을 맡는 계약을 국방부와 체결한다. 2

베트남전쟁은 냉전기간 중에 미국이 치른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다. 미국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면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의

---

22) 2009년 전 세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로부터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사들인 스위스의 제약회사. 길리어드의 최대주주이자 전 회장은 부시 대통령 시절 강경파로 유명했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조지슐츠 국무장관도 이 회사의 중역이다.
단순한 일반 독감인 신종플루를 제약회사가 WHO에 압력을 넣어 세계보건기구의 최고등급인 "대유행"하는 질병으로 선언하게 하여 재고로 가득 쌓여 있던 '타미플루'를 전부 소비했음이 후에 유럽연합에 의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럼즈펠드는 대유행 직전에 길리어드의 주식을 대량 사들였다가 대유행 직후에 되팔아 억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23) Manhattan Project, 뉴맥시코 주의 생그래 드 크리스토 산중에 있는 로스 앨러모스에 연구소를 두고,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책임자로 하여 핵무기 연구에 돌입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록펠러재단이 재정과 인력으로 적극 지원했다. 이곳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여된 핵폭탄이 개발됐다.

무기를 쏟아 부었다. 소련과의 무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고 남은 모든 재래식 무기를 처분할 필요와 새로 개발되는 무기를 실험해볼 기회가 필요했다. 이런 전쟁의 맥락은 한국전쟁도 동일하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이 쏟아 부은 무기는 700만 톤이었지만, 베트남전쟁에서는 2,000만 톤이 넘었다. 미군 5만 명과 베트남인 110만 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500만 명이 넘는 끔직한 전쟁이었다. 전쟁에는 증오라는 세뇌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므로 백인 국가 간의 전쟁보다 비백인 국가와의 전쟁에는 잔인성이 더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념이라는 독소까지 합세된 전쟁은 더욱 끔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전쟁에서는 미국에 의해 세균무기가 사용되기도 한다.3

스스로 책임져라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대, 미 공군은 서유럽과 태평양 상공에서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DDT를 공중 살포했다. 그러나 DDT의 유독성을 주장하던 소수의 과학자들의 반대로 극히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살포되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미국은 메카시 열풍에 따라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수단의 사용이 정당화되었다. 1950년에 영국은 말레이시아에서 혁명세력이 경작하는 농작물을 파괴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제초제가 공중 살포되었다. 미국도 몇 번의 실험을 거친 후 1962년 1월 13일, 케네디 미 대통령은 공식으로 렌치핸드(Ranch Hand, 북 베트남지역의 산림과 경작지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작전) 작전을 승인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330만 헥타르의 밀림과 토양에 살포된 제초제는 8천만 리터에 달하는 양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336킬로그램에 달하며, 3천 개가 넘는 마을이 오염되었다. 당시에 사용된 제초제의 60퍼센트 이상이 록펠러재단 소유의 몬산토에서 생산한 에이전트 오렌지였는데, 그것은 300킬로그램의 다이옥신과 맞먹는 양이었다. 특히 몬산토에서 생산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의 함유량이 규정치 이상이어서 독성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3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0그램의 다이옥신을 식수원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8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4

지금 에이전트 오렌지가 뿌려졌던 베트남에는 세계 최악의 잡초라고 하는 코곤[24]이 자라고 있다. 이 풀은 아무리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대나무, 파인애플, 바나나, 티크 같은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다시 자라난다. 5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다이옥신에도 내성을 가지게 된 슈퍼 잡초가 나타난 것이다.

1984년 호주 정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에 대해 다이옥신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듬해인 1985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 중 당시에 사용됐던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24) Sa llalim NG Cogon, 우리나라에서는 "띠", 미국에선 invasive plant로 불린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코곤이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예방과 방제에 애를 먹고 있다.

거부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몬산토가 주류학자들을 통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음이 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런공대학 과학기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브라이언 마틴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6

마틴 교수는 흔히 수돗물과 치약에 첨가하는 불소의 위험성을 세상에 폭로하고, 지적재산권은 개도국의 빈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며 이를 적극 반대하는 양심적인 비주류학자다.

마틴 교수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숨은 과정에 의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암연구자로 유명한 리차드 돌이 1985년 12월 4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저스티스 필립 에버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이옥신이 암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했던 레나트 하델의 결론에는 과학적 신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델 박사의 자료는 더 이상 과학적 증거로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실험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과 살충제인 2,4-D와 2,4,5-T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몬산토의 적극 지원으로 영국과 호주에서 영향력이 컸던 그의 주장은 그대로 위원회에 받아들여졌다. 결국 참전 군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치료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돈에 매수된 주류과학자들의 거짓 증언으로 다이옥신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레나트 하델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산업의학저널」에 ‘암 연구와 결탁한 산업계와의 갈등에 대한 비밀’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암의 주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렸던 주류 과학계의 추악한 모습을 공개하며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7

그 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한국 등 4개국 중 우리나라만 빠진 상태로 1984년 3개국 참전군인 24만 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몬산토, 듀퐁, 다우 등 6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1986년 강제 조정으로 2억 4천만 달러의 배상합의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몬산토의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의 농도가 가장 심한 것을 인정하여 6개 피고회사 중 몬산토에서 45.5퍼센트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 당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과 소송 사실의 언론 보도를 금지시켰다. 그 후 2006년 우리나라의 고엽제 피해자 1만 7천명도 미국의 몬산토 등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정부의 협조 거부로 2011년 현재까지 소송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8

1991년 2월 2일, 마침내 계속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들과 비등해지는 여론에 의해 조지 H.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국립과학원(NAS)에 다이옥신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PL102-4법안을 승인했다. 그로부터 16년 뒤인 2007년, 미국 국립과학원은 다이옥신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3가지 심각한 질병 목록을 발표했다.

미국립과학원이 발표한 목록에는 연부조직육종, 비호지킨림프종와 같은 희귀병을 포함하는 호흡기암과 피부암, 췌장암은 물론이고 양성 본태성 진전, 백혈병, 당뇨병, 말초신경염, 염소성여드름, 선천성 심혈관계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과학원의 발표에 따라 재향군인관리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310만 명의 군인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하도록 했다.

다이옥신은 탄화수소와 염소가 고온에서 결합할 때 만들어지는 화학합성물질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하고,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로 규정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특히 태아와 유아에게 가장 위험하다. 아기는 두뇌, 면역체계, 생식기 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호르몬이나 그 외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물질의 농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수조 분의 일 정도의 농도에서 작용한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도 체내에서 천연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기도 하는 데, 태아와 유아는 태반과 모유를 통해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스웨덴의 화학자 구닐라 린드스트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엄마의 체내 다이옥신의 함량은 첫 여섯 달 동안 한 달에 15% 정도씩 감소된다. 결국 감소한 만큼의 독성물질은 아기가 흡수한다. 아기가 여섯 달 동안 젖을 빨면 평생 아기가 흡수할 다이옥신 양의 최대 16%까지 흡수하게 된다. 그러나 질병유발물질이라고 의심되는 물질에 발병하기 몇 해 전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측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다이옥신을 기업비밀과 군사비밀로 취급하여 오다가 1976년 7월 10일 이탈리아에 위치한 스위스의 다국적기업인 호프만-라로슈의 이크메사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로 인해 생겨난 강한 독성을 품은 구름은 세베소 마을을 뒤덮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3,000마리의 동물이 죽어갔고, 수십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염소성 여드름 증세를 보였다.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로 호프만-라로슈는 그 독성화학물질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구름의 정체는 이크메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초제 2,4,5-T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이옥신이었다.

그보다 오래전에 버지니아 주 니트로에 있는 몬산토 공장에서 제초제 2,4,5-T를 생산하다가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공장내부를 덮은 뒤 구름의 형태로 외부로 누출되었다. 그로부터 수주에 걸쳐, 사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과 청소를 하기 위해 소집된 직원들이 당시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피부질환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구토와 두통에 시달렸다. 몬산토는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신시내티 대학 부설 케터링연구소의 레이몬드 서스킨드 박사에게 사고피해자를 대상으로 비밀리에 건강검진을 실시해 달라고 의뢰했다. 1949년 12월 5일, 서스킨드 박사는 몬산토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몬산토는 이를 철저히 비밀로 숨겨오다가 1980년대 "캠너 대 몬산토" 소송이 열리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사고로 후에 공개된 서스킨드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36명의 직원들이 화농성 낭종, 각종 피부질환, 호흡기와 중앙신경계 장애, 간조직 손상, 성기능 장애 등으로 괴로워했고, 그중 13명이 평균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9

소송은 늘어나고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화학물질에 의해 희생되는 노동자, 일반주민들이 속출하자 그들은 집단으로 법원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법행위법률이 요구하는 '화학물질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유발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에 조금씩 축적되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질병으로 나타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희생자에게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몸 안에는 5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물질이 새로 만

들어지고 음식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이후 폐암, 간암, 심장병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 물질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질병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오랜 기간 동안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병하기 때문이다. 10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나라의 법원은 방사능과 화학물질에 의한 암, 석면에 의한 중피종,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라이증후군, 돼지 인플루엔자 백신에 의한 길랭-바래증후군 등 환경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와 같이 인과관계의 입증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서는 과학자의 증언에 의한 '개연성'으로 입증의 방법을 확대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증언이 환경소송에서 '개연성'의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자 피고의 입장인 기업들에 고용된 주류 과학자들, 소위 '쓰레기 과학자'들의 거짓증언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갈릴레오의 복수 : 법정의 쓰레기 과학」이란 책을 펴내 과학자들의 거짓 증언을 폭로한 피터 허버에 의하면 "이단적 교설을 주장하는 오늘의 과학자들은 다분히 기회주의자들이다."고 비난한다.

그는 이어서 "양심적인 동료들이 멀리하는 이단적 과학자들을 변호사들이 받아들였다. 과학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면 그의 견해가 아무리 비과학적이라고 해도 누구라도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모셔졌다. 기회와 동기가 뒤섞여 법정에서는 쓰레기 과학이 조장되었다. 돈이 바로 그 기회이고 동기다."라며 법정의 현실을 한탄했다.

허버는 쓰레기 과학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의 과학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잡지 등 보통의 의사소통 경로를 활용하지 않고 대중매체나 구술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쓰레기 과학자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지에 발표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자료조작, 독단, 사기 등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알려준다. 11

법정은 실험실도 아니고 신성한 곳도 아니다. 좋은 과학도 법정에서 자주 유린당하고, 쓰레기 과학도 법정에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법원마저 돈에 유혹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노동자들과 일반시민들은 거대 화학기업이 고액의 비용으로 고용하는 변호사와 과학자들, 판사, 검사 앞에 너무도 무력하게 짓이겨진다.

2장. 관심을 담배로

청교도에 딱 맞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무차별 살포했던 독가스와 화학물질에 의한 각종 질병이 인간에게 나타나면서 소송이 집중되고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록펠러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 듀퐁 등 화학업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공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을 실행한다. 바로 담배였다.

당시 록펠러가문은 록펠러1세에 이어 록펠러2세도 근본주의 기독교 사상인 청교도[25]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담배와 술을 금지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록펠러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석유업계, 화학업계, 제약업계, 군수업계 등에서는 각종 사이비 시민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면서 환경오염과 건강문제를 담배로 돌리기 시작한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사회 혼란과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음주로 돌리려 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비과세 지주회사인 록펠러재단은「전국환경트러스트」, 「전국야생생물연합」, 「미국환

---

25) 후에 청교도는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으로 분화된다. 이후 수 십 개의 종파로 나뉘면서 현재의 기독교를 형성하지만 개신교는 모두 청교도에서 시작된다.

경보존협회」등에 대해서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같이 록펠러재단이 이들 환경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 언론인이자 작가인 짐 마스는 '활동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논평한다. 1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들 환경단체들은 몬산토를 중심으로 한 화학업계, 핵무기업계 등에서 설립한 어용단체로 이 단체들도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40대부터 1950년대는 영국에서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자주 일어나 매년 1만 명 이상이 폐암 등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던 시기였다. 특히 폐암의 발병률이 높았다. 런던 등 도시에서는 호흡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뿌연 스모그가 온통 하늘을 덮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질병의 원인이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때 영국의 오스틴 브래드퍼드 힐과 리차드 돌이 1952년 12월 13일자 「영국의학저널」에 "폐암의 원인 중 83퍼센트는 담배이고, 17퍼센트만이 대기오염이다."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것이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숨기면서 관심을 담배로 돌리는 음모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들이 발표한 논문이 제목에서부터 내용 대부분이 암을 비롯한 각 종 질병의 원인은 담배라고 하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정부를 향해 흡연이 아닌 "대기오염에 대처하라."고 결론을 맺는다.

게다가 재미있는 사실은 1952년 12월 2일, 보건부장관 이언 매클리우드는 기자회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힐과 돌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담배는 폐암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비슷한 내용을 발표하지만, 그 때 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담배가 암의 원인이라는 연구가 허구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일게다.

그리고 그가 발표한 내용은 "담배와 폐암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과학자들이 인용하면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로 변한다. 그리고 돌 역시 몇 차례 진행한 강연에서는 담배와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암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음식의 고지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2

이 당시 그가 발표한 대부분의 연구논문에서는 담배에 이어 음식, 특히 동물성 고지방이 암의 주요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지방이 암의 원인이라는 지방가설은 허구임이 밝혀져 폐기된다.

사실 고지방이든 저지방이든 자연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음식은 사람의 건강에 거의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의 입장이다. 다만 지방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변화시켰을 때 이것은 화학물질이지 음식이 아니다. 음식이 아닌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힐에게 연구를 의뢰한 영국의학연구협회(Medical Research Council, MRC)는 미국의 록펠러재단이 재정을 지원하는 단체로, 록펠러의학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유전자조작과 생화학무기 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그리고 연구를 의뢰할 당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3

이 협회의 연구원인 프레더릭 생어가 인슐린의 염기서열을 밝혀내 두 번의 노벨화학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0년까지 13명이 유전자조작과 관련된 연구로 노벨 생의학상 또는 화

학상을 수상한다. 록펠러대학교도 이 기간에 23명이 생의학상과 화학상을 수상한다. 이어 1954년 몬산토의 재정지원을 받은 미국의 어니스트 L. 와인더는 보고서를 통해 흡연과 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한다.4 그러나 와인더는 1990년대 이후 입장을 바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1957년에 미국 공중보건국에서도 '흡연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 나라의 질병, 장애, 조기사망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담배다."라고 지원한다. 반면 영국의학연구협회나 미국 공중보건국에서는 지금까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화학물질, 약물부작용, 음식첨가제, 방사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5

그러나 이보다 훨씬 오래전인 1604년에 영국 국왕 제임스 1세는 '담배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책자에서 '담배에 취하는 나쁜 습관'과 '석탄에 취하는 나쁜 부엌'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연기 자체가 나쁜 것이며, 그 때문에 사람들이 고약한 물질을 섭취하게 되므로 흡연과 석탄의 매연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런던은 대기오염으로 시달리던 시기였다. 당시에 왕의 경고는 절대적이던 시대였으므로 그러한 사고는 많은 대중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았고, 또 현대까지 은연중에 이어지고 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퀼른대학의 프란츠 뮐러가 1939년 흡연과 폐암의 명백한 연관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뮐러의 연구는 적국인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라는 이유로 서구 의학계에서는 무시되었다. 히틀러가 비흡연가라는 사실도 작용했다. 7

당시에는 계속되는 양차 세계대전,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공황, 정치인들의 부패 등으로 무력해진 서구인의 거의 95퍼센트 이상이 담배를 애용하던 시기여서 독일에서 나온 연구를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담배업계는 1950년대부터 담배의 위해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응해 그들의 판매고를 유지하기 위한 선전을 시작했는데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선전이었다. 이전까지 주류계의 의사, 과학자들은 담배를 선전하는 광고에 주로 모델이 되어 담배의 유용성을 홍보해 왔는데 이젠 반대로 해악에 앞장서기 시작한다. 과학과 의학을 조종하며 탐욕을 채워가는 주류학자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미국으로 끌고 온 음모

화학업계의 지원을 받으며 담배공포를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곳은 영국이었지만, 주류과학계와 주류 언론계의 지원을 통해 대중에게 크게 먹힌 곳은 미국이었다. 록펠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하버드대학교, 록펠러대학교, 뉴욕타임스, CBS 등이 공포조작에 앞장선다. 유럽은 많은 과학자들의 모임, 예컨대 「유럽과학 및 환경포럼」(European Science and Environment Forum) 등은 담배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아스파탐, 방사능, 성장호르몬, 살충제, 다이옥신, 염소, 불소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리고 이를 규제하는 활동에 더 많은 전력을 기울였다. 반면에 미국의 주류과학자들은 이런 화학물질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담배에만 집중한다.

이에 미국의 담배업계 역시 주류과학자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며 대응하자 담배의 유해성 논쟁은 온통 과학 전문지, 잡지, 신문, 방송, 미국 정부의 논평 등을 통해 대중의 눈과 귀를 덮었다. 이같이 치열한 공방전은 대중의 관심을 핵 방사능,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 소성장호르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독성의 화학물질, 광우병, 유전자조작 등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 문제에서 담배공포로 옮기는데 효과적이었다.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문제를 은폐하는 데는 전쟁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화학업계가 시작한 담배논쟁에 담배업계가 사활을 걸고 대응함으로써 50여 년 간 전쟁은 끊임없이 신문, 방송을 메워갔다. 총성 없는 담배공포전쟁!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초거대기업인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는 화학업계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화학업계가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면서 대대적으로 담배공포를 만들어 내는 가운데 1971년에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1984년에는 3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극장 등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이 같은 과학이 아닌 정치 광풍은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캐나다, 우리나라, 일본, 홍콩 등 미국 성향의 나라로 급속히 전파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폐암에 걸린 석면회사 노동자들이 석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전국에 걸쳐 들끓었다.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노동자에게서 폐암이 가장 많이 발병한 작업장은 석면 관련 공장과 정유 관련 공장이었다. 심지어 석면 관련 노동자들은 질병 발병률이 너무 높아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가입을 거절할 정도였다.

그 당시에 석면은 '마술의 광물'이라고 불리는 천연 절연제로 건축자재, 의료자재, 자동차자재, 의류자재 등 수천 가지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에틸 납, 석면기업 등의 화학업계가 담배에 집중적으로 화살을 돌리자 피해자들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석면회사들도 관심을 담배로 돌리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또 다른 제3자 소송을 제기했다. 1985년의 경우 「레이놀즈 담배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4건이지만 석면회사, 정유회사 등 화학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300건이 넘었다. 8

석면회사 등 화학회사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초제, 살충제, 플라스틱, 다이옥신, 의약품 그리고 광우병, 성장호르몬, 아스파탐, 핵무기 등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담배로 돌리려는 의도였다.

2001년 저널리스트인 셸던 램턴과 존 스토버가 돈에 팔려 과학 연구를 왜곡시키는 사례를 고발한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는 전문가예요!」라는 책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20년 이상 작업을 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자료를 조작해 석면이 폐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위험 가능성을 담배로만 돌렸다. 산업계는 이와 같이 진행된 거짓 과학을 근거로 1970년대까지 우라늄, 석면, 에틸(납), 수은, 주석, 비소, 벤젠, 다이옥신, 나프탈아민, 카드뮴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했다. 9

안전 장비를 지급하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염료에 쓰이는 나프탈아민은 100퍼센트 암을 발병시킬 정도로 극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이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주류과학자들의 거짓 주장 때문에...

담배공포가 시작되던 초기인 1967년 11월 26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의하면 레너드 레빈이 책으로 공개한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전쟁은 복종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평화가 이어질 땐 사회와 정치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늘 '전쟁공포'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이언 마운틴은 뉴욕 주 허드슨 강변에 있는 거대한 핵 대피 지하 시설로 록펠러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의 임시 본사를 비롯해 민관의 주요 기관들의 임시 대피시설이다.

이곳에서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국가안보 특별보좌관인 맥조지 번디,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록펠러재단 이사장 출신이며 국무장관이던 딘 러스크 등 군사전문가,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등 15인이 케네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1963년부터 3년에 걸쳐 미국 중심의 세계전략을 연구한다. 그 결과가 15인 중 한명이 '비밀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소신으로 '존 도'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3년간의 논의 과정과 보고서를 책으로 폭로했다. 10

이 시기 정치에서의 전쟁공포는 '냉전'이었고, 산업에서의 전쟁공포는 '담배공포'였다. 냉전은 무기업계에 특수였지만, 담배공포는 화학업계에 특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록펠러가문에게 특수였다는 것이다.

화학업계, 육류업계, 식품업계, 제약업계, 음료업계, 석유업계, 자동차업계, 군수업계 등 66개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1978년에 350여명의 주류과학자들을 끌어들여 미국과학건강위원회(ACSH)를 설립하고 담배업계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담배업계는 1993년 50여명의 과학자들을 동원해 건전과학진보연대(TASSC)를 구성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이에 대응한다. 특히 TASSC 단체의 임원인 스티브 밀로이는 인터넷에 '정크사이언스닷컴(JunkScience.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ACSH소속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비주류과학자들의 양심적인 연구를 '쓰레기과학'이라고 비판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크사이언스에서 만든, 지구온난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하키 스틱'[26]은 허위로 작성했음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7년 기후온난화를 다룬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엘 고어도 이 그래프를 근거로 했음이 밝혀졌다. 반면 미국과학건강위원회(ACSH)도 담배업계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의 양심적인 연구들도 쓰레기과학이라며 공격했다. 록펠러재단의 임원이자 녹색혁명을 주도해 전 지구를 석유로 덮은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노먼 볼로그도 ACSH 임원으로 적극 활동한다.11

이 두 단체는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와 자금을 교류하며, 화학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 식품첨가제, 핵산업, 의약품 등에 대해 대중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ASCH는 담배의 위해성을 강조하고 TASSC는 담배의 무해성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논쟁을 키워나간다. TASSC의 임원인 제임스 토치는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와 1993년 월 4만 달러의 임금 계약을 맺고 화학물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그 위험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1994년에는 6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필립모리스와 체결하고 앨라배마 주 상원 의원인 리차드 셸비를 통해 화학물질을 규제하려는 법안을 막아내기도 한다. 제임스 토치는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예산관리국 부국장으로 있으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금지시킨 사람이다. 12

이 두 단체는 인체에 치명적인 아스파탐(상품명은 뉴트라스위트)과 방사선조사식품을 적극 옹호하고, 반면 에이즈공포를 확산시키며 광우병과 유전자조작의 위험을 숨기는데도 일조한다.

3장. 통계의 허구

26) 미국의 기후학자인 마이클 만이 창안한 그래프로 지구온도의 변화를 시기별로 나타낸다. 그러나 TASSC가 지구온난화를 경고하기 위해 사용한 이 그래프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고정되어 있어 변수에 어떤 값을 대체해도 결론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어 조작이라는 파문을 일으켰다.

결론을 먼저.

담배공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오스틴 브래드퍼드 힐과 리차드 돌이 수행한 통계 연구는 이미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흡연을 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를 묻는 '후향적 방법'[27]을 썼다는 점과, "폐암의 원인이 담배"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 조사 대상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며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흑인노동자, 이민노동자 등 블루칼라 계층과 여성, 노인을 제외했고(백인 사무직 남성만을 상대로 조사),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대도시인 런던출신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암이 오랜 기간 여러 가지 복합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다.

브래드퍼드 힐과 리처드 돌이 공동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도 고의로 해석을 잘못한 연구였다. 통계를 통한 확률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과 힐은 이미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입증해 줄 사안만을 분석했다. 치명적인 오류였다.

그들이 1950년에 조사한 649명의 폐암 환자의 경우,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사람(30.2%)보다 하루 50개비를 피우는 사람(4.9%)에게서 폐암 발병률이 월등이 낮았다. 그리고 하루 1개비 이하를 피우는 사람(8.5%)보다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사람(29.3%)이 폐암이 아닌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그들의 조사 방법에 의하면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전제에서의 치명적인 오류였다. 그들은 폐암에 걸리지 않은 비교군에 속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흡연자와 비흡연자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했고, 통계학상 최소 15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비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가지(하루 50개비를 피우는 경우)만 인용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다른 경우 예컨대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환자의 경우에는 폐암 환자의 비율(30.2%)과 다른 질환의 환자의 비율(29.3%)은 거의 비슷했다.

게다가 조사 대상자인 환자들은 오염이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했던 영국 런던의 20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다. 다양한 지역에 걸친 조사가 아니었다. 이 시기에 런던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암으로 매주 평균 1,570명이 사망하던 시기였다.

이 연구가 발표되자 재정지원을 한 영국의학협회는 즉시 "이와 같이 흡연의 해로움이 입증되었으니 조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성명을 발표한다.

폐암 환자와 대조군 환자의 흡연습관

하루에 환자가 피는 담배 수	1개비	15개비	50개비

27) 후향적 방법이란 예컨대 폐암에 대한 연구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담배를 피웠는지, 피웠으면 몇 살 때부터 피우기 시작했는지, 하루에 몇 갑을 피웠는지 등을 조사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폐암에 걸리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다.

반면에 전향적 방법이란 지금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대상(흡연량을 기준으로 몇 개로 분류)으로 폐암이 생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폐암에 걸리는 사람을 찾아내서 흡연과 담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어떤 대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다.

후향적 연구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조작되거나, 답하는 사람이 솔직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향적 연구보다는 전향적 연구가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649명의 폐암 환자	33(5.1%)	196(30.2%)	32(4.9%)
649명의 대조군 환자(다른 질병)	55(8.5%)	190(29.3%)	13(2.0%)

(리차드 돌과 오스틴 브래드퍼드 힐. “흡연과 폐암”. 「영국 의학 저널」. 1950년 9월 30일) 1

리차드 돌과 브레드퍼드 힐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그들은 1954년에 의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두 번째 연구를 발표하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환자군과 대조군은 비교하지 않고, 각각 환자군과 대조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만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

다시 말해 폐암에 걸린 환자만을 대상으로 흡연량이 늘어나면 폐암 발병률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을 자료로 사용했다. 하루 15그램을 피우는 경우(2분의 1)에나 하루 25그램을 피우는 경우(14분의 1)에나 모두 폐암에 걸릴 확률은 월등이 낮았다. 이런 통계학적 결론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모순을 또 보였다. 그들은 통계학적 방법을 의학 연구에 도입하면서 원하는 자료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결과를 조작한 것이다. 게다가 원하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통계조사를 계속해서 되풀이 했고, 원하는 자료가 나오자 곧 모든 조사를 중단했다. 이런 조작이 가장 흔히 적용되는 경우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실험’이다.

1957년 12월 14일 ‘랜싯’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의 편지가 소개 되었다. 2

> “의학연구협회에서 온 편지를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 의사인 제 남편이 하루 평균 3개비를 피운다고 했더군요.
> 제 남편은 하루 33개비 이상을 피웁니다.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도 당혹해 하더군요. 물론 일 년에 가끔은 적게 피울 때도 있습니다.
> 사람들의 잘못된 답변을 듣고 통계자료를 만들다니 이 얼마나 끔직한 일입니까?”

이에 대해 브레드퍼드 힐은 이렇게 답변했다.

> “부인의 남편이 답변을 했던 1951년 11월에는 일시적으로 담배를 적게 피울 때였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답변입니다.
>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비흡연자보다 폐암 사망률이 20배 높다는 결과는 ‘추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평균 하루에 33개비를 피우는 이 의사는 건강한 상태였다. 이미 내린 결론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 피우는 그룹에 편입시켰고, 만일 이 의사가 폐암에 걸린 상태였다면 33개비를 피우는 그룹에 편입시켰을 것이다. 또한 폐암에 걸린 비흡연자를 흡연자군에 넣은 것이 확인되는 등 그의 통계조사는 말 그대로 조작이었다.

흡연량과 관련된 남자 의사 1천 명당 사망률

사망 원인	사망자 수	일일 평균 담배 소비량에 대한 사망률		
		1그램	15그램	25그램
폐암	36	0.48	0.67	1.14

그 밖의 모든 원인	789	13.42	13.48	16.3

(리차드 돌과 브래드퍼드 힐, "흡연 습관과 관련한 의사들의 사망률", 「영국 의학 저널」 1954년 6월 26일.)3

이후 돌은 2000년 초까지 비슷한 연구를 11번 하면서 담배공포를 키워나갔다. 그들이 사용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50배나 높다. 그러나 80세의 비흡연자인 노인은 20세의 흡연자인 청년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천 배나 높다. 4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통계학자 R. A. 피셔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머리가 흰 사람이 기대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지만 흰머리가 사망원인은 아니다. 머리가 흰 사람은 대체로 노령이고 사망원인은 노령 때문이지 흰머리가 원인은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흰머리와 죽음 사이에는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힐과 돌의 주장을 비판한다.5

마크 트웨인은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보통 거짓말, 큰 거짓말, 그리고 통계. 예컨대 2002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자. 결혼 대비 이혼율은 47.4퍼센트로 세계 최고라고 해서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통계다. 결혼한 부부의 거의 절반이 이혼을 한다니? 그러나 이 통계는 허구였다. 이 수치는 2002년 한 해 동안 이혼한 쌍(14만 5,324건)을, 그 해에 결혼한 쌍(30만 6,573건)으로 나누어서 나온 수치였다. 기준을 다르게 잡았으니 결론은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한 항목은 '특정 년도에 결혼한 쌍'을 또 다른 항목에는 '전체 년도에 결혼 한 쌍 중에서 특정 연도에 이혼 한 쌍'만을 잡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2003년에는 이혼율이 54.8퍼센트에 달한다. 이런 계산법을 적용하면 이혼율이 120퍼센트도 나올 수 있다. 6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맞추기식 조사, 즉 통계의 허구인 것이다.

모든 것을 숫자로만 설명하려고 할 때 '기준의 통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숫자로 설명하는 통계는 항상 의심을 해야 한다. 특히 현대의학과 현대음식이 쉽게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했다가 엄청난 희생자를 만들고 쉽게 다른 이론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것의 기초가 통계에 있기 때문이다. 통계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통계는 조작하기 위한 학문일 뿐이다.

반면 힐과 돌의 연구가 발표된 후인 1955년에 피터 스톡스와 존 캠벨은 영국 노스웨일스와 리버풀에서 폐암으로 죽어가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의하면 공해가 심한 지역의 비흡연자들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공기가 깨끗한 지역의 흡연자들에 비해 10배나 높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리고 1958년에 미국암학회 소속의 퀼러 해먼드와 해럴드 돈이 미국의 퇴역군인 18만 7,783명을 대상으로 44개월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는 도시 거주자들의 폐암 사망률이 농촌 지역 거주자에 비해 2배나 된다는 사실도 밝혀낸다.

또 있다. 1968년 뉴욕 주 보건부의 워런 윙클스타인은 뉴욕 주 버펄로 일대의 21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공기가 가장 더러운 지역의 폐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깨끗한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화학업계가 집어주는 돈에 마음이 흔들리는 주류학자들과 언론인들이 힐과 돌의 연구를 추종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바람에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진다.

힐과 돌, 쿠프 등 주류학자들이 폐암의 원인을 담배로 돌리는 논문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주류학자들이 서로 인용하며 권위를 키워주던 1960년대에, 카네기 맬런 대학의 레스터 레이브 교수는 그의 제자 유진 세스킨과 함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각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들은 수 만 건의 자료를 나이, 성별, 소득, 일의 내용, 거주지의 공해 정도, 흡연 유무와 흡연량의 정도 등 다양한 비교군을 만들어 정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974년에 책으로 발간하려 했다.

그러나 록펠러재단 산하의 「미국석유연구소」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류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비난했고, 대학 당국은 책을 출간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의학 연구를 통계학을 이용해 비교한 것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과학적 가치가 없는 쓰레기과학”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힐과 돌, 쿠프, 웰런 등이 통계를 이용하여 “암의 원인은 담배이고 석면, 다이옥신, 벤젠, DDT 등은 암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그것을 극찬하며 자신들의 연구에 비판 없이 인용했던 사람들이다.

레이브 팀이 발표하려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대기오염, 플라스틱, 농약, 의약품 등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다. 담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레이브는 몇 년의 재조사를 거친 후에 1977년에 ‘대기오염과 인간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다. 그러나 그들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학자로서의 명예까지도 잃는다. 결국 그들은 대학에서 해고되고 후속 연구는 중단된다.7

비주류의 반격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서 양심적인 비주류 과학자들의 계속되는 연구로 레이브와 세스킨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우수한 연구였고 록펠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고 수행한 힐, 돌, 쿠프 등의 연구가 거짓임이 밝혀진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마이클 하우프트만, 보스턴대학교의 클래프,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후,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의 새뮤얼 엡스타인, 스털링대학교의 브로피, 스웨덴의 레나토 하델, 리즈 암스트롱 등 양심적인 비주류 과학자들은 리차드 돌의 연구가 전혀 과학적인 자료로 가치가 없다고 비판한다.

특히 하우프트만은 노동자 2만 6천명을 30년 간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를 2003년 11월 「암연구저널」에 발표했는데, 이에 의하면 “방부제, 살균제 및 사진필름제조와 생화학실험 등에 널리 쓰이는 포름알데히드가 폐암과 백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산업체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리즈 암스트롱은 자신의 저서 「암」에서 비닐클로라이드, 다이옥신, 제초제, 석면 등의 화학물질과 암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중에 담배공포를 조작해내는 주류학자들이 미국화학물질협회, 화학물질기업인 ICI와 DOW, GM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음을 법원자료를 통해 공개하한다.

영국의 제약 전문 저널리스트인 재키로는 브레드퍼드 힐과 리차드 돌이 “폐암의 원인은 담배”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구를 진행한 데 대해 “그들이 결론을 내린 지 어언 3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그 나머지 그림 맞추기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그 허구를 지적했다. 8

엡스타인은 암을 포함하여 증가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방사능과 화학물질이라며 1940년대에 새로 개발된 열분해와 촉매작용으로 석유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분리해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분자재결합을 통해 개발자들이 원하는 모든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

다고 한다. “1940년대에 인류는 화학물질을 약 10억 파운드 생산했고, 1950년대에는 500억 파운드, 1980년대에는 5,000억 파운드를 생산해 냈다. 그 모두가 독성물질이고 발암물질이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받은 물질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하며 한탄한다.

하워드 후는 “수질오염이 사람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물에 함유되어 있는 비소는 그것이 미량이라도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며, 비료의 질소산화물은 유방암의 원인이 되고, 할로겐용제는 소아백혈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가 나올 때마다 돌을 포함한 주류학계에서는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과학자들이 편견과 과장으로 만들어 낸 헛된 말”이라고 비난하며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9

참고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브루크 T. 모스만과 베너드 L. 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1989년 6월 29일자로 발표했다. “석면과 질병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석면은 암 등 질병의 원인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기사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석면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진행한 거짓 연구였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10

2005년 9월 클래프의 비평에 따르면 “암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질병이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을 때 작은 노출이라도 위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많은 암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엡스타인은 “최소 평가에 기초해서 전체 암 사망률의 10퍼센트가 직업적인 발암물질의 노출 때문이며, 확실한 직업적 노출에 의한 사망률은 더 높다.”고 하며 “리차드 돌의 주장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정책이나 보건학적 조치를 잊게 한다."며 그 숨은 의도를 지적했다.

돌과 페토 등 주류 과학자들의 직업성 암에 대한 낮은 통계치가 정부에 의해 대폭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몇몇에게는 좋은 뉴스가 되었지만 일부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산업체에서는 돌과 페토, 쿠프 등 주류 과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매우 기뻐했다. 이는 직업성 암에 대한 문제를 교묘하게 음식, 담배 등 개인적 생활습관의 문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성 암에 대한 권위자인 스털링대학의 짐 브로피는 “이러한 상황은 직업성 암에 대항하여 조직화되거나 재정립된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실제적으로 종식시킨 결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11 돈에 팔린 몇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로 강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이 화학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주류학자들이 조작한 과학 연구들은, 현장에서 일에 종사하다가 다이옥신, PCB, 납, 벤젠, 석면 등 화학물질에 의해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업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2010년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다이옥신, 벤젠, 석면, 납 등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담배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한 번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 담배가 폐암과 폐기종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통계수치에 의한 것일 뿐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12 즉, 여러 가지 암의 위험인자 중 담배도 하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설이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면 법칙이 되고,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해지면 이론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가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폐기되어야 한

다. '담배가 폐암을 비롯한 모든 암의 원인'이라는 가설이 어떠한 과학적인 실험으로도 입증된 적이 없는데도 폐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미국식 사고를 주입받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과학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즉, '담배가 암의 원인이다.'라는 믿음은 '청교도식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현대 의학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확실해진 결론은 '모든 질병의 50퍼센트는 환경오염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암 발병률이 가장 급증한 연령대는 흡연이나 과중한 노동, 질병 등의 스트레스를 거의 받을 이유가 없는 아동계층이다.13 아동들은 아직 면역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화학물질을 접함으로써 면역시스템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암 발병률이 급증한 것이다.

다른 이야기들

나바호 인디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암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17년간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기본스에 의하면 인디언들은 담배를 어려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습관적으로 피우는데도 폐암이 거의 없다고 한다. 나바호 인디언들에게도 당뇨병, 관절염, 호흡기 질환 같은 질병들은 조금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그곳의 인디언들에게는 폐암이나 유방암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타 주의 몬티셀로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인 군(C. D. Goon)은 "지난 32년 동안의 진료 경험을 통해서 폐암이나 유방암에 걸린 인디언 여자를 한명도 보지 못했다"라고 회고한다. 그리고 군의 동료인 제롤드 스미스 의사도 "인디언들을 25년 동안 치료했지만, 단 한 건의 유방암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1935년 이전 50년 동안 캐나다 원주민인 이누잇 족에서는 단 한 건의 암도 보고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1935년부터 가공식품과 의약품이 다량 전파되면서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정도로 암이 보고되고 있다. 14

가공식품에는 맛, 냄새, 색깔, 촉감 등을 좋게 하고, 보관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평균 2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을 혼합한다. 그리고 의약품은 거의 100퍼센트가 합성화학물질로 만들어진다. '천연 비타민', '천연 의약품'이라는 상표는 단지 선전문구일 뿐이다.

알래스카 원주민도 암 발병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원주민들이 보호구역에 살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담배를 질병과 악령을 몰아내는 신성한 약으로 간주하며 평생 동안 담배를 피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사람들도 암 발병률이 극히 낮다. 자연의 순환과정인 노화로 인한 암을 제외하고는 젊은 사람들에겐 암이 거의 발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화학물질이 적고, 거대한 밀림이 그나마 적은 화학물질마저도 정화해주기 때문이다.

이전에 발암물질이라고 화학업계가 주장했던 니코틴과 타르는 발암물질에서 삭제되었다.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식물에 비슷한 함량으로 들어있는 자연물질이다. 현재 담배갑 경고문에 표시되어 있는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은 담배라는 식물에만 고유하게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다. 이들은 비료, 제초제, 살충제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들어가는 화학물질들이다. 이것들은 석유로부터 나오는 화학물질이지 식물에 고유한 형태로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다.

존 웨인, 수잔 헤이워드, 게리 쿠퍼, 스티브 맥퀸, 이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두 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바다 사막 인근에서 촬영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네바다 사막은 1951년부터 1958년까지 모두 97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핵실험이 실시된 곳이다. 1954년 선보인 영화 '정복자'의 주인공 존 웨인과 수잔 헤이워드, 제작진 대부분이 20년이 지난 후 각각 암, 백혈병으로 연이어 사망했다. 존 웨인의 경우 15년간 폐암, 위암, 장암 등으로 인해, 수잔 헤이워드는 피부암, 유방암, 자궁암, 뇌종양 등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부족민 전체가 여러 번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시브위트족 인디언은 암과 백혈병으로 인해 부족 자체가 멸종했다. 15

중국의 '붉은 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뚱은 18세부터 피우기 시작한 담배를 사망하기 2년 전인 81세까지 하루 50개비 이상을 피웠다고 한다. 등소평도 평생 동안 담배를 많이 피워 '골초'로 유명했지만 93세까지 생존했다. 장학량 역시 담배와 술을 무척 즐겼지만 103세까지 생존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암에도 걸리지 않았다. 반면 주은래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암으로 73세에 사망했다. 16

영국 수상을 역임하고 90세에 사망한 윈스턴 처칠도 애연가였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84세에 사망한 한국전 당시 유엔 사령관이던 더글러스 맥아더도 장병들에게 담배를 적극 권장했던 애연가였다. 그러나 모두 암과는 무관하다. 다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화학물질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길상사 주지 법정스님은 평생토록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지만 3년간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78세로 사망했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00년대 말이었지만 이후 500여 년 간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폐암환자는 거의 없었다. 특히 조선 후기인 정조 이후에는 정조가 직접 흡연을 권장할 정도로 흡연이 일상적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화학물질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폐암은 존재하지 않았다.

4장. 돈에 팔리는 과학자들.

쓰레기 과학자들.

록펠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은 ACSH는 "미국이 DDT를 금지한 것은 살충제, 석면, 에이전트 오렌지, 핵에너지 금지와 함께 20세기 최악의,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건강공포 20가지 중 한가지이다."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통해 석유산업, 화학산업, 유전자조작산업을 비호해왔던 단체였다. DDT는 이미 인체에 치명적인 해악이 입증돼 생산이 금지된 제품이고, 석면과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 핵 방사능은 1급 발암물질임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제품들이다. DDT, 에이전트 오렌지, 유전자조작작물 등은 록펠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몬산토의 주력상품이다. 핵에너지는 핵무기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의 주력상품이고, 이 역시 록펠러재단이 최대주주다.

계속해서 그들은 유명 잡지 또는 신문에 '방사선 조사법 : 미국 식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안전한 쇠고기, 회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미 농무부가 O157:H7 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을 때 이를 비판하며).', 'PCB가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프탈레이트에 대한 논쟁 뜨거워지다. 최고 학자인 쿠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공중보건의 향상을 보증하지 못한다.', '미국인이여, 마음껏 쇠고기를 먹어라.', '크리스마스 만찬 자리에서는 살충제와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자.'는 등의 혼란을 유도하는 글을 계속해서 기고한다.

그리고 이 단체는 2003년 5월 14일, “방사선조사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며 핵산업계를 적극 옹호한다. 또한 2008년에는 “아스파탐이나 사카린은 당신의 건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비만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무료 잡지인 「당신의 건강」을 통해 강조하기도 한다.1

그들이 발표하는 글은 대부분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학전문지에 발표하지 않고 주로 대중매체인 시사 잡지, 특히 ACSH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우선순위」,「당신의 건강」 또는 TV 등을 이용했다. 그리고 연구를 검토하는 소수의 과학자가 아닌, 다수의 서명자를 활용했다. 진실한 과학 연구에는 다른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단체의 부회장인 제프 스타이어는 “연구 활동에 대해 기업의 재정 후원 사실을 밝히라는 것은 ‘새로운 매카시즘’이다.”며 “재정 후원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될까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

예컨대 A와 B가 법적 논쟁을 할 때 변호사가 A에게 고용되면 A의 입장에 서게 되고, B에게 고용되면 B의 입장에 서게 된다. 돈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입장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과학연구도 누가 돈을 주느냐에 따라 입장은 크게 달라진다. 이를 심리학에서 ‘펀딩효과’라고 한다. 그들은 재정지원자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가로등 아래에서 증거들을 찾으려고 한다. 길 건너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고 가로등 아래가 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법적 논쟁은 관점의 문제이지만 과학이나 의학은 사실의 문제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과학은 사기이지 과학이 아니다.

1999년 6월 22일, 「미국과학건강위원회(ACSH)」를 이끌고 있던 C. 애버릿 쿠프는 “소비자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과 병원도구를 안전하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 물건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해를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플라스틱과 같은 비생체 물질은 어른보다 아이들에게서 훨씬 빨리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특히 해롭지 않습니다.”라며 화학업계를 옹호했다.

그가 진짜 과학자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다. 이에 대해 비주류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연구 자료들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프는 ‘화학물질의 수호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억만장자로 낙태반대, 담배와 에이즈공포 확산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후에 그는 이 같은 거짓 선전의 공을 인정받아 록펠러재단의 후원 아래 레이건 시절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게 된다.

플라스틱에는 1급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등이 들어있어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때에는 치명적이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화장품, 향수, 염색약, 손톱광택제 등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유방암이나 기형아의 원인임이 확인된 물질이다. 이이들은 아직 면역체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직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극미량의 합성화학물질이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면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또는 콩 등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호르몬은 수명이 짧고 빨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반해 프탈레이트와 같은 화학물질은 오랫동안 체내의 지방층에 축적 된다. 천연호르몬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프탈레이트는 적은 열에도 쉽게 녹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갈 때 특히 위험하다. 게다가 플라스틱이 썩는 기간은 100년 이상 걸리고 플라스틱 계열인 스티로폼이 썩는 기간은 500년 이상이 걸린다.

또한 통조림이나 음료수 캔의 내부에는 내부가 녹슬지 않도록 하는 합성화학물질인 비스

페놀A가 들어있다. 이 화학물질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폐암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합성해낸 화학물질은 대부분이 1급 또는 2급 발암물질이다.3

이후 쿠프는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1980년대 중반에 '쉐링플로회사'가 특허를 갖고 생산하는 클래리틴(수면작용을 제거한 항히스타민제)의 특허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댓가로 이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는 그 뇌물 사건에 대해 뉴욕 타임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여태까지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들으며 살아왔다. 나는 성실함과 정직함 그 자체다. 나와 같은 위치에서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고,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는 그뿐 아니라 생명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라텍스'장갑이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준 댓가로 라텍스회사로부터 65만 6,250달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4

라텍스는 천연고무보다 훨씬 가격이 싼 화학고무로 비닐장갑, 콘돔, 의료기기 등을 만들 때 쓰이며 알레르기와 천식,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최근에는 라텍스가 상품을 밀착시키는 성질이 있음을 이용해서 식품포장지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라텍스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텍스로 만든 콘돔은 '에이즈공포'를 한창 조작하던 시절에 엄청나게 팔려나간다. 또한 쿠프는 에이즈공포를 확산하는 데도 앞장선다. 지금도 쿠프는 주류학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또 있다. 그는 와이어스사가 생산하는 비만치료제 '리덕스'가 FDA의 승인을 받자 곧 바로 "비만이 전염병처럼 온 미국을 휩쓸고 있다. 비만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는 와이어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로버트 에트킨스 등 다른 주류과학자들과 함께 비만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대중을 현혹했다. 에트킨스는 와이어스사가 미리 써놓은 논문에 이름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그는 "인류는 진화과정을 통해 육식을 해온 종이다."라며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므로 곡물, 채소, 과일 등의 섭취를 줄이고, 우유나 고기 등 단백질의 섭취를 장려했다.

게다가 그는 비타민도 야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복합 비타민정제'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 화학물질로 대표되는 의약품과 성장호르몬으로 대표되는 육식을 전파하기 위해 그는 '서구식 식단'을 홍보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임한다. 게다가 '소비자 경보'라는 시민단체(후에 기업체가 연합해서 만든 가짜 단체였음이 밝혀진다)가 와이어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이 리덕스를 안전한 약으로 홍보해주기도 한다. 결국 그들의 홍보로 인해 리덕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만 치명적인 심장판막 손상을 유발하며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1997년에 시장에서 회수되고 피해자들에게 13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보상을 해준다.5

비만은 질병이 아니라 성장호르몬, 탄산음료 등 2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우유, 치즈 기타 가공식품을 즐겨 먹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식과 과일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반면 담배업계의 지원을 받는 「건전과학진보연대」도 '실험결과, 흡연이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지 않는다.', '흡연테스트 결과 폐암 유발 가능성 없다.', '심리적, 가족적 원인이 폐

암 원인의 중요 가능성이다', '고령흡연자 조사 결과 심장병 사망률 차이 없다.', '의사들은 다른 분야 종사자들보다 담배를 덜 피울까?', '독일의 대규모 연구 결과, 폐암은 직업병임이 밝혀지다.', '폐암환자 1천 명 중 절반은 비흡연자'라는 제목으로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연구 논문들을 계속해서 발표한다. 6

그러나 미국과학건강위원회(ACSH), 전국공공정책연구소(NCPPR), 지구기후정보연구소(GCIP) 등 록펠러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는 보수단체들은 화학물질이나 유전자조작, 식품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줄기차게 담배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결정적 증거 : 담배업계는 살인을 자행하고도 어떻게 태연할 수 있을까', '담배 : 경고 표시문구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 '흡연으로 인한 신체조직 손상 평생지속', 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 담배업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정의 증인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7

담배공포를 한창 키워가던 시절인 1998년 4월 26일자 뉴욕타임스는 "석유업계가 2년 동안 500만 달러를 들여 저명한 과학자 20명을 훈련시켜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연구를 발표하게 했다."는 기사를 석유업계의 내부고발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담배연구협의회는 '관심돌리기'를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미국암통제협회 이사 출신인 암 전문가 클래런스 쿠크 리틀을 회장으로 임명하고 이에 담배공포에 맞대응한다. 8

간접흡연으로 확전

한편 이 시기에 화학업계는 수많은 소송사건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 신청이 청구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때였다. 록펠러재단을 중심으로 한 화학업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미국심장협회, 미국폐협회, 미국암협회 같은 조직들은 직접흡연으로 미국에서만 매년 약 40만 명이 사망한다는 추정치를 발표한다. 이어서 이 단체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추정치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명가량이 흡연 때문에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아닌 단순한 추정치였다. 이것은 엄밀하지 못한 '후향적 과학'으로 악명이 높다. 9

1981년 히라야마 다케시에 의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학조사가 발표되고 5년 후인 1986년 쿠프는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경고하며 "매년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심장병 환자는 4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자 이에 호응한 과학자들이 계속 이 논문을 인용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부추기고 '담배공포'를 더욱 키워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담배의 해악성을 알리는 연구들은 결론을 내리는데 추정치를 사용했고, 상관관계를 증명하는데 있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 브레드퍼드 힐이 조사했던 연구에서 하루에 담배 네 갑 이상을 피운 사람이 그보다 적게 담배를 피운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당혹한 나머지 이를 억지로 해석한다. "이렇게 엄청난 흡연량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허파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담배 속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항력을 갖고 있다." 10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그냥 소설이었다. 쿠프가 담배로 인한 사망자를 계산한 추정치도 그냥 해본 말일 뿐이다.

일반적인 주류과학계에서는 폐암의 발병 원인의 85퍼센트가 흡연이고, 화학물질이 5퍼센트, 석면 등 중금속이 8퍼센트, 기타 영양이나 방사선 또는 유전 요인이 2퍼센트 정도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원인을 흡연으로 돌린다. 그러면서 예방의학차원에서 진행한 장수마을에 대한 조사에서 10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이 대부분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자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은 암 발생을 억제시켜 주는 대체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1 지금도 ACSH는 암발생을 억제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합성비타민제와 같은 유익한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건강보조식품은 합성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약의 일종이다.

쿠프가 간접흡연의 위험을 경고하기 1년 전인 1985년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엘리자베스 폰섬은 국립암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관해 연구했는데 그녀 역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는 과학적 자료를 찾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남편이 흡연자인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률은 배우자 둘 다 비흡연자인 경우보다 30퍼센트나 높고, 직장이나 집 밖의 장소에서 흡입하는 담배연기는 폐암 발병률을 50퍼센트나 높인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가 연구 진행과정에 의문을 품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끝내 자료공개를 거부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지원한 연구자의 연구자료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셸비 법안’이 통과된다. 12

조지워싱턴 대학교 환경과학부 교수인 데이비드 마이클스도 미국에서 흡연으로 매년 40만 명 이상이 죽어가며, 매년 1,57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낸다고 한다. 또한 애모리대학의 역학교수인 멜빈 코너는 “미국에서는 해마다 35만 명이, 유럽에서는 50만 명이 담배로 사망한다.”고 마이클스의 주장을 더욱 확대시킨다. 13 그러나 폰섬이 제시하는 30퍼센트나 50퍼센트란 수치, 그리고 마이클스가 제시하는 40만 명이나 1,570억 달러라는 수치, 코너의 수치 등도 역시 아무런 과학적 자료 없이 그냥 해본 소리였다. 심지어 2001년, 리처드 돌마저도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간접흡연의 허구를 지적해 같은 진영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4

이런 식의 연구와 ‘결과 해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주류과학자들의 특징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폐기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대상을 바꾸는 이런 식의 조사는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의학적 임상실험이나 언론에서는 더 횡행하는 조작의 가장 흔한 방법이다.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대상자를 바꿔가며 실험을 하다가, 부작용이 나올 때쯤이면 실험을 중단하는 임상실험이나,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현장 인터뷰를 계속하는 방법 말이다.

2008년 조사에 의하면 74개의 항우울증 약물실험 보고서 중 22개는 임상실험 결과 항우울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내용이어서 발표되지 않고 폐기됐다. 이와는 반대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37개의 보고서는 모두 발표되었다. 15

반면 오늘날과 같이 연구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대에는 조작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렵다. 컴퓨터에서 사진합성과 데이터삭제, 데이터추가 등이 더 쉬울뿐더러 그 흔적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양식과 철학이 없는 과학자들에게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맡기기가 더 불안해진 시대다.

2000년 9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생리의학자인 버몬트대학의 에릭 폴먼 교수는 자신의 노화 예방 치료의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연구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16 과학계, 특히 의학계에서 자료 조작은 너무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재정지원자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야만 연구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과학에는 철학이 빠져 있다. 자연은 진공을 만들지 않지만 인간은 진공을 원하는가보다.

록펠러재단의 압력에 의해 1992년에 미환경보호국(EPA)은 간접흡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자 담배업계와 양심적인 비주류 과학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결국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1998년에 연방법원은 간접흡연을 발암물질에서 삭제했다. 이런 논쟁 중에 하버드대학의 개리 허버는 "담배가 암, 심장병, 천식 등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과학적 증거가 약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주류 과학계의 허구를 고발하자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즉시 그를 해고한다. 17

하버드대학교는 록펠러재단 소유이고, 또한 PCBs, 다이옥신, 염소 등 독성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초거대 화학기업인 엑슨-모빌, 제너럴 일렉트릭, 몬산토, 듀퐁 등도 록펠러재단이 최대주주다. 1997년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대 조이너'의 사건에서 원고가 폴리염화비페닐(PCB)에 의해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원고가 장기 흡연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18

담배공포 사건은 50년 간 계속된,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과학자들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었다. 미국과학건강위원회는 석유, 화학, 핵업계로부터 돈을 받으며 거짓 과학을 설파했고, 건전과학진보연대는 담배업계로부터 돈을 받으며 거짓 과학을 설파했다. 양쪽 모두 상대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연구진행자들에 대해서까지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양 단체에 이중으로 관련된 사람이 많았다. 「미국과학건강위원회(ACSH)」 집행위원장인 마이클 폭스, 의장인 A. 앨런 모기시, 그리고 빅터 허버트, F. J. 프랜시스 및 다른 46명의 임원도 「건전과학진보연대(TASSC)」자문위원이었다. 그리고 또한 화학산업계도, 담배업계도 양 단체에 모두 자금을 지원해오면서 그들이 미리 짠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상호 비판의 강약을 조절해왔다.19

이런 시나리어에 의해 주류과학자들은 싸움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데는 치열했고, 반면 담배해악에 대한 연구의 허구를 알리는 데는 미진하게 진행하면서 담배공포를 키워나갔다.

집단사고가 한번 형성되면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기란 쉽지 않다. 집단은 오류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자료의 왜곡, 조작, 은폐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집단사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사고의 타당성은 이유로 작용하지 못한다. 담배공포의 거대한 집단사고는 시대의 조류가 되었고 정통 교리가 되었다.

소송의 종결

폐암이 발병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 과학자들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50배 높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조사방업을 교묘히 뒤섞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조사대상을 임의로 선택했다. 역시 반대편의 과학자들도 흡연과 폐암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방법을 바꾸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사람은 너무나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같은 식사, 같은 지역의 집, 같은 직장 등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해도 키, 몸무게, 성격, 질병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진다. 20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주로 담당하며 수임료로 14억 달러를 벌어들인 스크러

그스 변호사는 후에 다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1

그 후 2004년, 미국에서 있었던 담배로 인한 폐암 발생 환자들에 의해 제기됐던 담배소송에서, 리차드 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원고의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들을 제출한다. 결국 1심에서 수천 억 달러라는 거대한 손해배상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밝혀진 거짓 실험과 그의 행적들로 인해 2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로 소송은 끝을 맺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9월에 담배소송이 제기 됐으나 2007년 “폐암과 담배와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났고, 이어서 원고들은 항소했지만, 2011년 2월 15일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폐암과 담배와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상관관계(가능성)는 인정되지만 인과관계(과학적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보다 1년 전인 2006년 2월 2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담배의 니코틴 등이 발암물질이라고 해도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월등히 낮고,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지 중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22 담배로 원인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다.”는 주장을 부정한 판결이다.

2003년도에 타일러 환경부문상을 수상했으며, 20년 이상 산업에서의 암 인자를 연구해오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생리의학자인 리차드 돌(Richard Doll) 박사는 그 기간 동안 화학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아왔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다.”는 연구 결과를 수 없이 발표해왔던 리차드 돌 박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년 이상 거대 화학기업이며 유전자조작 작물로 유명한 몬산토사로부터 1일 1,500달러씩의 자문료를 받아왔음이 밝혀졌다.

그는 호주의 왕립학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출한 보고서에서, 몬산토에 의해 생산된 에이전트 오렌지(베트남전에서 미군에 의해 뿌려진 고엽제)의 암 유발 원인에 대해 “고엽제는 암의 원인이 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던 학자이다.

리차드 돌 박사는 WHO(세계보건기구)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대체적으로 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닐크롤라이드’는 간암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댓가로 화학협회와 다우(Dow)사 및 ICI(영국 석면회사)사로부터 15,000파운드의 수수료를 받았고, 그의 보고서는 10년 이상 화학물질 옹호를 위한 기초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인용되었다고 가디언지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가디언의 폭로로 리차드 박사의 명성은 무너졌고, “암은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담배에 주로 영향이 있고, 화학물질, 대기오염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를 추종하던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2005년도에 그가 죽은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웰컴 파운데이션(Wellcome Foundation) 도서관 내의 그의 개인 보관함에서, 1979년 5월 10일부터 1986년 4월 29일까지 수수료 계약에 대해 그가 자필로 서명한 몬산토와의 계약서가 발견됐다.

2006년 12월 8일.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

리차드 돌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다이옥신 피해소송에 대해 몬산토와 다우에 유리하게 증언해준 댓가로 거액을 받기도 하고, 1976년부터 2002년까지 몬산토로부터 일일 1,500 달러의 상담료를 받아왔고, 그 외에 석면회사인 터너 앤 뉴올(Turner and Newall)사로부터도 법정에서 석면회사에 유리한 증언을 한 댓가로 5만 파운드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 백과사전 Wikipedia의 Richard Doll에서

리차드 돌은 록펠러재단이 재정 지원했던 UN으로부터 1962년에 암연구상을, 2000년에는 역시 록펠러재단 산하의 몬산토가 재정 지원하는 유럽암학회로부터 공로 표창을 받았다. 또한 1971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몬산토의 후원으로 1969년부터 옥스퍼드대학교 생리의학과 교수로 특채됐다.

진실이 밝혀지다

1981년 6월에 돌과 그의 공동연구자 리차드 페토가 발표한 「암의 원인」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암의 주원인은 음식, 담배이며 유전적 요인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15퍼센트와는 달리 2~3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에 음식첨가제, 직업, 화학물질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암은 환경과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생활과 습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돌과 페토가 몬산토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연구했던 논문의 내용은 객관성을 상실한 조작된 연구였음에도 산업계와 주류 과학계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인용하면서 30여 년 간 절대적인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결과는 1996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1998년에는 리차드 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주장되었다. 돌과 페토의 연구결과는 200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00편 이상의 학술논문에 인용되었다. 같은 진영에 있는 주류 과학자들이 서로 인용하면서 권위를 높여줬던 것이다. 23

이렇게 해서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는 가설은 주류과학자들과 화학업계의 지원 아래 유행성 독감처럼 끝없이 번져갔다. 힐은 처음으로 통계를 의학 연구에 적용한 학자였다. 통계는 대중을 속이기 가장 좋은 학문이다. 이후에 통계로 인해 의학은 너무도 큰 악영향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힐도 인정한다. “모든 학문적 연구는 불완전하다. 그것이 관찰(통계)에 의한 연구든, 실험에 의한 연구든. 모든 연구는 지식의 발전에 의해 뒤집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배공포를 만들어 냈던 거짓 과학은 진실된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되어도 사라질 줄 모르고 끝없이 확산돼갔다. 거대한 부와 주류과학자들이 뒤를 받쳐줬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윌리엄 레이몽도 그의 저서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에서 “생활습관이 좋

았다면 암 10종 중 6종은 피할 수 있었다."며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암 전문가 리차드 돌에 의하면 70퍼센트를 좋은 음식 습관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며 돌의 연구를 무비판으로 인용한다. 그러면서 "폐암의 원인인 담배"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석면이나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24 참고로 돌이 주장한 '좋은 음식'이란 동물성지방과 같은 고지방을 피하고 트랜스지방과 같은 저지방과 유제품을 섭취하라는 말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간 FDA 국장을 역임하면서 몬산토의 성장호르몬, 유전자조작 동식물 등을 무더기로 승인해주며, 미국에서 "암의 원인은 담배"라는 담배공포를 조장했던 데이비드 A. 케슬러 역시 현재는 "과식, 고지방, 설탕, 소금이 모든 암을 포함한 질병의 원인"이라며 고지방, 설탕, 소금을 줄일 것을 주장한다.25

그러나 고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주장과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가설일 뿐이고, 설탕이 당뇨병 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몬산토가 생산하는 독극물 '아스파탐'을 홍보하기 위한 술책임이 밝혀졌다.

몬산토의 성장호르몬인 포실락을 투여하여 생산해낸 우유에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IGF-1)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이 약물은 조작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1990년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 포실락에 대해 몬산토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주류 과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인체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몬산토는 FDA에 압력을 행사해 자연산 우유와 성장호르몬 투여 우유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성장호르몬을 투여하지 않고 생산한 자연산 우유"라는 표식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우유에 대해 수입 금치 조치를 내린 이유는 미국산 우유에 IGF-1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도 LG생명과학이 자체 개발해 '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하고 있는 성장호르몬을 젖소에 투여해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음식이 대부분 암의 원인인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학물질, 방사능, 성장호르몬, 항생제, 대기오염 등이 원인이지 돌이나 케슬러, 레이몽이 주장하듯이 고지방과 같은 칼로리의 과다 섭취가 아니다. 비만의 원인도 대부분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성장호르몬과 화학물질이지 과식이 원인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리차드 돌이 「암의 원인」이라는 책을 통해 유방암과 결장암 등이 고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에서 흔하고, 고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일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일본에서는 위암이 많이 발생하지만 서구에서는 위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음식의 고지방이 암의 두 번째 원인이라는 결론을 너무도 쉽게 내려버렸다. 그는 또 다른 예로 코네티컷 주에서는 1백만 명당 60.2명이 췌장암에 걸리는데 인도에서는 1백만 명당 21명이 췌장암에 걸린다는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그 원인은 고지방 음식밖에 없다."고 역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유방암과 결장암을, 인도와의 비교에서는 췌장암만을 예로 드는 것이 과연 옳은 통계인가? 정확히 지적한다면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사기다. 대중의 관심을 합성 화학물질, 방사능, 성장호르몬, 항생제 등으로부터 고지방으로 돌리기 위한...

그도 고지방이 심장병을 비롯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가 하는 강연이나 인터뷰에서는 고지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담배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계를 이용한 그의 주장이 발표되고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암이나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브래들리 윌콕스가 10년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인 일본 오끼나와에서 연구한 결과, 화학물질과 가공식품,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농촌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반면 미군부대 근처에서 생활하며 화학물질과 가공식품, 항생제 등을 수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국인과 수명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에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해 서구인과 동일하게 화학물질, 방사능, 가공식품 등을 접하는 사람들도 수명이나 암 발병률이 미국인과 동일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과학으로 인해 1990년대 초까지 저지방인 마가린과 고과당 옥수수시럽은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고스란히 인류가 안고 있다. 저지방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우리 뇌의 60퍼센트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뉴런은 지방 성분의 보호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방은 우리 세포벽의 구성물이기도 하며 다양한 성분의 지방 비율은 포도당과 호르몬에서부터 미생물과 독소까지 모든 것에 대한 세포 투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양의 다양한 지방이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비타민A나 비타민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잘못된 과학이 오래도록 인류를 기만할 수 있었던 까닭은 현대의학에 대한 굳어진 신념이 하나의 신흥종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주류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이라는 두텁고 높은 벽이 그들의 잘못된 신념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쌓은 벽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오히려 그 벽으로 인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의학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르 파누는 돌이 암의 제2원인으로 고지방식사를 드는 것이 옳지 않음을 다른 예로 증명한다. “몰몬교도와 안식일재림교도들은 술, 담배를 금하고 전원에서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다른 하나가 있다면 몰몬교도는 고지방인 육식을 즐기는 반면 안식일재림교도는 육식을 금한다. 암의 원인이 고지방이라면 몰몬교도들에게서 암의 발병률이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두 집단 모두 암환자가 거의 없다.”고. 게다가 음식이 암의 중요한 원인이라면 음식 문화를 바꾸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구인이 일본식으로 음식을 바꾼다고 해도 유방암과 결장암은 피할 수 있지만 반면에 위암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26

정확한 지적이다. 두 집단이나 인디언 집단, 아프리카 등에서 암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화학물질과 성장호르몬, 가공식품 등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담배나 고지방으로 원인을 돌리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암이 주체할 수 정도로 증가하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독립 200주년이 되는 1976년까지 암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로 1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환자들의 삶은 특별한 효과가 없는 화학요법으로 더욱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은 채 암 정복에 처절한 패배를 맛본다. 인간이 달을 정복한 자신감으로 암도 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지만 잘못된 경로를 탐구했기 때문에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다. 대부분의 주류의학자들은 원인의 치료가 아니라 증상의 완화에 몰두했고, 그 진짜 원인에는 눈을 감은 채 엉뚱한 담배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암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병이다. 담배 수요량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그러

나 그 패배의 단 한 가지 이유는 화학물질의 증가이다.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줄이려는 의지 없이 암의 증상만을 항암제와 방사능요법으로 치료하려 했으니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다이옥신, 벤젠,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발암물질이고, 이 발암물질에는 안전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극미량에 노출되어도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암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그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현재에도 암 치료에 사용하는 고가의 항암제는 대부분 '바이러스 가설' 아래 개발된 특허약품들이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후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간유두종 바이러스'외에는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계 전체에 확인됐다. 간염 바이러스도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반면 종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2006년 까지 189개가 확인되었다. 너무 많아서 유전자를 이용한 암발생 위험률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종양 형성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요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말해준다. 결국 암치료 방법으로 수많은 치료법이 개발됐지만 1950년 이후 치료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27 치료에 성공한 암은 하나도 없다. 소아암에는 큰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과장일 뿐이다. 결국 전쟁에 투여됐던 막대한 예산은 주류의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이 독차지하고 전쟁은 막을 내린다.

DNA복제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1999년 버클리대학 생화학 교수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케리 멀리스는 "유전자는 암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방사선치료는 암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항암제를 무차별적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을 죽이게 될 약들을 복용합니다. 의사들은 악마입니다."라며 에이즈와 암을 조작하면서 권력과 부를 쌓아가는 주류의학자들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다.

항암제라는 독약이 주사를 통해 환자의 정맥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지 못하고 빠르게 증식하는 모든 세포를 죽인다. 때문에 피를 만드는 척수세포, 머리를 만드는 모근세포, 위와 장의 점막세포도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함께 죽인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백혈병에 걸리고, 머리가 빠지며, 소화 장애, 구토, 극심한 피로, 심장 손상, 고통스런 구강점막염 등이 따르는 까닭이 그 때문이다. 결국 화학치료를 받는 모든 암환자는 고통속에 점점 쇠약해진다. 암세포는 사실 죽지 않는 존재다. 적어도 세포인 숙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때문에 암은 수술한다 해도 반드시 재발한다.

서구인, 특히 미국인들은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치료를 하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전통의학이 '음식을 통한 치료'를 중시하지만 미국에서는 음식요법을 거의 무시하고 오로지 약물에만 의존한다. 록펠러재단이 만들어낸 환원주의 이데올로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약 없이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는 약물은 대부분 합성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경향은 미국을 추종하는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식 현대의학의 치명적인 오류다. 모든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법이지만 주류의사들은 부작용을 무시한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비만마저도 약으로 해결하려는 나라다. 스쳐 지나가는 부부간의 갈등도 정신병과 의사를 찾아간다. 우울, 당뇨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병으로 만들어 화학물질로 치료하도록 주술을 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로버트 S. 멘델존에 의하면 "현대의학은 죽음을 불러오는 새로운 종교"라고 말한다. 종교가 죄의식을 심어주어 신도를 자기 종교로 붙들어 매듯이, 현대의학은 병의식을 심어주어 자기 병원에 붙들어 매둔다. 28

결국 채식과 약초에 의존하는 전통의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1~2년 정도의 임상실험을 거치지만, 전통의학은 수천 년의 임상실험을 통해 부작용 없는 유효성이 확인된 방법이다.

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은 핵무기에 비유된다. 화학요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로 전쟁 중에 무차별 살포했던 독가스가 살아있는 세포들, 특히 위장관의 세포들이나 골수 그리고 림프계의 세포들처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죽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사들은 암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라는 사실을 들어 암세포를 죽이는데 강한 독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창고에 가득 쌓인 독가스와 그 원료들은 생산비도 저렴했다. 반면에 값싸게 생산한 항암제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고가로 팔 수 있는 수익재였다. 마침내 화학전쟁부 책임자였던 코넬리우스 D. 로즈의 지원을 받은 예일대학의 앨프래드 길먼과 루이스 굿맨이 국가기밀인 '질소머스터드' 독가스를 이용해 처음으로 암치료를 시작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암과의 전쟁' 이후 어떤 성과라도 거두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암치료용 화학제들이 암세포를 줄인다는 작은 결과만 나와도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실적 위주의 조급함은 임상실험을 조작했어도, 커다란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의사는 특정암이 전신에 퍼져있던 자신의 환자가 사망한 후에 부검한 결과 암세포가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그 환자가 화학요법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숨긴 채.

항암제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사이클로포스마이드'는 독가스에서 개발한 약으로 위장, 심장, 폐, 혈액을 손상시킨다. 또 다음으로 많이 처방되는 '시스플라틴'은 중금속인 플라티늄에서 추출한 약제로 신경, 콩팥, 골수를 손상시켜 전신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호지킨병을 치료하는 '메클로레타민'은 역시 강독성 독가스로, 이들 약제로 치료하는 의사는 조금이라도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하는 약제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피부에 닿으면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강독성이다. 이 같은 강독성 화학물질을 투여받는 환자는 운이 좋아 호전되어도 몇 개월 후에는 다시 더 나쁜 악성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1999년에 영국의 의학전문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발생한 암으로 화학치료를 받고 3년간 생존한 13,000명의 환자가 결국 모두 골수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특정암을 치료해서 당장에는 다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얼마 가지 않아 더 나쁜 암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29 독가스, 중금속 등 화학물질로 만든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의 부작용 때문에...

과학자들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부작용을 치료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모든 암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전립선암은 정상세포보다도 느리게 분열한다. 때문에 독가스로 만든 화학물질은 암세포는 그대로 두고 정상세포만 파괴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1977년 제네카 제약회사가 '놀바덱스'란 이름의 타목시펜 계열 항암제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았을 때 FDA 대변인은 "전 세계 여성들의 유방암을 45퍼센트나 줄여준다. 이제 수천 만 명의 여성은 타목시펜 계열의 항암제를 복용하면 된다."라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광

고를 대신 해줬다. 그러나 20년도 되지 않아 확인된 사실은 화학물질로 제조된 타목시펜이 유방암을 예방해 줄 확률은 1.7퍼센트에 불과하고, 반면에 자궁암, 유방암, 뇌졸중, 골절 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은 제네카의 모기업인 '임페리얼'사는 각종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살충제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굴지의 회사라는 것이다. 모기업은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자회사인 제네카는 효과 없는 타목시펜으로 역시 연간 수 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3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4월 현재까지 놀바덱스가 병원에서 쉽게 처방되고 있다. 항암제는 일반 약제보다 고가로 판매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적인 초거대 제약회사인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유전분야 부책임자인 앨런 로즈는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글락소를 포함하여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은 50퍼센트 이상의 환자들에게 질병치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알츠하이머나 암환자의 4분 3 이상에게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강독성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다. 「뉴 사이언티스트」도 "오늘날 의학에서 이용되는 시술의 80퍼센트가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고 지적한다. 31 그럼에도 암에 걸리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주류의사는 항암제와 방사선치료라는 정해진 코스로 유인하는 까닭은 현대의학이라는 종교를 그냥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환자는 의사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이다. 강독성 항암제와 방사선치료로 대표되는 화학요법은 암세포가 아닌 인간 몸 자체를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한 비율은 2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그것도 초기 단계에 발견한 경우뿐이다. 60퍼센트의 5년 생존률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선전일 뿐이다.

때문에 암환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다. 화학요법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안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 기관들을 파괴하면서 면역체계를 무너뜨린다. 그 결과 감염, 설사, 탈모, 구역질, 출혈, 배뇨시 통증 등 극심한 고통을 환자에게 안겨준다. 그리고 주변에 새로운 암을 일으킨다. 결국 병원치료를 받은 암환자는 면역체계가 전부 파괴되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암환자는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르몬은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하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을 지배한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도 한다)은 호르몬이 아닌 화학물질이 천연호르몬을 모방하여 호르몬의 균형을 깨거나 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한다. 천연호르몬은 1ppt(1조분의 1)정도의 극미량으로 인체 내에서 신호를 전달해 주고 바로 사라지지만 환경호르몬은 훨씬 많은 양이 우리 몸에 오래도록 잔류하면서 호르몬 역할을 교란시킨다.

로체스타 의과대학의 토마스 A. 가시에비치는 환경호르몬의 기능에 대해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한다. "호르몬은 전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에 전등을 켰다가 꺼야 합니다. 하지만 접속 부분에 다이옥신, PCB 같은 환경호르몬이 붙어있으면 아무리 끄고 싶어도 스위치를 끌 수 없어 하루 종일 전등을 켜둘 수밖에 없습니다. 전등이 꺼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전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생식이나 생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32

천연호르몬은 주어진 역할을 한번 수행하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은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지방층에 축적되어 오래도록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 작용을 한다. 환경호르몬이 끔직한 까닭이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방암학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증가속도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가율은 연간 6.8퍼센트로 세계 1위라고 한다. 2008년 현재 아직 미국에 비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증가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구식 생활습관, 특히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가공식품과 약물질, 조기발견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X선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 등 방사능물질, 개발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대기오염 등이 원인이다.

특히 유방암은 한창 여성의 자기 삶을 시작하는 40대에 집중해서 발병한다. 영국의 의학전문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먹는 피임약은 유방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특히 36세 이하의 젊은 여성에게 유방암이 발병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97퍼센트가 먹는 피임약이라고 한다.33 피임약은 대표적인 합성호르몬제다.

축적된 합성화학물질과 성장호르몬, 방사선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유방암은 주로 40대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이뤄진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여성의 DNA에 이상을 일으킨 까닭이다.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약물복용을 최대한 줄여 화학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가능한 한 적게 들어오게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소식이나 주기적인 단식으로 체내의 화학물질을 배출시키는 것뿐이다.

암은 세포분열의 한 현상이다. 천연호르몬은 신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세포가 분열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고, 분열과정에서 DNA 등에 이상이 생긴 세포는 스스로 자살하도록 신호를 보내는데(이런 현상을 세포자살이라고 하며, 정상적인 면역시스템의 작용이다), 환경호르몬은 세포의 이상분열을 촉진시키고 또 DNA에 이상이 생긴 세포도 자살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암세포는 세포자살 없이 끊임없이 분열한다.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이라는 기준은 허구다. 화학물질은 극미량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방층에 축적된다. 따라서 계속해서 축적되어 결국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u>"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u> 이것은 몬산토의 슬로건이다.

암의 제일 원인은 '노화'이고, 두 번째 원인은 화학물질이다. 결국 노화로 인한 암의 발병은 삶의 한 과정일 뿐이므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노화가 아닌 젊어서 발병하는 암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u>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학물질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u>

미국 암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 270만 명과 같은 기간에 새로 암 진단을 받은 83만 명 중에서 거의 50퍼센트에 달하는 사람이 34세 이하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FDA의 승인을 받은 항암제 중에서 5분의 4는 약제로서의 효능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런 약이 퇴출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암환자는 제약회사와 주류의사에게 가장 큰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일원인 에어론 블레어는 "과학자들이 설령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찾았다 해도 그것의 사용을 금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그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이윤이 달려 있기 때문이란 얘기다. 반면 다이옥신은 미국에서 오래 전에 이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돌과 함께 암의 원인을 연구해온 옥스퍼드대학교의 리처드 페토는 2005년 12월 13일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다이옥신을 포함해 합성화학물질은 암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모든 암은 담배와 유전자에 의해 발병한다."고 말한다. 34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을 피할 수는 없다. 대기, 수질, 음식, 건축물, 의약품, 옷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것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95퍼센트는 음식을 통해 들어온다고 한다. 성장호르몬, 항생제, 플라스틱, 방사선 등.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화학물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식이다.

야채나 과일 등 식물에는 의약품이나 가공식품에 비해 화학물질이 적게 들어있다. 게다가 식물에는 아스코르빈산, 폴리페놀 등 암을 예방해 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연구에 의하면 흡연하는 채식주의자가 금연하는 일반인(가공식품을 즐겨먹고 약에 의존하는)보다 80세까지 살 가능성이 80퍼센트나 높다고 한다. 또한 채식을 하는 흡연자가 일반인(가공식품을 즐겨먹고 약에 의존하는) 일반인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50퍼센트나 낮다고 한다. 미국 암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콜린 캠벨이나 암치료로 유명했던 S. J. 호트 등은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채식만으로도 암, 심장병, 만성질환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35

진짜 발암물질

현재 우리가 각종 가공식품이나 가공원료를 통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첨가제는 '프로필렌글리콜'이다. 이 물질은 식품을 촉촉하게 해주고 다른 화학첨가제를 식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용해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첨가제다. 이 첨가제는 석유의 탄화수소를 변화시켜 만드는 화학물질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화장품, 부동액, 왁스 등 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전 세계가 철저히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식품첨가물은 소르빈산과 사카린이다. 이 두 물질 역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화학합성물질이다.

비타민C는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미량영양소로 항암작용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가공식품의 방부제로도 쓰이는 물질이다. 문제는 우리가 영양제로 섭취하는 비타민C나 가공식품에 방부제로 쓰이는 비타민C가 과일 등 천연에서 얻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일그러진 자본주의는 비타민C를 자연에서 얻지 않고 더 큰 이윤을 위해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합성 아스코르브산으로 대체했다.

콜타르에서 추출된 비타민에 화학색소, 방부제, 염색제, 코팅제, 기타 여러 가지 화학첨가제를 넣으면 비타민C로 둔갑한다. 1933년 비타민을 화학적으로 합성해내는데 성공한 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비타민C의 대부분을 뉴저지 주에 있는 호프만-라로슈 소유의 너틀리 공장에서 생산하다가 현재는 중국이 80퍼센트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합성비타민은 천연비타민이란 라벨이 붙어 판매된다.36

예컨대 빵, 과자 등이 불그스름한 색을 띠어 먹음직스럽게 되는 현상은 합성 아스코르브산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판매용 새우가 선명하게 색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합성비타민C 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합성비타민B는 리보플라빈이란 이름으로 주로 푸딩, 치즈, 수

프, 과자 등 가공식품의 색을 내는 첨가제로 쓰인다. 합성비타민A는 베타카로틴이란 이름으로 오렌지색을 내는 첨가제로 쓰인다. 이 같은 합성화학물질을 식품첨가제로 투여하고 '천연비타민 첨가'라는 선전 문구를 부착해 판매한다. 비타민 환상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합성비타민이 첨가된다. 그리고 보충제로 또 합성비타민제를 섭취한다. 37 비타민 홍수 시대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섭취하는 비타민이 모두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합성비타민이라는 사실이다. '천연'이라는 말은 선전문구일 뿐이다. 또한 고일 등에서 농축하는 방법으로 비타민, 섬유소 등과 같은 특정 성분을 추출하려면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야만 추출이 가능하다. 결국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물질에는 천연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분자식만 같을 뿐 합성비타민은 가짜다.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발암물질로...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비타민도 합성비타민이다. 합성비타민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다. 따라서 인간이 접해보지 못한 물질이어서 인체에 들어오면 독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비타민은 미량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미량이다. 이 정도의 필요량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2003년 5월, 영국 정부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많이 복용했을 때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38

마가린이 인체에서 독으로 작용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수소분자가 섞인 식물성지방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식물성지방은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영양분이지만 거기에 화학처리를 해서 수소분자를 집어넣은 마가린에서는 트랜스지방이 생성되는데 이는 인간이 진화과정을 통해 접해보지 못한 물질이다.

트랜스지방은 인체가 좋은 콜레스테롤인 필수지방산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반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혈중농도를 높인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피의 흐름이 지장을 받아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 독이다. 마가린은 식물성지방이 아니라 화학물질인 독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항암작용을 하는 것은 감귤, 채소 등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아니다. 비타민C만을 과일 등에서 추출해내면 그것은 독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합성비타민은 더욱 끔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뮌헨대학의 권터 볼프람은 "과일과 야채가 몸에 좋은 이유는 단지 그 안에 함유된 각각의 물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자연의 성분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연의 물질은 1만 가지가 넘는데 과학이 밝혀낸 것은 4천 가지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는 거의 알아낸 것이 없다고 한다.

주류과학자들이 담배의 해악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 다이옥신, 벤젠 등 100여 가지 발암물질이 담배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트로사민은 가공육의 방부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아질산염'이 단백질 분해산물인 아민과 고온에서 결합될 때 다량 생성된다. 니트로사민은 담배에서만 발생하는 물질이 아니라 방부제가 첨부된 모든 가공식품이 연소될 때 발생한다.

또 다른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역시 모든 자연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자연물질이 탈 때 나오는 다이옥신의 양은 화학물질인 플라스틱을 태울 때, 화학물질인

염소로 표백할 때, 또는 역시 화학물질인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에서 발생하는 양의 1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니트로사민이나 다이옥신, 심지어 방사능도 자연에는 극히 미미한 양으로 존재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정도의 양은 수십 억 년 간 인류가 진화하면서 적응해 왔다. 현대에 이런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의 조화를 벗어날 정도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생명체가 섭취하기 때문이다. 니코틴, 타르도 역시 자연에는 미미한 양으로 존재한다. 실험실 동물에게 니코틴이나 타르만을 별도로 추출해 다량 투여하면 당연히 암세포가 형성된다. 그러나 담배 또는 자연물질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니코틴이나 타르를 섭취하는 양은 실험실 동물에게 투여되는 양의 1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의 조화이다. 자연물질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은 이미 인간이 적응해온 양이다.

반면 공기 중에서 산소만을 빼내면 독이고,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순수한 산소만을 많은 시간 들이마시면 인체 내에서 유리기로 작용해 폐렴으로 폐 조직을 손상시켜 더 이상 공기 중에서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암세포를 유발하며 증식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광합성작용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은 치명적인 발암물질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항산화제인 비타민C와 폴리페놀, 리코펜 등을 함께 만들어낸다. 야채와 과일에 항산화제가 풍부한 까닭이 이 때문이다.

또한 일산화탄소만을 빼내도 독이다. 그러나 일산화탄소가 생명에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질소 75퍼센트, 산소 20퍼센트, 기타 5퍼센트로 자연의 조화를 이룬 상태의 공기로 흡입하면 아무런 해가 없다. 반면 자연의 조화가 깨진 상태로 산소가 많이 섞여 있는 과산화수소수는 인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또한 소금(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이나 염소만을 별도로 빼내면 독이고 발암물질이다. 나트륨은 가공식품에 주로 방부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로 사용되기도 했던 염소는 표백제와 살균제로 주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산소가 독이라고 해서 물과 공기를 독이라고 하거나 염소 또는 나트륨이 독이라고 해서 소금을 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금은 비타민O라고 불리는 미네랄의 일종이다.

미네랄은 소량이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타민이 암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고 해서 과다섭취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다. 그러나 환원주의에 젖은 과학자들은 분자 단위의 성분을 분석해 실험한 후 독성이 발견되면 그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물질까지 독이라고 오해한다. 카페인으로 실험한 결과를 커피로 발표하는 것도, 나트륨으로 실험하고 소금으로 발표하는 것도 그런 예이다. 커피는 자연물질로 우리 몸에 유용하지만 커피에서 카페인만을 따로 추출하면 당연히 독이 된다. 자연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다.

반면 비타민이 유용하다고 해서 비타민만 별도로 추출해 섭취하면 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필요한 영양분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수많은 음식 속의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석유에서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 만든 물질들은 모두 독이고 발암물질이다. 이것이 환원주의 과학의 오류이다. 분자로 교육받은 과학자들은 전체를 볼 줄 모르는 한계에 직면해있다. 생명체를 유전자로 분석하듯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독은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미신이다. 이러한 미신은 서구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특히 심하다. 이러한

미신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라는 폭탄을 집중 쏟아 붓는다. 의약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질병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데도 말이다. 항생제로 세균은 박멸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한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폭탄을 쏟아 부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체의 해로운 세균과 바이러스에 내성만 생기게 해서 작은 질병에도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담배에 들어있는 비닐 크롤라이드,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등 발암물질은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 화학물질을 경작과정과 제조과정에서 들어가는 물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암물질은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도 동일하게 함유되어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이옥신 양의 1만 배 이상이 화학물질에서 나오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다이옥신,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아스파탐, 항생제, 성장호르몬 등 치명적인 발암물질의 95퍼센트가 음식 또는 프라스틱 그릇에 첨가된 화학물질을 통해 섭취된다. 주로 가공과정에서 맛, 색, 냄새, 향 등을 좋게 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음식 한 가지 당 평균 200종류의 화학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음식, 공기만이 아니다. 각종 의약품도 대부분 화학물질로 만들어지며 제대로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의약품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거의 맹종하다시피 한다.

그러나 FDA의 승인기준은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스스로 자기비용과 노력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FDA는 단지 서류검사만을 실시한다. 후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야 승인취소를 하고 시중의 남은 의약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윤을 지상과제로 삼는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임상실험이 양심적이고 과학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 세계에서 의료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USA 투데이」2000년 9월 25일자 기사에는 "FDA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행해진 159회의 신약 승인을 위한 안전성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이 제약회사의 관계자인 경우가 88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전체의 92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39

이렇게 통과된 의약품이 제대로 약효를 발휘하기란 생각하기 힘들다. 의약품을 승인하고 규제하는 기관인 영국의 의약품건강상품규제국(MHRA)은 운영비의 100퍼센트를,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55퍼센트를 제약업체로부터 받아 충당한다. 규제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산업체가 지불하는 꼴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컨대 관절염 진통제인 머크사의 '비옥스'와 화이자사의 '셀레브렉스', '벡스트라'가 심장병 등 각종 후유증 피해자를 발생시키자 많은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FDA에 대해 시판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2005년 2월 20일, FDA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는 이유로 17 대 15로 시판을 계속 승인했다. 그런데 시판을 찬성한 17명 중 9명은 두 회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문위원이었다.

비옥스를 8개월간 복용하다가 부작용으로 2001년에 사망한 밥 언스트(당시 59세)의 유족에 대해 2005년 텍사스 주 법원이 2억 5,34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포함해 머크사는 미국에서만 4,0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렸고 소송비용으로 18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약은 아직도 미국에서 계속 처방되고 있다. 40 진통제인 비옥스, 셀레브렉스,

벡스트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널리 처방되고 있는 약이다.

2004년 우리나라 식약청은 콘택600, 코리투살, 지미코정 등 일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약국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가 일체 중단되고 시중의 남은 약을 모두 회수한 사건이 있었다. 이 약들에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페놀프리판올아민(PPA)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이 성분은 이미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비만치료제, 감기약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환자들에게 뇌졸중,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등 중대한 부작용이 확인되어 2000년에 사용 금지된 약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청은 제약회사에 자발적으로 판매금지하도록 요청만 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더욱 문제되면서 결국 4년 후에 금지조치를 내린다. 41 이런 상황에서 이미 10년 이상 제약회사를 믿고 이를 복용해온 환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당뇨병 치료제 '리줄린'은 화이자에서 생산하는 약이다. 1996년 6월부터 4,000명을 상대로 실시된 임상실험에서 많은 환자에게서 간기능저하 현상을 발견했다. 그러나 제럴드 올리프스키, 리차드 이스트만 등 화이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주류 과학자가 주도한 이 임상실험은 연구 결과를 조작해 결국 1997년 1월 FDA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위한 투표에서 리줄린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존 게리귀언, 로버트 미스빈 같은 비주류 전문위원들은 투표에서 배제됐다. 승인을 받자마자 대대적인 광고와 FDA의 지원으로 이 약은 블록버스터 약이 되어 2년 만에 10억 달러 어치나 팔렸다.

반면 영국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간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시판 1년도 되지 않은 1997년 12월에 이 약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도 귀를 막고 이를 무시하다가 마침내 1988년 12월까지 33명이 리줄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는 공식 보고서가 제출되어서야 재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1999년 3월 26일에 실시된 투표에서 11 대 1로 시판을 계속 승인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명 중 10명이 화이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자문위원이었다. 그 후 1년이 지나면서 30명이 더 리줄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자 결국 2000년 3월에 이 약은 미국에서도 금지된다. 2003년 3월 현재 리줄린 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9,000건이 넘어섰다. 42 리줄린 역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처방되고 있다.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제약업체가 규제기관을 운영하는 꼴이다. 특히 미국에서 이런 비합리적인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항우울제인 '프로작'이나 유산방지제인 'DES'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여론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때까지 대중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돈을 추구하는 일그러진 자본주의의 모습이 미국의 실체다.

지금도 '규제완화'와 '사적 재산의 절대적 존중'이란 유령이 희미한 안개가 되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미국 청교도 사상이 만들어낸 이 유령은 인류의 눈을 가리고 가슴을 얼게 한다. '돈을 향한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지는 이 브랜드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그에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각종 질병, 자살률, 살인률, 정신질환자, 빈부격차 등에서 세계 제일의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교도소마저도 민영화했다. GEO그룹과 CCA그룹이 미국 교도소의 대부분을 운영한다. 이들 역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다. 따라서 그들은 수감자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 폭행 등으로 폭동을 유도하기도 하고(수감자들의 형을 늘리기 위해), 수감자 수

를 늘리기 위해 형법을 엄격하게 개정하도록 로비를 하기도 한다. 43 범법자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이윤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 비례 범법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볍게 처리될 사건도 미국에서는 거의 교도소행이다. 물론 흑인과 이민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영국의 화학물질 전문가인 베일리 헤밀턴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신체는 화학물질의 공격에 보호되도록 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 조직은 일단 체내에 들어온 화학물질을 대부분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층에 축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화학물질에 영구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고 한다. 44 화학물질은 갑자기 현대에 나타난 새로운 물질이므로 진화과정을 통해 인류가 적응하지 못한 까닭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체내에 축적된 화학물질은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기업에 의해 조종되는 환경보호국(EPA)에서도 살균제의 90퍼센트, 제초제의 60퍼센트, 살충제의 30퍼센트를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취급하며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화학업계의 입김을 의식해 살충제가 암을 일으킬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확률면에서 1백만분의 1이라면 제로나 다름없는 수치다.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막힐 확률을 일반적으로 100분의 1이라고 한다. 45

각종 암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화학물질이 늘어나고, 음식에선 다양한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유전자조작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음식을 접하게 되는 등 모든 면에서 자연의 조화가 깨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값비싼 암치료제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라보며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지만 아직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에는 멀기만 하다. 과학자들은 뿌연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한다.

항암치료에 따르는 고통을 고려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도 ‘글리벡’(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연간 구입비는 3천 만 원에 달하고, ‘아바스틴’(결장암과 대장암 치료제)의 경우 5천 만 원에 달한다. 반면 통계에 의하면 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높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특히 높다. 46 중산층 여성이 병원을 가장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다.

5장. 담배와 에이즈로 덮으려 했던 것들

폐암을 포함한 각종 암은 화학물질과 화학의약품 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194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난 병이다. 아황산가스, 벤조피린, 납, 크롬, 석면, 카드뮴, 다이옥신, 비스페놀A, 니켈, 나프탈아민 등 폐에 치명적인 성분들이 공기, 음식, 물 중에 포함되어 폐로 흡수, 이것이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해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킴으로써 폐암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창 담배가 폐암을 비롯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며 공포를 몰아가고, 그 공포가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1980년대 초반은 광우병과 유전자조작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등장하고, 영국에서는 대처가 등장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부패는 깊어가고, 기업에 대한 특혜가 쏟아져 나오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축소되고, 규제는 철폐

되고, 세금은 줄어들고...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보수로 회귀하며 사회는 온통 잿빛으로 덧칠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레이건은 취임하자마자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원인은 나무다.”라며 대기오염의 문제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경청과 식품의약국 등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하고 그 중 일부는 주류인 친기업형 인사들로 교체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감세 등의 교리를 갖추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종교가 전파되는 데는 공포가 가장 효율적이다. ‘천벌’, ‘사후지옥’, ‘마녀사냥’, ‘종교전쟁’ 등 모든 공포를 동원할 때 종교는 성공적으로 전파된다. 칼뱅의 극단적인 종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도 강경한 종교재판을 통해, 근세에 들어오면서 폐기됐던 화형제도를 스위스와 미국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초기에 신학교로 시작했던 하버드대학에는 지금도 화형제도 박람관이 남아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데도 공포가 필요했다.

게다가 1980년대 초부터 오존층 파괴, DDT 등 화학농약의 위험성 등 생태계문제는 매일 매스컴을 강타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양심적인 비주류 과학자들에 의해 폐암 등 각종 이 주원인이 합성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40년대부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암이 집중적으로 발병하기 시작했다. 특히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이 모유를 통해 질병의 유발인자를 그대로 아기에게 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학물질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화학업계를 장악하고 있던 록펠러재단은 거대하게 일어나는 ‘진실의 해일’을 담배공포만으로 막아낼 수는 없었다. 진보주의자들이 입을 벙긋하지 못하게 할 또 다른 거대한 공포가 필요했다. 그것이 에이즈공포였다. 그 대상이 동성애자, 흑인 등이었기 때문에 미국인의 감정에 깊이 새겨져 있는 청교도 사상과도 일치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이 삭제되면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의 자유를 주장하며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확대해 가던 시기였다.

인간광우병

1985년 4월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광우병(사람에게 발병하면 인간광우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고 한다)은 초식동물에게 성장호르몬과 고기사료를 투여함으로 생긴 변형된 프리온이 원인이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들어낸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소가 빠르게 성장하자 소에게는 단백질과 지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초식동물에게 고기사료를 투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목축업자들은 지금까지 폐기물로 처리하던, 질병에 걸려 죽은 가축이나 뼈, 가죽, 피, 머리 등 인간이 식용으로 하지 않던 것들을 갈아서 사료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실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죽은 동물까지도 갈아서 사료에 포함시켰다. 결국 광우병은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교리에 따라 ‘끝없이 돈을 좇는 탐욕’을 부추기면서 자연의 조화를 거스른 결과였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광우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도 영국 정부는 “종의 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며 10년 이상을 은폐해 왔다.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자 1996년,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음을 공식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세계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이 프리온이 다른 생명체로 옮겨가 역시 단백질 분자인 정상 프리온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온은 뇌세포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로 인간에게 병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항산화작용을 해서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준다. 다만 이 프리온이 변형되면 광우병을 유발시킨다. 특히 변형 프리온이 치명적인 이유는 발병하기 전에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 미리 병을 감지할 수도 없고, 잠복기간도 20년 이상으로 길며, 발병 후에는 어떤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걸리면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병이다.

변형 프리온은 섭씨 740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단백질 분해 효소로도, 포름알데히드 등 어떤 약물로도, 심지어는 방사선으로도 파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이 변형 프리온이 얼마나 퍼져 있고, 어떻게 존재하며, 우리 몸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다. 현재까지 인간이 알아낸 프리온의 정보는 유전자도 없고, 번식하지도 않으며, 생명력도 없고, 진화하지도 않으며, DNA도 없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아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형 프리온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아는 방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프리온이 인간 몸에 전염되어도 염증증상이나 면역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1]

그러나 미국에서는 광우병환자가 아직까지 단 세 명밖에 보고된 적이 없다. 반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과 알츠하이머병(치매)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쇠고기를 먹고 발병한 것인지 역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발성'이란 새로운 분류군을 만들어 인간광우병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쇠고기가 원인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1998년까지 발생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산발성이어서 쇠고기를 먹고 발생하는 광우병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식 분류법이고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알츠하이머병 등, 이 세 가지 병은 전신마비, 정신이상, 사망이라는 동일한 증상을 나타낸다. 광우병인지, 알츠하이머병인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를 부검하는 방법뿐이다. 뇌를 부검해서 스폰지 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광우병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알츠하이머병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대부분 떠난 자의 뇌를 부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에서 부검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광우병은 국가와 산업체, 주류 과학자들에 의해 쇠고기와 관련이 없다(변형 프리온이 원인이 아니다)며 다른 병으로 철저히 숨겨지고 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979년에 653명, 1991년에 13,768명, 2002년에 58,785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2003년 현재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450만 명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인간광우병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며 죽어가는 환자가 매년 8,000명에 달한다. 미국 인도주의자원연구소(HRI)의 2003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인간 광우병에 걸린 환자는 1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광우병환자가 공식적으로 발견된 경우는 없다. 다만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는 13만 8천명으로 집계됐다. [3] 비공식자료에 의하면 6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급증하는 것 사이에는 무언가 숨겨지는 듯하다.

고기 소비량이 급락하면서 영국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던 1998년, 영국 보건당국은 “안전한 고기 소비 수준은 하루에 2인분이 아니라 3인분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광우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주류 과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사실을 은폐한다. 4

이어 ACSH 회원 과학자들은 산 마테오 타임스 1997년 8월 1일자 기사에 “야채의 시절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그리고 1998년 1월 2일자, 애그리 뉴스에는 “미국인이여, 마음껏 고기를 먹어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다. 이어 이 단체는 2003년 12월에 홈페이지와 소책자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관리법을 발표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류독감, 광우병 등 발병위험이 미미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에이즈를 막기 위해 섹스를 금지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된 금연을 하는 등 중요한 일에 관심을 두십시오.”라고 촉구한다.

그리고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처음으로 발견되고 얼마 후에 농무성 대변인인 앨리사 해리슨은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니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는 주류 과학자들의 연구를 근거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리슨은 목축업협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오프라 윈프리가 “이젠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자 그녀를 격한 어조로 비난했던 그였다.5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75퍼센트는 질병으로 죽거나 실험용으로 사용했던 소, 양, 돼지, 닭 등 가축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했다. 동물보호소로부터 구입한 수백만 마리의 죽은 고양이와 개 등 애완용 동물 역시 사료로 사용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하는 성장호르몬도 투여한다.

이후 광우병의 원인이 동물사료와 성장호르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에게 동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나 FDA는 ‘반추동물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완화시킨다. 목축업자들의 로비의 결과였다. 그 결과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돼지, 닭, 애완견 등의 사료로 사용하고 반면에 이런 사료를 먹고 사육되는 돼지, 닭, 애완견 등의 폐기물을 소에게 투여하는 것은 합법이다. 동물의 60퍼센트 정도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머리, 가죽, 뼈, 피, 내장 등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를 갈아서 사료로 사용하면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6

인류의 건강보다는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모든 가치의 앞 순위에 있는 청교도식의 발상이다. 광우병은 전적으로 규제완화에서 시작된 재앙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도축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 즉 100퍼센트 검사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과 2010년에 전면 수입 허용 조치를 내렸다. 도축하거나 수입하는 소에 대해 0.5퍼센트만 검사하기로 하고...

그러나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가 지지부진하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에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해줄 것을 비밀문서로 요청하기도 하고, 2011년에는 구제역을 과장시켜 전국의 소, 돼지를 대량 도살하기도 한다.7 결과적으로 현재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산 고기가 범람하게 되면 그만큼 광우병에 걸린 위험이 커진다.

반면 축산 강국인 미국에서는 한 해에 3,5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지만 도축 전에 광우병 검사를 하는 비율은 0.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눈으로 확인해서 기립불능일 때만 검사한다. 그러나 영국의 시민단체인 ‘위치’가 2007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6

년~2007년 상반기까지 외관상 광우병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도축된 1,120만 마리의 소 중 142마리가 광우병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에서 대중의 관심을 담배공포와 에이즈공포로 돌리며 광우병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1996년 3월 20일자 '데일리 미러'지는 "우리는 이미 100만 마리의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왔다."는 특종기사를, 이어 2004년 4월 21일자 '인디펜던트'지는 "과학자들은 숨어있는 광우병을 두려워한다."는 특종기사를 내보내며 광우병이 정치와 산업의 합작으로 덮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 2005년 7월 16일자 AP 통신에 따르면 "일본 농무부가 시행한 연구에서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 스무 마리 중 아홉 마리는 미국의 경우라면 그대로 시판되었을 것이라는 결과도 나온다.8

광우병이 인간을 더욱 공포로 몰아가는 까닭은 그 전염경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수술실을 통해서도, 수혈을 통해서도, 육식을 통해서도, 심지어 왜소증환자가 처방받는 성장호르몬을 통해서도 전염된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광우병 소와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견되지만 주류 과학자들의 담배공포와 에이즈공포 분위기에 묻혀 광우병에 대한 위기의식은 대중으로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즈음에 영국의 리차드 레이시 교수는 "한 세대 전체가 광우병으로 인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 하지만 이런 기사에 눈을 돌리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1990년 5월 18일, 타임스에 의하면 "영국산 쇠고기는 보건기구의 확언대로 누가 먹어도 안전합니다."라는 영국 농수산부장관 존 검머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자신의 딸인 코델리아에게 햄버거를 먹으라고 권하지만 그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날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라는 축산업계의 광고가 실린다. 그 후 7년이 지난 2007년, 검머의 절친한 친구 로저 스미스의 딸인 엘리자베스 스미스는 21살 때 인간광우병에 걸려 23살에 사망한다. 반면 검머는 보수적이고 부패한 정부에서 1993년까지 농림부장관을, 이어 1997년까지 환경부장관을 맡는다.9

지금도 인간 광우병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 축산 대국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우병 관련 사망자수가 공식적으로는 적더라도 얼마나 많은 가축이 광우병 인자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광우병에 감염되었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다. 2001년 2월 4일자 「런던 타임스」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육류를 처리하는 영국 최대의 업체인 '프로스퍼 드 밀더'사가 도살하여 만든 가축사료를 이스라엘, 일본, 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70여 개 국에 수출해왔음을 폭로했다.10

상상의 전염병 에이즈

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은 1985년에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기 1년 전에 미국에서 에이즈공포를 퍼뜨린다. 이때는 강경 보수주의자이며 동성애에 극도로 적대적이던 레이건 시절로 경제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세계화 전략이, 정치에서는 냉전의 강화를 이념으로 하는 '스타워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던 시기였다. 식품산업에서는 광우병, 유전자조작, 성장호르몬, 아스파탐, 방사선조사 등으로 인류가 먹거리에 우려를 표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화학물질로 인한 생태계파괴 문제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줄줄이 표면으로 부상했고, 이란 혁명으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던 때이기도 했다.

온통 전 세계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던 시기였다. 이 새로운 변화의 특징은 모든 부문에

서 ‘진실’이 아닌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그 이후로 현재에도 주류의 ‘어떤 특정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 풍조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양신적인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상황과 유사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수 강경주의자들은 ‘빅 브라더[28]’인 록펠러재단을 중심으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대중의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었다. ‘1984년!’ 조지 오웰의 예언이 적중하던 해였다. 텔레스크린을 장악한 빅 브라더는 인류의 의식을 개조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사기극의 시작이었다. 이 사기극은 파도의 끄트머리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 강경파들의 지원과 상업적 기업, KKK단 등 근본주의 기독교단체, 액트업 등 강경파 단체들이 펼쳐갔던 ‘끝없는 돈과 권력의 탐욕’을 향한 전쟁이었다.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전쟁. 빅 브라더가 전쟁을 일상화하듯이, 보수 강경주의자들은 냉전과 함께 ‘담배와의 전쟁’, ‘에이즈와의 전쟁’을 엮어가며 대중의 의식을 옭아맨다. 일상적인 전쟁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는 ‘미친 소’에 대해 몇 년간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다가 AIDS 공포를 먼저 일으킨 후에 광우병의 실체를 공개한 것이다. 1981년 7월 3일자 ‘뉴욕타임스’는 로렌스 K. 알트만 기자가 쓴 “41명의 동성애자들에게서 희귀암 발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희귀암이 얼마 지나서 에이즈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AIDS 공포는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가 적극 나서서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으로 퍼뜨리면서 광우병공포와 화학물질의 공포를 덮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후에도 알트만 기자는 에이즈관련 특집기사를 900편 이상 보도한다.11

담배공포에 이은 새로운 공포의 시작이었다. 이 두 가지 조작된 공포는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인류의 의식 속에 빅 브라더로 깊이 각인된 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에이즈를 동성애자들에게 연결시키기 전인 1980년 초 앨라배마 주 칼룬 카운티 남서쪽에 위치한 애니스턴에서는 오래 전부터 20~40세의 젊은이들을 포함해 한 해에 100여 명씩 암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 결과 1927년부터 1971년까지 이 지역에 있던 록펠러재단 소유인 몬산토가 맹독성 화학물질인 PCB를 생산하고 4,500만 킬로그램에 상당하는 폐기물을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그 지역 땅에 묻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마침내 주민 3,000여명은 몬산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원고측 변호인은 뉴욕대학의 앨런 실버스톤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주민들의 혈액 내에는 PCB가 고농도로 함유돼 있음과 면역체계가 크게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면역체계는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러나 몬산토 측 변호인의 의뢰를 받고, 실버스톤이 애니스톤 지역에서 활용했던 ‘PCB 농도와 건강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하버드대학 교수인 슈트어트 슐로스먼은 1983년 12월 보고서에서 “PCB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과는 아무런 관

28)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독재자. 대중에게 일체 나타나지 않으면서 집집마다, 거리마다, 모든 사무실과 노동현장, 심지어 숲에까지 치밀하게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모든 대중을 24시간 감시하고 세뇌시킨다. 그는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존재한다. 빅 브라더는 당을 통해 늘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철저히 역사마저 왜곡하며 절대적인 권위로 신격화된 존재이다.

계가 없다.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실험 또는 연구실의 오류였다."며 몬산토를 옹호했다. 저명한 과학자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주민들이 제기했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다.

이때 슐로스먼은 자신과 실버스톤이 조사한 보고서를 국립암연구소로 보냈고, 5개월 후에 암연구소의 세포종양 책임자인 로버트 갤로에 의해 "실험의 오류가 아니라 새로운 전염인자로 확인됐다."라며 에이즈란 이름이 붙은 전염병으로 바뀐다.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에는 HIV란 이름을 붙인다. 1984년 4월 23일이었다. 갤로는 그 당시 프랑스의 종양학자 뤽 몽테니어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보내온 손상된 면역체계에 관한 논문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결국 그는 몽테니어의 논문과 슐로스먼의 보고서를 종합해 자신이 처음으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를 발견한 것으로 발표한다. 파괴된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로 바뀌어 새로운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갤로는 우간다 어린이의 66퍼센트가 에이즈 환자라는 그냥 해보는 말로 공포를 증폭시키기 시작한다.

반면 2002년 3월 23일 대법원에서 몬산토는 소송과정에서 사실은폐, 연구조작, 불법행위, 허위증언 등이 인정돼 유죄평결이 났고, 결국 재판부의 강제 조정 명령에 따라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그 합의문에는 몬산토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몬산토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빠져있어 시민의 건강보다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 12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면서 화학업체를 옹호하기 위해 조작된 연구서가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류 과학자의 '돈과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에 이용된 것이다.

2000년 초, 근본주의 기독교의 정치단체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29]'의 의료 담당 책임자인 레지널드 핑거는 "이미 4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3천만 명이 사망한 AIDS와 관련해 치료용 백신이 개발된다면 성적 방종을 더욱 조장할 것이 확실합니다."며 백신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는 주류의 과학자들이 서로 백신 특허를 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광우병 발표를 늦추면서 1년 전에 갑자기 발표한 에이즈는 이미 확인된 광우병의 내용을 그대로 전용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복제 과정은 DNA에서 RNA를 합성하지만 광우병의 '변형 프리온'은 역전사가 일어나 RNA에서 DNA를 합성한다. 이것은 이미 광우병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에이즈도 RNA에서 DNA를 합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잠복기간도 광우병과 같이 10~30년이다. 그리고 둘 다 불치병이다. 나중에 발표되는 광우병을 미리 공개한 것과 똑같은 그림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에이즈공포는 연일 신문, 방송을 덮으며 무서운 속도로 번져갔다. 1986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이사였던 조나단 만은 "1990년이 되면 1억 명의 HIV감염자가 생겨날 것이고, 그 중 수백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할 것"이라며 공포를 키웠다. 1987년에는 에이즈 협회 회장인 테레샤 크렌쇼는 "1996년에는 에이즈환자가 10억에 달할 것이고, 2001년에는 100억 명에 이를 것이다. 전 인류가 에이즈환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예상치를 그냥 말해 본 것뿐이다. 그러나 그 말

29) 1977년에 제임스 돕슨이 설립한 극우 기독교 정치 단체. 동성애, 낙태, 안락사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부시 대통령 선거를 적극 지원하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운동을 펼쳤다. 에이즈를 동성애자들에 대한 천벌로 연결시키며 에이즈공포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은 계속 핵반응을 일으켜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이어서 '유에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는 "그들의 질병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특집을 보내자, 'USA 투데이'에서 이어 받아 "이성간의 섹스를 통해서도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고 특집을 보낸다. '애틀랜틱 먼슬리'도 "이성애와 에이즈, 유행병의 2단계"라는 특집기사를 보낸다. AP통신은 "누구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기사를, CBS는 "에이즈환자의 40퍼센트는 이성애자다."는 내용을 보도한다.

이 '그냥 해본 소리'는 같은 해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앵커인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 "에이즈환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1990년대 말이면 5명 중 한 명이 에이즈 환자가 될 것이다."며 공포를 끝없이 키워나간다. 세계 올림픽경기가 서울에서 개최되던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2월 1일을 '에이즈의 날'로 정해 매년 이 때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에이즈공포를 조직적으로 키워나간다. 그들은 한 번의 키스나 공동변기 사용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떠들며 공포와 절망을 퍼뜨린다.

그 즈음에 미국 연방정부도 에이즈공포를 확산하는 광고비용으로 5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서 C. 애버릿 쿠프 보건장관은 "지금까지 미국이 직면했던 위험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발표하며 콘돔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라텍스로 만들어진 콘돔에는 5마이크로 인치의 미세구멍이 있는데, 지름이 50 마이크로 인치 내외인 정자와 세균은 차단하지만 평균 0.1 마이크로 인치인 바이러스는 차단하지 못한다. 즉 콘돔으로는 에이즈를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소아과 의사이자 과학자인 그가 콘돔사용을 권장한 것은 HIV 바이러스가 허구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쿠프는 보건장관으로 있는 동안 자신의 건강관련 웹사이트인 DrKoop.com을 방문하는 에이즈환자들을 모집하여 임상실험 전문회사인 '퀸타일즈 트랜스내셔널'에 비밀리에 넘기고 수수료를 받아왔음이 1999년 9월 5일, 뉴욕타임스에 의해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CBS는 1992년에 '이웃에 사는 킬러'라는 제목으로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언제든지 에이즈환자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다. 이어 1996년, CBS는 "매 시간 한명씩 에이즈환자가 늘고 있다."며 공포를 더욱 키우더니 6개월 후에 CBS는 "매 시간 두 명씩 에이즈환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이 공포는 더욱 확대되면서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섹스를 통해서도 전염되는 성병으로 바뀐다. 1992년 영국의 역학자인 앤 존슨은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에서 "에이즈환자 중 단지 17퍼센트만이 약물중독자, 동성애자, 수혈감염자 등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인들의 정상적인 섹스를 통해 전염되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 1993년 세계보건기구는 전 제계 에이즈환자의 90퍼센트는 정상적인 섹스를 통해 전염되었다고 발표한다.

이어 199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타」(CDC)에서는 "에이즈환자 751,965명 중에 수혈을 통해 전염된 경우와 혈우병환자의 경우는 각 1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 98퍼센트는 모두 이성간의 섹스를 통해 전염됐다."며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본능적인 사랑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병이라는 말로 섹스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13

공포의 확장은 근본주의 기독교(청교도)의 금욕주의를 배후로 한 것이었다. 그들은 초기의 '안전한 섹스'에서 나중에는 '노 섹스'로 방향을 잡고 무차별 금욕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암 투병 경험이 있는 수잔 손택은 1989년 「에이즈와 그 은유」라는 책에서 "에이즈가 죄악과 방탕에 대한, 1960년대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에 대한, 비정상적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천벌"이라고 주장하는 근본주의 기독교 우파들에 대해 사회적 분노를 표시하며

“질병은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런 일”이라고 항의한다.

그들은 각종 언론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주로 유색인종)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표제를 붙였다. 1984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가, 1985년에 헐리우드의 미남 배우 록 허드슨이, 1986년에 발레 무용가 에릭 브룬이, 1989년에 여행기 작가 브루스 채트윈과 사진작가인 로버트 메이플소프가, 1990년에 예술가 키스 해링과 패션 디자이너 할스톤이, 1991년 영화감독인 토니 리처드슨이, 1992년에 안소니 퍼킨스와 배우 덴홈 엘리어트가, 1993년에는 러시아 출신 무용수인 루돌프 누에예프와 테니스 스타 아더 애쉬의 죽음을 대서특필하고 그 사인이 에이즈였다고 발표한다.14

1992년에 미국에는 98,000여개의 에이즈단체가 난립한다. 대부분 국가 예산과 제약회사의 후원금을 노린 극우 기독교단체들이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몇 개만 남아있다.

미모와 연기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2011년 3월 23일, 7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녀는 동료 배우 록 허드슨이 에이즈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에이즈를 ‘동성애자들이 신의 노여움으로 받은 천형’으로 여기던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 분위기에 대항해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고, 동성애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애썼다. 그녀는 에이즈공포를 만들어내는 미 행정부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에이즈 철자라도 제대로 아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하며, 동성애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기도 했다.15

WHO는 20년간 6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2천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한다. 이를 이어 받아 기독교 단체들은 제약업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인종차별적인 에이즈공포를 쏟아 붓기 시작했다. 결국 전 세계 시민은 곧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대중들은 공황 속에 빠지면서 환경문제나 화학물질문제, 세계화문제, 광우병문제, 식품첨가제문제 등은 의식 속에서 사라졌다.

사실 에이즈공포는 왜곡, 과장, 축소 등을 통한 조작이었다. 에이즈환자들은 HIV라는 전염성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양부족, 합성화학물질 또는 약물중독으로 인해 DNA에 이상이 생겨 면역체계가 망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요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죽음의 병에 대한 공포로 독성화학약품과 이웃의 시선에 몸과 마음이 짓눌린 채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 HIV는 실험실에서 추출해낸 것이었고, 또한 이것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깨진 세포조각에 불과했다. 따라서 임산부, 간염보균자, 백신접종자, 혈우병환자, 매독환자, 마약복용자 등 면역체계에 약간의 이상을 보이는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93년 피터 듀스버그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1993년 한 해 동안 미국 질병관리센타(CDC)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한 253,448건의 사례 중 거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43,606건이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한 경우였다. 이 사실은 질병관리센타의 상임위원인 헤롤드 재피가 듀스버그에게 시인한 사실이었다. 코넬대학의 의대 교수인 제프리 로렌스는 “내가 진료하는 에이즈 양성 환자로부터 전염인자인 HIV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공개했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연구가 없다. 그것은 대부분 흑인, 히스패닉, 러시아인, 동성애자,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삼는 테러였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에이즈 전문가로 활동했던 마이클 푸멘토는 1990년, 에이즈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기 위해 '이성애 에이즈환자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란 책을 발간하지만 근본주의 기독교 단체들의 방해로 서점에 진열되지 못한다. 이어 1992년 「미디어 앤드 공공문제 센터」는 모든 정부 발표와 언론의 내용을 정밀 조사한 결과 "에이즈환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현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한다.16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케냐의 왕가리 마타리는 성명을 통해 "HIV는 원숭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신의 저주도 아니다. 이것은 서방과학자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생화학무기로 만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말을 하기도 한다. 마타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에이즈공포를 퍼뜨렸던 주역인 로버트 갤로가 1960년대 미 국방부의 생화학무기 연구팀을 이끌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케냐 대통령 다니엘 아랍 모이는 "에이즈는 단지 아프리카를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음모"라고 비난하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에 동조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기도 했다. 1998년 10월 2일, 남아공의 현지 영문신문인 「비즈니스 데이」는 "남아공 주민들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남아공 대통령 타보 움베키는 1999년에 "많은 과학 자료에 의하면 HIV 바이러스는 해가 없고 에이즈라고 불리는 상태는 단지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새로운 이름일 뿐이다. 이제 강독성 화학약품을 통해 우리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지마라."며 남아공에서 이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 AZT, 네비라핀과 같은 강독성 약물투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그를 비난했고 결국 그는 다음 해인 2000년에 대통령직에서 실각한다.17

반면 의학전문 기자 실리아 파버는 그녀의 책 「아주 중요한 거짓말」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HIV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병원체로 제약업계와 기독교의 농간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사기다."고 말한다.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단백질 억제제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데이비드 라스닉 박사는 "나는 단 한번도 HIV를 본 적이 없다. 누구든지 세포에서 분리해낸 HIV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 몸에 투여하겠다. 단, 로버트 갤로가 가져오는 것만 빼고."라고 선언했고, 199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케리 뮬리스 박사는 "HIV를 증명하는 논문이 단 한편도 없다."고 폭로했다. 한국과학기술대(KAIST) 한상근 교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HIV 바이러스를 분리해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단지 HIV라고 짐작되는 세포 조각만 분리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AIDS 치료제로, 고가로 팔리고 있는 지도부딘(AZT)은 록펠러 재단이 최대주주로 있는 '버로우 웰컴'(후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합병된다)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약은 지금까지 인간에게 투여됐던 약제 중 독성이 가장 강한 화학물질로 1964년에 항암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약효는 거의 없고 극도의 피로와 골수 억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약품이다.

그런데 이 약이 AIDS 치료제로 FDA에 제출되자마자 임상실험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인, 14주 만인 1987년 1월에 조작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나자마자 이 약은 연간 1인당 약값이 9,000달러에 해당하는 블록버스터로 각광을 받으며 1988년에는 1억 3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그 다음해에는 1억 6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주식

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식은 연일 폭등했다. 1994년에는 3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1990년 미국 연방정부는 4만 명이 죽었다는 에이즈치료에 16억 달러를, 50만 명이 죽은 암치료에 15억 달러를, 75만 명이 죽은 심장병치료에 10억 달러를 책정했다. 록펠러재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며 동시에 에이즈공포를 증폭시키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지도부딘은 면역체계의 핵심인 백혈구와 T세포를 파괴시키며 오히려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의 약'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당시 임상실험에서는 지도부딘을 처방받은 환자 중 최장기간 생존한 사람은 3년 반인 반면에, 지도부딘을 처방받지 않은 위약대조 그룹의 환자 중 최장기간 생존한 사람은 8년 반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에이즈 치료제인 네비라핀은 독일의 최대 제약업체인 베링거 인켈하임이 생산하는 독성 약제로 우간다에서 임상실험을 거친 후에 1996년에 캐나다와 미국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 약은 지도부딘과 함께 모자간의 에이즈 수직 감염을 막아준다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투여되는 약이다. 1950년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임산부에게 유산방지제로 권장했던 DES가 기형아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시장에서 사라진 후에 임산부에게 약물처방이 금기시 되다가 처음으로 임산부에게 복용이 허용됐다. 이 약 역시 합성화학물질로 제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임상실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독성이 너무 강해 부작용이 심한 반면 효능이 거의 없음이 확인되어 캐나다에서는 승인이 거절된다. 특히 보고서가 조작되었음도 밝혀졌다. 임상실험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누락된 것이다. 그러나 1996년 미국의 FDA는 부작용이 심한 것을 고려하여 다른 약제와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다. 그러나 후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승인과정에 부정이 있었음이 미 국립보건원(NIH) 고문 조나단 피시바인의 폭로로 드러난다.

2000년 4월, 5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이 네비라핀 임상실험 중 사망하고, 전체 11퍼센트에게서 심각한 간손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인켈하임으로부터 1백만 달러의 재정을 지원받은 '엘리자베스 글레이저'와 같은 단체는 네비라핀의 효능을 극찬하며 "에이즈 약제가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결국 약제를 투여 받은 대부분의 임산부와 아기들이 얼마 후에 모두 죽어가면서 반발이 심해지자 미국에서도 사용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네비라핀 150억 달러 어치를 제약회사로부터 사들여 원조 계획인 '아프리카 에이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임산부들에게 강제로 투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2007년 에이즈 약품 시장은 15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AZT와 네비라핀은 후에 임산부와 신생아에게도 투여가 허용된 결과 1950년대 유산방지를 위해 임산부에게 복용을 권장했던 DES의 부작용과 같이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사산, 기형, 각종 질병 등이 확인되었다.18

반면 전에 록펠러대학교 부설 '아론 다이아몬드 에이즈 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호는 1996년, 수학적 계산 방법을 통해 "HIV는 감염된 순간부터 미친 듯이 자가복제한다. 그러나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물로 억제할 수 있는 병이다.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빨리 내성을 갖게 되므로 내성이 생기기 전에 박멸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려면 강력한 약물을 혼합해서 집중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혈류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복용은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지에 발표하며 복합치료제를 개발한다. HIV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광풍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음모였

다.

그는 같은 해에 타임에 눈이 가려진 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고 주류 과학계의 온갖 찬사를 한 몸으로 받으며 돈방석에 앉게 된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조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체 얼굴은 가린 채 명성만 띄워줬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AZT를 포함한 약물들이 AIDS 치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인체의 면역체계를 붕괴시켜 치명적임이 확인되었어도 호의 명성은 계속되고, FDA는 이를 수거하지 않고 계속 시판을 허가했다.19

반면「에이즈연구를 위한 미국 재단」 설립자인 조셉 소나벤드는 "어떤 다른 요인은 거들떠보지 않고 HIV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가설에 매달리는 것은 비극"이라며 "언론·출판물들의 일방적인 HIV에 대한 홍보는 에이즈 관련 연구와 치료법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과 죽음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도 HIV는 파괴된 세포조각이지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인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말한다.20

미국에서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70퍼센트는 에이즈가 아닌 다른 질병인 간질환으로 사망했다. 간질환은 약물중독으로 나타나는 증세다. 에이즈공포와 담배공포는 양심적인 비주류학자들이 진실을 공개하고, 리차드 돌의 행각이 드러나던 2000년대 중반까지 모든 이슈의 화두였다.

반면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는 HIV를 발견한 공로로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뤽 몽타니에의 말에 의하면 에이즈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와 면역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양부족, 약물과다, 위생시설부족 등으로 면역시스템이 약해졌을 때 각종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보충, 약물중지 등으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면 에이즈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게이츠재단 같은 거대재단이 아프리카 등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은 하지 않고 백신개발에만 몰두하는 까닭은 그런 것은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와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여의사가 있었다. 1986년 에이즈공포가 한창 전 세계를 휩쓸던 초기에 캐나다의 의사 기렌 랑또는 의료계의 비리를 폭로한 '의료 마피아'란 책을 통해 "에이즈는 영양실조, 화학물질,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생기는 면역기능 저하일 뿐 HIV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에이즈의 실체를 공개했다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한다. 21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데이비드 이글레스턴은 1984년부터 1990년까지 30회 이상의 실험을 실시하여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세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아 충전용 아말감[30]을 제거하기 전과 제거한 후의 T-림프구[31]를 측정했다. 그 결과 아말감을 제거하자 세 명 모두에서 T-림프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급속도로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세 환자에게 아말감을 다시 충전하자 다시 T-림프구가 50퍼센트 이하로 감소했다. 반면 아말감이 아닌 재료로 충전하자 역시 T-림프구는 5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는 콜로

30) amalgam은 수은을 다른 금속과 합금한 것으로 액체 상태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체로 된다. 썩은 이를 메울 때 사용하는 치아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수은 50퍼센트, 은 25퍼센트, 주석 12퍼센트, 구리 13퍼센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값이 싸고 다루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150년 이상 사용돼 왔다.
31) 인체 면역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면역체계에는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있는데 그 중 T4-림프구는 도우미세포라고 부르며 암세포 등을 발견하여 B-림프구에 이들을 파괴하도록 명령한다. 반면 T8-림프구는 B-림프구가 정상 신체조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준다. 수은, 프탈레이트 등 화학물질에 의해 T-림프구의 숫자가 감소하거나 T4:T8의 비율이 변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라도의 치과의사인 할 허긴스에 의해 1990년에 재차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에 의해 T-림프구가 부족해져서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에이즈 환자다. HIV 바이러스에 의해 인체 내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약의 부작용, 중금속 등에 의해 T-림프구가 부족해져서 면역체계가 무너진 상태일 뿐이다.

수은은 액체 금속으로 그 흡수율은 90퍼센트에 달하며 그 중 74퍼센트는 폐에 축적되고 또 그 중의 30퍼센트는 혈액으로 들어가 T-림프구를 손상시킨다. 테네시대학의 독성 센타는 지구상에 가장 치명적으로 인체에 해를 미치는 방사능인 플루토늄의 독성을 1,900으로 잡았을 때 수은의 독성을 1,600으로 평가한다. 이 같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스웨덴은 1997년에, 오스트리아는 2000년에 아말감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켰다.22 독일도 아말감 사용을 어금니에 한해 인정한다.

미국에서는 에이즈 공포가 한창이던 1993년과 1995년, 그리고 1997년에 비주류 과학자들이 이의 사용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자 공중보건국(PHS)은 약간의 알레르기만 있을 뿐 인체에 무해하다며 계속 사용을 승인했다. 우리나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치과 병원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아말감의 부작용이 알려지자 치과의사들은 치아치료에 고가의 임플란트로 대체했지만 임플란트의 재료인 T-3에는 베릴륨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1998년, 미국의학협회지의 발표에 의하면 '적절히 처방된'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심장병, 암에 이어 3~4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매년 10만 명 이상이 '적절히 처방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고, 200만 명 이상이 생명에 위태로울 정도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병원에 영구 입원하고 있다고 한다.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약의 부작용으로 면역체계가 파괴된 결과다. 이 같은 부작용이 있는 약이 승인되는 까닭은 '조작된 연구 보고서'때문이고, 이러한 조작된 연구가 통과될 수 있는 까닭은 '빳빳한 돈의 힘'이다. 23

NBA 스타 매직 존슨은 1991년 에이즈환자임이 밝혀졌으나 2008년 현재까지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도 12년 이상을 생존했던 가수 마이클 칼랭은 "죽음을 강조하는 TV를 끄고, 에이즈 관련 기사를 읽지 않았어요. 의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지요." 의사들이 주는 AZT와 같은 약은 면역체계를 망가뜨리는 독성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의 복용을 중단한 사람들은 오히려 추정 생존기간을 훨씬 뛰어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자 주류 과학계는 처음에는 '판정이 잘못됐다.'고 하다가 그와 같은 사례가 계속 확인되자 에이즈에 감염되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그들의 초기 주장을 바꿔 잠복기를 1년으로 늘렸다. 그 후 여러 번 잠복기를 연장해 현재는 20년까지 잠복기를 연장했다. 24

최초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공개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동발견자로 알려졌던 미국립암센타 소장인 로버트 갤로는 몽타니에의 논문을 베낀 것으로 드러나 노벨상 수상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갤로가 처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에서 검출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자 레트로 바이러스의 유전자지도를 작성한 세계적인 학자 피터 듀스버그와 DNA복제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1999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케리 멀리스는 "레트로바이러스는 무해한 바이러스며, HIV는 병원체가 아닌 정상세포여서 세포를 파괴할 수 없고 갤로가 제시한

것은 레트로바이러스 계열이 아니다."며 반박한다. 특히 멀리스는 "에이즈 바이러스는 2억 달러라는 예산 때문에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만들어 낸 소설입니다."고 말한다. 반면 듀스버그는 20년간 모든 연구지원과 연구발표가 중단된다.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이유였다.

독일의 바이러스 학자 슈테판 랑카는 갤로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그는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파괴적 행위와 거짓으로 덧칠해져, 지금 몇 시인지 물어봐도 그 대답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25

참고로 1985년에 개발된, 동성애자의 혈청을 이용해 면역능력 상실 정도를 확인해 에이즈환자를 판명해내는 '엘리자(ELISA) 검사법'은 로버트 갤로가 만든 것으로 그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법은 비용은 비싼 반면에 정확도가 10퍼센트도 안될 정도로 너무 낮아(양성 판정 확률이 너무 높아) 가장 악명 높은 검사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테스트는 에이즈 환자에게서 에이즈의 발병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HIV 바이러스를 찾는 게 아니라 항체인 p24단백질이 존재하는지를 찾는 것이다. 항체는 세포조직의 단백질량으로 확인되며 세균이나 외부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작동해 p24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하면 사슴을 찾는 게 아니라 사슴의 발자국을 찾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영양상태가 나쁜 아프리카 주민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처럼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양성판정이 나올 확률이 수십 배 높아진다. 이 검사법을 개발한 갤로 역시 "p24단백질은 HIV 바이러스에만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검사법을 개발한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이 검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2차 테스트를 하면 50퍼센트 이상이 음성으로 나온다. 또 3차 테스트를 하면 그 중의 50퍼센트 이상이 음성으로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판정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죽음의 공포'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생명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에이즈 치료제라고 하는 강독성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에이즈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이다.

갤로는 현재 엘리자 특허법 사용료로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소유한 억만장자이며,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적으로 미국립보건원(NIH) 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시카고 트리뷴」지의 존 크루슨에 의해 "갤로가 발표했던 논문이 프랑스 몽타니에의 논문을 베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립보건원장에서 물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이즈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내용은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만 마구 쏟아냈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3대 일간지에 게재된 에이즈 관련 보도 1,692건을 분석한 결과 "에이즈환자를 24시간 감시해야 할 대상", "에이즈 의심환자 00명 발생" 등 공포와 편견을 만들어 내는데 적극적이었고, 에이즈 환자의 삶의 질과 인권문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단 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26

이제 에이즈공포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198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에이즈공포는 양심 있는 비주류 학자들에 의해 신문, 방송에서 거의 사라졌다. 다만 인류에게 세뇌된 그 공포는 아직도 가슴의 깊은 곳에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말이다. 이에 대해 주류 과학자들은 지오비단, 네비라핀 등 효과 있는 약제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강독성 화학약제들을 의사들의 처방대로

복용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한 반면 약제들을 거부했던 환자들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방사선조사

그것뿐이 아니다. 담배공포가 한창이던 1980년대에 담배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던 미국과학건강위원회(ACSH)의 주류 과학자들은 방사선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며 가공식품에 방사선조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석유에서 추출하는 각종 방부제의 유해성이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면서 방부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른 조치였다. 식품에 방사선을 쬐이는 이유는 유통과정에서 싹이 나거나 부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핵산업계의 재정지원을 받는 쿠프 등의 주류 과학자들은 "방사선조사식품에서 생성되는 방사능 같은 화학적 변화는 해롭지 않고, 방사능조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리기[32]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치 태양에너지로 성장한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쪼인 식품에서도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다. 방사능은 에너지, 즉 '기운'이지 물질이 아니다. 열이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이듯이. 그러나 고농도로 응축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식의 조직과 DNA를 변화시키고 파괴한다. 방사선으로 살균하는 원리가 바로 미생물의 조직과 DNA를 파괴해서 세포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과 DNA가 파괴된 음식은 '음식과 모양이 비슷한 가짜'일 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비주류 학자들은 "방사선조사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작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 절대적인 권한을 줬다."고 지적한다. 핵 방사선이 처음으로 식품에 사용되게 된 것은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개발을 은폐하면서 계속적으로 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됐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부작용이 여러 형태로 확인되면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자 핵발전소 내부에 쌓여 가는 핵폐기물의 일종인 세슘137과 코발트60을 처리하기 위해 핵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록펠러재단은 계속해서 미 육군과 나사(NASA)를 통해 로비와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27

그러다가 마침내 방사선조사법은 1982년에 FDA의 승인을 얻는다. 그리고 2000년에는 미 농무성이 모든 육류에 방사선 조사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FDA에서는 방사선조사법을 승인할 때 제출된 실험보고서 441건 중 과일과 채소를 상대로 미량의 방사선을 사용하여 실험한 보고서 7건만을 선별해 검토하고 승인한다.

이에 비주류 과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그들은 핵 산업계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으로 1968년부터 연구해온 조작된 결과를 계속해서 FDA와 미국 의회에 제출했고, 198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전문과학자들마저도 조작된 연구라며 문제 삼았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승인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식량농업기구(WHO), 세계보건기구(FAO), 국제연자력기구(IAEA)

---

32) 원자의 핵은 쌍으로 된 전자에 의해 싸여 있다. 만약 핵을 둘러 싼 전자 하나가 없어져서 쌍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원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주위의 세포막이나 유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기 위해 활성이 증가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유리기라 한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에너지를 만들고 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즉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화찌꺼기로 노화나 동맥경화, 암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스트레스, 자외선, 세균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퍼센트 정도가 활성산소로 되는데, 그 정도의 양은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몸을 지켜주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면 정상 세포까지 공격,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된다. 즉,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자외선, 혈액순환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는 인체에서 DNA의 유전정보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붕괴하며 비정상적인 세포단백질을 형성한다.

등은 방사선조사 식품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유럽연합과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52개국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헝가리 등 8개국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감자 한 품목에 대해서 발아 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37가지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 방사선조사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코발트 60, 세슘 137 등의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으로 골수암, 폐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발트는 반감기가 6년이고, 세슘은 30년이나 된다고 한다. 감마선으로 식품을 살균하는 방법은 1921년 미국이 특허를 갖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나라와 일본 등이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자 WTO는 불공정무역이라며 방사선조사법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류 과학자인 제임스 콜만이나 데이비드 마이클스도 "식품에 사용하는 방사선조사법이 O157:H7이나 비브리오패혈균과 같은 박테리아나 기생충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일으키는 개발도상국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살균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사실들을 과장해 이의 사용을 막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둘 다 화학업계를 옹호하며 관심을 담배로 돌리기 위해 담배의 해악성을 강조하는 주류학자다.

특히 콜만은 "핵발전소에서 내뿜는 방사능이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방사능보다 훨씬 적으며, 흡연자와 함께 사는 것이 핵발전소 옆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핵발전소 옆에 사는 어린이들이 백혈병을 비롯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망원인 30가지 중에 담배가 1순위라고 한다. 물론 그도 방사선을 쬐면 DNA가 파괴돼 암이 발생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28

그러나 방사선 처리 농산물은 이미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 각종 동물에 먹여 실험한 결과 생식기와 골수 등에 이상이 발생했고 수명이 단축되었으며 사산, 불임, 기형 등의 유해성이 판명되었다. 미국도 남태평양 팔라우섬 주민들에게 방사선을 쬐인 식품을 다년간 먹여 실험한 결과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출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내수용으로, 미국 시민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성장호르몬, 항생제, 고기사료로 사육한 쇠고기는 전량 수출하고, 미국민이 먹는 쇠고기는 대부분 뉴질랜드, 호주에서 수입해오는 경우와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특징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식품업체에서는 '방사선'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 '파스퇴르 살균방식' 또는 '저온살균', '이온화 식품'이라는 용어를 쓴다. 식품조사에 쓰이는 방사선은 코발트나 세슘을 전자가속기로 증폭시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보통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양은 5,000라드(rad)에서 500만 라드인데 이 에너지가 유기체의 유전자에 작용하여 근본적으로 그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파괴하기도 하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29

X-선 촬영은 누구나 평생에 한 번 쯤은 받은 경험이 있는 의료기기다. 이 촬영에 사용하는 이온화 방사선은 초고주파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조직을 투과하고, 밀도가 높은 조직에는 흡수된다. 이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된 세포는 암세포로 변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 몸의 세포는 75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방사선은 물에 잘 흡수되어 유리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X-선은 화학물질과 같이 우리 몸에 축적된다. 따라서 X-선은 안전한 한계용량이 없다. 유방암이나 소아백혈병 그리고 갑상선질환이 급증하는 이유는 X-선 축적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많은 의학자들의 의견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학회지 주필인 C. 바일라는 X-선 축적량이 100라드 정도 되면 유방암을 발병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유방 X-선 촬영을 1회할 때 보통 200밀리 라드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X-선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더 적은 양으로도 유방암을 발병시킬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쉬운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백내장 같은 질병들도 X-선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X-선 촬영으로 질병을 찾아낼 확률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 없는 의료처치다. 게다가 촬영시에 혈관에 주사하거나 입으로 들이키는 '이오파미돌'이나 '바륨'과 같은 조영제는 화학물질이어서 그 위험은 X-선 만큼이나 높다. 이들 조영제는 폐질환이나 지주막염의 원인이 되어 평생토록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1928년에 개발된 조영제 '트로트라스트'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임이 확인되어 19년 후인 1947년에 시판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 19년간 탐욕에 젖은 주류의사들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조영제를 투여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런 생애를 보내야 했을까?

40세 이상의 고령의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에 태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다운증후군[33]도 예전에는 '고령으로 약해진 난자'가 원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원인은 여성에게 축적된 이온화 방사선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인도의 케랄라, 중국의 양강시의 조사로 밝혀졌다. 따라서 여성의 나이는 단지 이온화 방사선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지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뇌와 척수 등을 검사할 때 쓰이는 의료기구인 MRI도 정식 용어는 '핵자기공명영상'이다 그런데 '핵'이란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이란 용어를 빼고 '자기공명영상'이란 이름으로 의료검사를 한다. 이 기계에서 나오는 핵 방사선 역시 치명적이다.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의료 검사다.

MRI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지구자기장의 5만 배에 달할 정도여서 기계 주변의 작은 금속을 날려버릴 정도라고 한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세포내에 있는 물의 수소와 산소 분자를 들뜨게 하여 그 움직임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동물실험에서는 자기장에 의해 암세포가 증식하기도 하고, 눈과 귀를 손상시키기도 했고, 사람에게는 화상과 폐쇄공포증이 나타나기도 했다. 30

코발트나 세슘 등의 동위원소는 유전자조작 생명체와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다. 이런 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니? 체르노빌 사고의 후유증을 밝혀낸 프랑스의 '방사능에 관한 연구회'의 연구원인 롤랑 데보르드 연구원은 "음식에 방사선을 쪼이면 그 음식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조직은 산산조각 나고 DNA는 파괴된다."며 강도 높은 우

---

33) 얼굴이 넓고 편평하며, 눈꼬리가 위로 치켜올라가 있고 때로는 눈 주위에 깊은 주름도 있으며, 귀가 밑에 붙어 있고, 코가 작고 입술과 혀가 크고, 턱이 기울어져 있으며, 가벼운 또는 심한 정신박약, 신장이나 심장의 기형, 그리고 손가락·손바닥·발바닥 지문이 이상하게 나타나고 키가 작다는 등의 증상이 특징이다.

22쌍의 상동염색체와 두 개의 성염색체로 이뤄진 46개개의 염색체가 정상이지만 방사선 등의 영향으로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늘어나 세 개가 되어 총 염색체가 47개가 되는,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 환자들은 노화현상이 빨리 와서 보통 사람보다 수명이 짧고 모든 환자가 어느 정도 정신박약이어서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

려를 표한다. 단백질조직이나 지방조직 또는 DNA가 파괴된 것은 독이지 음식이 아니다.

게다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방사선을 통해 DNA의 재결합이 이뤄지면 성질 자체가 바뀐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지방질에 방사선을 쬐면 결장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된 시클로부탄이 생성된다. 따라서 방사선에는 안전수준이나 경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암 위험과 노출정도는 직선으로 증가한다. 다시 말해 노출의 정도가 2배 증가하면 암 발병률도 2배로 증가한다.

체르노빌 지역에서 진행한 방사선 피해 연구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근처 주민이 발전소의 폭발, 누출 또는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면 '급성 방사선조사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처음 1주일 동안은 식욕감퇴, 구역, 피로,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방사선 노출량 정도에 따라 뇌 등 중추신경계 장애, 위나 대장 등의 소화관 출혈, 골수 등 조혈기관의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생존하게 되면 6~8주에 걸쳐서 회복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10~30년 뒤에 백혈병,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피부암 등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31 록히드-마틴, 맥도널 더글러스, 웨스팅하우스, GE 등 핵무기와 원자력 관련 산업체도 록펠러 재단이 장악하고 있다.

이글을 쓰고 있는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4기의 원자로에서 코발트60, 세슘137 등 방사선 동위원소가 누출돼 일본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이고, 우리나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인근 대기에서도 미량이 검출되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모든 신문과 방송 등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아스파탐

그 것 뿐이 아니다. 캐나다 학자인 사지엔트, 도리스, 에반스가 1999년 공동으로 집필한 '삼키기 어려운 식품첨가제의 진실'에 의하면 "아스파탐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일주일 이상 섭씨 29도에 보관하면 아스파탐 전량이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 포름산, 그리고 뇌종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디케토피페라진으로 분해된다."며 먹지 말 것을 촉구했다. 32

1965년 항궤양성 심장질환약을 테스트하던 화학자 제임스 슈래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아스파탐은 FDA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렸다.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검사한 많은 동물실험에서 뇌종양이 불규칙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966년에 승인을 받았지만 1975년에 승인이 취소됐다. 9년간 많은 사람에게 끔직한 부작용을 남긴 채. 위스콘신대학 실험에 의하면 우유에 아스파탐을 첨가하여 7마리의 어린 원숭이에게 투여한 결과 300일 만에 5마리 원숭이에게서 발작증세가 나타났으며, 1마리는 죽는 등 여러 연구에서 그 부작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회사는 끊임없이 조작한 연구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액의 로비를 벌인 결과 다시 FDA에서 논의를 했지만 1980년에 FDA는 만장일치로 승인을 부결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1981년, 아서 헐 헤이즈2세는 FDA 소속의 다른 과학자들을 무시한 채 건조식품에 대해 아스파탐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승인한다.

이에 격분한 다른 학자들이 관련 연구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물질이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적발하고 학자들 사이에서 업체를 형사고발하자는 의견이 들끓었다. FDA는 시판을 보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FDA는 아스파탐의 회수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위기에 직면한 업체는 정치적으로 해

결을 모색한다.

그래서 백악관에 끈을 대고 있는 정치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네오콘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는 강경파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을 회장으로 임명한다. 때마침 레이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럼즈펠드는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부 각료로 입각하게 되고 1981년 레이건 행정부는 FDA국장을 경질한다. 신임국장은 펜실베니아대학의 아서 헐 헤이즈였다. '시판보류' 결정으로 전전긍긍하던 업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판승인을 다시 신청했다. 수년 전에 제출했던 자료 그대로였다. 헤이즈 신임 국장은 몇몇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듯 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해 7월 시판보류가 해제되고, 2년 뒤인 1983년에는 음료수에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33

헤이즈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른 부패사건이 발각되자 그는 FDA를 떠나 아스파탐 제조기업인 「G. D. 서얼 컴퍼니」의 홍보담당 이사로 자리를 옮긴다. 그 후 이 회사는 에이전트 오렌지, 제초제, 소성장호르몬, 유전자조작 등으로 유명한, 록펠러재단이 최대 주주로 있는 몬산토에 흡수된다. 당시 서얼의 법률이사로 아스파탐 승인을 주도했던 로버트 샤피로는 몬산토의 아스파탐 담당 사장으로 승진하고 이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몬산토의 최고경영자(CEO)가 되어 유전자조작을 적극 지휘한다. 샤피로는 1982년, 헤이즈의 부패사건과 아스파탐의 불법승인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 수사 도중 검사직을 사직하고 몬산토 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아스파탐과 유사한 화학감미료인 사카린도 몬산토가 특허를 갖고 있는 주력상품 중의 하나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카린도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FDA에서 승인이 취소됐다가 압력과 뇌물의 힘으로 1975년에 다시 승인을 받은 물질이다. 엄격한 사용량 규제를 조건으로. 그 후 1985년 3월 21일에 아스파탐은 식품첨가제로 승인되어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가된다. 아스파탐은 장내에서 페닐알라닌이란 물질로 분해되는데 아미노산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므로 '페닐알라닌 함유'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경생리학자인 피츠버그대학의 윌 클라우어는 이 과정을 폭로하며 소비자에게 경고한다. "아스파탐은 식품이 아닙니다. 허가 과정이 불투명한 불량첨가물입니다. 먹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에게 먹이지 마세요. 다이어트 음료를 즐기신다고요? 아스파탐이 음료에 사용되면 더욱 해롭습니다." 34

탄산음료에 아스파탐이 첨가되기 시작한 지 2년 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학 의대 교수인 J. W. 올니는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뇌암 발병률이 평균 10퍼센트가 증가하여 한 해 동안 약 1,500명의 신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뇌암 발병률 증가는 60퍼센트를 넘었다. 실험실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아스파탐 연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올니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했다.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1991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아스파탐의 부작용을 167가지로 분류하여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1992년 미 공군은 아스파탐 복용 후에는 비행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1994년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스파탐이 유발하는 질병 88가지를 상세히 분류하여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선천성 결손증, 우울증, 정신지체, 민성피로, 뇌종양, 간질,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도 포함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무기의 원료로 사용되던 독성물질인 아스파탐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60개국에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영국의 독극물 전문가인 베일리 헤밀턴은 이렇게 말한다. "빳빳한 현금만큼 강력한 힘은 없을 겁니다."라고.35 미국의 속담에 "돈으로 말하면, 진실은 침묵한다.(When money speaks, the truth keeps silent.)"라는 말이 있다. 돈이면 양심도, 과학적 사실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일그러진 모습이고, 주류과학자들의 실체다.

스웨덴 과학자 아키코 프리드는 아스파탐을 극약이라고 부른다. 아스파탐은 페닐알라닌 50퍼센트와 아스파라긴 40퍼센트, 그리고 메탄올 10퍼센트를 혼합하여 만든다.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은 장내에서 단백질과 같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4kcal/g)를 공급한다.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메탄올 자체도 발암물질이지만 메탄올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데 이것은 암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실험실에서 살균제 또는 방부제로 쓰이는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청산염이나 비소화합물과 같은 정도로 유독하고, 인체의 지방층에 저장되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물질이다. 프리드의 연구에 의하면 아스파탐은 두통, 어지럼증, 우울, 시력상실, 건망증, 구토증, 평형감각상실, 근육경련 등을 일으키므로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36

미국의 신경학자 러셀 블레이록은 오랜 기간 연구를 거쳐 1997년에 출간한 '흥분독소'라는 책에서 "아스파탐은 모든 세포가 퇴화하거나 죽을 때까지 뇌 속의 신경을 흥분시킨다. 신경에 대해서는 시한폭탄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화학첨가제가 평생 뇌 속에 서서히 축적되어 알츠하이머병과 헌팅턴병을 비롯한 각종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한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는 이어서 "조사결과 '무 첨가제'나 '무 아스파탐'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어도 거의 그런 화학첨가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다시 말해 <u>'무 아스파탐'이라는 표식은 단지 선전문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무설탕', '저칼로리' 등의 표기가 있는 가공식품은 설탕 대신 저칼로리인 아스파탐을 사용했다는 말이다.</u> 그리고 아스파탐에서 나온 페닐알라닌은 아스파라긴은 뇌세포에 축적돼 뇌의 유리기 아미노산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켜 신경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요즘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년들이 난폭해지고, 쉽게 흥분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보고서다. 게다가 아스파탐은 암세포를 새로 만들고 증식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로 확인되었다. 37

아스파탐은 미국 FDA에서 승인한 물질 중에서 부작용이 따르는 성분으로 보고된 것들 중에서 7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2월에 미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파탐이 일으키는 부작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발작과 암 발생, 죽음이다.

1981년 FDA의 자문위원인 사티아 두비는 아스파탐이 뇌암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아스파탐 생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2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320마리의 쥐 중 아스파탐을 먹인 12마리의 쥐에서 뇌암의 발병을 발견했다. 뇌암이 생긴 12마리 중 5 마리는 적은 양의 아스파탐을 먹은 쥐였다. 또 미국의 MIT 대학에서, 아스파탐을 섭취하고 발작을 일으킨 80명을 조사한 결과 아스파탐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내고 “아스파탐은 시민들의 건강에 절박한 위험을 주는 화학 물질이므로 FDA는 아스파탐을 빨리 시장에서 회수하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38

사카린, 아스파탐과 성장호르몬, 라운드업(제초제), 기타 대부분의 유전자조작 동식물 등은 록펠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초거대 화학기업인 몬산토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주력 상품이다. 몬산토는 아스파탐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주류과학자들과 사이비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지방과 설탕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병과 당뇨병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계속 발표한다. 그러면서 ‘설탕의 대체물’, ‘새로운 선택’으로서의 아스파탐을 홍보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주류 과학자들에 의해 콜레스테롤이 심장병과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7년 1월 25일, CBS는 아스파탐이 뇌종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후에, 아스파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ACSN)가 만들어져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활동의 결과, 몇 개 식품회사에서는 아스파탐의 사용을 중지하기도 했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로 껌, 아이스크림, 빵, 탄산음료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서 아직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회에서는 1996년 12월 19일,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감미료를 어린 아이가 먹는 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특히 임산부의 복용을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짓센대학의 영양학 교수이며, 주류과학자의 대명사인 니시지마 모토히로는 “아스파탐은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에서 생산되는 것이어서 체내에서 분해,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임산부나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뇌종양에 관해서도 미국 FDA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아스파탐을 적극 홍보한다. 게다가 사카린도 안전하다며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한다. 39 주류학자들의 끝없는 기업 홍보의 일환이다.

그러나 화학업계가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미과학건강위원회(ACSH)는 2000년 12월에 ‘건강을 위한 결의안’ 12가지를 발표한다. 첫째는 금연, 둘째는 금주, 셋째는 운동, 일곱번째는 에이즈예방 등을 말하지만 화학물질이나 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ACSH의 회장인 엘리자베스 웰런은 “화학물질이나 식품첨가제와 같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금연과 금주 등에 집중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이 단체는 2008년,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하는 잡지인 ‘당신의 건강’이란 월간지를 통해 “아스파탐이나 사카린은 당신의 건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비만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40

이 아스파탐은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2004년 9월에는 당뇨병환자단체가 아스파탐을 생산하는 몬산토의 자회사 ‘뉴트라스위트사’를 상대로 3억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에 “아스파탐은 무해하다.”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식품첨가제와 관련한 피해배상 소송은 아스파탐이 가장 많지만 승소한 소송은 한 건도 없다.41

2005년 이탈리아의 ‘라마치니 암연구소’에서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1,800마리의 실험용 쥐들에게 3년 동안 각기 다른 양의 아스파탐이 함유된 사료를 먹이면서 자연사할 때까지 2년간 관찰했다. 그 결과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사료를 먹고 자란 모든 쥐들에게는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등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그 중에는 체중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을 섭취한, 사람에게 허용된 일일섭취허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스파탐을 섭취한

쥐들에게서도 백혈병과 림프종이 확인됐다. 반면 아스파탐이 포함되지 않은 사료를 먹은 쥐들에게서는 아무런 종양도 발견되지 않았다.

독일의 독물학자 헤르만 크루제가 한 인터뷰에서 “아스파탐이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음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는 발언을 하자 아스파탐 생산회사인 몬산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0년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166건의 연구 결과 중 50퍼센트인 83건에서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2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3분의 2에 해당)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아스파탐’ 또는 ‘페닐알라닌’이란 성분으로 표기하며 빵, 과자, 음료수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하고 있다. 2009년 2월에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했던 소주에서 아스파탐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 처리되기도 했다.43 호주는 아스파탐 사용이 금지된 나라다.

진실이 밝혀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담배세를 올리고 수십 년간 국가와 화학업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영국의 경우 1950년에 성인 남성 흡연자 비율이 95퍼센트에서 2001년 현재 30퍼센트로 흡연율이 줄었지만, 폐암 환자수는 1950년 13,000명에서 2001년 37,5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골보다 도시가 크게 늘었다. 미국의 경우도 흡연자는 크게 줄었지만 폐암 환자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44 확실한 것은 이 기간 중에 각종 화학물질이 공기, 물, 음식, 의약품 등을 통해 크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제 담배공포와 에이즈공포는 사라지고 있다. 주류과학자들은 에이즈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우수한 약품들이 개발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에이즈가 상상의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비주류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숨겨진 음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담배공포도 과학적 증거가 없는 단순한 가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초기에 담배공포를 만들어내던 주류 과학자들은 흡연이 기호가 아닌 ‘중독’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 담배공포를 만들어가면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담배세를 올리고 하는 등 금연을 강력하게 주장해도 흡연인구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때문에 화학물질이 증가하면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늘어나도 그것을 계속해서 담배로 원인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흡연은 중독이 아니고 단순한 기호였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흡연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질병은 반대로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다.

조작된 공포는 대중화된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규격화된 사고의 틀을 강화하고, 결국은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식품첨가제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주류 과학자들은 ‘돈과 과학’이 연결되어 과학이 왜곡되는 현상을 ‘산학협동’이라는 미명으로 덮으려 한다. 산학협동은 규제되어야한다. 아니면 적어도 연구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진행된 것인지를 밝혀야한다.

제Ⅳ부. 석유를 마시게 하라. 실패한 녹색혁명

1장. 식량장악.

식량 장악을 위한 음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발을 들여놓기 몇 개월 전인 1940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3기 임기가 시작된다. 이때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된 헨리 A. 월러스는 취임도 하기 전에 록펠러1세의 손자인 넬슨 록펠러와 함께 멕시코 정부와 식량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멕시코를 방문한다. 월러스는 루즈벨트 대통령 제2기 재임 시 농무장관을 맡았고 4대 GMO 종자기업의 하나인, 후에 듀퐁의 자회사로 발전하는 기업인 「파이어니어 하이브레드」를 세운 사람이다.

그들은 멕시코에 다수확품종연구소를 세운 후에 록펠러재단의 임원인 조지 하라를 대표로 임명하고, 역시 록펠러재단의 임원인 노먼 볼로그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하고 애그리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조지 하라는 후에 록펠러재단의 이사장이 된다. 이어 넬슨 록펠러와 그의 동생 로런스 록펠러는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라틴아메리카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로써 미국 국제개발처(AID)는 멕시코에 그들이 설립한 국제옥수수밀연구소(CIMMYT)에 매년 600만 달러를 지원하며, 그 댓가로 멕시코에 있는 옥수수와 밀의 유전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 1

이미 '록펠러가문의 이익이 곧 미국의 이익'이 된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집행한 '뉴딜정책'은 록펠러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었다. 1960년 5월 20일자 「뉴욕타임스」기사에 의하면 "넬슨 록펠러와 루즈벨트 대통령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보도했다. 2

이후 1940년대 말 냉전이 악화되자 트루먼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팽창하는 공산주의를 방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기술과 자본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환으로 1954년에 제정된 PL-480에 의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수출은 무기나 공산품의 수출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잉여농산물의 수출은 무기나 공산품보다 당장의 이익은 적었으나 상대 국가의 식량의 근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 역할을 담당했던 기업이 비과세기업인 록펠러재단이다. 그들은 1949년 중국의 마오쩌뚱이 '붉은 혁명'을 성공시키자, 이에 대응해 아시아의 후진국에서 붉은 혁명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녹색혁명'이란 이름의 농업정책을 수행한다. 3

이후 1952년부터 1979년까지의 냉전시대에 국무장관을 역임한 사람들은 모두 록펠러재단 고위 임원 출신들이다. 아이젠하워 시절의 국무장관 덜레스와 케네디, 존슨 시절의 국무장관이던 딘 러스크, 카터 시절의 국무장관이던 사이러스 밴스는 이사장 출신이다. 닉슨, 포드 시절의 국무장관이던 키신저는 록펠러재단의 임원이자 넬슨 록펠러의 최측근이었고, 포드 시절의 부통령은 넬슨 록펠러 본인이다.

이들은 록펠러가문의 지시에 따라 한껏 냉전과 식량부족 공포 등을 부추겼고 록히드 마틴, 맥도널 더글러스, 보잉 등의 군수산업과 몬산토, 듀퐁 등의 종자기업을 장악한 록펠러가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었다. 위기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고, 과장된 위기는 누군가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악용된다. 게다가 록펠러가문은 대부분 투자형태를 비과세재단인 록펠러재단을 통해 추진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익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이 급속도로 부를 쌓아갈 수 있었다.

20세기 초에 세계의 석유를 장악한 록펠러가문은 40년대에 세계의 금융을, 60년대에는

세계의 무기를, 70년대에는 의약을, 80년대부터는 세계의 식량도 장악한다. 그 외에도 현재는 문화, 언론, 교육, 과학 등 거의 세계의 전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록펠러가문은 식량도 석유처럼 얼마든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었다. 물론 그 기초 재료는 석유였다.

상상의 미래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쓴 작가 앨런 와이즈만은 그의 책 「인간없는 세상」에서 "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석유화학의 발전이 초래한 충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 쉴 새 없이 연료를 태우고 흘려보내는 인간이 이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지상의 풍경을 방치하게 된다면 자연은 과연 텍사스의 거대한 석유화학지대를 정화할 수 있을까?"라고 인류에게 물으며 화학물질의 폐해를 경고하고 있다. 4 아마도 100년간 무너뜨린 자연을 다시 회복하려면 수천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 어쩌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고 인간은 멸종될지도 모를 일이다. 멸종의 순간이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냉전시기 동안 록펠러재단의 대리인인 미국의 국무장관들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며 PL-480에 기초한 식량원조를 통해 식량의 근원을 파괴해 왔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잉여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2010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3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은 황폐화됐다.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30퍼센트이다.

석유로 덮어라

1974년,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의 지원으로 '월드워치연구소(WWI)'를 설립한 래스터 브라운은 "농민들이 새로운 종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려면 새로운 투입요소인 합성비료를 써야 한다. 일단 그러한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게 수익성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모든 종류의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애그리비즈니스 기업은 이들 투입요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록펠러재단의 녹색혁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 이 재단은 식량공포를 과장하며 '인구억제'와 '식량증산'이라는 록펠러재단의 이념을 홍보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녹색혁명은 실제로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표적국가에 대해 식량생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핵무기의 개발로 제2차 세계대전이 기업들의 예상보다 일찍 끝나게 되자 듀퐁, 다우케미칼, 몬산토 등 록펠러재단이 장악하고 있는 화학업체들은 폭탄과 탄환을 만들기 위해 생산했던 '질산암모늄'과 독가스가 창고마다 쌓이게 됐다.

스탠다드 오일이 주력 업종으로 생산했던 질산암모늄과 독가스는 식물에게는 질소의 뛰어난 공급원인 질소비료와 제초제, 살충제의 원료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인도의 물리학자이며 농민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우리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의 잔재물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6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심지어 자신의 목에 걸릴 올가미까지 판매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폭약의 부산물을 그냥 버려둘 리는 없었다. 그것이 후에 치명적일 정도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돈만 된다면...

석유의 주요물질은 탄화수소이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도, 비스페놀A도, 플라스틱도 모두 석유에서 나온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의 주원료인 '에틸카바메이트'도 석유에서 나온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유방암,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2A등급의 발암물질이다. 탄소와 수소 원자로만 구성된 메탄 계열의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의 위치 또는 개수를 변경시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탄소 원자가 하나일 경우 만들 수 있는 분자는 한가지이다. 그러나 만일 탄소 원자가 10개면 조합 가능한 분자의 수는 75개이고, 탄소 원자가 20개인 경우에는 36만 개, 탄소 원자가 40개인 경우에는 62조 개를 조합할 수 있다. 여기에 산소 원자 하나를 첨가하면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등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분자의 크기에 따라 이런 화합물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7

이 같은 탄소와 수소의 재결합을 통해 2,0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을 만들어 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맛과 색깔, 향기, 색을 낼 수 있다. 해마다 100가지 이상의 새로운 화학첨가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1,000가지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 8 그러나 이렇게 석유의 분자를 변형시켜 만들어 낸 물질은 자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이다.

1920년대가 되면서 중동, 베네수엘라 등 세계 각지에서 유전이 개발되자 록펠러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석유기업은 세계 석유의 점유율이 8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비율로 떨어졌다. '세븐 시스터즈'의 과거 영화롭던 시절은 지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한번 누렸던 영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권력으로 등장한 부는 어떤 것도 만들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술 지팡다. 석유와 무기관련 업체는 재빠르게 이를 농업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때부터 인류는 식량의 근원을 태양에너지에서 석유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자연에서 산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논리는 다양성이지만 산업의 논리는 효율성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됐다.

이때부터 인간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새로운 질병들이 속출했다. 탄화수소의 분자를 추가하거나 위치를 변경해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어서 인간의 면역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록펠러가문은 록펠러재단과 록펠러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등의 주류 과학자들을 앞세워 '식량부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음모를 만들어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 음모는 1940년대 이후 록펠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NBC, ABC, CBS 방송 및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의 언론과 역시 록펠러재단이 장악하고 있는 UN을 통해 인간 욕망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이라는 문제의 주위를 맴돌면서 공포를 조성했다. 담배공포도, 에이즈공포도, 암공포도 모두 생명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작이었다.

그 공포 분위기의 댓가는 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와 록펠러가문의 주머니를 끝없이 두둑하게 채워주고 있다. 교잡종과 새로운 유전자조작 변종들은 농업전문가와 분자생물학자들에게 계속 돈을 안겨줄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다. 토착종과 비교할 때 이것들은 매 경작 때마다 종자를 구입해야 하고, 대규모로 경작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량도 많고, 적절한 시기에 값비싼 화학비료와 제초제, 살충제와 함께 구매해야만 한다.

다수확품종이란 사기

그들은 멕시코에서 노먼 볼로그를 앞세워 다수확품종을 통해 식량의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농민들을 가난에서 구출해 공산주의의 폭력혁명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세웠다. 그러나 다수확품종은 필연적으로 합성비료와 제초제, 살충제 그리고 풍부한 물과 농기계를 필요로 했다. 강제적인 이종교배와 무작위적인 아미노산 혼합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수확품종 쌀, 밀은 계속 재배하고 유지하려면 각종 화학비료, 제초제, 살충제를 대량으로 사

용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의 화학자들은 식물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정체를 규명하고 화학적으로 합성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소량의 인공호르몬을 주입할 경우 식물의 성장이 크게 촉진되지만, 다량의 인공호르몬은 식물을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제초제, 즉 2,4-D와 2,4,5-T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비료, 살충제인 DDT와 더불어 록펠러재단의 '녹색혁명'의 실탄이 된다.

이 품종들은 개량을 통해 알곡의 수는 크게 늘리고 줄기의 길이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성장억제호르몬을 투여했기 때문이다. 성장호르몬을 과다 투여하여 몸집은 작으면서 젖통은 정상 이상으로 비대해진 젖소와 같이 이 교잡종은 일종의 기형이다. 기형이기 때문에 그 씨앗은 다시 발아하지 않거나, 발아하더라도 수확량은 아주 미미하다. 이런 이유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를 다시 구매해야 한다.

노먼 볼로그는 식량증산의 공로로 1970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록펠러재단의 홍보 대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녹색혁명과 유전자조작작물을 홍보하고 담배공포를 조작하는 데 생애를 바친다. 그가 시작한 녹색혁명은 록펠러재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비료, 살충제, 제초제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학합성물질이 원료로 쓰였고, 거대한 담수시설과 농기계 역시 석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투입요소들은 자본과 토지를 확보한 부농을 위한 것이었을 뿐 자급자족 형태의 소농들에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었다. 녹색혁명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결과는 소농인구를 줄여, 그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 인근의 빈민촌으로 몰려들게 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다국적 제조업체들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로저 서로우 등은 녹색혁명의 결과, 석유로 만드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로 세계 토양이 오염된 것은 수확량의 증가로 열의에 넘친 농민들이 비료와 살충제를 지나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린다. 9 그러나 사실은 비료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은 산성으로 되고 그 결과 수확량이 줄어들자 농민들은 전보다 더 많은 비료를 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잡초와 해충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초제와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되자 더 많은 제초제, 살충제를 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록펠러재단이 의도했든 아니든 과학의 한계였다. 녹색혁명의 허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환경보호론자들은 화학물질로 인한 생태계파괴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자 노먼 볼로그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들은 허황된 엘리트 이론가일 뿐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가난과 기아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며 건전한 방향으로의 충고를 마치 자신의 업적을 질시하는 사람들의 철없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이를 외면한다. 10

그러나 문제는 생태계파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초제, 살충제, 비료, 다수확품종, 단작 등으로 이루어진 작물은 당연히 영양이 부족해진다. 식량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영양분의 밀도는 줄어든다. 게다가 영양분의 공급이 자연의 질서에 따른 퇴비가 아니라 질소, 인산, 칼륨으로 단순화된 비료라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에 충분한 기운을 전해주지 못한다. 인간의 음식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만 구성했을 때 치명적인 각종 질병에 시달렸듯이 영양분이 부족한 작물을 섭취한 결과 인간은 각종 암에 시달리게 된다.

사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 판매량을 늘

리고 독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록펠러재단은 '비과세 지주회사'이지 결코 자선 단체가 아니다. 자선항목은 거대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일 뿐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농경지의 85퍼센트가 동물사료용 곡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사료용 곡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살충제, 제초제, 농약 등의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규제완화라는 유령 탓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수확품종의 개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종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한 국제옥수수밀연구센타(CIMMYT)는 북극 노르웨이의 스발바드에 '종자은행'을 만든다. 현재 세계 각국에 설립되어 있는 종자은행은 영하 3도의 냉동실에 약 17만종의 종자가 보관되어있다. 지금도 그들 연구원들은 세계 각국을 돌며 조작되지 않은 순수품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생물종은 인류 식량자원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 전쟁을 하고 있다. 특히 원예식물이나 동물, 심지어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토종 소유국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생물종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종자 기업들은 벼와 밀, 보리, 콩 등의 야생원종을 찾아 종자전쟁을 하고 있다. 이들 야생원종은 오랜 세월을 지구의 환경 변화를 이겨내며 끈질기게 자생해 온 종자들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10만 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밝혀진 것이 3만 종 정도여서 나머지 7만여 종에 대해 연구 및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1

비료는 석유

애그리비즈니스는 1950년대에 미국과 남미에서 집중적으로 녹색혁명을 추진했지만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발표되면서 미국 농부들에게는 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등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50년대 중반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무르익던 시기였다. 결국 애그리비즈니스들은 미국에서 줄어드는 시장을 만회하기 위해 녹색혁명을 남미와 아시아로 돌린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잉태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전 세계에서 DDT의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 인류는 이미 DDT를 22억 킬로그램이나 생태계에 살포했다. DDT는 유기염소로써 탄화수소로 구성된 석유분자에 염소를 인공적으로 첨가한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클레그는 "이건 틀린 말이다 우리는 옛날부터 화학물질들과 접촉하며 살아왔다.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치명적인 천연살충제의 양이 합성살충제의 양보다 1만 배나 더 많다."며 "카슨 때문에 DDT를 인류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말라리아에 대항할 무기를 하나 잃어 버렸다."고 한탄한다. 12

그것의 전초기지가 록펠러재단이 화학물질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담배공포'로 돌리면서 설립한 남미의 국제옥수수밀연구소(CIMMYT)와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IRRI)다. 녹색혁명을 추진한 록펠러재단의 임원인 노먼 볼로그와 키신저는 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이상한 것은 볼로그는 원칙대로 한다면 노벨화학상의 대상이었고, 키신저는 베트남전쟁을 확장시킨 전쟁옹호론자이므로 노벨평화상의 대상은 될 수가 없었다. 13

키신저의 평화상 수상 이유는 베트남과 평화협상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베트남전은 더욱 악화됐다. 미국은 애초부터 평화협상의 의지가 없었음이 후에 밝혀진다. 록펠러재단은 필리핀에 국제쌀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수확품종 쌀 개발

에 나선다. 록펠러재단이 아시아에 쌀연구소를 설립한 이유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하는 쌀의 유전자를 확보하고, 조작하고, 특허를 받아 이를 아시아에 상품으로 팔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록펠러재단은 자금을 지원하여 전 세계의 농업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록펠러재단이 추진하는 신기술과 자유시장 등 미국의 농업이념을 전수했다. 후에 그들은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 록펠러재단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한다.

질소비료를 만들려면 단단하게 결합된 질소 원자를 분리해서 수소와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석유에너지를 기초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열과 압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인류는 이전의 조상들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던 것과는 달리 석유를 마시고 있다.

식량 1칼로리를 생산하는 데 7칼로리의 석유가 필요하다. 게다가 농부들은 옥수수와 쌀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의 비료를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료는 강으로 흘러들어 생태계를 파괴한다. 질소비료는 질산암모늄으로 바뀌고, 질산암모늄은 바다로 흘러들어 적조현상을 일으켜 데드 존을 만들기도 하고, 온실가스의 중요한 원인인 아산화질소로 바뀌기도 한다. 처음 새로운 교잡종자인 다수확품종은 석유에서 추출하는 농약과 비료에 힘입어 생산량은 급증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규모 농지에서 단일경작과 비료, 농약에 의존한 농작물은 이내 병해충에 내성이 생기고, 토양은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어 갔다. 대규모 댐이나 저수지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은 점점 이자부담이 늘어갔다. 결국 녹색혁명의 실체는 '화학혁명'이었음이 밝혀지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조용히 묻히면서 녹색혁명은 성공적이라는 인상만 남겼다.

반면 화학비료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나프탈아민, 비닐크롤라이드,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제조과정을 통해 들어간다. 질소비료는 과거에는 친환경 재료인 초석과 칠레초석을 사용해 제조했지만 지금은 록펠러재단의 이윤을 위해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나프타를 원료로 여러 가지 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한다. 인산비료와 칼륨비료도 전에는 인광석과 칼리광석을 이용해 제조했지만 지금은 석유에서 추출하는 인과 칼륨에 식물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황산을 첨가하는 화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한다. 14

제초제와 살충제, 그리고 합성 무기질비료는 토양 속에서 필수적인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그 활동을 교란하며, 그 결과 음식의 영양과 맛을 해친다. 미국의 영양전문잡지인「응용 영양 저널」에서는 감자, 배, 사과, 사탕수수, 밀에 함유된 미네랄을 2년에 걸쳐 비교 분석한 결과, 자연적으로 재배한 음식에는 비료로 재배한 음식에 비해 여러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 390퍼센트, 마그네슘 138퍼센트, 칼륨 125퍼센트, 크롬 78퍼센트, 요오드 73퍼센트, 칼슘 63퍼센트, 아연 60퍼센트, 철 59퍼센트를 더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토양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분의 평균 90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는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더욱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되었다. 15 그 결과로 발전하는 것이 제약산업이다.

록펠러재단의 재정지원에 힘입은 세계농업기구, 각 대학의 주류 학자들, 주류 언론인들을 동원하여 초기의 생산량 증가를 크게 홍보했다. 그러면서 록펠러재단 소유인 엑손모빌(뉴저지 스탠다드 오일과 뉴욕 스탠다드 오일의 후신)은 "온실효과, 생태계파괴 등 지구 변화는 실재하지 않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미국과학건강위원회(ACSH), 목축업협회 등 주류 단체들에게 1,900만 달러의 재정을 지원했음이 뉴스위크 2007년 8월 13일자 기사로 폭로된다. 그 전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49명이 공동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지구 온난화는 21

세기의 가장 위험한 환경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직후였다. 16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생태계파괴의 주범을 과잉인구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해 인류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의 크기를 따지자면, 경제성장과 이윤을 모든 가치의 앞에 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이 더 크지 과잉인구가 큰 것은 아니다.

록펠러재단을 중심으로 한 몬산토, 석유협회, 식품협회 등의 재정지원으로 활동하는 미국과학건강위원회(ACSH)는 "DDT와 살충제, 제초제를 금지시키려는 것은 20세기 최악의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건강공포 중의 하나이다."라며 화학약품의 사용을 적극 옹호한다. 이 단체는 모든 활동의 초점을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담배가 모든 질병의 원인' 그리고 "에이즈공포'를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bt와 같은 천연살충제나 천연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바로 24시간 이내에 배출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DDT나 글리포세이트, 린데인 같은 합성살충제는 비록 처음에는 미량을 섭취해서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언젠가는 위험선을 넘어서고, 특히 합성화학물질은 몸 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손대대로 큰 고통을 남긴다는 사실이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의 허구가 이것이다. 축적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 우리가 환경호르몬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런 물질의 생물학적 영향이 양보다는 시간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해 지구 변화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록펠러재단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몬산토'를 통해 옥수수 등에서 에탄올을 추출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몬산토가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연료는 실제로 효용성이 낮음이 입증되었다. 코넬대학의 데이비드 피멘텔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29메가줄의 에너지를 들여 생산한 바이오에탄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20메가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양에너지와 수소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비슷한 연구 내용은 많이 있다. 2007년 미국 농무부와 콜로라도대학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라이프사이클과 비교할 때, 옥수수에서 얻는 에탄올은 온실가스 방출을 약 40퍼센트 줄인다."며 에탄올의 효용 가치를 과대 선전하지만, 다음 해인 2008년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극적으로 반대 내용을 공개했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은 지난 30년간 오히려 온실가스를 약 두 배 증가시켰다."고. 다음 해 같은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 내용은 "에탄올은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데 거의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18 농무부의 연구는 에탄올 자체의 열효율만을 단순 비교한 것이고,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는 에탄올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과정을 평가한 것이다. 당연히 석유와 에탄올의 생산과정을 포함한 전체 효율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통 열효율 자체만을 계산할 때 석유를 기준으로 사탕수수는 에너지효율이 8대 1이고, 옥수수는 1 대 1 정도이다. 그러나 바이오연료는 재배, 수확, 가공, 운송에 들어가는 물, 비료, 살충제, 휘발유, 운송비 등 모든 요소를 생각할 때 순에너지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재 에탄올 산업이 성황을 이루는 까닭은 미국에서는 연간 30억 달러의 기업보조금이 에탄올산업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골드러시의 광풍이 불고 있어 매년 수십 개의

에탄올공장이 새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투기전문가 조지 소로스는 브라질의 에탄올공장을 사들였고, 빌 게이츠도 '퍼시픽 에탄올사'에 8,400만 달러를 투자했다. 19

사실, 에탄올은 석유를 소비해서 새로운 연료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석유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숨기고 석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 이런 결과로 인해 유엔식량조사관인 장 지글러는 2007년 유엔보고서에서 "8억 명 이상이 굶주리는 현 상황에서 옥수수와 같은 식량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지구 변화를 막기 위해 에탄올을 연료로 해야 한다면 식량이 아닌 작물 또는 음식쓰레기 등을 원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글러나 피멘텔에 의하면 가축에게 먹일 곡물과 엔탄올 원료를 인간이 직접 섭취하면 기아에 시달리는 8억 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다고 한다. 20

미국농무부(USDA)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식량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증가하여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해진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먹어야 할 곡물을 가축의 사료와 엔탄올 원료로 대량 쓰이기 때문이다. 현재 옥수수와 콩의 50퍼센트 이상이 사료 원료로, 20퍼센트 이상이 에탄올 원료로 쓰인다. 그러나 곡물로 에탄올을 만들 때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물을 사료로 사용한 후에 고기를 섭취하는 때에는 에너지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것이 식량부족의 주원인이다. 21

2008년 7월 3일, 영국의 '가디언'지는 세계은행(IBRD)의 경제전문가인 도날드 미첼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의하면 2007년부터 시작되는 곡물가 폭등현상은 그 원인의 85퍼센트가 바이오연료에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바이오연료만 아니었다면 밀, 옥수수의 국제재고량이 크게 줄지 않았을 것이고,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되는 곡물 가격이 세배나 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재고감소가 수출금지와 투기행위로 이어져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바이오연료 증산은 부시 대통령의 국가 정책이었다. 22

부시는 2007년 1월, 앞으로 10년 내에 바이오연료의 비율을 20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20 in 10'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남아도는 식량을 감추고 계속해서 '식량위기'를 조장하면서 매년 3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기업보조금과 높은 관세를 통해 기업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이었다.

2장. 녹색혁명의 허상

쌀만이 식량이 아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발리는 녹색혁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발리는 우리나라보다도 쌀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아시아에서 녹색혁명이 막 시작되는 시기인 1960년대 초반에, 발리는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록펠러재단의 국제쌀연구소(IRRI)의 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벼 품종 IR-8을 보급했다. 합성비료와 제초제, 살충제, 관개시설을 통해 초기에는 놀라울 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용대출로 1977년에는 발리에서 거의 70퍼센트에 달하는 농경지에 IR-8이 재배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품종은 벼멸구에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벼멸구 때문에 발리 정부는 1977년 한해에만 벼 200만 톤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국제쌀연구소의 학자들은 벼멸구에 강한 IR-36을 개발했고, 정부에 의해 농민들은 다른 토착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1979년에 이르자 IR-36은 벼 바이러스인 퉁그루병에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또 다른 품종 PB-50이 개발됐지만 이 품종은 도열병에 취약했다. 1986년에 이르자 농민들은 새로운 품종과 더 많은 비료, 살충제로 전의 전염병을 막는 악순환에 빠졌다. 수확량은 늘어났지만 이에 비례해 농민들의 이자부담도 늘어났고 생태계는 최악으로 나빠졌다. 점점 독해지는 살충제 때문에 논에 뱀장어, 오리, 물고기 등을 양식할 수가 없었다. 농민들은 살충제로 인해 고환암 환자가 늘어났고 토양은 산성화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농민들의 분노가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르자 마침내 정부는 토착품종의 재배를 허용했다. 1

이 IR-8은 우리나라의 통일벼의 품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벼는 1971년에 도입되어 초기에 생산량의 급증으로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배하도록 했다. 즉 농협에서 통일벼만 수매하고, 통일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강제나 다름없이 추진했다. 그러나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료, 관개비용 등 추가적인 투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찰기 없는 밥맛', '부족한 영양'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생산량 등의 문제로 도입된 지 5년 만에 결국 강제성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녹색혁명으로 농업생산량이 늘었다며 지금도 제2, 제3의 녹색혁명을 강조하는 주류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녹색혁명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식량을 쌀로만 환원하고, 점점 더 넓은 땅에 벼만 경작하고, 쌀만 식량으로 정의한다면 당연히 식량은 늘어났다. 밭을 개간해 논으로 만들고, 늘어난 논에 쌀만 재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식량은 쌀만이 아니다. 그 때문에 사라져간 잡곡, 기장, 사료용 풀, 감자, 채소, 과일, 약초 등 농촌에서 필요한 작물들을 계산에서 빼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학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단작으로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은 2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여 할 심각한 문제다. 오직 쌀 한 품종만이 104퍼센트에 달할 뿐이다. 게다가 쌀이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생산되는 것은 쌀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가 아니라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쌀 수요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다나 시바는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식민지배가 녹색혁명을 통해 인도의 농업을 망쳐놓기 전에는 지금보다 농업생산량이 7~8배 높았음을 증명한다. 그녀는 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실시했던 1차 녹색혁명은 실패했다. 수확량은 늘어났지만 생태계가 너무 크게 훼손됐고, 빚에 시달려 자살하는 농민들의 물결이 급증했다. 몬산토가 실시하는 2차 녹색혁명인 유전자조작작물에 의한 농촌 개혁은 더 큰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들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몬산토의 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3 특허 때문에 종자값은 당연히 비싸지기 때문이다.

세계의 농부들은 농작물과 가축을 순환시키고 몇 년에 한 번씩 논밭을 쉬게 해 휴경지를 두었다. 이런 지혜로 토지는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비옥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농법은 거대한 농토에 수출이 가능한 한 두 가지의 작물만을, 비료, 제초제, 살충제에 의존한 채 몇 년간 쉬지 않고 경작한다. 야만적인 토양착취행위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땅을 피폐하게 하는 행위는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고 경고하며 인류의 근원인 땅을 보호하자고 다짐했다. 4 그러나 다수확품종과 유전자조작작물은 단작이고, 연작이며 또한 종자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아올 피해가 염려스럽다.

식량을 쌀과 밀로만 산정할 때 녹색혁명이 시작되던 1950년에 비해 2000년에는 거의 세배의 수확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의 허구일 뿐이다.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투입량의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른 상황이다. 예컨대 비료의 사용량을 보면 1950년에는 1천 4백만 톤을 농업에 사용했지만 2000년에는 1억 4천 1백만 톤을 사용했다. 그리고 농경지의 확대도 중요한 이유다. 때문에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작지는 거의 모두 논으로 활용하고 있다. 5 거기에 제초제, 살충제 등의 증가분과 사라진 잡곡, 채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녹색혁명은 실패로 드러난다.

쌀은 아시아, 아메리카, 서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24억 인구가 날마다 먹는 주식이다. 쌀은 1만 2,000년에 걸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지역 농민들이 길들이고 개발한 작물로, 다양한 환경에 맞춰 저마다 다르게 재배되고 있다.

지금도 국제쌀연구소에는 10만 종의 쌀이 보존되고 있다. 록펠러재단은 식량을 장악하려는 계획아래 오래 전부터 아시아의 쌀을 주목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먹고, 또 대체로 가난한 지역이어서 장악하기 쉽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 계획의 첫 단계가 녹색혁명이었다. 녹색혁명으로 아시아의 벌판에 석유와 살충제로 덮은 록펠러재단은 두 번째 단계로 유전자조작작물인 황금쌀을 추진했다. 그러나 록펠러재단은 실패했다. 녹색혁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인도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이에 호응한 세계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가세한 것이다.

질소폭탄

인류는 오래 전부터 거름, 석회질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가 유스투스 폰 리비히는 뼛가루가 지력을 회복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희석시킨 황산에다 뼛가루를 담가두면 작물이 더 잘 흡수한다는 사실과 질소가 식물에게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핵산의 핵심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농부들은 세공사들이 상아, 뼈, 뿔 등으로 장식품을 만들고 남은 뼛가루를 모으기 시작했고 수요가 늘어나자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뼈까지 비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한 납골당에서는 모아둔 뼈가 통째로 매매되기도 했다. 6

그는 연구를 계속하여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량 영양소인 질소, 인산, 칼륨 등 3가지를 발견하고, 프리츠 하버[34]가 석유에서 질소비료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한 이래, 농경지의 토양은 세 가지 성분 외에 다른 성분은 거의 공급받지 못했다. 리비히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다량 영양소에 주목하면서 비타민, 폴리페놀, 섬유질 등 미량 영양소를 간과했듯이, 식물에서는 질소, 인산, 칼륨 등 다량 영양소에만 관심을 두고 미량 영양소나 토양의 신비로운 조화 작용을 간과했다.

하버는 토양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조화를 간과하고 질소비료와 제초제, 살충제에만 눈을 돌렸다. 그 결과 작물은 질소, 인산, 칼륨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50여 가지(사실 이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성분을 말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한다면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다)의 필수미네랄이 필요한데 비료로 키운 작물에는 당연히

34) (1868~1934) 질소비료와 폭발물의 주원료인 질산암모늄의 합성법을 개발하여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화학자이다. 그는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중 자이클론 B, 클로린 등을 비롯한 여러 독가스를 합성해내 '화학 무기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남편이 전쟁에 미쳐 살인무기 개발에 전념하자 동료 화학자였던 그의 아내는 자살한다.
하버는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국가에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1934년 나치당에 의해 독일에서 추방당하고 마침내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자살한다.

필수미네랄이 부족하게 되고, 미네랄의 균형을 잃은 작물은 허약해져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질병을 막기 위해 농부들은 반드시 살충제를 다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람이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듯이, 작물들도 패스트푸드인 비료에 의존하면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7

미네랄을 비롯한 토양의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질소는 작물의 수분함량을 높이기 때문에 질소가 많으면 작물의 단단한 정도가 감소하고 세포벽이 약해진다. 이 때문에 질소비료는 많은 물을 필요하게 되고 물이 많아지면 작물은 당연히 병충해에 취약하게 된다.

합성질소의 발견은 인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모든 생명은 질소에 의존하고 있다. 자연은 질소를 재료로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등을 만든다. 생명에게 지시를 내리고 삶을 지속시키는 유전정보는 질소잉크로 씌어져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탄소를 생명의 양을 규정한다고 하고, 질소는 생명의 질을 규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활용 가능한 질소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지구의 대기는 약 75퍼센트가 질소이지만, 모든 질소 원자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 질소가 단단한 결합을 깨고 나와 수소와 결합해야만 생명체에 쓸모가 있게 된다. 이렇게 질소원자를 수소원자에 결합시키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활용가능한 모든 질소는 콩의 뿌리에 사는 토양 박테리아에 의해 고정되거나 번개에 의해 질소결합을 쪼개 비옥한 비를 내리게 하는 자연의 방법을 이용했다. 그리고 물고기나 오리에 의해 질소를 공급받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에 하버가 개발한 질소고정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폭탄의 원료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당시 독일은 질산염을 칠레의 광산에서 수입했는데 영국이 이를 차단하자 화학적으로 이를 만들게 된 것이다. 결국 폭탄으로 쓰였던 질소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비료라는 폭탄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비히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 1837년 특허를 신청하고 초기의 인공비료인 과인산석회를 생산하여 거부가 된 존 베넷 로즈는 무기질소비료를 쓰면 작물은 빨리 성장하지만 생물다양성이 크게 손상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질소비료를 쓰지 않고 경작한 밭에서는 50여 종의 식물이 자랐는데 질소비료를 쓴 밭에서는 두세 종밖에 자라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런 사실에 기초하여 "유기성분을 발효시켜 만든 거름 몇 톤을 쓰는 대신, 화학비료 몇 킬로그램만을 써도 좋은 작물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다면 큰 착각이다."라고 말하며 농부들에게 천연거름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8 게다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금속인 납, 비소, 수은 등이 비료 제조과정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이런 중금속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농업학자인 브라이언 핼웨일은 「지금도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의 책에서 "세계 농업이 오로지 생산량 증가에만 몰두하면서 화학비료와 살충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량의 영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비만을 가져왔다. 비정상적으로 뚱뚱하면서도 그들은 대부분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허기를 느끼게 된다. 영양소, 특히 미량영양소의 결핍은 DNA를 손상시켜 각종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질소는 식물이 비타민C를 합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칼륨은 과일의 인 함량을 떨어뜨린다.

미국의 농토는 60여 년 간 비료를 쏟아 부어서 미네랄의 85퍼센트가 유실된 상태다. 유

럽의 농토 역시 75퍼센트의 미네랄이 유실된 상태다. 전체 농토가 불모지나 다름없다.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에는 항산화물질이 부족해진다. 외부로부터는 끊임없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발암물질이 들어오고, 우리 몸에서는 암을 예방해주는 항산화물질이 부족하니 점점 각종 암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9 우리나라도 비료로 유실되어 황폐화된 정도는 비슷하다.

또한 단작과 집약농법, 연작은 미량영양소인 미네랄의 함량을 크게 줄이고, 수용성인 합성비료의 과다 사용은 토양의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영양이 부족한 토양에서 재배된 작물은 단백질 형성이 빈약해지며, 면역성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수용성의 아미노산이나 당분을 식물세포에 많이 함유하게 되어 병충해의 원인이 된다.

종자 장악

자본주의는 자신의 결함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는다. 때문에 자연의 조화를 무시한 결과로 각종 질병이 만연하자 그들은 제약사업을 발전시켰다. 석유에서 추출하는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을 사용하게 되면 작물은 스스로 살충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반면, 자연적으로 재배한 작물에는 폴리페놀, 아스코르빈산 같은 자연의 살충제인 항암제가 풍부하다.

그리고 화학비료로 영양을 공급받은 토양은 급격히 단순화되어 폴리페놀 등의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뉴욕타임스의 음식전문 기자 마이클 폴란은 “합성비료보다 자연퇴비를 사용했을 때 생산량이 더 많고, 병에도 강했으며, 영양소도 풍부하다. 특히 단작보다 혼작을 할 때 전염병 피해가 적다.”고 강조한다. 10

그리고 이러한 농법은 석유를 원료로 만드는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관개를 필요로 한다. 비료와 살충제로 황폐화된 토양과 방사선으로 살균 처리된 식품에서 대부분 사라져 버린, 살아있는 미생물과 미네랄은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미량영양소다. 이런 이유로 예일대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L. 캐츠는 임산부들이 미량의 흙을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함을 인정한다. 이런 충동은 음식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의 부족에 대한, 그리고 독성화학물질을 배출하려는 생명체의 요구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한다. 11

현재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20퍼센트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자동차에 의해 소비되는 양과 거의 비슷하다. 논밭에 뿌려진 살충제가 원래 그것이 목표로 하는 해충에 닿는 양은 전체의 0.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9.9퍼센트 이상의 살충제는 그 주변의 다른 생명체들에게 해를 미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한다. 비료도 농작물이 흡수하는 양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하천을 통해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킨다.

다수확품종은 비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개량된 품종이고 교잡종이어서 재생산능력이 없다. 따라서 매년 농사지을 때 종자를 다시 애그리비즈니스로부터 새로 사야만 한다. 미국 최초의 교잡종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최대의 기업인 「파이어니어하이브레드」는 월러스 부통령이 설립한 회사이다. 전년도에 수확한 씨앗은 다음 해에는 발아하지 않거나 수확량이 크게 감소되도록 교잡종에 번식 제어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후에 이 기술이 ‘터미네이터’와 ‘트레이터’ 기술로 발전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의 개발자인 멜빌 J. 올리버는 “우리의 사명은 외국과의 식량장악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기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진솔하게 말한다.12

터미네이터는 미국 농무부와 '델타 앤드 파인랜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로 유전자를 조작해 다음 해에는 싹을 발아하지 못하도록 재생산 능력을 제거하는 기술이고, 트레이터는 터미네이터 종자에 자사에서 생산한 '세이프너'라는 화학물질을 일정기간에 투여해야만 싹을 발아하도록 하는 유전자조작기술이다. 처음에는 불임상태이었다가 성장기 중 일정시기에 세이프너라는 화학촉진제를 뿌리면 새로 발아하는 것이 가능한데, 세이프너에는 플루라졸, 나프탈산 무수물, 디시클로논, 옥사벤트리닐, 펜클로림, 시오메트릴, 플룩소패님, 푸릴라졸, 등의 수많은 독성 또는 발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터미네이터 기술이 사용되면 토양, 수질,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터미네이터 기술 특허를 취득한 씨앗들은 옥수수, 콩, 담배, 사탕무, 감자, 토마토, 케놀라, 양배추, 해바라기, 면화, 셀러리 등 주요작물 대부분이다. 터미네이터에 대해 세계의 비주류 학자들과 시민단체,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록펠러재단 이사장인 고든 콘웨이는 1999년 6월, 몬산토에 대해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몬산토는 얼마 후에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는 황금쌀 발표 직전이었다.13 성공 단계에 이른 황금쌀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터미네이터기술을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출시하는 황금쌀도 결국은 세계의 양심적인 힘에 밀려 포기한다.

질소비료는 수용성이어서 농작물이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논에 늘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이 때문에 살충제를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물이 충분한 논에서 작업하려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비료, 살충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법은 필연적으로 단작을 하게 된다.

거대한 농토에 같은 종류의 작물만 재배해야 비료, 살충제, 농기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이 석유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농경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작은 씨앗을 더 촘촘히 심게 된다. 특히 옥수수와 콩이 화학비료와 단작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현대 농업 작물의 대부분은 쌀, 옥수수와 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줄기가 부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줄기를 더 짧게 개량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교잡종에는 '성장억제호르몬'을 주입한다.

자연 그대로

자연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것이 다양성의 조화이다. 작물의 다양성은 풍부한 영양과 다양한 작물의 수확을 보장해준다. 이런 다양성의 장점은 광우병으로 고기를 먹을 수 없을 때, 특정 작물에 퍼진 돌림병으로 작물이 폐허가 됐을 때, 살충제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할 때도 인류에게 다른 식량을 공급해준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단작이 일반적이고, 단작을 통해 재배된 옥수수는 에너지를, 콩은 단백질을 인류에게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곡물이 되었다. 그러나 단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아무리 큰 수라도 0(영)을 곱하면 제로가 되듯이, 단작에 돌림병이 돌면 전체 농사가 망치고 제로로 될 수도 있다.

반면 우리가 곡물을 그대로 먹으면 에너지의 100퍼센트를 흡수할 수 있지만, 가축의 사료로 쓰인 후에 고기를 먹게 되면 10퍼센트의 에너지 밖에 섭취할 수 없다. 사라지는 90퍼센트의 에너지는 가축이 성장하면서 호흡, 운동으로 소모되고, 음식으로 할 수 없는 깃털, 머리, 가죽, 뼈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쇠고기 1킬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3킬로그램의 곡물을 먹여야 하며, 돼지고기는 7킬로그램을, 닭고기는 3킬로그램을 먹여야 한

다. 14 따라서 음식사슬의 단계를 거칠수록 에너지효율은 불리해진다. 에탄올을 원료로 사용할 때도 같은 이치로 에너지효율은 불리하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교잡종 F1은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 물, 토양성분 등 자연을 동등하게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조밀하게 파종해도 모든 개체는 동일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특정 질병이 생기면 그해 농사는 전멸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잡종에는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살충제를 뿌려야 한다. 게다가 현대의 곡물은 대부분이 환금성이 좋은 가공용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공회사에서도 가공하기 쉽도록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곡물을 선호한다. 제품의 특성을 통일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계 식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이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종자 기업들은 유전자를 변형시켜 국제적인 소유권을 획득했다. 소유권을 획득한 종자 기업들은 자신들의 식량인 옥수수를 소비시키기 위해 육식어종인 연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옥수수를 먹도록 변형시키기도 했다.

그들은 또한 초식동물인 소에게 고기사료와 곡물을 항생제, 성장호르몬과 함께 투여하여 사육한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접착제, 코팅제, 착색제, 식용유, 효모, 포도당, 레시틴, 구연산, 설탕, 글루타민산나트륨, 플라스틱, 치약, 화장품, 표백제, 쓰레기봉투, 가축사료, 광택제, 에탄올의 재료 등 공업원료에서 식품원료에 이르기까지 지구를 모두 옥수수로 덮고 있다.

가축사료의 대부분은 콩과 옥수수로 만든다. 그러나 소, 양 등 반추동물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곡물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반추위는 pH가 중성이어서 산성인 곡물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곡물이 반추위로 들어오면 반추위가 산성으로 변하면서 유선염, 고창증, 산중독 등의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옥수수에 풍부한 탄수화물과 콩에 풍부한 단백질이 소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과잉 공급되는 옥수수와 콩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콩과 옥수수를 소화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유선염 등을 루멘신, 타일로신 같은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에 풀을 먹이며 키우던 소는 4년 정도 키워야 도축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지만, 곡물로 키우면 2년 6개월 정도 키우면 도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 인간의 탐욕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소에게 박테리아에서 추출하는 성장호르몬과 고기사료[35]를 투여한다. 곡물과 항생제, 성장호르몬, 고기사료로 키운 소는 14개월이면 도축할 수 있게 된다. 15 예전에는 2년 키우던 돼지도 현재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해 9개월이면 도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만들어내는 곡물이나 고기는 음식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체에 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돈으로 평가되는 효율이 자본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효율보다 중요한 자연의 조화는 무시된다.

필수지방산인 오메가-3는 우리에게 암, 당뇨병,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을 이겨내고, 뇌

35) 초식동물에게 고기를 먹인 결과 광우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는 고기사료를 초식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반추동물의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반추동물인 소, 양 등의 고기를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 닭에게 먹이는 것은 허용되고, 이를 먹고 자란 돼지, 닭의 고기를 반추동물인 소나 양에게 먹이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백질이 아닌 지방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게다가 사료로 쓰이는 동물은 대부분 사육 중에 병으로 죽거나, 실험용에 쓰였거나, 늙어서 동물보호소에 버린 동물들이다.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자연의 힘을 선물해준다. 이 같은 오메가-3는 모유에도 풍부하다. 반면,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생명체에 있어서 염증은 면역시스템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생명체에 있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 섭취하는 음식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1이고,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1:2이지만, 곡물과 고기사료, 성장호르몬으로 키운 소는 1:10 또는 1:15이다. 이렇게 오메가 비율이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크롬은 토양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인데 비료로 인해 토양의 미네랄이 유실되면서 크롬이 음식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크롬의 부족도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16

이미 자연의 조화가 깨진 상태의 쇠고기가 우리 몸에 좋을 리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소를 곡물, 지방보충제, 항생제, 성장호르몬으로 키우고 식물을 경작할 때 비료를 상당량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협중앙회 사이트에서는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의 투여 방법 및 비료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17

유럽,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가축에게 성장호르몬 투여를 금지하고 있고, 항생제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항생제를 투여한 가축은 식용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탐욕으로 키운 작물이나 고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쌀, 콩, 옥수수를 닮은 가짜이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닮은 가짜다. 독이다.

현대인이 암, 광우병, 심장병,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까닭은 음식이 아닌 이 같이 화학물질로 뒤집어 쓴 가짜와 유전자가 조작된 가짜를 먹기 때문이다. 항생제의 과다투여는 O157:H7과 같은 내성을 가진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들어낸다. 이 박테리아는 1980년대 이후에 새로 나타난 박테리아로 열 마리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켜 신장을 파괴하여 대부분 사망하거나, 살아난다 해도 거의 불구의 몸이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박테리아는 100만 마리가 들어와야 병을 일으킨다.

결국 다수확품종은 비료, 살충제, 농기계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초기에 생산량이 늘었어도 대출금 이자, 농자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농가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세계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록펠러재단이 출자한 자금이다. 결국 농민들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비료와 농약을 써야 했고, 토양은 더욱 빠르게 침식되어 갔고 수확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농작물은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가 깨진 상태여서 인류에게 각종 질병을 안겨주었다. 영국의 유기농학자 엘버트 하워드는 “농업의 산업화로 인해 토양의 신비로운 힘을 단순화시킨 합성 질소비료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다. 작물은 자신이 자란 토양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18

이제는 다시 영농을 화석에너지에서 태양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인류는 45억 년 동안 진화해오면서 태양에너지를 사용해왔다. 물론 새롭게 등장한 화석에너지로 만든 합성화학물질도 인간이 40억년을 적응해내면 우리에게 유용한 자연 물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인류가 겪게 될 엄청난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제유기농협회(IFOAM)의 게랄트 헤르만 회장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70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생태영농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친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캐서린 베드글리 교수는 전 세계의 293개 농업생산 지표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 비료 등 석유에

너지에 기반을 둔 영농의 경우 1인당 2,786칼로리를 생산한 반면, 태양에너지에 기반을 둔 영농은 1인당 4,381칼로리를 생산해 냈다고 한다. 영국 에식스대학의 줄리 프리티와 레이첼 하인 연구원이 세계 각국 208개의 영농지표를 조사한 결과도 "생태영농이 확실하게 식량생산량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9

그럼에도 터스키기대학의 분자생물학자인 C. S. 프라캐시 같은 주류 학자는 "개도국에서 유기농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빈곤과 영양실조뿐이다."며 화학물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20 분자생물학이 화학물질과 유전자조작의 기초학문이니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농민의 분노는

이러한 농업의 구조적 모순을 숨기기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재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부동산투기를 통해 농지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농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도 한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의 농민들에겐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에게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값의 상승효과도 부농들이 거의 독식하고 소농들은 그 일부인 부스러기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구조적 악순환의 연속이다. 미국과 유럽은 2,600억 달러를 농민에게 지불하며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경쟁으로 세계 농산물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해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 농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2002년 부시 대통령은 2,486억 달러에 달할 때까지 매년 전년 대비 80퍼센트씩 농업보조금을 증액하는 법안에 서명해서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1

그러나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해도 그 혜택은 대부분 거대 식량기업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정작 미국의 가족농이나 소농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연 평균 143억 달러의 농업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상위 20퍼센트의 농기업 또는 농민이 거의 독차지하고 그 이하의 소농들에겐 거의 배당되지 않았다. 유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위 1.8퍼센트의 부농이 연평균 50만 유로 이상을 보조받지만 하위 78퍼센트의 소농은 평균 5천유로의 보조금밖에 받지 못한다. 농업에서의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1997년에 '타이슨 푸즈사'가 불법행위로 납부한 벌금은 600만 달러였다. 그러나 그 전 해인 1996년에 타이슨 푸즈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2억 달러였다. 22

규제가 사라지고 막대한 농업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게 된다. 농민들은 줄어드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 농산물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 가난의 악순환이다. 아프리카의 최빈국의 하나인 말리의 농민 쿨리발리는 "우리는 모두 우리 형제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한다면, 당신들도 결코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호소한다. 23 맞는 말이다. 지구의 한 쪽 구석이 평화롭지 못하면 지구 전체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지구를 포함한 인류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손등에 염증이 생기면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에 투자한 금액은 1백15조6천 억 원이며 이중 47퍼센트(54조5천억 원)가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비로 투자됐다. 기업을 포함해 농민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61조1천 억 원이다. 이중 대출형식인 보조금인 33조 8천 억 원

을 빼면 16년간 농민에게 직접 지원된 보조금은 27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금인 경영 소득안정 보조금은 1조5천 억 원이다.

이 액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OECD회원 30개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2006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농업보조금은 1천2백53억 달러로서 전체 농업생산액의 14.7퍼센트를 차지한다.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유럽연합(EU)이 22퍼센트, 미국 10.2퍼센트, 일본 6.9퍼센트, 호주 5.8퍼센트 순이다. EU에 속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보조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다. 2006년 한국의 농업보조금은 24억 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6.4퍼센트로 농업보조금의 비율로 보나 농업생산액 대비로 보나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다른 선진국이나 OECD 국가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순이다. 24 그나마 이것도 대부분을 생산량이 많은 기업농, 부농이 차지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몇 종 안 되는 농작물에 의존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고유의 아주 다양한 농작물들이 있다. 때문에 그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가 '잊힌' 이유이며, 지난 몇 십 년 동안 농업연구와 농업개발이 아프리카를 비켜간 이유다. 그들은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과학에 의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탐욕에 젖은 강대국들에게 희생을 당해왔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분명 그들의 사고가 옳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농학자이자 환경보호국 국장인 테월데 베르한 게브레 애그지아베르에 의하면 "에티오피아는 작물의 다양성 때문에 넓은 면적에 한 가지 곡식만을 재배하는 단일 경작과는 달리 어떤 병충해가 발생해도 심각한 손실을 입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수입한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어 그는 "서구 세계의 다국적기업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아프리카는 또 다시 노예가 될 것입니다."라며 비료, 살충제, 제초제, 댐, 유전자조작작물 등으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농법을 거부한다. 25

게다가 석유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석유메이저들의 투기로 가격 등락이 요동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식량메이저들의 투기로 인해 식량의 가격은 요동친다. 가격이 낮아지면 결국 가족농으로 유지하는 빈농은 견디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야 한다. 빈농이 떠난 자리에는 부농이 들어와 깃발을 꽂는다. 설사 이번에는 힘겹게 버텼던 빈농들이 다음에 또 몰아치는 가격폭락에서 또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마치 금융시장에서 거대 금융세력이 일정 시기마다 '양털 깎기'를 하는 것과 같다.

현재 세계 식량 중에서 88퍼센트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고 12퍼센트만이 투기꾼들에게 휘둘린다. 특히 쌀의 경우에는 95퍼센트가 자국 내에서 소비되고 5퍼센트만이 투기의 대상이 된다. 26 식량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품이므로 '킹의 법칙[36]'이 적용된다. 따라서 필요량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곡물메이저들은 얼마든지 가격조작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애그리비즈니스는 관련 산업을 통합하면서 거대한 회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 록펠러가문이 추천한 카터가 대통령이 되자, 정부가 수십년 동안 신중하게 구상해온 건강에 관한 규제와 식품안전성, 소비자보호법에 반격을 가하면서 새로이 수직적 통합에 나섰다. 수직적 통합을 통한 기업의 거대화는 '경제적 효율'이니

36) 식량과 같은 필수품에서 생산이 필요량 이하로 감소할 때 가격은 정상수준 이상으로 크게 오르고, 또 필요량 이상으로 생산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한다는 법칙. 다시 말해 생산량이 필요량을 기준으로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가격은 크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보존이 어렵고 인류에게 절대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17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킹이 정립했다.

'규모의 경제'니 하면서 대중들의 인식에 세뇌되기 시작했다.

카터의 뒤를 이은 레이건, 조지 H. W. 부시,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에 이어지면서 미국은 거대기업을 향한 '규제완화'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수직적 통합을 가속화했다. 수직적 통합이란 '초거대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들이 추진했던 규제완화는 '국가의 규제'에서 '사적 규제'로의 전환이었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변질이었다. 일그러진 자본주의!

오래 전부터 록펠러3세는 국가 규제의 폐지와 민영화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그리고 록펠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시카고대학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전파했다. 시카고대학 출신으로 신자유주의를 전파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카고학파'를 결성한다. 그리고 1970년 이후로는 시카고학파 학자들이 노벨경제학상을 독식한다. 노벨상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록펠러재단이 신자유주의를 세계질서의 축으로 삼기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이었다. 규제 완화, 사적 재산의 절대적 존중, 세금 감면, 민영화 등은 청교도의 원리이자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록펠러재단이 오랜 기간 동안 주장해온 원리이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 록펠러재단의 이념이 신자유주의다.

3장. 인류를 상대로 한 생체실험.

살정자 옥수수

에이즈공포가 시작되던 1984년 12월, 록펠러재단은 세계 대다수 인구의 주식인 쌀을 개량하는 일을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록펠러재단이 석유와 식량을 장악한 지 30년도 되지 않아 생태계파괴, 수확량의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이제 방향을 돌려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대상은 쌀, 옥수수, 콩 등 인류가 주로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은 작물이다. 그 후부터 재단이 지원하는 농업관련 재정의 반 이상을 쌀 대상의 생명공학 프로그램에 쏟아 부었다.

생명공학은 이미 록펠러재단이 1930년대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기술이었다. 독일과 미국의 우생학자들에게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했던 록펠러재단은 록펠러의학연구소(후에 록펠러대학교로 바뀜)를 중심으로 그들이 연구했던 자료들을 끌어들였고, 최고의 화학자와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을 불러들였다.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인종탄압을 시작하자 1933년 4월부터 록펠러재단이 재정지원을 해 독일에서 학자들만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이때 이주한 학자들 중에는 생물학자 113명, 물리학자 107명으로 가장 많았다. [1]

이들은 이후에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합성비료연구와 유전자조작연구, 핵무기연구 등에 투여된다. 대공황 시절에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그들이 개척해낸 학문이 '분자생물학'이다. 분자생물학이란 용어는 처음으로 록펠러의학연구소의 자크 러브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분자생물학은 50년대에 시작되는 화학공학과 80년대에 시작되는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록펠러재단은 1932년부터 1957년까지 9,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우생학에서 많은 것을 빌려온 록펠러의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화학적 조작을 통한 분자의 재결합과 유전자조작으로 자연의 모든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모든 자연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록펠러대학교의 자크 러브, 에이버리, 매클라우드, 매카티, 시어도어 보브잔스키 등은 유전자를 특수 처리하여 다른 개체로 이전시켜 돌연변이를 유도해내는 기술을 50년대에 발전시켰다. 이 기술은 후에 유전공학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1946년에 우생학기록국이 있던 콜드스프링하버에 모여 '미생물의 유전학'에 관한 연구발표

를 한다. 2

2001년 9월 9일, 록펠러재단의 자금지원을 받는 샌디에이고 소재의 생명공학 기업 「에피사이트 파머슈티컬」의 사장 미치 헤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연구해오던 피임옥수수를 완성했다고 발표한다. 그 발표내용에 의하면 면역성 불임이라는 희귀한 증상, 즉 정자를 공격하는 인간항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서 항체를 추출하여, 그 불임항체의 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분리해낸 다음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옥수수에 그 유전자를 투입했다. 그러면서 세계 인구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대량으로 생산해 상업화할 수 있는 시기를 2007년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보다 2년 전인 1999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학의 유전자연구팀도 같은 방법을 연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3

그 후 2002년 10월 6일, CBS 뉴스는 터미네이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성이던 미 농무부가 다양한 작물에 들어 있는 약제를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32군데에서 실시 중인 현장실험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물론 에피사이트의 살정자 옥수수도 그 대상이었다. 그 후 9.11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으로 세계의 관심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집중되면서 살정자 옥수수의 관심은 사라졌다. 그리고 에피사이트사는 2004년 5월 6일로 생명공학 기업 「바이오렉스」로 합병되었다. 지금 이 살정자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4

그러나 옥수수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흔히 먹는 주식이라는 점과, 이전에도 우생학적 사상으로 여러 번의 불임수술을 강제했던 사건들을 고려할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만들었으니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환원주의의 오류

록펠러재단의 후원을 받는 록펠러대학교의 연구진들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전자 복제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기계"라는 다윈의 결론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고는 영국의 동물행동학자 리차드 도킨스도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의 모든 유기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인 분자로 환원할 수 있고, 이 분자의 재배치를 통해 불완전한, 진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생명체를 완전한 유기체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생명체를 각 구성 요소로 쪼개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면서 미묘한 상호작용이나 전체적 관계는 무시한다. 그들은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거나 그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5

예컨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도 산소,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이 자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기는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것을 요소로 분리해서 산소만을 떼어내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산소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나트륨, 불소도 마찬가지다. 실험실에서 생산해내는 나트륨은 가장 깨끗한 소금이지만 인체에는 독이다.

인류가 수십 억 년 동안 접해온 것은 여러 가지 불순물을 통해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금이지 실험실에서 생산한 나트륨이 아니다. 나트륨은 극히 적은 양이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필요량을 조금만 넘으면 독이다. 또 식물은 광합성과정에서 생성되는, 반응성이 큰 산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폴리페놀 같은 산화방지제라는 분자를 만든다. 산화방지제는 우리 몸 안에서 DNA를 파괴하고 암을 일으키는 유리기를 흡수한다. 그러나 산화

방지제인 폴리페놀도 전체에서 떼어내 그것만을 섭취하면 오히려 특정 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동물에게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IGF-1)는 세포분해를 촉진시켜 성장을 돕는 요소이다. 그러나 록펠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몬산토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해 유전자조작으로 개발한 성장호르몬 '포실락'을 젖소에 투여하여 이 인자가 우유에 추가되면 치명적인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 자연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다. 수많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엇박자를 일으키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은 음식은 최고의 약이다. 음식에는 아직 과학이 확인하지 못한 수천, 수만 가지의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양한 성분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늘은 고대로부터 선조들이 지혜로 찾아낸 약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마늘에는 셀레늄, 황화합물, 칼륨, 인, 아미노산, 비타민B와 C, 구리 아연 등 200가지 미네랄과 활성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마늘에는 '알리신'이란 성분이 들어있어 유방암 등 각종 암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혈관을 넓혀 고혈압을 누그러뜨린다.

그러나 이것도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고 마늘에서 알리신, 셀레늄, 칼륨 등의 성분만을 따로 추출해내면 이것은 인체 내에서 독으로 작용한다. 상호작용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서양의 현대의학이 저지르는 오류다. 환원주의에 의해 분자로 떼어 약으로 만들고, 그 약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또 다른 성분으로 그 부작용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면 그 부작용을 치료하는 약을 또 만들고...

환원주의[37]의 밑바탕에는 모든 자연의 현상이 분자로 분해했을 때 예측가능한 규칙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이 측정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식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데카르트는 정신이 신체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며 과학으로 이어지는 정신의 우수함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맥락에서 발전시킨 것이 록펠러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환원주의다.

그러나 물리학에서 이와 같은 관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등장하면서 오래 전에 이미 폐기되었고, 최근에 등장한 양자이론은 이러한 관점의 폐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거나 조직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이제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상대성이론과 극미의 원자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이론은 독립한 경우보다 통합된 경우가 자연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인정되면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것이 통섭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원주의 과학은 통섭을 철저히 거부한다.

콜롬비아대학의 영양학자 존 거소는 "우리가 역학 조사한 결과 채소와 과일이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비타민C를 함유한 과일' 또는 '베타카로틴(비타민A의 전구체)을 함유한 채소'를 말하는 것이지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이 암을 예방한다는 것이 아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다른 수 백 가지 성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고 힘 있게 강조한다. 6

과학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집중한다. 그들의 교육과정은 드넓은 세계의 윤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첨단 분야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자신만의 발견을 하

37) 복잡한 체계도 그것을 이루는 가장 단순한 부분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 유기체는 그 유기체를 이루는 유전자들에 의해, 사회는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나무를 보고 숲을 판단하려는 입장이다. 록펠러대학교에서 발전시킨 분자생물학은 환원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학문이며 그 연구 대상이 유전자이다. 따라서 유전자조작은 분자생물학의 연구 결과이다. 반면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통합하여 이를 전체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통섭'이다.

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는다. 왜냐하면 경계부분의 연구는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수백만 달러의 실험실에 소속된 과학자들은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으며 그것에 이득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에서의 연구비와 영예는 발견에 주어지는 것이지 지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과학자들이 꿈꾸는, 돈 방석으로 이어지는 특허는 가장 먼저 발견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스포츠세계에 퍼져있는 승자독식이 과학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UCLA 암센타 연구원인 제프리 H. 밀러는 이렇게 말한다. “과학자는 자신이 어떤 이론을 지지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그 이론이 틀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연구지원금이 중단되거든요.” 7 이것이 주류 과학계의 모습이고 특히 주류의학계의 모습이다. 결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가 허용되지 않는 세계.

우리나라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생명공학은 피 말리는 끔직한 경쟁의 세계다.”고 말한다. 이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버티려면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특정 연구 분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자들, 소위 전문가들은 시야가 좁다. 그들은 희박한 가능성에 삶을 바치는 석유채굴꾼들과 동일하다. 노다지에 대한 망상에 젖어 여기저기를 뚫다가 대부분 한 생애를 마감한다. 그러다가 운 좋게도 한 곳에서 석유가 뿜어져 나오면 그는 ‘특허’를 획득하고 돈방석에 앉게 되지만 그 확률은 너무도 낮다는 게 문제이다. 따라서 대박을 꿈꾸는 과학계에는 극단적인 종교인은 있지만 철학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공학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필립 리걸은 “DNA 분자는 시험관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유기체를 재생하는 개체들 속에서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DNA 활동을 시험관에서나 볼 수 있는 화학적 특성들로 환원할 수 없다.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DNA는 돌연변이, 유전자유동, 자연선택 등에 따라 변형되거나 불안정해진다. 이 때문에 유전자조작은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리차드 밀턴도 “DNA 분자는 시험관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살아있는 유기체에서는 극히 복잡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생명은 매우 복잡하게 진화하기 때문이다.”고 경고를 계속한다. 우리의 미래가 과학자들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각 개인이 지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류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인지, 실패로 이끌 것인지를 결정한다. 8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찾은 ‘요소’와 ‘그 요소나 작용이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학자들이 찾아낸 요소나 밝혀낸 작용 이외에 과학이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요소와 작용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굿윈은 “우리는 요즘 건강, 환경, 생태계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생물학은 환원주의 때문에 생명, 생태계, 생물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유기체를 모두 유전자로 환원한다면 유기체는 어떠한 본래적인 특성도 띠지 않는다. 진화이론에 따르면 종이야말로 자연스런 바탕이며 원소와 같은 것이다. 마치 금이 특별한 속성을 띠듯이 바다성게도 그 나름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인간도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과학자들은 종의 장벽을 넘나들면서 유전자를 옮겨 형질을 전환한 새로운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같은 종끼리 재조합을 통해 유전자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나 실제로 같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화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한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유전자를 전이하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유전자는 홀로 작용하거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임의로 이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유전공학을 찬성하지만 다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위험을 강

조했다. [9]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인간의 유전자가 3만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3만개의 유전자가 상호 작용을 통해 수백만 가지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다른 종의 유전자를 투입시키면 진화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상호작용은 깨지게 되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록펠러재단은 생명체의 복잡성과 자연의 복잡성을 단순하고 결정론적이며 예측 가능한 모델로 환원시켰다. 그들은 유전자를 조작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범죄, 빈곤, 폭력 등 악을 없애고 사회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런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로 나타날 인류의 불행은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 화학물질, 유전자조작, 인간복제 등 잘못된 과학도 서슴없이 만들어냈다.

생물학자 로버트 만은 "살아있는 세포는 원자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다. 하나만 잘못돼도 그 결과는 비참해진다. 원자력이 그렇듯이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엄격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록펠러재단의 환원론적 단순화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원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10]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는 왜 집단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유전자가 자기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때때로 하나의 화학반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련의 중간물질들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11]

바로 상호작용이다. 이 상호작용에 인공적으로 개입하면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진화의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몸은 신비롭다.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고, 적응력도 있지만 경이로울 만큼 복잡하다. 지구 역사상 인간을 가장 성공한 종으로 만들어준 이 복원력과 적응력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이 정상대로 가동하려면 자연의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며 과학저술가인 브라이언 클레그는 "그레이트데인과 치와와라는 늑대를 개량해 보통의 애완견으로 만들어 왔고, 식용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원형 옥수수를 변형시켜 생산량이 많아진 식용 옥수수로 만들었으며, 콜리플라워를 변형시켜 양배추로 개량했다. 즉 '자연스런 유전자조작'을 해 왔다."며 "과학자들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이용한다면 안전하다. 유전자조작의 위험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하며 록펠러재단의 유전자조작을 옹호한다. [12]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레이트데인, 치와와, 원형 옥수수, 콜리플라워 등은 수십 억 년 진화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자연의 형질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동일한 종'중에서 우수한 암컷과 수컷을 되풀이 교배함으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은 자연에 존재하는 '종의 장벽'을 벗어난 것이다. 수선화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황금쌀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치누크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연어도, bt 박테리아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옥수수도, 인간인슐린 유전자가 들어있는 박테리아도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인 DDT, 글리포세이트 등으로 인류는 얼마나 고통스런 경험

을 겪었는지 벌써 잊었단 말인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책임감 있게 다룬다면 안전하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과학자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철학이 결핍된 환원주의 사고에 젖어 단 한 번의 우연으로 부와 명예를 거머쥐려고, 수십 년을 몇 백만 달러짜리 실험도구에 매달려있는 그들에게 인류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다. 마치 19세기 후반의 록펠러 같은 강도귀족에게 동정을 구하는 게 훨씬 쉬우리라. 환원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록펠러재단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존 페이건은 미국립보건원(NIH)의 재정지원을 받아 20년이 넘도록 유전공학을 연구해온 분자생물학자다. 하지만 그는 1994년, 10여년간 그가 수행해 오던 60만 달러의 연구비를 NIH에 돌려준 뒤 125억 달러 규모의 연구계획안을 반납했다. 그는 "유전공학자들은 시험관 안에서는 유전인자들을 매우 정밀하게 베고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자들을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에 집어넣는 과정은 너무 불안정하며 통제할 수도 없다. 잘못된 조작으로 유기체의 기능에 변화를 주어 변종이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유기체에 들어간 유전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그는 유전공학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 유기체에서 DNA 조각을 잘라 다른 유기체에 집어넣을 때에는 DNA 조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같은 유전적 기생충도 함께 들어간다. 유전적 기생충은 원래 특정 종에만 기생하게 되어 있어 '종의 장벽'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 벽이 인간에 의해 무너지면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끔직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13

이런 와중에도 몬산토는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스스로 살충성분인 cry1Ab라는 단백질을 생성하여 조명충나방을 퇴치하는 bt면화에 대한 규제를 폐지시키기 위해 (유전자조작한 작물을 검사받지 않게 하려고 고위 정부 관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네주는 등) 7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2005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5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14 bt작물은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옥수수나 면화에 이식하여 cry1Ab라는 살충성분이 있는 단백질을 스스로 생성하여 조명충나방 등을 퇴치하는 것이다.

bt옥수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분자생물학 교수였던 리 실버에 의하면 첫째, bt옥수수는 대부분 동물의 사료에 쓰이고, 나머지도 대부분도 옥수수시럽으로 만들어져 첨가당에 쓰이므로 cry1Ab 단백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몬산토에서 규제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cry1Ab 단백질은 0.3ppm(1천만분의 3)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셋째, cry1Ab 단백질은 박테리아에 의해 합성되어 곤충의 내장에서 매우 특수한 수용체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척추동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주류학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UN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도 "과학자들은 대부분 현재 재배 중인 유전자이식 작물과 그로부터 추출한 식품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라는 꼬리가 붙은 채... 15

1991년 10월, 애리조나 주에서 진행된 2억 달러짜리 과학실험은 인류에게 '자연그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결정적인 연구였다. 사막 한가운데에 '바이오스피어2'라는 이름의 지구 생태계를 축소한 거대한 반구형 유리구조물 속에 남녀 과학자 8명이 들어가 얼마나 오래 생활할 수 있는 지를 실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백만장자 에드워드 베스가 진

행한 것으로 우주에서의 장기여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했다. 그 구조물 내에는 4,000여 종의 식물, 동물, 물고기, 각종 박테리아, 바다, 개울, 농지, 사막 등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한 형태였다.

그러나 8명이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고 입구가 밀폐 되자 곧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산소 농도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반면 질소 농도는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곤충들은 빠르게 죽어갔다. 자연의 통제를 벗어난 생물들은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바퀴벌레, 개미, 덩굴식물들은 빠른 속도로 번식했지만 다른 생물들은 대부분 죽어갔다. 사람이라는 생물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예측과는 달리 2년이 지난 후의 결과는 대실패였다.

우리 인간의 기술력은 물의 순환, 공기 정화, 생명체 조절 등과 같은 자정시스템을 만들어낼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아마도 영원히 그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에서 긴급히 산소를 투여해야 했다. 그 실험은 생태계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 지를 보여주었다.

하버드대학의 생태학 교수인 에드워드 윌슨은 “만약 모든 인류가 사라진다면 모든 생물이 환영하며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생물들, 예컨대 개미가 사라진다면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울 겁니다.”고 말한다. 개미는 땅을 뒤집어 토양에 공기를 공급하고, 작은 생물들의 시체를 분해하여 다시 토양으로 복원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모든 존재는 다 지구에 존재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다.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은 원자를 각 구성요소인 양자, 중성자, 전자로 나눠 태양계를 모방한 원자 모형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인 에너지와 질량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흥분했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 의해 양자, 중성자, 전자는 태양계 모델을 따르지 않으며 입자들의 위치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리학자 그리초프 카프라는 “원자 모형에서 보는 공 모양의 입자는 원자에 없다. 고체물질이나 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원자 입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입자들과의 상호관계로만 파악할 수 있다.”며 “뉴턴 물리학은 처음에는 해방이었지만 20세기 초 속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해방을 맞았다. 양자 물리학, 시스템 이론, 가이아 이론[38]은 우리를 뉴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말한다. 인류가 우주에서 ‘상호작용의 원리’를 알아낸 것이다.

바이오스피어2의 교훈은 인간이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곤충은 지구 생물 가운데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다양한 집단이다. 그 중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과 경쟁하는 곤충은 전체의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과학 기술과 자본을 들여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곤충을 죽이기 위해 99퍼센트의 곤충과 토양 미생물, 물고기 등을 멸종시키고 있다. 자연에서의 상호작용이 깨지면 인류의 생존도 끝날 것이다. 16

상호작용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서도 작용한다. 각 유전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전 정보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준다. 이 상호작용이 깨지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어쩌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른다.

---

38)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주장한 가설로 1978년 저서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소개되었다. 가이아(Gaia)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이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에 의하면 지구는 단순히 기체에 둘러싸인 암석덩이로 생명체를 지탱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임을 강조한다. 가이아 이론은 환원주의 과학자들에 의해 배척받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과 최근의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주의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다.

황금쌀의 욕망

인간은 자연을 조작하는 능력을 얻으면서 양 날 검을 손에 쥐게 되었다. 똑같은 지식에서 선과 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부가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인류를 위해 복이 될 수 있지만, 부가 악마에게 쥐어지면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연을 조작하는 칼이 잘못 쓰이면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부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세계를 석유로 지배하고, 인류를 식량으로 지배하려고 계획하는 록펠러재단에 그 칼이 쥐어지면 미래는 재앙으로 멸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클레그는 “비타민A는 하루 최대 200그램만 먹으면 된다.”며 아시아 개발도상국 어린들의 시력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록펠러재단이 개발한 유전자조작 황금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7 그러나 하루 200그램의 비타민A는 아시아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야채를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이다. 아시아 어린이들이 실명하는 이유는 비타민A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식량이 부족한 이유는 생산량이 부족해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2010년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해 69억 전 인류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된다. UN 식량조사관인 장 지글러와 식량문제전문가인 월든 벨로에 의하면 1984년 기준, 120억 명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분배구조의 부도덕으로 식량이 서방 선진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기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아마르티아 K. 센도 “기아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고 한다. 18 그 원인의 중요한 것이 육식 위주의 식습관과 버려지는 음식쓰레기, 에탄올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다.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는 소비되는 식량의 거의 6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황금쌀은 2000년에 록펠러재단이 설립하고 재정 지원하는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IRRI)’에서 개발한 유전자조작 쌀이다. 이 쌀은 수선화의 유전자를 박테리아를 이용해 쌀에 이전시켜 비타민A를 강화했다고 한다. 그 당시 뉴욕타임스, 타임, CNN, ABC 등은 “황금쌀은 쌀을 주식으로 삼는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대대적으로 상업화를 촉구했고, 이 황금쌀의 개발을 주도했던 스위스의 잉고 포트리쿠스는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0년 우리나라의 금호그룹이 제정한 「금호국제과학상」의 제1회 수상자가 되기도 했다. 19

주류 과학자들은 원인을 숨긴 채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 삼으며 아시아 어린이들을 유전자조작 작물로 생체실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조작작물의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난한 흑인을 상대로 자행했던 반인륜적 ‘터스키기’ 생체실험을 이번에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상대로 또 실시하려는 거다. NO! 그들은 황금쌀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폴란은 2001년 3월 4일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바로 지금 농업 기업이 쏟아 붓는 엄청난 광고비를 덜 화려하지만 더 명확한, 자연적인 프로그램들에게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명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며 유전자조작 기업들에 대해 충고한다. 20

다행히 록펠러재단은 1984년부터 17년간 6억 9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개발하고 홍보했던 황금쌀에 대해 세계 각국의 양심적인 비주류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항의에 부딪히자

당시 록펠러재단 이사장이며 「두 배의 녹색혁명」의 저자인 고든 콘웨이는 2004년에 성명을 발표한다. “황금쌀이 하루에 수만 명의 아이들을 실명에서 구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광고는 심하게 과장된 것입니다. 황금쌀 없이도 아시아의 어린이들은 야채로 얼마든지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며 황금쌀의 시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황금쌀의 상업화가 중단되었지만 그것을 개발하고 공동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잉고 포트리쿠스는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 아래 현재에도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황금쌀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21

이탈리아의 주류과학자인 툴리오 레제는 황금쌀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황금쌀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가격이 싸고, 부작용이 없어 제3세계 어린이들의 실명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타민A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황금쌀은 특허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래쌀보다 비싸고, 부작용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판단할 수 있다. 그는 담배공포를 부추기는 일과 유전자조작작물의 홍보, 합성화학물질의 효용을 홍보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의 주장 중에 어이없는 것은 담배의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유전자를 조작한 담배는 안전하고 오히려 유익하다.”는 주장과 “북한의 식량위기는 원자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 때문이다.”라는 주장이다. 22

황금쌀이 상업적으로 활용되어야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돈 방석’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타민은 미네랄이어서 적정 함량을 초과하면 인체 내에서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한다. 자연적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건강에 꼭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로 복용하는 비타민제는 거의 대부분이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독이다. 산소만을 섭취하면 독이 되듯이 비타민도 몸이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초과하면 독이 된다.

영국의 유명한 의학잡지 「랜싯」의 편집자인 리처드 호튼은 “식량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세계기아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상업적으로 가장 사악하면서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황금쌀의 공동 특허자인 스티븐 스미스는 “만일 누군가가 유전자조작 기술이 세계를 먹여 살릴 거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줘라.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평화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결코 생산 증가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식량위기를 과장하며 세계 식량을 장악하려는 록펠러재단에 강한 일침을 가한다. 23

물론 록펠러재단은 눈 하나 끔쩍하지 않았지만. 현재 록펠러재단이 식량위기를 조장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등 식량장악 정책은 ‘빌게이츠재단’도 적극 합세하며 협력하고 있다. 특히 빌게이츠재단은 유전자조작 작물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녹색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거액의 투기자본을 쏟아 부으며 분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의 하선화 연구원은 고추의 카로티노이드를 이용해 2008년 1월 황금쌀을 개발했다. 24 걱정이다. 사용되지 않아야 할 텐데...

이탈리아에서는 단백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징어의 먹물에 들어있는 ‘라이바29(ryba29)’ 유전자를 쌀에 이식한 ‘오징어 쌀’을 개발하고 있다. 황금쌀이 노란색인 반면에 오징어쌀은 검은 색이다.

유전자를 상업에 이용할 경우 그 결과는 눈에 뻔하다.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작물로 인해 전 세계 인류는 현재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다. 게다가 황금쌀은 연구실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실제 재배되었을 때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영양실조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조작과정에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칵테일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유전자 조각이 세포내의 어느 부분에 자리 잡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운에 맞길 뿐이다. 이렇게 머나면 유전자조작 기술에 특허를 인정해서

마구잡이로 생명체를 조작하고 있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과학자들은 모르는가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유전자조작 음식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표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먹을 것인지' 또는 '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회도 박탈된 상태다.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가축의 경우에도 표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판단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몬산토, 듀퐁 등 다국적기업에 의해 강제로 실험을 당하고 있다.

유전자조작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10년 이상 먹어왔지만 아무런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안전을 강조하지만, 생명체의 이상은 10년으로 확인할 수 없다.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치명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바로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주류 양심적인 과학자들은 말한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음식으로 사용하지 말자."고.

몬산토에서 면화의 유전자를 조작한 '볼가드531'이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6월 19일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입을 허용했다. 현재 볼가드531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쓰이는 식용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2010년 11월 2일, 식약청에 "볼가드531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별도로 과학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는지, 아니면 몬산토에서 작성한 연구 자료만을 검토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이틀 후에 받은 식약청의 답변에 의하면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직접 실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경우도 제출된 연구 결과에 대해 서류심사만 하고 현장검사나 별도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고 했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가 작성한 연구 결과를 믿고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 현재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콩, 옥수수, 밀, 식용유, 고추, 깨 등 대부분이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들이다.

유전자는 조작에 있어서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고객이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전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차별이 확실히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의 요율, 그리고 가입 여부가 각 질병이나 증상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과 연결될 수도 있다. 우리의 취업과 보험 결정이 유전정보에 근거하지 않으며 그 정보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그런 정보를 악용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유전자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록펠러재단에 의해 장악될지도 모를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록펠러재단이라는 기업은 빅 브라더이다. 그는 모든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고 '전쟁은 평화이고, 자유는 예속이며, 무지가 힘'이라고 설교하며 각 사람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무엇이든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를 사랑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대부분 주류학자들이 빅 브라더를 숭배하며 대중을 무관심 속으로 유도하지만 결코 빅 브라더가 영원할 수는 없다. 윈스턴의 의식 속에 꿈틀대며 서서히 자라는 작은 싹, 진실이 있다.

빅 브라더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던 '1984'년은 광우병, 아스파탐, 성장호르몬, 방사선조사법, 다이옥신, 유전자조작기술 등으로 어지럽던 혼돈을 담배와 에이즈공포로 덮던 시기다. 조지 오웰의 예언이 적중한 걸까? 아마 우연 일게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록펠러재단이라는 비과세 지주회사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를 향한 끝없는 탐욕'으로 생명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악의 집

단에게 말이다. 새로운 길로 가자. 아름다움을 향해! 끝.

참 고 문 헌

제Ⅰ부. 탐욕의 마왕. 록펠러왕국

1장. 피라미드.

1. 부의 제국 록펠러1,p511~512, 론 처노 지음, 안진환·박아람 옮김, 21세기북스 2010년 3월 발행.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168, 스티브 와인버그 지음, 신윤주·이호은 옮김, 생각비행 2010년 11월 발행.
   황금의 샘1,p83, 대니얼 예긴 지음, 김태유 옮김, 고려원 1993년 9월 발행.
2. 타이쿤.p27, 찰스 R. 모리스 지음, 강대은 옮김, 황금나침반 2007년 6월 발행.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58.
3. 록펠러가의 사람들.p27, 피터 콜리어·데이빗 호로위츠 지음, 함규진 옮김,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4년 4월 발행.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61.
   부의 제국1.p70,100,118,122,125,148.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42, 그랜트 시걸 지음, 전은지 옮김, 베다니출판사 2010년 7월 발행.
4. 다시 읽는 미국사.p38, 손영호 지음, 교보문고 2011년 1월 발행.
5. 미국 민중사1.p439, 하워드 진 지음, 유강은 옮김, 이후 2009년 10월 발행.
   미국사 산책4.p242, 강준만 지음, 인물과 사상사 2010년 3월 발행.
6. 록펠러가의 사람들.p17.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51.그랜트 시걸 지음, 전은지 옮김, 베다니출판사.
7. 록펠러가의 사람들.p28. 부의 제국1.p148~149,153.
8. 화폐전쟁.p78, 쑹훙빙 지음, 차혜정 옮김, 랜덤하우스 2008년 발행.
9.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p271, K. 데이비스 지음, 이순호 옮김, 책과 함께 2009년 8월 발행. 부의제국1.p162
10.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p309.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51. 미국 민

중사1.p440. 생각의 역사1.p835, 피터 왓슨 지음, 남경태 옮김, 들녘 2009년 발행.
11.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93. 부의 제국1.p163. 부의 제국2.p240.
12. 화폐전쟁.p84.
13.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석유의 진실.p19. 레오나르도 마우게리 지음, 최준화 옮김, 가람기획 2009년 2월 발행. 황금의 샘1.p40. 부의 제국1.p172. 검은 눈물 석유.p38.
14. 록펠러가의 사람들.p31. 황금의 샘1.p45~47.
15. 부의 제국 록펠러1.p134,138. 록펠러가의 사람들.p29.
16. 부의 제국1.p84,139,140. 서양철학사. p481.
죄의 역사.p116~119, 존 포트만 지음, 서순승 옮김, 리더스북 2008년 5월 발행.
17.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p174,192, 막스 베버 지음, 김상희 옮김, 풀빛 2008년 12월 발행. 생각의 역사.p671,806.
18. 록펠러가의 사람들.p32.
19.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p311. 미국 민중사1.p442. 부의 제국 록펠러1.p180.
20.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73. 타이쿤.p28. 부의 제국1.p174.
21.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석유의 진실.p20. 타이쿤, p121.
부의 역사.p315, 권홍우 지음, 인물과 사상사 2008년 발행.
22. 황금의 샘1.p54.
23.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81. 부의 제국1.p188.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47.
24. 아이다 타벨.p54. 부의 제국1.p194,197. 황금의 샘1.p49. 타이쿤. p30.
25. 부의 제국1.p358. 황금의 샘1.p55.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58.
26.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p251
제1권력.p91, 히로세 다카시 지음, 이규원 옮김, 프로메테우스출판사 2010년 3월 발행.
27. 미국사 산책3.p241. 타이쿤.p87. 석유의 진실. p21.
28. 미국사 산책3.p208.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293.
29. 아이다 타벨.p95.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p45. 황금의 샘1.p42.
30. 부의 제국1.p214.
31. 황금의 샘1.p53. 타이쿤. p215. 아이다 M. 타벨, p83.
32.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p260. 귄터 바루디오 지음, 최은아·조우호·정항균 옮김, 뿌리와 이파리 2004년 7월 발행. 아이다 타벨.p83. 부의 제국1.p327.
33. 부의 제국1.p146,197. 존경받는 부자들.p127, 이미숙 지음, 김영사 2007년 3월 발행. 아이다 타벨.p54,63,85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44. 부의 제국1.p230.
34. 록펠러가의 사람들.p37. 부의 제국1.p234. 석유의 진실. p23.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64. 아이다 M. 타벨, p85.
35. 부의 제국2.192. 아이다 타벨.p85.
36. 화폐전쟁.p112. 부의 제국2.p69. 다크 플랜.p131, 짐 마스 지음, 전미영 옮김, AK 2009년 3월 발행. 달러.p192, 엘렌 H. 브라운 지음, 이재황 옮김, AK 2009년 발행.
37. 아이다 타벨.p89. 부의 역사.p314. 황금의 샘1.p41.
38. 황금의 샘1.p43.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 p249.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52.
39. 부의역사.p318.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p42. 황금의 샘1.p43. 석유의 역사.p260.

40. 황금의 샘1.p44.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p21.
41.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5일. 뉴욕 연합 "석유위기론 재부상". 석유의 진실. p163,176, 289~294.
42. 아이다 타벨.p87. 록펠러가의 사람들, p38~39.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p48.
43. 록펠러가의 사람들.p39~41. 제1권력.p68.
44. 부의 제국2.p530. 아이다 타벨.p129.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108.
45. 부의 제국1.p295~299. 아이다 타벨.p127.
46. 타이쿤.p128. 부의 제국1.p306.
47. 부의 제국1.p277. 록펠러가의 사람들.p39.
48. 타이쿤.p119,128. 석유의 역사.p252~254. 부의 제국1.p278.
49. 부의 제국1.p277. 타이쿤.p118. 석유의 진실.p22. 황금의 샘1.p58. 황금의 샘1.p58. 부의 제국1.p274.
50. 석유의 진실.p23. 아이다 타벨.p124,354. 부의 제국1.p282. 타이쿤.p120.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과정과 의미.p209. 록펠러가의 사람들.p42.
51. 아이다 타벨.p353.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과정과 의미.p208.
52. 부의 제국1.p489.
53. 록펠러가의 사람들,p54~55. 부의 제국1.p485.
54. 부의 제국1.p487. 미국 민중사1.p443.
55. 제1권력.p71. 황금의 샘1.p154.
56. 아이다 타벨.p227,379.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90.
57. 황금의 샘1.p68.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p48~50.
58. 황금의 샘1.p59.
59. 석유의 역사.p257. 타이쿤.p120.
60. 부의 제국1.p287. 부의제국2.p183. 타이쿤.p122.
61. 록펠러가의 사람들.p42,45,60. 부의 제국1.p283. 제1권력.p91. 황금의 샘1.p157.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77.
62. 부의 제국2.p207. 아이다 타벨.p347.
63.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과정과 의미.p212. 부의 제국1.p296.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 p311. 아이다 타벨, p353.
64.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91. 부의 제국 1.p397~400.
65.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11.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p51.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07. 미국 산업화의 과정과 의미.p235.
66.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05,110. 부의 제국1.p412. 아이다 타벨.p171,395~399.
67. 석유의 진실.p24. 부의 제국1.p493.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89.
68. 아이다 타벨.p227,231.
69. 게임의 기술.p182~185, 김영세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2007년 6월 발행.
맨큐의 경제학.p400, 그레고리 맨큐 지음, 김경환 외 옮김, 교보문고 2005년 1월 발행.
70. 타이쿤.p218~221. 제1권력.p70. 아이다 타벨.p162. 록펠러가의 사람들.p56. 부의 제국1.p402~406,416.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석유의 진실.p24
71. 탐욕의 지배.p288. 황금의 샘1.p63. 부의 제국1.p417. 제1권력.p71. 타이쿤.p219~221.
72.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12. 아이다 타벨.p140. 부의제국1.p406. 부의 제국

1.p406. 미국사 산책3.p248.
73. 타이쿤.p311. 부의 제국1.p408.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107.
74. 석유의 역사.p297.
75.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125. 부의 제국2.p202~205.
76. 검은 눈물 석유.p53.
조선일보, 2011년 5월 18일, 유동현 굿모닝 인천 편집장, "110년 전 미국산 석유 처음 들어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18/2011051802505.html

2장. 토네이도.

1.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11. 타이쿤.p267. 아이다 타벨.p114.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과정과 의미.p210.
2.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석유의 진실.p26.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과정과 의미.p210.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110.
3. 록펠러가의 사람들.p59. 부의 제국1.p560,563.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10. 미국사 산책4.p99.
4. 부의제국1.p633,637. 아이다 타벨.p320.
5.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과정과 의미.p235.
6. 부의 제국1.p548. 록펠러가의 사람들.p60.
7. 부의 제국1.p409,551.
8. 부의 제국1.p499.
9. 록펠러가의 사람들.p51.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112.
10. 석유의 역사.p261. 부의 제국1.p345,347.
11. 부의 제국1.p430~431. 타이쿤.p212. 록펠러가의 사람들.p59,66.
12. 아이다 타벨.p378.
13. 부의 제국1.p620~624. 아이다 타벨.p324,357.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과정과.p211.
14. 록펠러가의 사람들.p66. 부의 제국.p163
15.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106. 부의 제국2.p164~166. 황금의 샘1.p153.
16. 록펠러가의 사람들.p84. 부의 제국2.p380. 아이다 M. 타벨, 326.
17. 부의 제국2.p380,382,384.
18.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54,167.
19. 록펠러가의 사람들.p91,101. 부의 제국2.p41,66,68.
20. 부의 제국2.p72.
21. 부의 제국2.p59,65.
22.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62.
23. 록펠러가의 사람들.p80~82.
24. 부의 제국1.p628. 부의 제국1.p626.
25. 록펠러가의 사람들.p80~82.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38. 타이쿤.p289 부의 제국2.p64,87~92. 자본주의에 대한 단상.p28, 임종철 지음, 민음사 1998년 3월 발행. 거상의 도.p167, 정판교 지음, 강경이 옮김, 파라북스 2005년 11월 발행. 황금의 샘1.p53.
26. 록펠러가의 사람들.p67~68. 타이쿤.p348.

27. 부의 제국2.p80~82.
28. 록펠러가의 사람들.p63. 아이다 타벨.p259.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 p312.
29. 황금의 샘1.p95,96,112. 석유의 진실.p27. 부의제국1.p471,494. 록펠러가의사람들.p62.
30.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p21. 황금의 샘1.p94. 록펠러가의 사람들.p64.
31. 석유의 역사.p27. 타이쿤.p31.
32. 석유의 역사.p298,362. 황금의 샘1.p91. 미국사 산책4.p100. 아이다 타벨.p310
33. 록펠러가의 사람들.p69~70. 아이다 타벨.p367~370. 부의 제국2.p123,131,133,208. 시대정신, 피터 조셉 지음, 김종돈 옮김, 노마드북스 2009년 발행.
34. 부의 제국1.p252,428. 아이다 타벨.p112.
35. 록펠러가의 사람들.p71,102,247~248. 부의 제국2.p323~326,402. 화폐전쟁2.p479.
36. 다크 플랜.p72. 부의 제국2.p217. 아이다 타벨.p375.
37. 부의 제국2.p339~340. 아이다 타벨.p381~382.
38. 부의 제국2.p310,384.
39. 록펠러가의 사람들.p128. 아이다 타벨.p350. 부의 제국2.p312.
40. 부의 제국2.p336. 아이다 타벨.p397 황금의 샘1.p153.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70. 록펠러가의 사람들.p85. 부의 제국2.p362,375
41. 부의 제국2.p362.
42.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72. 아이다 타벨.p399
43. 록펠러가의 사람들.p86. 아이다 타벨.p399. 부의제국2.p375,379,392. 다크플랜.p73. 달러.p193. 타이쿤.p304.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p53 부의 제국2.p370. 록펠러가의 사람들.p86 황금의 샘1.p175
44. 아이다 타벨.p410. 황금의 샘1.p176
45. 타이쿤.p304. 부의 역사.p266.
46. 공감의 시대.p476. 부의제국2.p391
47. 부의 제국1.p495. 석유의 역사.p264.
48. 부의 제국2.p393 아이다 타벨.p408
49. 미국 민중사1.p448
50. 다크 플랜.p26. 달러.p185,193. 화폐전쟁.p151.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p61
51. 석유의 역사.p263.
52. 모던타임스1.p433~437,448, 폴 존슨 지음, 조윤정 옮김, 살림 2009년 3월 발행.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97
53. 부의 역사.p349.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92
54. 록펠러가의 사람들.p216. 부의 제국2.p589
55. 미국사 산책.p54
56. 모던타임스1.p393~397.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75~377
57. 부의 제국2.p459,462.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90.
58. 부의 제국2.463~464.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432.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91.
59. 부의 제국2.p606.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96.
60. 탐욕의 지배.p236~237
61. 미국사 산책4.p101

62. 미국의 경제 깡패들.p170~172. http://blog.naver.com/dobucho18/90074533543
63. 미국 민중사1.p451. 애틀랜타 중앙일보. “부자되는 것은 사람의 의무다” 2007년 8월 28일. 김영한 기획취재부장. 미국사 산책4.p242.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60652&branch=AT&category=opinion&page=9&source=AT
64.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p129,174. 미국사 산책4.p72. 생각의 역사1.p931. 생각의 역사2.p74.
65. 생각의 역사1.p671.
66. 서양 근대 정치 사상사.p184, 강정인·김용민·황태연 엮음, 책세상 2007년 11월 발행.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p267.
67.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p208. 타이쿤.p16,397. 현대의학의 위기,p331, 멜빈 코너 지음, 소의영 외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7년 발행.

3장. 선교의 실체.

1. 화폐전쟁2.p484,485.
부시의 음모.p90, 이타가키 에이켄 지음, 김순호 옮김, 당대 2002년 8월 발행.
2. http://www.rockefellerfoundation.org/who-we-are/our-history
3. 록펠러가의 사람들.p88. 부의 제국2.p406
4. 록펠러가의 사람들.p90
5. 시카고학파. 요한 판 오페르트펠트 지음, 박수철 옮김, 에버리치홀딩스 2011년 1월 발행. 록펠러가의 사람들.p75
6. 부의 제국2.p262.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467
7.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13,323,326. 미국 민중사1.p449
8. 부의 제국2.p266
9. 록펠러가의 사람들.p141
10. 부의제국2.p265.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60
11. 부의 제국2.p269
12. 부의 제국2.p266
13.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p314. 부의제국1.p589. 부의 제국2.p266. 록펠러가의 사람들. p74.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60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434
14. 부의 제국2.p270.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46
15. 록펠러가의 사람들.p143. 부의제국1.p465
16. 파괴의 씨앗.p100
17. 미국 민중사2.p199
18. 록펠러가의 사람들.p13. 부의제국2.p294.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64
19. 부의 제국2.p293,295,299
20. 록펠러가의 사람들.p144. 부의 제국2.p293
21. 록펠러가의 사람들.p146. 부의 제국2.p417
22. 부의제국2.p291
23. 부의 제국2.p353. 아이다 타벨.p381,405
24. 록펠러가의 사람들.p96. 부의 제국2.p341

25. 아이다 타벨.p413

4장. 세금도피처.

1. 부의 제국2.p292
2. 부의 제국2.p57. 록펠러가의 사람들. p78.
3. 부의 제국2.p58
4. 부의제국2.p407. 록펠러가의 사람들.p93
5. 부의제국2.p408. 록펠러가의 사람들.p93
6.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p225
7. 록펠러가의 사람들.p93
8. 부의 제국2.p410. 록펠러가의 사람들.p93
9. 록펠러가의 사람들.p185.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p434
10. 그림자 정부 경제편.p322. http://budongsancanada.com/article.php?articleID=8135&page=1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amchejh&folder=28&list_id=11168488. 재단독립.p15, 조성표·조성한 지음,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년 4월 발행.
11. 록펠러가의 사람들.p131,214
12. http://blog.daum.net/brutershong/13052467 화폐전쟁.p101,132
13. 세계최고의 부자 록펠러.p207
14. 세계일보 2008년 1월 14일. “기부는 시혜? 이제는 투자” 민병오 기자. http://dorothyseoyoung.co.kr/130085739626
15. 부의 역사.p198
16. 2010년 9월 1일 신동아 통권 612호. “록펠러부터 버핏, 게이츠까지...‘기부왕국’ 미국의 비밀” 송보림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17. 화폐전쟁2.p470,474. 미국의 경제 깡패들.p335
18. 존경받는 부자들. 이미숙 지음. 김영사. 2004 간행. p214
19. http://www.storysearch.co.kr/story?at=view&azi=89750 2006년 5-547호 한경매거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김선태
20. 화폐전쟁2.p473. http://dorothyseoyoung.co.kr/130085739626 http://www.storysearch.co.kr/story?at=view&azi=89750
21. 동아일보 2005년 1월 12일 “용사마 거금쾌척, 일 기부문화 바꿨다”
22. 부의 제국2.p412. 존경받는 부자들.p125,129
23. 미국 민중사1.p452
24. 제1권력.p104
25. 재단 독립.p136
26. http://www.rockefellerfoundation.org/about-us/financials/financials-2008
27. 화폐전쟁2.p480
28.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p56
29. 부의 제국2.p292
30. 민중의 소리. 조태근 기자. 2010년 8월 8일 “누가 당신들에게 결정할 권할을 줬나? 미 부자들 기부의 미면, 55%상속세 ‘법적 기부’ 나두고선..”

31. 다시 읽는 미국사.p39
32. 탐욕의 지배.p278
33. 존경받는 부자들.p147,200,204~205
34. 존경받는 부자들.p146
35. 부의 제국2.p412.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55
36. 부의제국2.p414~415. 존경받는 부자들.p128
37. 부의 제국2.p417~418
38. 화폐전쟁2.p490. 78:22의 경영법칙.p168.허쥔 지음,이주연 옮김,시간과공간2006년발행.
39. 화폐전쟁2.p468
40. 화폐전쟁2.p468, 누가 미국을 움직이는가.p200 소에지마 다카히코 지음, 신동기 옮김, 들녘 2001년 발행.
41. 록펠러가의 사람들.p94
42. 아이다 타벨.p417,435
43. http://blog.naver.com/drjgp/20024153902
44.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p130
45. 화폐전쟁2.p476.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p57
46. 화폐전쟁2.p477
47. 록펠러가의 사람들.p633~634
48. 화폐전쟁2.p478. 록펠러가의 사람들.p636.
49. 록펠러가의 사람들.p643,743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60504154113845&p=ned
50. 화폐전쟁2.p487~488
51. 록펠러가의 사람들.p739
52. http://blog.daum.net/zenurs/378

제Ⅱ부. 신의 이름으로 모두를 죽여라. 죽임의 향연

1장. 지옥 스케치.

1. 록펠러가의 사람들.p151. 부의 제국2.p421,423
2. 미국의 경제 깡패들.p173.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87. 석유의 진실.p40,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p187. http://blog.naver.com/jaynovapark/50041447951
3. http://blog.daum.net/gimbak/5926943 록펠러가의 사람들.p152
4. 미국의 경제 깡패들, p174~175.
5. 미국 민중사1.p604. 부의 제국2.p425
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33276
7. 미국 민중사1.p605. http://en.wikipedia.org/wiki/Ludlow_massacre 부의 제국2.p427
8. 록펠러가의 사람들.p154. 부의 제국2.p431. 미국민중사1.p606
9. 시http://blog.daum.net/gimbak/5926943 시대정신.p96, 피터 조셉 지음, 김종돈 옮김, 2009년 8월 지음, 노마드북스 2009년 8월 발행.
10. 록펠러가의 사람들. p154. 부의 제국2.p432

http://ko.wikipedia.org/wiki/%EB%A3%A8%EB%93%9C%EB%A1%9C_%EB%8C%80%ED%95%99%EC%82%B4 http://libcom.org/history/articles/ludlow-massacre-1914
11. The New York Times, May 30, 1914. "$1,400,000 MORE FOR EDUCATION; Rockefeller Foundation Announces Appropriations from Income."
12. 공감의 시대.p114
13. 미국 민중사1.p559
14. 부의 제국2.p423~425
http://en.wikipedia.org/wiki/Ludlow_Massacre
15. 부의 제국2.p428
16. 타이쿤.p282
17.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A&qid=3mHrb&q=%B7%CF%C6%E7%B7%AF%B4%EB%C7%D0%B1%B3&srchid=NKS3mHrb 록펠러가의 사람들.p170
18. http://blog.daum.net/uchpra/17 록펠러가의 사람들.p156. 아이다 타벨. p231.
19.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51. 부의 제국2.p103
20. 부의제국2.p424. 록펠러가의 사람들.p153
21. 록펠러가의 사람들.p190
22. 부의제국2.p428~429
23. 록펠러가의 사람들 .p156~159. 부의제국2.p426,430.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87
24. 부의제국2.p404,433,434. 록펠러가의 사람들.p159.
25. 부의제국2.p405.
26. 제1권력.p110. 부의 제국2.p422
27. 거짓 나침반.p131,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p119,
28.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p121~126.
The New Times, November 1, 1924, "NO PERIL TO PUBLIC SEEN IN ETHYL GAS; Bureau of Mines Reports After Long Experiments With Motor Exhausts. MORE DEATHS ARE UNLIKELY All the 34-at Reconstruction HOSPITAL Are Believed to Be Out of Danger. LITTLE USED IN THE CITY Tetra-Ethyl Compound Sold to Only Two Firms, Which Are Experimenting, Says Standard Oil."
29.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p124,
30. 부의 제국2.p448
31. 부의 제국2.p452.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p188.
3 2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33276
http://en.wikipedia.org/wiki/Ludlow_massacre
33. 화폐전쟁.p134
34. 거짓 나침반.p36. 록펠러가의 사람들.p164
35. 부의 제국2.p413.
July 26, 1912 - Special to The New York Times. " F. T. GATES BUYS BIG TRACT.; Invests $250,000 in Carolina Acres for Farming and Colonization."

2장. 학살은 또 이어지고

1. 록펠러가의 사람들.p589,597
2. 파괴의 씨앗. p57. 록펠러가의 사람들.p599
3. 파괴의 씨앗. p135,146,211~212. 록펠러가의 사람들.p593
4. 록펠러가의 사람들.p605,
5. 록펠러가의 사람들.p596
6. 미국 민중사2.p289.
7. 한겨레21. “아티카 폭동과 감옥의 첨단화” 2001년 3월 15일.미국 민중사2.p295
8. 록펠러가의 사람들.p71,600~601. 부의 제국2.p326
9. 록펠러가의 사람들.p602~603. 미국 민중사2.p298.
10. 미국 민중사2.p298
11. 록펠러가의 사람들.p604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30000000134/3/70030000000134/20060909/8349013/1
12. 한겨레21. “아티카 폭동과 감옥의 첨단화” 2001년 3월 15일. 제349호.
13. 록펠러가의 사람들.p615~616
14. 록펠러가의 사람들.p642
15.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p213, 모리시타 겐지 저. 양억관 옮김. 황소자리 2004년 발행.
16. 파괴의 씨앗. p87. 록펠러가의 사람들.p630~632

3장. 쓰레기 과학

1. 러셀의 서양철학사.p174, 버트런드 러셀 지음, 서상복 옮김, 을유문화사 2009년 발행.
2. 러셀의 서양철학사.p270
3. 심리학의 즐거움.p154, 크리스 라반 외 지음, 김문성 옮김, 휘닉스 2008년 2월 발행
4. 생각의 역사1.p964
5. 심리학의 즐거움.p157
6. 생각의 역사2.p78
7. http://pasoworld.tistory.com/13 미국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p289,373,473. http://www.kkk.com/
8. 모던타임스1.p383
9. 생각의 역사2.p18
10.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p280~281, 윌리암 브로드 외 지음, 김동광 옮김, 미래인 2008년 1월 발행. 생각의 역사2.p235.
11. 다크플랜.p75, 바이오 사이언스.p159
12. 파괴의 씨앗.p106
13. 모던타임스1.p389
14. 잡식동물의 딜레마.p389,399, 마이클 폴란 지음, 조윤정 옮김, 다른 세상 2008년 발행.
15. 다시 읽는 미국사.p258

16. 생명공학, 판도라 상자의 열쇠인가?, p109, 찰스 콜슨·나이젤 카메론 지음, 정서영 옮김, 홍성사 2009년 발행.
17. 인종주의.p14. 박경태 지음, 책세상 2009년 4월 발행
18. 생각의 역사1.p985. 파과의 씨앗.p105.
다시 읽는 미국사.p259, 바이오 사이언스.p153, 이은희 지음, 살림 2010년 5월 발행.
19. 생명공학, 판도라 상자의 열쇠인가? p109,205. 다시 읽는 미국사.p259.
20. 생명공학, 판도라 상자의 열쇠인가?.p110
21. 인종주의.p12
22. 바이오 사이언스.p144~148
23.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p69.
24. 파괴의 씨앗.p93
25. 파괴의 씨앗.p94
26. Time, Monday, Feb. 15, 1932. "Medicine : Porto Ricochet" 파괴의 씨앗.p95
27. http://senaclinic.co.kr/san/info05-4.html
28. 인종주의.p77
29. 다크 플랜.p76. 파괴의 씨앗.p107
30. 파괴의 씨앗.p109
31. 파괴의 씨앗.p96~98
32. 생명공학, 판도라 상자의 열쇠인가?.p24. 파괴의 씨앗.p103.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77
33. 파괴의 씨앗.p101~102
34. 생각의 역사2.p549
35. 록펠러가의 사람들, p380~381. 파괴의 씨앗.p115
36.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p377
37. 파괴의 씨앗.p124. 록펠러가의 사람들, p542.
38. 파괴의 씨앗.p321
39. 파괴의 씨앗.p322

4장. 맬서스의 망상.

1. 생각의 역사2.p380.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p118
경제학원론. p702~703, 조성환 외 지음, 경문사 2001년 2월 발행.
2.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p69,70.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음, 김현구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1년 10월 발행.
3. 경제사상사의 이해. p39, 박장환 지음, 학문사 2000년 4월 발행.
4. 탐욕의 자본주의.p50,57.
5. 생각의 역사1.p782. 황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p70.
6. 생각의 진화. p김용관 지음, 국일미디어 2010년 1월 발행.
7.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p73,74.
8. 파괴의 씨앗.p100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p111. 탐욕의 자본주의.p51,57.
환경위기의 진실. p63, 잭 M. 홀랜더 지음, 박석순 옮김, 에코리브르 2009년 8월 발행.
9.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p125

10.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p126
11.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p.43, 장 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 2010년 12월 발행. 파괴의 씨앗.p100
12. 통섭.p36
13. http://www.rockefellerfoundation.org/
아담과 이브 그 후. p433, 맬컴 포츠 외 지음, 최윤재 옮김, 들녘 2004년 2월 발행.
14. 환경위기의 진실. p64~65. 르몽드 세계사. p38~39.
15. 동아일보, 2011년 2월 14일, 임우선 기자, “육류소비 느는데 왜 식량위기 생기나”
환경위기의 진실. p78~88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p37.
맨큐의 경제학. p631, N. 그레고리 맨큐 지음, 김경환 외 옮김, 교보문고 2001년 발행.
진짜과학 vs 가짜과학.p206, 튤리오 레제 지음, 김현주 옮김, 아이필드 2009년 발행.

제Ⅲ부. 1984년. 담배와 에이즈공포 조작

1장. 창고에 가득 쌓인 독가스.

1. 잡식동물분투기,p45, 마이클 폴란 지음, 조윤정 옮김, 다른 세상 2010년 8월 발행.
2. 몬산토p73. 거짓 나침반. p233.
3.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p116.
알자지라, 다큐 프로그램, 2010년 3월 18일, “미 합참, 한국전쟁 중 ‘세균전 현장 실험’ 명령”
4. http://blog.yahoo.com/_KWEKZX5PWVJ3A77I7B5BQ3AOAU/articles/108358
몬산토 pp74~80.
5. 인간 없는 세상,p222
6. Peter Downs "Cover up : story of dioxin seems intentionally murky. 「St. Louis Journalism Review」. 1998.6.1.
7. Lennart Hardell, Martin J. Walker... "Secret ties to industry and conflicting interests in cancer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006년 11월 3일.
8. 대한매일신문, 2010년 10월 15일, 정광윤 논설위원, “대미 고엽제소송 원천봉쇄하려는 미국은 합당한 배상 강구하라”.
세계일보, 2010년 8월 19일, 정승길 사무관 기고, “10년 끈 고엽제 소송, 미법원 조속한 판결을”
9. 몬산토. p68~70
10.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p58, 데브라 데이비스 지음, 김승욱 옮김, 에코리브르 2004년 발행. 환경호르몬. p135~151,433~437.
위험한 식탁. p81~87. 존 험프리스 지음, 홍한별 옮김. 도서출판 르네상스.2008년 발행.
11. 거짓 나침반.p317~319

2장. 관심을 담배로.

1. 다크 플랜.p84
2. 의학의 진실. p351,353. 데이비드 우튼 지음, 윤미경 옮김, 마티 2007년 5월 발행.
현대의학의 역사. p436.
3. 현대의학의 역사.p78
4. 제약회사는 어떻게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가.p349, 재키로 지음, 김홍옥 옮김, 궁리 2008년 발행.
5.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p157. 거짓 나침반.p327.
6.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p80, 고품격 영어상식칼럼 100.p339, 이윤재 지음, 넥서스 2008년 4월 발행.
7. 현대의학의 역사.p79
8. 청부과학.p31~43,139,141, 데이비드 마이클스 지음, 이홍상 옮김,이마고 2009년 발행.
9. 불량의학. p299~301. 거짓 나침반. p124~126.
10. 화폐전쟁.p312~317. 다크 플랜.p176~182,210, http://blog.naver.com/hynsso/60105456242
http://blog.daum.net/bk1981/1555
11. 거짓 나침반.p349,382. 환경호르몬의 반격. p182.
세계일보, 오성환 외신전문위원, 2010년 6월 8일. "하키 스틱 그래프의 허구성"
한겨레신문, 강성만 기자, 2006년 9월 19일. "온난화규제, 진짜 배후는?" http://www.sourcewatch.org/index.php?title=American_Council_on_Science_and_Health#cite_ref-2
12.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p251, 336~337.

3장. 통계의 허구.

1. 현대의학의 역사.p81.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p101.
의학의 진실. p351, 데이비드 우튼 지음, 윤미경 옮김, 마티 2007년 5월 발행.
2. 현대의학의 역사.p84
http://www.sciencemuseum.org.uk/broughttolife/people/richarddoll.aspx
3. 의학의 진실, p353. 현대의학의 역사, p83.
4. 현대의학의 역사.p438 청부과학.p20. 의학의 진실. p350
5. 의학의 진실. p351.
6. 여성신문. 2006년 6월 7일, 오종남 전 통계청장 "이혼율 세계 최고, 통계의 허구"
http://blog.naver.com/river0113/50005037894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 p66~69, 정남구 지음, 시대의 창 2010년 9월 발행.
7.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p175~185,188~196, 203~206,246~247, 255~256, 324, 408,429. 의학의 진실. p353.
8. 제약회사는 어떻게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가.p351. 100년 동안의 거짓말.p46
중앙일보 2003년 11월 7일, 서울-연합뉴스, "포름알데히드 노출, 백혈병-폐암 위험"
9. 100년 동안의 거짓말.p46~47. 현대의학의 역사. p394,440~446.
10. 거짓 나침반.p288,
Paul Brodeur and Bill Ravanesi, "Old Tricks" The Networker(newsletter of the Science and Environment Health Network), June 1998

11. 2009년 4월 8일.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곽현석 기획실장. http://safedu.org/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700&flag
12. 환경호르몬의 반격.p43.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p58,192. 불량의학. p299.
13. 100년 동안의 거짓말.p46,
위험한 저녁식사.p137, 조너선 애드로 지음, 이유정 옮김, 모요사 2009년 3월 발행.
14. http://blog.naver.com/biblehealth/10096494990, http://icarus3004.blog.me/10079433527 100년 동안의 거짓말.p85.
15.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todo=view&atidx=32605
16. 경향신문 p.29, 2010년 9월 9일, “청렴함 정치를 중시하던 애연가” 최민영 기자.

4장. 돈에 팔리는 과학자들.

1. 거짓 나침반.p351~352, http://mediamob.co.kr/HeadLineView.aspx?ID=3343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QIC&qid=3jLwA&q=ACSH&srchid=NKS3jLwA
2. 거짓 나침반.p436~437
3. 환경호르몬의 반격.p78,182,159. 100년 동안의 거짓말.p190~198,292
에너지와 환경.p247, 최기련·박원훈 지음, 김영사 2002년 12월 발행.
문화일보,1999년 10월 18일,윤성혜 기자, “다시 불 붙은 의료용 플라스틱 ‘유해성논란’”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p270~273.
4. 거짓 나침반.p368~369,
Noble, H. B. "Hailed as a Surgeon General, Koop criticized on web ethics." New York Times, September 4, 1999.
Noble, H. B. "Koop Criticized for Role in Warning on Hospital Gloves." New York Times, October 29, 1999.
5. 더러운 손의 의사들. p68~69,91~92. 제롬 캐시러 지음, 최보문 옮김, 양문 2008년 3월 발행. 식탁의 배신. p237. 거짓 나침반. p28. 불량의학. p38~47.
6. 청부과학.p25, 데이비드 마이클스 지음, 이홍상 옮김, 이마고 2009년 1월 발행.
7. 거짓나침반.p349~352
8. 거짓 나침반. p329, 406~407,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80713100100088&p=yonhap
9. 거짓 나침반.p335
10.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p240
11. 암을 이겨내는 지혜와 암 정복 성공 비결 10가지. p106, 최옥병 지음, 건강신문사 2003년 발행.
12. 청부과학.p154
13. 청부과학.p150~152. 현대의학의 위기, p336.
1 4 . http://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05/7/25/worldupdates/2005-07-25T081930Z_01_NOOTR_RTRJONC_0_-210493-1&sec=Worldupdates
15.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p81~82. 데이비드 프리드먼 지음, 안종희 옮김, 지식갤러

리 2011년 발행.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119,262~264. 현대의학의 역사. p461~462
16.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p155,156. http://blog.daum.net/allimgokr/12022789
17. 거짓 나침반.p336
18. 청부과학.p262
19. 거짓 나침반.p354.
한겨레신문, 강성만 기자, 2006년 9월 19일. “온난화규제 반발, 진짜 배후는?”
20.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p58,192, 청부과학.p114
21. 제약회사는 어떻게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가. p122
http://daqcast.tistory.com/89
22. 경향신문 2011년 2월 16일. 10면. 구교형 기자.
http://cafe.daum.net/4.1.0.1.0.2.1/47NS/24?docid=1Hz6p|47NS|24|20110403114533&q=%B4%E3%B9%E8%BC%D2%BC%DB
23. http://safedu.org/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700&flag=
http://tobaccodocuments.org/pm/2025030544-0660.html
24.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p62,332. 윌리엄 레이몽 지음, 이희정 옮김, 랜덤하우스 2009년 10월 발행. 현대의학의 역사, p393.
25. 과식의 종말. 데이비드 A. 케슬러 지음, 이순영 옮김, 문예출판사 2010년 5월 발행. 몬산토.p241, 254, 259
26. 현대의학의 역사. p436~439,462. 100년 동안의 거짓말. p237~240.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6,15, 24~37,
27.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p68, 음식혁명. p57. 아주 중요한 거짓말. p86.
현대의학의 역사. p436. 하리하라의 몸 이야기. p105, 이은희 지음, 해나무 발행.
28.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p90,178,208.
미국 의학계가 감춘 진실. p32, S.J.호트 지음, 김태수 옮김, 건강신문사 2009년 발행.
29.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307~311.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p289. 현대의학의 역사. p189~193,206,434~436.
30. 음식혁명. p61~64.
메디파나뉴스, 2006년 4월 13일, 이정희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타목시펜 시판 중지”
31. The Independent, by Steve Connor, 8 December 2003, "Glaxo chief : Our drugs do not work on most patients"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28.
32. 환경호르몬의 반격, p79.
33. 환경호르몬의 반격. p240~241.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31.
http://cafe.daum.net/dulmeafiower/2RTz/324?docid=xXjQ|2RTz|324|20100711202034&q=%BF%EC%B8%AE%B3%AA%B6%F3%20%C0%AF%B9%E6%BE%CF%20%BB%E7%B8%C1%C0%DA%BC%F6
34. 100년 동안의 거짓말. p271~272.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3, 2005, by Gina Kolata, "Environment and Cancer : The Links Are Elusive"
35. 음식혁명. p60~61. 미국 의학계가 감춘 진실. p159,203~208.
36. 100년 동안의 거짓말. p164~170.

한국경제, 2011년 3월 4일, 정종호 기자, "비타민의 오해와 진실"
37. 건강의 적들.p277~278. 안네테 자베르스키 지음, 신혜원 옮김, 열대림 2011년 발행.
38. The Guardian. May 8, 2003. "Vitamin Pills Could Damage Health"
39. USA Today, September 25, 2000, by Dennis Cauchon "FDA advisers tied to industry"
40. 제약회사는 어떻게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가. p160,176,185,217~218.
서울신문, 2005년 1월 8일, 이석우 기자, "미 FDA 공신력 흔들"
Medifonews, 2005년 2월 21일, "'비옥스'-'셀레브렉스' 모두 시판 허가 예정"
41. 중앙일보, 2004년 4월2일, "PPA 관련 국내 감기약 167종 판매 금지"
42. 더러운 손의 의사들. p82~85.
43. 생각의 함정, p157~163.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p257~280. 미헬 라이몬 외 지음, 김호균 옮김, 시대의 창 발행.
44. 독소. p282. 불량의학. p64.
45. 불량의학. p261~266.
46. 제약회사는 어떻게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가. p255~259.

5장. 담배와 에이즈로 덮으려는 것들.

1.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p9,14,117, 118,121,135 콤 켈러허 지음, 김상윤외 옮김, 고려원북스 2008년 6월 발행.
패스트푸드의 제국. p272. 죽음의 밥상. p97 패스트푸드의 제국. p272
히든 커넥션. p271, 프리조프 카프라 지음, 강주현 옮김, 휘슬러 2003년 6월 발행.
감염. p246. 제럴드 N. 캘러헌 지음, 강병철 옮김, 세종서적 2010년 7월 발행.
2.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p11,117,203,219,221,223,305.
자주민보 2008년 7월 2일, 이창기 기자, "미국, 인간광우병 유사증상 매년 8000여명 사망, 환자 12만 명"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en&tl=ko&u=http%3A%2F%2Fwww.humanitarian.net%2Flaw%2Fbiodefense%2Fbse_12004.html
3. 메디팜뉴스. 2010년 7월 6일. 한정렬 기자. "치매원인 '베타 아밀로이드 조기진단' 가능"
http://www.medipharmnews.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asp?P_Index=47678
4. 현대의학의 역사.p439
5. 거짓 나침반.p352. 감염. p260. http://cassiopeia4.tistory.com/54
히든 파워. p67, 찰스 더버 지음, 김형주 옮김, 두리미디어 2007년 8월 발행.
미주 한국일보, 2003년 12월 26일, "광우병 확인...전염경로 추적"
6. 패스트푸드의 제국. p271~273. 죽음의 밥상. p96~98. 하리하라의 몸 이야기, p85.
금강법보, 2008년 7월, 서재영, "광우병, 과연 미친 것이 소인가?"
7. 한겨레신문, 2011년 9월 6일, "미 대사관이 전한 이상득 의원의 말, '이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8.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p32,206,237,305
http://gunwooknam.blog.me/70009377376
9. 과학은 시민에게 복무하고 있는가?. p47,48, 앨런 어윈 지음, 김명진 외 옮김, 당대2011년 2월 발행.

The Times. October 12, 2007, "Daughter of John Gummer's friend dies from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
BBC NEWS, October 11, 2000. "John Gummer : Beef eater"
10. 음식혁명. p193. http://old.greenchrist.org/envda/gwangu.htm
11.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p570~576
12.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p243~246.
연합뉴스, 2002년 1월 8일, 김창회 특파원, "몬산토, 수백만 달러 소송 직면"
Washington Post, April 20, 2002. Michael Grunwald "Senators Assail EPA on Ala. PCB Cleanup"
http://www.organicconsumers.org/Toxic/monsanto_pcbs.cfm
13. 감염.p101, 아주 중요한 거짓말, p375.
뉴스의 속임수, p119~124,139. 버나드 골드버그 지음, 박정희 옮김, 청년정신 2003년 6월 발행. 현대의학의 위기, p305~306.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5, 1999, Holcomb B. Noble, "Hailed as a Surgeon General, Koop is Faulted on Web Ethics"
한국일보, 2006년 4월 4일, "정자가 코끼리라면 성병 바이러스는 파리"
14. 생각의 역사2.p1014
15. 경향신문. 2011년 3월 25일, 박은경 기자. "엘리자베스 테일러, 6,000억대 유산, 어디로?"
16. 뉴스의 속임수.p125~149. 아주 중요한 거짓말. p198.
17. 국민일보. 2004년 12월 1일, AFP연합, "노벨평화상에 왕가리 마타이, 그린벨트운동 아프리카 10개국 전파"
http://www.jisikin.co.kr/tt/28218 인체사냥. p153,156,159,162.
18. 문화일보. 2003년 8월 4일. 구정은 기자. "남아공 무료 에이즈 약 논란"
인체사냥. p120~122,157,163~167,198,206. 현대 의학의 위기, p334,340
The New York Times, August 28, 1989. "AZT's Inhuman Cost"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260. 아주 중요한 거짓말, p345~346.
19. 아주 중요한 거짓말. 실리아 파버 지음, 박지훈 옮김,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0년 11월 발행. 현대의학의 역사.p315. http://blog.daum.net/thepsman/7751098
http://blog.naver.com/ppk001/50046261480
한국일보, 2007년 4월 29일 한상근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교수, "에이즈 재평가를 위하여"
20. 한겨레21. 1999년 1월 21일, 박좌행 객원기자, 김수병 기자, "도전받는 'HIV 이론'"
21.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477418
http://cafe.daum.net/GiantTree/cmgY/1?docid=1Mnu7|cmgY|1|20110126224610&q=%BF%A1%C0%CC%C1%EE%C0%C7+%C1%F8%BD%C7
22.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321~326,331~332. 아주 중요한 거짓말. p392,398.
23. 몸을 살리는 의학, 몸을 죽이는 의학. p168~169, 윤승일 지음, 북라인 2010년 발행.
24. 아주 중요한 거짓말. p134~135,303.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p574
올 댓 비즈니스 .p189, 제임스 데일 지음, 김정미 옮김, 21세기북스 2007년12월 발행.
25. http://blog.naver.com/sotruth129/150037059018

아주 중요한 거짓말. p264~266.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35.
http://www.noaids.co.kr/~noaids/cgi-bin/technote/read.cgi?board=noaids&y_number=240&nnew=2
26. http://web.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id=1004
27. http://blackhandfo.tistory.com/182
28.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p252, 청부과학.p109, 음식혁명. p162~164.
내추럴리 데인저러스.p280,285~286,294~295,
29. http://blackhandfo.tistory.com/182
패스트푸드의 제국.p291, 에릭 슐로서 지음, 김은령 옮김, 에코리브르 2001년 8월발행.
독소. p247~249. 윌리엄 레이몽 지음, 이희정 옮김, 랜덤하우스 2009년 발행.
30.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p50~58,63~67,102~104,123 린 맥타가트 지음, 진선미 옮김, 허원미디어 2011년 3월 발행.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p23~24,226 로버트 S. 멘델존 지음, 남점순 옮김, 문예출판사 2010년 발행. 미국 의학계가 감춘 진실. p205.
31.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p249
한겨레신문. 2011년 3월 21일. 김양중 의료전문 기자. “혹시 방사선 노출? 오염 물질 씻어내세요.”
32. 100년 동안의 거짓말.p132. 생존의 밥상.p63. 김수현 지음, 넥서스북스 2009년 발행.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p65, 안병수 지음, 국일미디어 2009년 11월 발행.
33. http://cafe.daum.net/salvation1/RibO/63 100년 동안의 거짓말.p93
Breaking News, September 16, 2004. by Devvy, "$ 350 MILLION RICO LAWSUIT FILED OVER ASPARTAME"
34. 한겨레21. 2007년 3월 27일, “아스파탐 게이트”
35. 100년 동안의 거짓말.p133~136
36. http://www.dorway.com/possible.html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p184~185.
건강의 적들. p45, 안네테 자베르스키 외 지음, 신혜원 옮김, 열대림 2011년 2월 발행.
37. http://blog.daum.net/wuban777/13428134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p40, 이승원 지음, 김영사 2006년 7월 발행.
38. http://cafe.daum.net/prophecy1004/A8yb/27?docid=1MLbv|A8yb|27|20110401134557&q=%B4%BA%C6%AE%B6%F3%BD%BA%C0%A7%C6%AE
음식혁명.p391. 밥상의 유혹.p109, 이승남 지음, 경향미디어 2010년 3월 발행.
http://blog.naver.com/biblehealth/10059317710 http://blog.daum.net/smjh5500/4
39. http://blog.daum.net/kaut2006/11790742
안심하고 먹고 싶다. p68,71. 니시지마 모토히로 지음, 한혜란 옮김, 비전코리아 발행.
40. http://www.environet.co.kr/news/way-board.cgi?db=Free&j=v&no=266&pg=1
41. 스키니 비치.p49, 로리 프리드먼 지음, 최수희 옮김, 밀리언하우스 2008년 4월 발행.
http://rusham.tistory.com/tag/%EC%95%84%EC%8A%A4%ED%8C%8C%ED%83%90
42. 건강의 적들.p45~46. 안네테 자베르스키 지음, 신혜원 옮김, 열대림 2011년 발행.
http://blog.naver.com/food_info/10019108916
43. 일요시사, 2010년 11월 2일, “진로, 소주 유해물질 논란 속으로”

http://ilyosisa.co.kr/detail.php?number=9933&thread=22r04
44. 의학의 진실. p353.

제Ⅳ부. 석유를 마시게 하라. 녹색혁명

1장. 식량장악

1. 파괴의 씨앗.p140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p30.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p108~109.
2. 화폐전쟁2.p490
3. 몬산토.p487, 마니 로비크 로벵 지음, 이선혜 옮김, 이레 2009년 11월 발행.
4. 인간 없는 세상.p184, 앨런 와이즈먼 지음, 이한중 옮김, 랜덤하우스 2009년 6월 발행.
5. 파괴의 씨앗.p145
6. 잡식동물의 딜레마.p62
7. 중앙일보, 2010년 7월 1일, "주류 발암성 물질 기준 마련한다." 통섭.p166
8. 100년 동안의 거짓말.p37,128
9.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p61, 로저 서로우 외 지음, 에이지21 2010년 7월 발행
10.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p64
11.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97
충청타임스. 2011년 1월 6일. 우래제(보은 회인 중 교사) "세계는 포성없는 조용한 종자 전쟁 중"
12. 괴짜생태학.p109,255. 브라이언 클레그 지음, 김승욱옮김,웅진지식하우스 2010년 발행.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p270~271,
13. 파괴의 씨앗.p152
14. 식탁을 엎어라.p151, 박중곤 지음, 아라크네 2010년 8월 발행.
15. 100년 동안의 거짓말.p122, 235
http://www.karisalt.com/board.asp?part=view&code=3&idx=764
16. 괴짜생태학.p137, 음식혁명.p337,
17. 괴짜생태학.p125. 네추럴리 데인저러스. p228~230.
18.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p335~336.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p129,130.
19.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p275. 한겨레신문, 2006년 6월 27일, 박민희 기자 "옥수수 밭에서 기름 캐자. 열풍". 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p189.
20. 괴짜생태학.p122~125
21.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p409~410
22. 그 많던 살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p181~187.

2장. 녹색혁명의 허상

1. 벌거벗은 원숭이에서 슈퍼맨으로.p229, 데이비드 스즈키·홀리 드레슬 지음, 한경희 옮김, 검둥소 2009년 9월 발행.
2. 벌거벗은 원숭이에서.p249. 음식의 종말.p206~207. 녹색의 상상력. p124, 박병상 지음, 달팽이 2006년 2월 발행.

3. 몬산토.p491, 발가벗은 원숭이에서.p503
4. 희망의 밥상.p81, 제인 구달 외 지음, 김은영 옮김, 사이언스 북 스 2009년 10월 발행.
5. 식품전쟁.p159, 팀 랭 지음, 박중곤 옮김, 아리 2007년 1월 발행. 환경위기의 진실.p88.
6. 인간 없는 세상.p216, http://duem.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2
7. 마이클 폴란의 행복한 밥상.p142, 마이클 폴란 지음, 조윤정 옮김, 다른 세상 2009년 8월 발행.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p238, 브루스터 난 지음, 안진환 옮김, 시대의 창 2009년 9월 발행. 미국 의학계가 감춘 진실. p21.
8. 인간 없는 세상.p218
9. 마이클 폴란의 행복한 밥상.p147,151. 식탁의 배신. p98,103. 매거진 홈, 이코노미스트, 2009년 9월 1일, 박치완 경희성신한의원 원장, "토양 미네랄이 장수 결정 짓는다."
10. 잡식동물의 딜레마.p195
11. 100년 동안의 거짓말.p117~118
12. 음식혁명. p399.
13. 벌거벗은 원숭이에서 슈퍼맨으로. p313.
14. 잡식동물의 딜레마.p156.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p410, 음식혁명.p369, 죽음의 밥상. p326,359.
15. 잡식동물의 딜레마.p98
16. 잡식동물의 딜레마.p343. 음식의 종말.p163. 100년 동안의 거짓말. p224~226. 몸을 살리는 의학, 몸을 죽이는 의학, p129, 윤승일 지음, 북라인 2010년 10월 발행.
17. http://rd.dcic.co.kr/data/dairy/sayang/sayang_19.thtml
http://www.nonghyup.com/Search/Search.aspx?Type=&search_na=%bc%ba%c0%e5%c8%a3%b8%a3%b8%f3
18. 행복한 밥상.p123
19.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p372~375, 하랄트 슈만·크리스티아네 그레페 지음, 김호균 옮김, 영림카디널 2010년 1월 발행.
20. 괴짜생태학.p286
21.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p59,72,103,105. 식량주권.p146, 피터 M. 로셋 지음, 김영배 옮김, 시대의 창 2008년 11월 발행.
22. 음식혁명.p373, 식량주권.p75~77.
23.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p106, 식량주권.p86 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p106, 월든 벨로 지음, 김기근 옮김, 더숲2010년 3월 발행.
24. http://cafe.daum.net/moonkan/AJMA/3262?docid=AZtF|AJMA|3262|20090522171433&q=%BF%EC%B8%AE%B3%AA%B6%F3%20%B3%F3%BE%F7%BA%B8%C1%B6%B1%DD
25. 벌거벗은 원숭이에서 슈퍼맨으로.p505
26.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p423

3장. 인류를 상대로 한 생체실험

1. 생각의 역사2.p548
2. 파괴의 씨앗.p185

3. 파괴의 씨앗.p317
연합뉴스, 1999년 10월 17일, 이종원 특파원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피임”
Robin Mckie "GM Corn Set to Stop Man Spreading His Seed." The Observer 2001.9.9.
4. 파괴의 씨앗.p318
5. 행복한 밥상.p79 http://forhbd.net/718
6. 행복한 밥상.p35,81. 100년 동안의 거짓말.p164~170 괴짜생태학. p256. 생각의 함정. p53. 미국 의학계가 감춘 진실. p20~21.
7. 통섭.p88,115.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p125.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p71.
8. 생명공학, 판도라 상자의 열쇠인가?.p25
9. 파괴의 씨앗.p188
10. 파괴의 씨앗.p189
11. 이기적 유전자.p433, 리처드 도킨스 지음, 홍영남 옮김, 을유문화사 2009년 4월 발행.
12. 괴짜생태학.p56
13. http://www.jikji.org/%ED%8C%8C%EB%A7%88%EA%B2%9F%EB%8F%88 음식혁명.
14. Financial Times 2005년 1월 8일, by Jonathan Birchall "Monsanto to Settle Bribery Charges"
15. 죽음의 밥상. p296 이하, 피터 싱어 외 지음, 함규진 옮김, 산책자 2010년 발행.
16. 벌거벗은 원숭이에서 슈퍼맨으로.p77~90. 음식혁명. p151~152.
http://blog.naver.com/ani4me/40091198714
17. 괴짜생태학.p57
18. http://blog.naver.com/bksun1004/115782855 내추럴리 데이저러스.p102~103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p37,
음식혁명.p365, 존 로빈스 지음, 안의정 옮김, 시공사 2009년 1월 발행.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p25. 환경위기의 진실. p78~88. 독소. p279.
19. http://blog.daum.net/kofst/3054967 , 음식혁명.p386.
벌거벗은 원숭이에서 슈퍼맨으로.p254.
20. 벌거벗은 원숭이에서 슈퍼맨으로.p252
21. 파괴의 씨앗.p193, 벌거벗은 원숭이에서 슈퍼맨으로.p254, 위험한 저녁식사.p257
22. 진짜과학 vs 가짜과학. p40,295,335~339,
23. 파괴의 씨앗.p203
24. http://blog.daum.net/psp727/7713908
http://www.kormedi.com/news/health_report/1184052_2914.html